

남양주시의 절개지명

2011. 4.

남양주향토사연구회 편



남양주시의 전래시명

양토사연구회 편

발 간 사



아름다운 자연이 다르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양주시도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 또한 중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뛰어놀던 뒷동산 울창구치고 물고기 잡던 실개천이 모두가 경제 발전으로 인해 아파트, 편의 시설 등으로 바뀌었고 과거에 불리던 지명 마저 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남양주시의 전례지명」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처 알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지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아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금의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들이 훗날 이지역의 양토사를 살피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 전례지명」을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책을 집필하고 발간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양토사 연구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4월 일

남양주문화원장 이 용 복



일러두기

<남양주시의 전래지명>은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기존 고지도의 전래지명을 확인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실측지도에 나타난 고유지명 자료도 수집하였다. 새로 발굴된 남양주 지역 문인들의 문집과 각종 고문서에 나타난 지명 자료의 수집도 함께 이루어졌다.

다음으로는 현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구전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 권성춘 위주의 제보자 심층 조사하였으며, 노인회, 마을회관 위주의 탐방 조사도 병행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토박이 위주의 면접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책은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물지명 등의 순서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정밀 색인을 추가하였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와 유적사진 등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1. 와부읍 (瓦阜邑)

- | | |
|-------------|----|
| 1) 덕소리(德沼里) | 3 |
| 2) 도곡리(陶谷里) | 15 |
| 3) 팔당리(八堂里) | 25 |
| 4) 월문리(月文里) | 26 |
| 5) 을석리(栗石里) | 30 |

2. 진접읍 (鎭接邑)

- | | |
|-------------|----|
| 1) 장현리(長峴里) | 38 |
| 2) 내각리(內閣里) | 41 |
| 3) 내곡리(內谷里) | 46 |
| 4) 연평리(蓮坪里) | 49 |
| 5) 부평리(富坪里) | 53 |
| 6) 팔야리(八夜里) | 59 |
| 7) 진벌리(榛伐里) | 62 |
| 8) 금곡리(金谷里) | 63 |

3. 회도읍 (和道邑)

- | | |
|---------------|----|
| 1) 마석우리(磨石隅里) | 69 |
| 2) 북현리(墨峴里) | 70 |
| 3) 가곡리(嘉谷里) | 71 |
| 4) 구암리(九岩里) | 73 |
| 5) 금남리(琴南里) | 75 |

6) 장현리(倉峴里)	79
7) 답내리(答內里)	82
8) 월산리(月山里)	89
9) 녹촌리(鹿村里)	85
10) 차산리(車山里)	87

4. 진건읍 (眞乾邑)

1) 사릉리(思陵里)	96
2) 해양리(海養里)	99
3) 진관리(眞官里)	101
4) 선월리(新月里)	108
5) 용정리(龍井里)	110
6) 송릉리(松陵里)	116

5. 오남읍 (梧南邑)

1) 양기리(陽地里)	123
2) 팔현리(八賢里)	127
3) 오남리(梧南里)	129

6. 별내면 (別內面)

1) 청학리(靑鶴里)	132
2) 용암리(龍岩里)	138
3) 광전리(廣田里)	140
4) 덕송리(德松里)	144
5) 화십리(花堦里)	152

7. 퇴계원면 (退溪院面)

1) 퇴계원리(退溪院里)	163
---------------------	-----

8. 수동면 (水洞面)

- | | |
|-------------|-----|
| 1) 운수리(雲水里) | 166 |
| 2) 지둔리(芝屯里) | 168 |
| 3) 송천리(松川里) | 170 |
| 4) 수산리(水山里) | 173 |
| 5) 내방리(內坊里) | 176 |
| 6) 외방리(外坊里) | 177 |
| 7) 입석리(立石里) | 179 |

9. 조안면 (鳥安面)

- | | |
|-------------|-----|
| 1) 능내리(陵內里) | 182 |
| 2) 조안리(鳥安里) | 186 |
| 3) 진중리(鎭中里) | 189 |
| 4) 송촌리(松村里) | 192 |
| 5) 삼봉리(三峰里) | 195 |
| 6) 시우리(時雨里) | 197 |

10. 호평동 (好坪洞)

..... 199

11. 평내동 (坪內洞)

..... 206

12. 금곡동 (金谷洞)

..... 212

13. 양정동 (養正洞)

- | | |
|-------------|-----|
| 1) 일패동(一牌洞) | 217 |
| 2) 이패동(二牌洞) | 226 |
| 3) 삼패동(三牌洞) | 231 |

14. 지금동 (芝鎭洞)

- 1) 가운동(加雲洞) 240
- 2) 수석동(水石洞) 244
- 3) 지금동(芝錦洞) 252

15. 도농동 (陶農洞)

..... 255

남양주시 지명 변천 연혁

지금의 남양주시는 본래 1980년 양주(楊州)에서 분리되었다. 그리



2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나 지금의 진접·진건 지역은 양주와는 별도의 지명을 갖고 있었다. 이곳은 고구려시대에는 불의노(骨衣奴)라고 불렸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황양(荒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풍양(豊壤)으로 다시 바뀐다.

양주라는 명칭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인 936년으로 “후백제왕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처음이다. 이후 고려시대에 양주라는 명칭은 지방행정구역 명칭으로 꾸준히 이어온다. 그러나 당시의 양주라는 명칭은 지금의 남양주시 영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양주라는 명칭과 영역이 일치하는 시기는 1410년(태종 10) 양주목으로 승격하고부터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금의 진접·진건 지역은 풍양현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지니면서 양주목의 속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후 풍양이란 명칭은 영·성 조대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풍양현 지역이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갑동, 진발, 진천, 진관 등의 면지명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풍양현 자체는 이때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되면 지금의 남양주시 지역도 양주의 한 부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하여 구리읍(7개 리), 미금읍(10개 리), 별내면(6개 리), 진접면(8개 리), 진건면(9개 리), 수동면(7개 리), 화도면(10개 리), 와부면(11개 리)의 3읍, 6면, 68개 리를 갈라 남양주군이 새로 설치되면서 남양주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하여 와부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3읍 5면이 되었고, 1986년 1월 1일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 1986년에는 조안면과 퇴계원면이 새로 생기고 1989년 1월 1일 미금읍이 시로 승격하여 분리되었다. 같은 해 진접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1991년에는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1. 와부읍 (瓦阜邑)

이 지역은 광주군 초부면으로 봉안, 마현, 조동, 고랑, 진촌, 중리, 송송, 삼봉의 10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고종 32년에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양주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와공면의 읍북, 석실, 덕소, 월곡, 문곡, 도산, 도심 7개 동리와 하도면(下道面)의 시우, 배기, 차산, 백월의 각 일부와 금촌면의 사패리 일부와 광주군 동부면의 팔당리를 병합하여 와공과 초부의 이름을 따서 와부면이라 하여 월곡, 덕소, 월문, 도곡, 팔당, 능내, 조안, 진중, 송촌, 삼봉, 시우의 11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0년 양주군 조례 48호에 의하여 조안출장소를 두고 1980년 4월 1일 법률 제 3169호에 따라 남양주군에 편입되고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었다.

1) 덕소리(德沼里)

이 지역은 대부분 조선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양주군 와공면 지역으로 1914년 4월1일 덕소리의 전부와 석실리 월곡리와 금촌면 사패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덕소리라고 하고 와부면에 편입되었다. 1980년 12월1일 와부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다.

•개집대

점말의 동쪽에 있는 밭의 이름이다. 밭배기가 수월하다 하여 공수 밭이라 불린다.

•굴덕소 [원덕]

둔논의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기차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마

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골이다.

•금대산(金臺山) [금대산(金臺山), 쇠터산·송장산]

둘논의 서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산을 보통 '쇠터산'이라 부르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지'와 같은 옛 문헌에는 모두 금대산(金臺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金臺山'으로 표기한다. 옛날에 금을 캐던 광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산의 이름은 모두 광산과 관련되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장산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옛날에 이산에 송장을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대산고개 [보리고개]

동수고개와 양취다리 사이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덕소리와 도곡리의 경계로 금대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다. 다른 이름으로는 보리고개라고도 한다.

•기둥이벌 [기둥이벌]

덕소저수지의 북서쪽에 있는 들의 이름이다. 덕소에서 가장 큰 들관으로 현재에도 그대로 있다.

•김패물

영종 북쪽에 있는 덕소리의 줄짜기 이름이다.

•덕소 [덕수]

덕소리에 전래를 일컫는 이름이다. 오늘날에 와서 덕소라는 공식적인 리 이름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보통 덕수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살 한강에 큰 꽃이 있어서 덕소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독수리고개 [독실이고개]

덕소리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을석리와 석실 사이에 있는데, 옛날에 양반이 많이 살던 곳이었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이곳으로 수레를 끌고 지나갈 때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양반들이 수레를 들고 지나가게 했다고 해서 독수리고개로 부른다고 전한다. 독실이고개라고도 부른다.

• 돌논

금대산 서북쪽에 있는 논 이름이다. 논에 돌이 많아 물이 잘 빠졌다고 한다.

• 말무더미 [뱅개 - 뽕개]

침말의 서쪽인 덕소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이 마을에 한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묻어 그렇게 한 무덤이 되었다고 하여 말무더미라고도 부른다. 또한 밤나무와 뽕나무가 많다 하여 뽕개라고도 부른다.

• 버락바위

김대울 동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 사개 [세루]

덕소리7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김 박 훈 세 성(姓)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세루'라고 불렀다가, 이후에 모래와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산다고 해서 '사개(沙溪)'로 바뀌게 되었다고 전한다.

• 산신택

덕소리에서 산신택을 지냈던 장소의 이름이다.

• 산지사택

마당바위 남쪽에 있는데 산신택을 지내는 장소의 이름이다. 지금도 1년에 한 번 산신택을 지낸다고 한다.

• 석실 [石室, 적실(賊室)]

덕소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원래 적실이라 불렀으나, 약 300여년전 청음 김삼헌 선생이 이 이름이 도적의 소굴을 의미하는 적실(賊室)로 오해할 염려가 있어 석실로 고치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수석동의 <석실서원묘정비>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석실로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 신촌(新村)

덕소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곳은 을축년 대홍수로 원덕마을이 침수되자,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

6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라는 뜻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안산

석실마을 북서쪽으로 펼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마을의 앞쪽에 있는 산이라서 안산이라고 부른다.

•염줄

사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염줄고개

염줄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예전에 이곳에 짚이 있었다고 전한다.

•원수고개

덕소리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특히 이 고개가 다른 고개보다 넓어가기가 험한 곳이라 하여 이렇게 불린다.

•이터골

말부더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점말

말부더기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풍기를 굶던 곳이다.

•남양주덕소리유물산포지(南楊州德沼里遺物散布地)1, 외부읍 덕소리 산 38-12, 273-6일대

이곳은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면의 구릉 지대에 해당한다. 유물은 경작지에 산포되어 있는데, 경작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남양주덕소리유물산포지(南楊州德沼里遺物散布地)2, 외부읍 덕소리 30-8, 신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릉 지대로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화창석을 띠는 경질 토기와 유백석을 띠는 백자조각이 발견되었다.

•남양주덕소리유물산포지(南楊州德沼里遺物散布地)3, 외부읍 덕소리 1265

입대

덕소역 방항으로 우송그린아파트로 가기 전에 코끼리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이곳의 좌측으로 암석 가공 공장 부근에 밭이 있다. 이 유출산포지는 삼패리 평구마을의 앞산 동쪽 비탈면에 해당된다. 이곳에서는 경질토기편과 자기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덕소나무

옛날에 외부면 덕소리와 광주군 동부면 비사리 간이 한강을 접하고 있어 미사리는 교동상 덕소리를 거쳐지 않고서는 연락을 할 수 없어 외부면 덕소리에서 배를 만들어 교동을 도모한 것이 지금의 덕소나무가 됐다.

•김광옥묘(金光煜墓), 외부읍 덕소리 산5

김광옥(1580년(선조 13)~1656년(효종 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이(晦而), 호는 죽소(竹所)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형조 참판 상운(尙憲)의 아들이다. 1606년(선조39)진사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중앙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배속되었다가 김일대 교·상교를 거쳐 별조좌랑·정언·부수관 등을 역임하였다. 황해도관찰사와 병조참의가 되었으며 효종때에 우참찬에 올랐다. 저서로 「죽소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묘는 전주이씨와 함장묘로 원형의 불분 앞에 1999년에 새운 신묘표와 혼유석이 있으며 하단에는 상석과 망주석, 문인석이 각 1쌍이 있고, 상석의 좌측에는 구묘표가 파손된 채 쓰러져 있다.

•김극효묘(金克孝墓), 외부읍 덕소리 산5

김극효(1542~1618)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민(希閔), 호는 사미당(四味堂), 본관은 안동이며 군수 생해의 아들이다. 안동 김씨의 증시조로서, 나란히 정승에 오른 김상헌과 김상헌의 부친이다. 묘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김상헌의 묘 우측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소에는 묘표, 혼유석, 상석, 계책석, 향로석, 망주석 및 문인석의 석물이 있다. 비문은 1630년(인조 8)에 새운 것이다.

•김극효신도비(金克孝神道碑), 외부읍 덕소리 산5

8. 농원주치의 전래지명

이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김광찬의 묘갈과 나란히 서북향하고 있다. 비는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복연을 조각하고 안상문과 과도문을 시방에 조각하였다. 이수는 전·후2면에 걸쳐 구름 문양에 받가락이 4개인 두 마리의 용이 어의주를 다루는 모습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는데 턱 밑의 수문이 매우 길게 조각되어 있다.

•김생해묘및묘갈(金生海墓및墓碣), 외부읍 덕소리 산5

김생해(1512~1668)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촌(之渾)이다. 1637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신원군수를 역임하였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김생해는 김번의 아들이며, 극효, 태효, 원효, 선효의 아버지이다. 묘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김생현 묘 바로 위에 위치하여 남서향하고 있다. 묘소에는 묘표, 상석, 혼유석, 장대석, 향토석, 한 쌍의 방주석 및 문인석의 석물이 있다. 원형불분은 정경부인 완산이씨와 함갈묘이다. 묘표의 글씨는 김수증이 짓고 썼다.

•김광찬묘및묘갈(金光燦墓및墓碣), 외부읍 덕소리 산5

김광찬(1597~166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희(思暉), 호는 운수거사(雲水居士)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부지인 상관(尙寬)의 둘째 아들이다. 묘는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문중 묘역에서 상현과 극효의 묘 중간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바로 정면에는 김극효의 묘갈과 신도비가 있다. 본래 이 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1998년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묘소에는 혼유석·계배석·상석·사각 향토석·방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고, 불분 좌측에 묘표가 있다. 묘갈은 묘역입구에 동남향하여 김극효의 신도비와 5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다.

•김상헌묘및묘비(金尙憲墓및墓碑), 외부읍 덕소리 산5, 경기도기념물제100호

김상헌(1570~165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 또는 석실산인(石室山人)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돈녕부 도감을 지낸 극효의 아들이며, 우의정 상용의 동생이다. 묘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문중 묘역에 남서향하고 있다. 묘

소에는 묘표 혼유석, 상석 계제석, 향토석, 문인석 1쌍의 석물이 있다. 묘비는 봉분 앞 좌측에 위치하며 동남향하고 있다.

•김번묘및묘갈(金璣墓및墓碣), 외부읍 덕소리 산5

김번(1479-154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문서(文瑞)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영수(永錄)이다. 묘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문중 묘역에 정남향하고 있다. 정무원 남양홍씨의 합장묘로 묘역은 표주박형이라 하여 우리나라 8대명당중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묘소에는 묘표와 혼유석, 장대석, 상석, 향토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의 석물이 있다. 봉분의 좌측에는 원래의 묘갈이 서향하고 있고, 우측에는 근래에 원 묘갈과 같은 형태로 새로 세운 묘갈이 동향하여 마주보고 있다.

•이순묘(李諱墓), 외부읍 덕소리 산12-13

이순(?-1480)은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제7자로 어머니는 노비이다. 묘는 덕소리 푸시개 유치원의 왼쪽으로 우회전하여 약 70m 정도 가면 넓은 구릉 상에 위치하고 있다. 묘의 좌측의 구릉에는 아수터가 있다. 봉분 앞에는 묘표와 혼유석, 상석과 문인석 1쌍이 남아 있다.

•이맹현묘(李孟賢墓), 외부읍 덕소리 산45-6, 경기도기념물 제114호

이맹현(1436-1467)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성(師聲), 호는 근재(親齋)이며 본관은 제령(載寧)이다. 호조참판 개지(介智)의 아들이다. 묘역은 외부읍 덕소리 금대산 중턱에 위치하며, 1489(선종 18)에 조성되었다. 묘소는 부인 과평윤씨와 쌍분으로 묘 앞은 10개의 장대석을 횡으로 쌓아 단을 만들었다. 봉분 앞에는 각각 묘표가 있다.

•대산재(臺山齋), 외부읍 덕소리 산45-5, 산45-6, 973, 972-2

대산재는 외부읍 도곡리에 있으며 이맹현 제각이다.

•남양주덕소리유적(南楊州德泗里遺蹟), 외부읍 덕소리 43-6, 43-5일대

이곳은 덕소초등학교 신축부지이다. 지표조사 결과 수원대학교 박

10 남양주시의 권리지명

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배사유구와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 남양주덕소리스터니우(南楊州德沼里), 외부읍 덕소리 462-2, 경기남양주32
덕소초등학교 뒷편에 있는 덕소리 사계부락 노인 복지 회관 앞에 이 묘호수가 있다.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고풍 발달하여 원정형의 수관을 이루고 있으며 가지가 바다으로 치켜 있어 좁은 도로를 그늘로 가득 채우고 있다. 수세가 양호하고 하루에 평상과 의자 등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다. 수령 800년, 높이 15m, 흉고둘레 3.8m이다.

- 도산정사지(鰲山精舍址), 외부읍 덕소리 349, 산4
도산정사는 외부읍 덕소리 안동김씨 선산이 있는 평릉 김상헌의 묘소 아래에 있었던 정사이다. 1668년(현종 9)에 김수종·김수흥·김수형 등이 그의 부친인 김광찬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유암 송시열 선생의 <도산정사시>에는 '도산'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지명을 본따 지은 것이며, 도헌명의 <새국도(探新圖)>와 열형, 주자의 5원필구시, 김상헌의 영경 등이 모셔있었다고 한다. 현재에는 입구에 세워져있던 위치기와 도산석일려와 고송오유분의 미가 남아 있다.

- 임림묘(任稷墓), 외부읍 덕소리 산3
이곳은 풍천임씨 묘역으로 희실마을의 동쪽에 있다. 이곳에는 남북으로 뻗은 구불 산에 임달, 임명신, 임유손의 순으로 남동향하여 있다. 임량(1493(성종24)~1537(중종32))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숙간(叔幹)이며 사헌부감찰을 지낸 유은(由蓮)의 아들이다. 1505년(중종 원년)친사에 오르고 1522년(중종17)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대사성, 남원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임량묘는 부인 부인마씨와 합장묘로 성담에는 원명의 봉분과 1989년에 세운 묘표와 존유석, 상석이 있으며, 하단에는 향로석과 문인석 1쌍이 있다.

- 임명신묘(任命臣墓), 외부읍 덕소리 산3
임명신(153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신경(慎卿), 호는 삼성당(三醒堂)이며, 양의 아들이다. 156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0년 정기로 중사하여 임피현령을 역임하였다. 묘는 안동권씨와 함장묘로, 상단에는 원형의 봉분과 1989년에 세운 묘표와 혼유석, 상석이 있으며, 하단에는 무인석 1쌍이 있다.

•임유손묘(任由孫墓), 와부읍 덕소리 354

임유손은 자세한 행적을 알지 못한다. 묘표에 의하면 자는 사겸(士謙)이고 사헌부감찰을 역임하였다. 묘는 무인 안동권씨와 쌍분이며 사성과 용비를 갖추었고, 상단에는 원형의 쌍분과 묘표, 혼유석, 그리고 최근에 세운 신묘표가 있다.

•영일정씨묘(迎日鄭氏墓), 와부읍 덕소리 산4

안동김씨 묘역은 덕소리 석실마을 끝 소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산재해 있다. 이 묘는 김대효의 묘 좌측에 있다. 비문이 마모되어 무덤 주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묘는 사성과 용비를 갖추고 있으며 상단에는 원형의 봉분과 묘표, 혼유석, 상석이 있으며,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1쌍이 있다. 묘표의 비신 후면에는 음기가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하며 건립연대는 송정무술년(1658)이다.

•김대효묘(金大孝墓), 와부읍 덕소리 산4

이 묘는 계비 완산이씨와 함장묘로 사성과 용비를 갖추었으며, 상단에는 원형의 쌍분과 묘표, 혼유석, 상석이 있고,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문인석이 각 1쌍씩 배치되어 있다. 비신에는 음기는 없으며, 간기만이 있는데 송정 26년(1653)이라 새겨져 있다. 김대효 원배인 광주이씨의 묘는 김대효의 묘 위에 있다.

•송백당유허비(松柏堂遺虛碑), 와부읍 덕소리 산5

송백당유허비는 와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취석바·석실사원 묘정비 등 다른 2기의 비와 동향하여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 가장 우측에 위치한다. 이 비는 김상헌의 8대손인 김문근이 폐허가 된 지 40여년이 된 송백당(청음 김상헌선생의 살았던 집)을 중건하려 하자 여러 사람들이 깊은 해풍이 무살하니 견고한 이를 세워 영구히 전하자고 하였다는 건립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 취석(醉石), 외부읍 덕소리 산5

이 비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의 송백당유허비와 석실서원묘정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1668년(현종 9년)에 세워진 것으로 남양주 지역에 있는 비로는 유일하게 송시열이 짓고 쓴 글씨이다. 중국의 「여산기(廬山記)」에 “도연명이 거처하던 율리에 큰 돌이 있는데, 연명은 술에 취하면 항상 그 돌에 올라가 잠을 잤다. 이로 인해 취석이라 이름 붙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취석비의 앞면에는 좌경 30cm의 ‘醉石’이란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전액으로 도산정사가 있어 이 글을 쓴 내력을 적어 놓고 있다.

• 석실서원묘정비(石室書院廟庭碑), 외부읍 덕소리 산5

이 비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병자호란 시에 참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주장한 형을 김성헌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후학들이 세운 것이다.

석실서원은 수석동에 있는 서원으로 안동김씨의 성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곳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서 훼철되었다. 이후 수석동에 있던 묘정비 등 석물을 현재의 자리에 옮겨놓았다. 글의 내용은 형을 선생이 병자호란시의 오랑캐에 대항한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는 내용이다. 이 비는 1672년(현종 13) 세워진 것으로 가로 159cm, 세로 131cm의 사대석 위에 비좌 상부에 복연 및 사면에 안상문과 괴도문을 조각하였고, 비신과 관라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 도산석실려(陶山石室閣), 외부읍 덕소리 산5

이 문석은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원래는 도산석실 입구에 있었던 것으로 출입처의 기능을 하였다. “도산석실려”는 병사의 옥호로 문석에는 도산정사 또는 도산재사로 표기되고 있다. 이것은 가로 67cm, 세로 52cm의 대석에 사각기둥 모양의 비신으로 되어 있고, 비의 전면에 “陶山石室閣”라 써 있다.

• 고송오류문(偶松五柳門), 외부읍 덕소리 산5

이 고송오류문은 덕소리 석실마을에 있다. 고송오류문은 도산정사

의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2기 중 1기로 중간부분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동안 분실되었던 것을 1990년 1월에 찾아낸 것이다.

•김창협묘(金昌協墓), 와부음 덕소리 산5

김창협(1651~1708)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좌의정 상헌의 증손자이며, 아버지는 영의정인 수항이다. 영의정을 지낸 창집의 아우이며, 이단상(李端相)의 사위이다. 묘는 석실서원 표정비 바로 좌측구릉에 있으며 연안이씨와 함장묘이다. 묘소에는 상석, 무너 없는 사각향로석, 강대석, 석주 하단부에 복연 및 상단부에 양화를 조각한 망주석이 있다. 건립연대는 1711년(숙종 37)이다.

•김광환묘(金光煥墓), 와부음 덕소리 산6

김광환(1579(선조12)~1642(인조20))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숙(晦叔), 상헌의 아들로 돈녕부도정을 지냈다. 묘는 김수증의 묘 뒤에 있다. 원형의 봉분에 묘표와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묘표는 원수형의 비신으로 음기는 없으며, 임자년(1672)에 새웠다.

•김수증묘(金壽增墓), 와부음 덕소리 산6

김수증(1624~1701)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언지(延之), 호는 곡운(谷雲), 본관은 안동이다. 할아버지는 상헌, 아버지는 장관, 영의정 수항과 수항이 동생이다. 저서로는 <곡운집(谷雲集)>이 있다. 묘는 덕소리 석실마을 끝 소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향하여 평한 묘 아래에 경부인 창녕조씨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소에는 묘표·혼유석·상석·계제석·향로석·망주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김광형묘및묘갈(金光淸墓및墓碣), 와부음 덕소리 산6

김광형(1577(선조1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백(晦伯)이고 승정원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묘는 김상헌의 묘 좌측에 있으며 부인 완산이씨의 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갈은 우측에 세워져 있는데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기대로 이루어져 있고 비문은 육안으로 판독이 어려운 상태이다.

1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김상용묘(金尙容墓), 외부읍 덕소리 산6, 경기도기념물제99호

김상용(1561~163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택(景澤), 호는 선원(仙源)·풍계(風溪), 본관은 안동이다. 즉효의 아들이며, 영의정을 지낸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묘는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입구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남향하여 있다. 묘소에는 묘표,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의 1쌍의 석물이 있다.

•김상용신도비(金尙容神道碑), 외부읍 덕소리 304-4

이 신도비는 묘역 입구 우측에 남서향하여 정면으로 김상용 선생 정문인 충효문을 바라보고 있다. 건립연대는 1647년(인조 25)이다.

•김상용충효문(金尙容忠孝門), 외부읍 덕소리 산6

이 충효문은 외부읍 덕소리 석실마을 안동김씨 묘역 입구에 동향하여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충효문은 근래에 새로 세운 것으로 기둥이나 돌은 옛 것을 그대로 쓴 듯하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받배지붕형태로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중간에 붉은 글씨로 현관을 세운 대신에 벽에 현판을 세웠다. 정문의 글씨는 건흥원 선생이 있다.

•임윤신묘(任允臣墓), 외부읍 덕소리 산15

임윤신(?~1568)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강룡(康龍)이고 본관은 쑤진이다. 할아버지는 유순이다. 형사문과에 급제하여 선한 대사간, 중추전 부제학,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묘는 안동김씨 묘역 2가 있는 도로 왼쪽의 구릉에 있다. 부인 남양홍씨와 쌍분으로 동향하고 있으며, 1983년에 세운 묘표가 있다.

•김세민묘(金世敏墓), 외부읍 덕소리 산39-6

김세민(1402~1486)은 조선 초기 문신이자 경종의 부마로 자는 백강(伯恭), 시호는 양평(良平), 본관은 경주이다. 계실 유수 휴경(休敬)의 아들로 경종의 2여 숙신옹주를 아내로 삼아 1418년(태종 18)에 부지근녕부사가 되어 내외직을 역임하고 관동녕부사에 이르렀다. 묘는 외부읍 덕소리 도오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여 숙신옹주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소에는 묘표, 상석, 계제석, 문인석의 석물

이 있다.

•김겸묘(金謙墓), 외부읍 역사리 산39-13

김겸(1377-1425)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자는 익보(益甫), 시호는 경후(景厚). 본관은 경주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형조전서, 한성부윤,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돈녕으로 경기감사, 개성유수 등을 지냈다. 증직으로 승정대부 의정부우한성을 제수 받았다. 묘는 외부읍 역사리에 김세민 묘 좌측에 정숙부인 서흥김씨와 합장으로 되어 있다. 묘소에는 묘표, 상석, 계책석, 향토석, 방주석, 동자석의 석물이 있다.

•오목내다리

외부읍과 삼례동의 경계에 있는 다리의 이름이다.

•우시장 (장터거리)

말무더니 남쪽에 있는 장터의 이름이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소를 팔고 샀는데 아주 유명했다고 한다. 장터였기 때문에 '장터거리'로 불리지만, 그 중에서도 '우시장'이 유명해서 우시장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2) 도곡리(陶谷里) [도굴, 도곡]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외공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4월1일 도산리와 도심리를 병합하여 도곡리라고 하고 외부면에 소속되었다. 1980년 12월1일 외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도곡리는 글자 그대로 기와 혹은 그릇을 굽던 굴짜기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갑산

내봉재 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16 남영주사의 원래지명

•림밭 [임나무배기]

군법 서쪽에 있는 논밭의 이름이다. 임나무가 있어서 '임나무배기'라고 한다.

•정포 [경석개]

원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냇가의 바위가 강물에 비치는 동네라고 해서 정포라고 부르고 경석개라고도 한다.

•골우물

상리의 남쪽에 있는 우물의 이름이다. 물 안에 우물이 있다고 하여 '골우물'이라고 불린다.

•구리자골

상심계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군법

도곡리에 있는 논밭의 이름이다. 예전에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라 하여 '군법'이라고 불린다.

•궁말 [꼭포말]

박사고개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곳에 궁터가 있었기 때문에 '궁말'이라고 부르며, 도곡2리와 문봉을 합하여 모두 궁말이라고 부른다. 꼭포가 있었다고 해서 '꼭포말'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꼭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므재골

봉바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재'은 '그므재골'과 '한그므재골'로 나뉜다.

•기와골

죽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이곳에서 기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와골이라고 부른다.

•간동이

문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골짜기의 전이키 길여서 이렇게 부른다.

•긴배미

도심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골짜기가 깊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까치재

안산의 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남바위

신양촌의 남서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방한구인 남바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내동(內洞) (안골, 아랫말)

산리와 자운동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그만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고 해서 '안골' 또는 이의 한자식 표현인 내동으로 부른다.

•노름바위

근골 동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이 바위 위에서 노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달갈봉

벌마당 동쪽에 있는 봉우리의 이름이다.

•담이모퉁이 [지락논밭]

지락기 동북쪽에 있는 모퉁이의 이름이다.

•도심리 (도경, 웃말)

칠길 동쪽 도곡5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절그릇을 만들던 곳이라 해서 도산리라 칭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도심과 경포 두 마을을 합쳐 도경이라 하였다.

•동막

군빌 남쪽 도곡5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다른 마을들과 밀리 동떨어져 있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또한 마을 동쪽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여 '동막'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18 남양주시의 관여지명

•동자골

성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골짜기에 있는 무덤 앞에 동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옛날에 이 무덤 주인이 장가도 가지 않에 비술을 쥘기 때문에 동자석을 세웠다고 전한다.

•원고개

사시나무골 동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주변 지형이 매우 험해서 이렇게 부른다.

•두므샘이

골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말림 [거북이등]

경포 북서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예전에 왕의 스승이 죽어 상이 될 달고 가는데, 그 명칭(銘旌)이 이상으로 날아와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이곳에 땅을 사서 산소를 만들었는데, 훗날 이장을 하려고 산소를 파보니 시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말림 이외에도 거북이등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산 모양이 거북이 모양이어서 이렇게 부른다. 풍수학상으로 이 산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비자를 세워 거북이가 지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대봉재

조조봉 북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무내미고개

군일 동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에 어떤 길 밑에 부자가 살았는데, 죽어 와도 시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죽이 말하기를 "물이 흐르도록 땅을 파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하여 땅을 파다간, 산에서 피가 나와 그만 두었다. 이때 물이 닳으려다 밟았다고 하여 '무내미고개'라고 불린다고 한다.

•분우골 [문우골]

도계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물이 많아 사서 '분우골'이라고 불

린다고 한다. 또한 글방이 많고 글을 배우던 사람이 많았던 곳이어서 '문우골'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박작고개

긴동이 북서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지개를 지고 이 고개를 내려올 때에는 힘이 든다. 즉 '박하다'하여 박작고개라고 불린다고 한다.

•상리(上里)

장동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도곡리의 제일 윗마을이라 하여 상리라 한다.

•새재고개

예봉산과 직감산 사이에 있는 고개라 하여 새재고개라 한다.

•신암촌

경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예전에 한 줄교 계곡의 교인들이 모여살면서 생긴 마을이라 해서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모두 이거하여 이름만 남아 있다.

•어룡(魚龍)

문봉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에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이렇게 부른다.

•우묵배미 (쑥배미)

지래기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지렁이 우묵하게 들어갔다고 하여 우묵배미, 지렁이 쑥 들어갔다고 해서 쑥배미라고 한다.

•자운동 [윗자운동]

외막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운봉산과 예봉산 아래에 있어서 항상 구름이 끼어 있어 자운이라 한다.

•조조봉(朝照峰) [조희봉(朝熙峰, 332m)]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와 월분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의 이름이다. 이 산은 아침 햇빛이 비치면 그 부근의 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다 하여 '조희봉(朝熙峰)'이라 했는데, 현재는 '조조봉(朝照

20 남양주시의 문화지명

해)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조조봉의 주봉은 갑산(346)이며, 정상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능선에 높이 324.4m의 봉우리가 있고 여기서 다시 서남으로 뻗어 높이 332m봉인 조조봉으로 연결된다. 최근 도곡리에서는 이 능선에 등산안내판을 걸어놓고 봉우리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갑산 정상은 여인봉으로, 324.4m 봉은 두봉으로, 조조봉은 비봉, 잣봉은 유두봉 등으로 여인의 신체에 비유한 것이다.

•지래기

경포 동석쪽에 있는 눈밭의 이름이다. 땅이 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한내말 (한남말)

풍수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남양주도곡리동굴유적(南楊州陶谷里洞窟遺蹟) 외부읍 도곡리 산55-1

하천이 흐르는 금대산의 남서 비탈면에 동굴 2개가 있으며 동굴의 좌측은 철도가 지나가고 서쪽으로 신안아파트가 보인다. 동굴 규암으로 된 암석을 파서 만들었으며 동굴에서 나온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2002년 광역조사에서는 한국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인자는 총파실형 벽개를 발견하였다.

•남양주도곡리유물산포지(南楊州陶谷里遺物散布地)1, 외부읍 도곡리 887-7, 859, 887-6일대

아용마루지 사거리의 좌측 해발 65.7m의 저평한 능선 부근이 유물산포지이다. 해발 40m 저점부터 요역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아래 구릉 밑단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유물로는 도기와 토기편들, 그리고 조선시대 백자편이 다수 확인된다. 주변에는 밭무덤이라고 전해 오는 언덕도 있고 무덤의 석축도 일부 노출되어 있다.

•남양주도곡리유물산포지(南楊州陶谷里遺物散布地)2, 외부읍 도곡리 257, 270, 268일대

덕소중학교를 지나 아용마을길로 올라가면 직감산 서북쪽에 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유물산포지가 나온다. 산포지의 우측에는 능장이며

밭의 북에는 지석묘 석제로 보이는 암석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 토기편, 자기편 등을 발견하였다.

•박기흥묘(朴可興墓), 와부읍 도곡리 산31

박기흥(1347년(충목왕 3)~1427년(세종 9),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평원부위군(平原府院君) 천상(天祥)의 아들이며, 부인은 도침의한성사 정을보의 딸이다. 묘는 도곡리 안골의 박중선 묘역 제일 위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다. 묘역은 흙으로 할개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돌로 꼭장을 만들었다. 돌분 앞에는 2기의 묘비가 있는데 우측에는 새것으로 비좌에 비신 윗두엄이 있다.

•박중선묘(朴仲善墓), 와부읍 도곡리 산31

박중선(1435~1481)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자는 자숙(子淑), 시호는 소양(昭襄)이며 본관은 순천이다. 사돈남부부사 박거소의 아들이며, 어머니 심씨는 곧 소헌왕후의 아우이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마을 입구의 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부인 묘와 앞뒤로 나란히 있다. 묘소에는 두 개의 상석, 세세석, 향토석,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박중선신도비(朴仲善神道碑), 와부읍 도곡리 산31

신도비는 묘의 좌측에 서향하여 있는데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구름 문양을 앞뒤로 새긴 관석을 갖추고 있다. 비의 건립연대는 1480년(성종 21)이다.

•박문효묘(朴文孝墓), 와부읍 도곡리 산31

박문효(1568~1593)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백엄(百嚴)으로, 도승지 석명(錫命)의 5대손이고 원종의 손이며, 운의 아들이다. 1590년 음보로 증요서 직장이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개성 송악산에서 왜군과 전투 시 전사하였다. 묘는 박중선의 묘 아래에 있으며, 남향으로 상단에는 원형의 돌분과 구묘표, 상석, 그리고 1980년에 세운 신묘표가 있으며, 하단에는 향토석, 문인석 1쌍이 있다.

22 낙원주사의 경내지명

•박원종묘(朴元宗墓), 외부읍 도곡리 신31, 경기도기념물 제170호

박원종(1467-1510)은 조선 전기의 부신으로 자는 백윤(伯胤), 시호는 무열(武烈)로 본관은 순천이다. 적기과리공신 판공추부사 증 선(伸基)의 아들이다.

묘는 외부읍 도곡리 안골 마을입구의 노모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남동향하여 있다. 묘소에는 묘표·상석·향토석 방주석, 장명등문 인석의 석물이 있다. 묘표는 화강암 세질의 미카와 내리석 세질의 비신 율두형으로 되어 있다.

•박원종신도비(朴元宗神道碑), 외부읍 도곡리 신31

신도비는 총 길이 325cm로 묘역 입구에 남서향하고 있다. 백색화강암 세질의 장방형 비체와 백색대리석으로 일석인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있다. 건립연대는 1511년(중종 6)이다.

•박원종정자터(朴元宗), 외부읍 도곡리 571-2, 571일대

박원종 상자 터는 외부읍 도곡리 어룡마을 코뚜레식당 앞 개천 변으로 추정된다. 과거 이 식당 터가 궁터로 불렸고 입지상 정자가 있을 만한 곳이다. 과거 식당 건물 흔적 지 다수의 창기화련과 석재 등이 노출되었었다고 한다.

•박운묘(朴雲墓), 외부읍 도곡리 신31

박운(1483-1562)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자는 경숙(慶淑), 호는 용암(龍巖) 또는 운암(雲巖)이며 본관은 순천이다. 원종의 아들이다.

묘는 박원종의 묘 아래에 남동향하고 있으며, 향부인 평산신씨와의 쌍문이다. 묘는 후면에 흙으로 둔비출 팔아 관개를 대신하고 있다. 묘소에는 묘표, 상석, 향토석, 방주석, 문인석의 석물이 있다. 묘표는 우측 문인석 근처에 새로 만들었는데, 미카와 오석의 비신 및 관석형태를 갖추고 있다.

•세덕사(世德祠), 외부읍 도곡리 820

세덕사는 박원종을 모시는 사당으로 박원종 묘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을 따라 50m의 거리에 있다. 사당은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

지붕 형태이나 많이 퇴락한 상태이다.

•도산재(陶山齋), 와부읍 도곡리 820, 819-3

도산재는 도곡리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는데 바로 뒤에는 새역사가 있다. 평면 형태는 일반 가정집 형태의 'ㄴ'자 집으로 가운데 현관이 달려 있다.

•이인교효자정문(李仁敎孝子旌門), 와부읍 도곡리 964-2

이인교 효자정문은 도곡리 안골로 넘어가는 소로변에 남향하여 있다. 이인교의 효상을 기리며 1891년에 예조에서 도심동에 효자정문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전쟁에 정문이 소실되어 그 자리에 한 칸을 모방하여 세웠다가 1997년에 다시 정자각을 세웠다. 정면1칸, 측면1칸의 8작 지붕 비각 내에는 1986년에 세운 비가 있는데 비좌에 오석의 미선 및 팔자자랑형태의 옥개석형이다.

•흥완군이정응묘(興完君李暹應墓), 와부읍 도곡리 산97-1

흥완군 이정응은 조선 후가의 정치가이자 왕족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형이다. 묘는 와부읍 도곡리 자운마을 소로변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여 중정정부인 대구씨, 정경부인 순천박씨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황개를 갖추고 있고 혼유석·상하·석사각 향토석, 명주석, 장명등의 석물이 있다. 봉분 좌측에 묘갈이 있는데, 비문은 신응조(申應朝)가 짓고 이재완(李載完)이 썼는데 건립연대는 1949년이다.

•백조이해선묘및추모비(白鳥李海善墓및追慕碑), 와부읍 도곡리 18-2

이해선(1905~1983)은 근대 사진가로서 호는 백조(白鳥),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1930년 일본동경예술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를 창립하였다. 묘는 도곡리 자운마을의 소로와 인접한 구릉에 남서향하여 있다. 바로 위에는 흥완군 이정응의 묘가 있다. 묘역은 단출하여 상석·명주석·향로석만을 갖추고 있다. 묘역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와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서 1988년 10월 30일 세운 추모비가 있다.

2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 신민신씨묘(信緝辛氏墓), 외부읍 도곡리 산41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5호

신민신씨는 태종의 후궁으로, 함녕궁 이인과 곤녕궁 이경은 낳았다. 묘는 도곡리 도실리마을 일구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있다. 봉분 앞에는 고려양식의 표표가 있는데 비좌·비신과 상부기 일석인 연화형이다. 1443년(세종 23)에 세워진 것이다.

- 이세백묘(李世白墓), 외부읍 도곡리 산73

이세백(1635~170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경(仲慶), 호는 추사(葦沙) 또는 북해(北溪)로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본관은 용인이다. 목사 청학(�桴岳)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광천(光遷)의 딸이다. 묘는 외부읍 도곡리 어룡마을의 논 한가운데에 정서편하여 필경부인 영일정씨와 필경묘로 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혼유석·2개의 고석을 받친 상석·제석·지사각 향로석·인상문과 알화를 장식한 방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 이세백신도비(李世白神道碑), 외부읍 도곡리 산60

신도비는 묘와 남북으로 130m의 거리를 두고 과수원 안에 북향하여 있다. 비신은 백색대리석으로 표면이 반들반들하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반공부사매순동충혼비(反共副士裴順童忠魂碑), 외부읍 도곡리 016-3

반공부사 매순동 충혼비는 도곡리 덕소중학교 좌측 고갯길에 서향하여 있다. 방형 백색화강암 기단위에 비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높이 241cm의 직방형 백색대리석 비신이 세워져 있다. 기단석의 전면에는 맑은 화강암 판석에 매순동의 약력이 음각되어 있다.

- 미제25사단한강도하기념비(美第25師團漢江渡河記念碑), 외부읍 도곡리 484-2

이 기념비는 외부읍 도곡리 494번지 라미레스호텔 앞에 도로와 인접하여 동향하고 있다. 1951년 3월 7일 중공군에 의해 침략된 수도 서울을 재탈환할 때에 미제25사단이 제일 먼저 한강도하작전을 감행하여 서울 재탈환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고, 작전 당시

복습을 마친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원래는 한강도하 지점인 현 남양주시 향도사료관 안에 1986년 3월 7일에 세웠으나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3) 팔당리(八堂里) [바다나무,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동부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양주군 와부면에 소속되었다. 1980년 12월 1일 와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남가골 [남안골]

방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이곳에 남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남가골로 불린다고 한다.

•말바위

조계봉 동남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강과 길 옆의 산쪽에 있던 바위로 모양이 말처럼 생겼기 때문에 부르게 된 것이다.

•방가골

쇠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이곳에 방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고 한다.

•팔당 [바대이, 바다나무,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

본래 한강가의 넓은 나무이므로 바다나무, 바다이, 바대이, 바당이 또는 팔당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런데 팔당 마당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강의 양쪽 산세가 험준하고 수려하여 팔선녀가 내려와 놀던 자리가 여덟 곳이 나 있고 이후 그 자리에 여덟 개의 당을 지어 놓았다고 해서 팔당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팔선녀를 낳았기 때문에, 또는 강이 내와 비슷하게 있었는데 양쪽으로 난 나무가 팔자(八字)처럼 쓰러져서 팔당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용이 되어 올라가려는 것을 여자가 파서 부정을 타서 강으로 떨어져 어우기가 되었다는

26 남양주시의 천래지명

전설도 전한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바닷이라고 불렀고, 그후 팔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남양주팔당리오층십가터숫거리, 외부읍 팔당리 266-6

팔당댐 바로 직전 도로 왼쪽 예봉산 아래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팔당2리 살판당 마을이다. 마을 뒤 예봉산 아래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위하는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입구 구도보가에 '호수정'이란 용석침이 있는데 이 용석침 위쪽 장독대에 터숫거리가 모셔져 있다.

•남양주팔당리암석군(南楊州八堂里巖石群), 외부읍 팔당리 138-1, 136일대

상판마을에 들어가면 예봉산 남동쪽 구릉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앞과 그 뒤의 논에 암석군이 있다. 마을의 안쪽에는 지식묘로 보이는 석재들이 있으나 불확실하지만 뒤쪽에는 암석을 채취한 흔적이 남아있어 지식묘개석장으로 추정된다.

•남양주팔당리산신각(南楊州八堂里山神閣), 외부읍 팔당리 산147-2

팔당댐 바로 직전 도로 왼쪽 예봉산 아래에 팔당2리 살판당 마을이 있다. 해당은 마을로부터 북쪽으로 장과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마을 뒤면 굴바위이라는 곳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산신당이 있는 곳을 '도당터'라고 부른다.

4) 월문리(月文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 대부분은 양주군 외공면으로 1914년 월곡리의 '월(月)'자와 문곡리의 '문(文)'자를 바쳐 붙인 이름이다. 1980년 12월1일 외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고래산

월문6리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는 '경산(靑山)'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의 고래와는 상관이 없고, 주변의 기형으로 보

면 '골(谷)의 산' 즉 '골짜기의 산'이 변하여 '골의산'이 되고 이것이 다시 '고래산'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골안 [이곡]

월문1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곡'이란 배나무골의 한자어이다.

•구선

월문6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리 와 목욕을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이 마을의 앞산에 신선봉이 있고 산꼭대기에 좋은 우물이 있어 선녀들이 놀다갈 만한 경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내치 [내치골]

월문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다리골 [중강, 월곡(月谷)]

월문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태종의 후손이자 이인한(李仁漢)의 선조가 낙향하고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 이씨가 많이 들어와 살게 되어 마을 다(多)자를 써서 다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자로 권곡으로 표기한다. 한편, 월문리 중간에 있어 중강이라고도 부르며 마을 중앙으로 큰 보가 있고 개울이 양변으로 있어 다리골이라고도 부른다.

•말등바위

월문4리 중촌북서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천연적인 바위로 말등과 같이 생겼다 하여 말등바위라 부른다.

•묘적(妙寂)

월문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신라시대에 희졸대사가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며, 옛날부터 화전민만 사는 고요하고 묘한 곳이라 하여 묘적이라 한다.

•문곡 [금계울, 금계울]

월문5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예전에 마을에 금선생이 있었기

28 남양주시의 전통마을

때문에, 또는 글씨는 소리가 같아지 않았던 마을이라서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처음에 글개울, 글개울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 증여에 호가 문곡이라는 유학자가 살던 마을로 문곡이라고도 한다.

•매나무골

매봉재 서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 이곳에 매나무가 있었다 하여 매나무골이라 한다.

•병말 [평촌]

삼부도린 콘크리트 공장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선원

병말은 북쪽의 월문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 강원도 땅 밑을 가는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배가 지면 여기서 쉬어가는 것이 풍례로 되어 있었는데 원님이 쉬어갔다 하여 원터라 부르다가 일제강점기에 선원이라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수리 넘어고개

월문2리의 공지리골 동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둘로 만든 유씨내의 비석을 수레로 끌어넘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다리골

윗다리골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윗다리골

월문리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남쪽으로 월문청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아랫다리골이 있다.

•아랫말

매봉재 북쪽의 문곡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갯봉 [갯봉산, 백봉산(柏峯山), 백봉, 묘적산, 골곡산]

공평 남쪽에 있는 큰 산의 이름이다. 높이가 589.0m로 평내동과 와부읍 그리고 화도읍의 경계에 있다. 평내동과 화도읍 쪽에서는 갯봉산으로 부르고 와부읍에서는 묘적산으로 부른다. 백봉산은 갯봉산의

한자어 표기이다.

•중촌

월문3리 중향에 위치한다고 하여 중촌이라고 하며 주막집이 많다 하여 주막거리라고도 부른다.

•묘적사(妙寂寺), 와부읍 월문리 222

와부읍 월문리 222번지 묘적산에 있는 사찰로 봉선사의 말사이다. 신라의 문무왕 때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가 창건했다고 전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기사가 전한다.

•묘적사팔각칠층석탑(妙寂寺八角七層石塔), 와부읍 월문리 349, 향토유적제1호

묘적사팔각칠층석탑은 현재 대웅전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가 되는 지대석은 2장의 큰 돌로 만들었으며, 팔각형으로 되어있다. 지대석 위에는 역시 팔각형으로 된 대석을 놓아서 기단부와 지대석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석의 측면 각 연에는 각각 방향 2개씩을 들었으며 그 안에 안상문을 시문하였다. 이 탑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팔각다층석탑이다.

•묘적사활터(妙寂寺), 와부면 월문리 산122

묘적사 정내에서 동쪽에 잔디로 만들어진 활터이다. 활에서 구천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난이 겹치던 시기에 스님들이 군공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서 무예를 익혀 무과에 출시하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살촉 등의 무기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대공덕왕영세기흥비(大功德王永世紀頌碑) 와부읍 월문리 222

이 비는 묘적사 입구에 있는데 보국(輔國) 윤덕영(尹德榮), 판서 홍순형(洪淳馨), 병위(兵判) 이걸윤, 주사(主事) 이택종(李宅種)의 이름이 새 있다. 총 높이 167cm로 정방형 기단석위에 대리석으로 된 비신이 있고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얹었다.

30 남양주서의 전래지명

- 남양주월문리향나무(南楊州月文里), 외부음 월문리 신325-1, 경기남양주 37

월문리 이쪽이죠, 권주 이씨 단성공파의 묘소가 있는 중종신 입구에 이 향나무가 있다. 중심 중시 뒷편에 세사에 필요한 향을 채취한 흔적이 길이 나있음에도 밀과 가지를 발달이 양호하며 가지와 잎이 고부 퍼져 전체모습은 타원형이다. 수령 220년, 높이 19m, 흉고둘레 2.5m이다.

- 남양주월문리보리수(南楊州月文里楸樹) 외부음 월문리 348 경기 남양주36

이 보호수는 보적사 경내에서 서편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 이 보호수는 목재의 질이 좋아 사할부근에 많이 심고 있는 피나무과의 보리수인데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도 해서 염주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령 300년, 높이 20m, 흉고둘레 1.5m이다.

- 남양주월문리산재당(南楊州月文里山祭堂) 외부음 월문리 신32-1

이 산재당은 '산치성터'라고 부르는데 마을로부터 동쪽에 있는 감산 줄기 제일 아랫쪽에 있다. 마을회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계단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산재를 지나는 8개의 조그만 바위가 있고, 그 앞에는 재사당으로 사용하는 넓은 돌이 놓여 있다. 이곳에서 오른쪽 약간 아래쪽에 산재당이 있다. 산재당 건물은 약 6-7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그 크기가 약 2평 반(1칸 짜리)정도이다. 시멘트 울목에 골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다.

5) 윤석리(栗石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외풍면으로 1914년 읍북리의 (栗) 석과 석리의 석(石)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80년 12월1일 외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이에 속하게 되었다. 읍북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마을 주변에 밀나무가 많았기 때

분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밤짓고개', '밤나무고개', '윤정(밤나무정)'이라는 밤나무와 관련된 마을 이름이 많이 남아 있다.

•구능안

목식과 목동 사이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구능터의 인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동 [大洞]

윤석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동네가 크다고 해서 큰 굴이라 하며 한자로는 대동으로 부른다.

•목동

원래는 안골이라 하였는데 굴이 깊고 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시 목동이라 칭했다.

•수리봉

윤석리에 있는 봉우리의 이름이다. 옛날에 홍수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때 이 봉우리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 하여 수리봉이라 한다. 또는 이곳에 독수리가 있었다고 해서 부른다고도 한다.

•윤정 [밤나무정]

윤석1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밤나무가 동네를 둘러싸고 있어서 밤나무정이라 불리다가 한자로 윤정으로 부른다고 한다.

•피사골

윤석리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지금의 목식골 북쪽에 있는데, 옛날에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었고 그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피난 와서 죽었다는 의미의 피사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남양주윤석리유물산포지(南楊州栗石里遺物散布地), 와부읍 윤석리 산 102-2, 335-1일대

윤석리의 가장 남쪽의 밭과 파수원 경작 지대에 유물산포지가 있

32 남양주시의 선례지명

다.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산자락을 개간한 지역으로 편평하지만 산쪽으로 갈수록 다소 높아진다. 이곳은 마을을 통과하는 하천과 자갈고, 배수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고려시대의 연경과 경질 토기편이다.

- 남양주율석리유물산포지(南楊州栗石里遺物散布地)2, 외부읍 읍석리 산 104-13, 408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산과 산사이의 재법 넓은 협곡에 개간한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경락지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은 논으로 이용되고 가장 위쪽만 밭이 있다. 이곳에서는 경질토기편과 석자문의 외편 등이 발견되는데, 건물지와 같은 생활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남양주율석리유물산포지(南楊州栗石里遺物散布地)3, 외부읍 읍석리 406, 421, 480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읍석리로 들어가는 도로의 동쪽에 펼쳐진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밭은 북동쪽에서 뻗어 내려온 산자락의 완부산을 개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미니하우스도 설치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유물은 조선시대의 토기와 자기조각이 발견된다.

- 남양주율석리유물산포지(南楊州栗石里遺物散布地)4, 외부읍 읍석리 산105, 401-2일대

이곳은 읍석리 마을회관에서 오른쪽 사면으로 포장된 좁은 길을 따라 진행하면 나오는 라수원 동원의 밑길까지 일대에 해당한다. 유물은 고려-조선시대의 기와편들과 도자기편들이 다수 발견된다.

- 남양주율석리유물산포지(南楊州栗石里遺物散布地)5, 외부읍 읍석리 583-1, 700일대

읍석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읍석모전린교소가 나오는데 그 북쪽 김희주 묘역 부근이 유물산포지이다. 이곳은 비교적 급한 경사면을 가지고 있지만, 유물이 많이 채집된다. 유물은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편들이다.

- 남양주윤석리느티나무(南楊州栗石里) 외부읍 윤석리 530-1, 경기남양주33
 윤석리 안골부리(북동마을) 입구에 있는 낚시터 앞쪽에 이 보호수가 있다. 이 느티나무의 전체 모습은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퍼지고 수관이 넓게 형성되었으나 한쪽이 더 풍성한 약간 불균형적인 우산형의 모습이다. 수령 300년, 높이 12m, 흉고둘레 3.6m이다.
- 김석균묘및묘갈(金奭均墓및墓碣), 외부읍 윤석리 산132-2
 김석균(1799~1876)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신표(臣標)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전광부봉사를 지낸 병익이고 할아버지는 부평부시 세군이다. 1828년(순조 28) 진사시에 합격하고 권각이 호조참의에 이르렀으며, 이조참관에 추증되었다. 윤석리 느티나무의 반대편 구릉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부인 덕수장씨와의 합장묘로 동향하고 있는데 원형의 봉분이 상단에 있고, 하단에는 상석과 향로석, 봉분을 바라보고 있는 묘갈, 망주석 1쌍이 있다. 묘갈은 판각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기대로 구성되었다. 윤명편이 있고, 윤용구가 글씨를 썼다.
- 김삼관묘(金尙寬墓), 외부읍 윤석리 산12-4
 신원석교를 지나자마자 우측의 마을길로 진입하여 200m 정도 진행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묘역은 이 삼거리 북편 구릉에 있다.
 김삼관(1566~162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윤(仲胤)이고, 호는 금시재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장영 변의 증손자로 도정을 지낸 규효의 아들이다. 묘역은 원형의 봉분 앞에는 묘표(墓表)·혼유석·상석·계제석·광각향로석·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 김수홍묘(金壽興墓), 외부읍 윤석리 산125-3
 김수홍(1626~169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기지(起之), 호는 퇴우당(退憂堂) 또는 동박산인(東郭山人)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우의정 상헌의 손자이고 생부는 동지중추부사 광한, 양부는 동부승지 광희으로, 영의정 수항의 형이다. 김수홍묘는 외부읍 윤석리 김삼관의 묘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남원윤씨와 합장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묘표·혼유석·상석·계제석·향로석·망주석 등인

34 남양주시의 권력자명

석의 석물이 있다.

•김진선묘및묘갈(金鎭善墓및墓碣), 외부읍 읍석리 106

김진선에 대하여는 알려진 행적이 없지만 묘갈의 기록으로 부아리금부도사를 역임하고,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된 인물이다.

묘는 어흥민씨와의 합장묘로 남동향이며 사당과 용마루 갖추고 있다. 상단에는 원형의 봉분과 혼유석, 장석, 그리고 묘갈이 좌측에 있으며, 하단에는 동자석, 방주석, 문인석이 리자 1쌍씩 세워져 있다. 묘갈의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관독이 불가능하다.

•권무수묘(權謨守墓), 외부읍 읍석리 106

이 묘는 김진선의 묘 바로 아래에 있다. 조선시대 왕족으로 추정되나 비문이 미묘 되어 정확한 좌각이 어렵다. 묘는 남향하고 있으며, 원형의 봉분에 묘표와 장석, 문인석 1쌍만이 배치되어 있다.

•김희우묘및묘갈(金希禹墓및墓碣), 외부읍 읍석리 105

김희우(1519~1583)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덕윤(德倫)이며, 통사당을 지낸 광수(光壽)의 아들이다. 1549년(명종 4)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비운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에 증은 통북의 현달로 사복시정에 추증되었다. 묘는 남동향하고 있으며 부인 양천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갈은 증손인 통북이 기증하였고 묘 우측에는 김세홍(金世弘)의 부인인 유인(劉人) 권주이씨의 묘와 아까지 권수의 묘가 있다.

•신인진친송씨묘(愼人鎭川宋氏墓), 외부읍 읍석리 106

이 묘는 읍석리의 김해김씨 묘역 안에 있다. 친친송씨(1549~1611)는 효령대군의 증손인 이경(李經)의 부인이다. 이경은 효령대군의 4남 낙안군(樂安郡) 영(寧)의 손자로 공창부진(公壤府正)에 봉해졌다. 묘는 남동향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새로운 묘표가 있고 그 옆에 옛 묘표가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관독할 수 없다.

•남양주읍석리향나무(南楊州栗石里), 외부읍 읍석리 485, 경기남양주33

이 나무는 외부읍 읍석2리의 읍석보전간효소 북쪽에 있는 개인주

택의 정원에 경기-남양주-35호와 함께 있다. 나무의 모습이 양호하며 가지가 줄기를 휘감듯 뺨어 올라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원주형을 이루고 있다. 수령 310년, 높이 15m, 흉고둘레 1.6m이다.

•남양주울석리향나무(南楊州栗石里), 외부음 울석리 491, 경기남양주35

이 향나무는 울석2리 대동마을의 보호수로 경기-남양주-33호 향나무와 함께 개인주택의 정원에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주변에 비슷한 크기와 수령의 향나무 중에서 가장 양호하며 대부분가지가 위로 곧게 뺨어 강건하고 웅장한 기상을 보이고 있다. 수령 310년, 높이 18m, 흉고둘레 1.7m이다.

•정임선묘묘묘갈(鄭任先墓및墓碣), 외부음 울석리 135

정임선(1682~?)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능숙(能淑)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묘는 정흥선의 묘 우측에 있다. 부인 한양조씨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갈은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기대로 구성되었으며, 비문은 정원용이 지었고, 정운용이 글씨를 썼다. 건립연대는 1847년(승정 기원후 4정미년)이다.

•정흠선묘묘묘갈(鄭欽先墓및墓碣), 외부음 울석리 134

정흠선(1670~1752)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숙(誌叔)이며, 장광필의 7대손으로 아버지는 재약이다. 음보로 벼슬길에 나아가 돈녕부사에 이르렀다. 묘갈의 비문은 정운용이 짓고 글씨와 권액까지 함께 하였다. 건립연대는 승정 기원후 4정미년(1847)이다.

•김홍복묘묘묘갈(金洪福墓및墓碣), 외부음 울석리 산133

김홍복(1649~169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희(子愷), 호는 동원(東園), 본관은 김해이다. 아버지는 전남인 덕승(德承)이다. 묘는 울석1리와 2리간 도로변에 서향하여, 정부인 고명신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우측에는 1716년(숙종 42)에 세운 묘표가 서향하여 있는데, 비신의 비문은 최규서가 권액을 하고 이덕성이 썼다. 묘갈은 신도비의 규모 및 양식과 비슷하며 묘역 아래 부분 좌측에 서북향하여 있다.

•김광위묘및묘갈(金光輝墓및墓碣), 외부읍 읍석리 216-1

김광위(1582~1637)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미보(晦甫)이며 상준의 아들이다. 1610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진위헌말을 지냈다. 아들 주의의 훈육으로 장한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인 죽산인씨와 안동권씨의 3분으로 서향하고 있다. 묘갈은 봉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기대로 이루어졌으며, 옥개석과 기대는 화강암이며, 비신은 대리석이다. 기대는 절반 정도 배움되었는데, 상부에 복련을 조각하였다.

•김성희묘및묘갈(金盛熙墓및墓碣), 외부읍 읍석리 216-1

김성희(1645~1683)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최양(載良)이며, 아버지는 돈녕부도정을 지낸 수일이다. 1666년(현종 7)에 진사기 되었으며, 이후 동정대부 증주목사를 지냈다. 묘는 위형의 쌍문이며 서향하고 있다. 쌍문의 우측에는 묘갈이 북향하고 있는데 권수형의 비신과 기대로 이루어졌으며 임진년에 건립되었다.

•김수일묘및묘갈(金壽一墓및墓碣), 외부읍 읍석리 216-1

김수일(1623~168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태초(太老)이다. 생부는 광위이지만 백부인 광욱(光煜)의 대를 이었다. 인조 연간에 응직으로 벼슬에 나아가 돈녕부도정을 지냈고, 이조참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인 안안이씨와의 합장묘로 서향하고 있다. 상단에는 위형의 봉분과 상석이 있고, 하단에는 향로석과 묘갈, 방주석과 문인석이 각기 1쌍씩 배치되어 있다. 건립연대는 승경 지원주 78년 을유(1705)이다.

•김원효묘및묘갈(全元孝墓및墓碣), 외부읍 읍석리 216-1

김원효(1524~1612)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초명은 원효(遠孝)이다. 1573년(선조 6) 진사에 오르고 군기시경을 역임하였다. 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권주이씨와 합장묘로 서향하고 있는데 상단에 1999년에 세운 신묘표와 상석이 있으며, 하단에는 묘갈과 문인석 1쌍이 있다.

•김상준묘(金尙鴈墓), 외부읍 읍석리 216-1

이 묘는 읍석리 도로변에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서향하여 있다. 김상준(1561~163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수(汝秀), 호는 휴암(休菴)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군기시정 원효(元孝)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 계체석을 놓았으며, 향로석과 묘표는 보이지 않는다.

•김상준신도비(金尙鴈神道碑), 외부읍 읍석리 216-5

이 신도비는 묘역 입구 좌측에 북향하여 비좌와 비신 및 관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자헌대부 미조판서 이명환이 짓고, 통훈대부원임 형조정랑 유시정이 쓰고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이광한이 전역을 했다.

2. 진접읍 (楸接邑)

이 지역은 고구려 시대에는 관희노 지역이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황양현 지역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풍양현 지역인데 1419년(세종 1)에 양주목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권벌면(楸伐面)과 접동면(楸洞面)으로 나뉘어 있었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당시에 별비면의 일부와 권선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권벌의 '진'자와 접동의 '접'자를 따서 권접면이라고 하였다. 1963년 1월 1일에 수동면이 신설될 때 수산리가 분리되었고 1983년 4월 1일에 권접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에는 오남면이 신설되어 양저리, 오남리, 팽현리가 분리되어 현재에 이른다.

1) 장현리(長峴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접동면 지역으로 1914년 황승리의 '장(長)자와 봉현리의 '현(峴)자를 따서 장현리라 하고 권접면에 편제되었다.

*매봉산

삼산아파트 서쪽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이 산의 둘 위엔 매가 자주 앉는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 말한다.

*봉현(蜂峴) [벌우개, 비리개, 버리개, 보루개]

장현 마을 남쪽에 있는 고개와 저울의 이름이다. 이 고개에 벌침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피해 다니 그 고개를 봉현, 벌우개, 비리개, 버리개, 보루개 등으로 불렀으며,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 이름도 봉현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세조와 관련된 지명유래도 전하는데, 세조는 자신의 묘 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직접 땅을 돌아보던 중 불길한 땅에 묘 자리를 쓰고 있는 상주를 만났다.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 300냥을 주면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하고 묘 자리를 잡아준 사람을 물으니 바로 자신이 찾던 이생원이라는 지관이었다. 세조가 기이하게 생각하여, 이생원을 찾아 그 집에 이르러 그 묘 자리의 길흉을 물으니 "그 근방이 길지(吉地)가 있지만 천 장지(葬地)는 당장 300 냥의 큰 돈이 생기므로 가난한 살주에게 금시발복(金時發福)할 자리를 정하여 주었다."고 하였다. 이에 감탄한 세조는 "당신같이 잘 아는 사람이 왜 산 골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그의 집을 보며 물으니, "국왕이 친림(親臨)하실 곳이므로 이곳에 산다"며 길자리를 돈 밖에 팔고 백배 사귀하였다. 이생원의 능력에 감탄한 세조는 그와 동행하여 현재의 광릉을 능자리로 정하였다.

그 뒤 광릉에 능을 만드는데, 그 곳에서 큰 뱀이 나올 것이라 하여 주관하는 지관이 지금의 장현리 벌우개로 대피하여 큰 독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과연 능을 파기 시작하자 곧 뒤용박탄한 뱀이 쏟아졌으나, 큰 독을 뒤집어 쓴 지관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부터 이 동네는 '벌우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용소(龍沼) [용숙깨미]

상송마을 서쪽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다. 광릉검문소 북미치 왼쪽의 작은 산봉우리 아래 용소와 용바위가 있다. 옛날부터 천하를 호령할 장수와 용마가 난다고 했는데 이곳에 용마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용마를 타고 천하를 호령할 장수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이에 용마는 배를 만나지 못함을 슬피하여 이곳 용소 위에 있는 용바위 위에서 하늘을 향해 크게 세 번 울고는, 바위 위에 발자국만을 남기고 물 위로 뛰어들어 죽었다고 한다. 이후 용마가 빠져죽은 소라고 하여 용소 또는 용숙깨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용소는 매우 깊은데, 바위굴을 지나 덕소강까지 이어져 있어 그 깊이가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가지도 모자랄 정도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가뭄이 심할 때면 이곳의

40 남양주시의 권리지명

물을 키에 담아 까부르면 비가 온다는 말도 전한다.

•장승 [장승배기, 매봉재]

47번 국도의 서쪽에 있으며 관동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매향에 아홉 임구에 장승이 서있어서 장승(喪承), 장승배기, 매봉재 등으로도 부른다. 매봉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장승들판논에 물을 대기 위한 보(서수지)라는 뜻의 '장승배기보', 장승에 있는 들판이라는 뜻의 '장승밭'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전하고 있다.

•장현 [학교마을]

봉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1922년 장현학교가 설립되면서 형과 권들이 들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장현초등학교와 장현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마을(학교말)로도 불린다.

•천동(全洞) [전골, 청골]

장현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기름간 밭이 많아서, '전골' 또는 '청골'로 부르다가 한자식 이름인 권동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한글산

관동 뒤에 있는 산 이름이다. 한글학회의 산으로 주시경과 권현배의 묘소 등 한글연구에 큰 역할을 한 이들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남양주장현리31운동기념비(南楊州長峴里31運動紀念碑), 진접읍 장현리 28-3

이 기념비는 47번국도 도로변의 검문소와 인접한 곳에 남향하여 있다. '8·1운동 당시 봉선사 승려인 김성암과 권동리의 이계일·최대봉·박석봉·유희상 등에 의해 주도된 기사를 기념하기 위해 1999년 5월 30일 남양주시장 김영희에 의해 건립되었다.

•남양주장현리유적(南楊州長峴里遺蹟), 진접읍 장현리 46, 49, 49-27, 50-1, 46-1, 62-6일대

이 유적지의 대부분은 개발과 왕승권의 병람으로 인해 파괴된 곳

이다. 복토되지 않고 원지형으로 남아 있는 곳은 장현리의 장승초등학교의 서쪽 밭 경작지와 남쪽의 논·밭 경작지이다. 복토는 대부분 4~5년 전에 되었던 것으로, 1~2m 정도를 복토하였다. 유골이 확인된 곳은 복토되지 않은 장승초등학교의 서쪽의 밭 경작지와 남쪽의 비닐하우스재배단지와 논경작지이다.

- 남양주장현리유물산포지(南楊州長峴里遺物散布地), 진접읍 장현리 산11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장현3리 부강아파트 옆으로 이어진 애능골 골짜기의 민가들 일대에 해당한다. 출토된 유물은 민가 동쪽의 과수원 및 경작지 일대에서 개간하는 중에 노출된 화철석경질토기편 및 유백색의 백자편, 화편 등이다.

- 영인묘(寧仁墓), 진접읍 장현리 산 175, 지적 제367호

영빈(1669-1735)은 조선왕조 제19대 숙종의 후궁인 안동김씨이다. 문장공 김상헌의 현손녀이며, 상천부사 김창국의 딸이다.

묘는 장현리 궁안골 해발 100m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석주 형태로 기둥을 장식하여 화려한 곡장 내에 있다. 묘비는 민무늬 비파와 오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건립 연대는 1737년(영조 13)이다.

- 외술최현배묘(외술崔絃培墓), 진접읍 장현리 산51-2

최현배(1894-1970)는 국어학자, 교육자, 독립운동가로, 호는 외술, 경상남도 울산출신이다.

묘는 장현리 궁안골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 조성되어 남향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아들 행촌 최영해의 무덤이 있다. 기념비는 1970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글씨는 백낙준이 짓고 배길기가 쓰고 설명호가 새긴 것이다.

2) 내각리(內閣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청동면 지역으로 1914년

42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내동리의 내(內) 자와 비각리의 각(積) 자를 따서 내각리라 하여 전립면에 편제되었다.

•내동(內洞)

이성계가 비각마을에 행궁(行宮)을 정하고 있을 때, 광비 강씨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었던 곳이라 하여 안마춤이라는 뜻의 '내동'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삼천

내각리 앞 왕숙천(왕산내)에 있는 섬의 이름이다. 1만 9163평의 면적이 포플러와 밤나무가 많아 숲을 이루고 있다. 조선 현종 때의 문신인 이만살이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 연구에 힘쓰던 태극정과 정자 안의 연못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장승객들이 찾는 곳이다.

•비각리(碑閣里) [비각촌, 비각마을, 곶리(閣里), 대곶터, 구곶지(舊閣址), 새 밭]

내각리에는 풍양궁이 있었다고 하여 '곶리(閣里)·내곶터·구곶지(舊閣址) 등의 이름이 있다. 정종은 1400년(정종2) 11월에 왕위를 아우 정안군(후에 태종이 됨)에게 양위하고, 지금의 남양주시 전립읍 내각리 풍양궁터로 옮겨가게 된다. 병이 심해져서 삼신을 휴양하기 위해 아우에게 왕위를 물리준다는 내용의 교서(敎書)를 내고 정종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대곶터(풍양궁터)이다. 물론 여러 복잡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골라야 휴식을 취하겠다는 것은 정종의 솔직한 본성이었을 것이다.

이후 정종의 아버지인 태조도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 1402년(태종 2년) 태조는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 망석과 망번이 참변을 당하자 태종을 미워하여 함흥으로 가버린다. 그곳에 박은 지 3년 만에 박순(朴尊)의 출현에 감동되어 사술로 돌아오는 길에 이 곳에 머무르며 용왕이지 말자 내각들이 와서 모시고 갔다고 한다.

이렇게 대곶터는 태조 정종, 태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역사적인 마을이다. 그렇지만 대곶터는 이후 그대로 대곶이 있던 곳은 아니다. 태상왕(太上王)과 상왕(上王)이 왕위를 물려나 머물

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대궐터에 있는 비각에는 1755(영조 31), 1905년(광무 9)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 있는데, 이곳이 풍양궁지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이 마을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의 '새말'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임진왜란 때 풍양궁은 물론이고 이곳이 모두 불타버리자, 새로이 곁들이 들어서고 마을을 형성하게 된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천견산 (天見山, 천점산(泉帖山), 천견산, 샘재)

순강원 북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높이가 391.1m이며 내각리와 장현리의 경계를 이룬다. 마을 사람들은 천점산 또는 천견산, 샘재 등으로 부른다. 순 우리말 샘재를 한자 천현(泉峴) 또는 천점(泉帖)으로 표기하여 생긴 말로 추정된다.

•남양주내각리유물산포지(南楊州內閣里遺物散佈地), 진집읍 내각리 558, 산 68-1, 491, 510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왕숙천에 있는 빙점유원지의 서쪽으로 현상지 뒤편 밭과 구릉의 일대에 해당한다. 이곳은 퇴이산의 동쪽 산자락으로 주변에는 커다란 바위가 많고 밭에도 작은 크기의 돌이 많다. 세종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밭 일대에서 자기편과 와편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유물로 보아 조선시대 건물지나 그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순강원(順康園), 진집읍 내각리 신7 사적제356호

순강원은 조선 제14대 선조(1568-1608)의 후궁 인빈김씨(1555-1613)의 묘이다. 인빈김씨는 본관이 수성이며, 준사 김한우의 딸로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주존)을 낳았으며 1616년(광해군 5)에 59세로 승하하였다. 묘는 정남향하여 곡장 내에 둘러져 있다. 묘표는 팔방형의 비좌와 비신 및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묘의 앞쪽에는 정면3칸, 측면2칸의 정자각이 있으며, 그 우측에는 팔각지붕형태의 능표각이 있다. 그리고 신도비를 보호하는 비각과 세실터 정자각 등이 있다. 묘 좌측에는 인빈 김씨의 둘째 아들 신성군의

4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묘와 신도비가 한내에 있다.

•의창군이광묘(義昌君李珣墓), 진접읍 내각리 150

이광묘(1589-1645)은 본관은 전주, 자는 장중(藏守)이며, 호는 기천(杞泉)이다. 선조와 인민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선조의 어필 받게 서거로서 의창군에 봉해졌다. 묘는 순장원내 인민김씨 묘역 좌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양친군부인 허씨와의 합장묘로 정남향하고 있다.

•의창군이광신도비(義昌君李珣神道碑), 진접읍 내각리 150

이 신도비는 묘의 아래에 남향하여 귀부와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귀부는 기복이 모양으로 큰 굽구멍과 준 및 '一'자로 다문 입을 중공니를 포함한 원 이빨을 드러내 놓고 있다.

•봉영사(奉永寺), 진접읍 내각리 148

봉영사는 599년(신라왕 21)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지만 비록 몇 발췌하는 기록·유물·유적은 없다. 1737년(영조 13)에 태전, 해방, 치학 등이 철을 중창하고 1755년(영조 31)에 선조의 후궁인 인빈의 묘가 순장원으로 승격되면서 이 사찰이 인빈의 원찰로 되어 봉영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1877년(고종 14)의 중수, 1920년 여흥의 수해 이후 1924년 서경스님, 1968년 혜경스님이 차례로 중수했다. 1971년에는 대웅전 앞의 대방울 지금의 자리로 옮겼으며 1986년에는 법당 동쪽의 어실각을 3칸으로 늘려짓고 명부전 안에 시왕상을 봉안하였다.

•남양주내각리산신당(南楊州內閣里山神堂), 진접읍 내각리 산25

내동 마을의 산신당은 마을 바로 뒤편에 있는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총 138가구로 이들이 마을 위에 있는 산계당에서 산치성을 드리고 있다.

•함흥군이척묘(咸興君李穰墓), 진접읍 내각리 192-4

이 묘는 완원군 이유영 묘 위에 동남향하고 있는데 원부인 양주최씨 및 고영박씨의 합장묘이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동남향하여 비표와 비신 합두형으로 겹쳐 덮여져 있어 비신에 비문은 전후 등

면에 있다. 비문은 후손인 탐이 쓰고, 사위인 권지(權指)가 썼다.

•완원군이유명묘(完原君李惟命墓), 진접읍 내각리 산8-9

완원군 이유명(1767~1817)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지순(稹順)이며, 호는 동포(東圃)이다. 묘는 내각리 현일 마파트 106동 뒤편 구릉에 펜스로 둘러쳐 있으며, 동남향하여 정부인 광산김씨와의 합장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10cm, 직경 620cm이다.

•남양주내각리느티나무(南楊州內閣里), 진접읍 내각리 285, 경기남양주12

이 나무는 내각리의 내동마을 입구에 있는 담장에 꼭 끼어 있다. 중심 줄기는 도로쪽으로 30° 정도 기울었으며 전체 모습은 높이 3m 부위에서부터 측지가 발생하여 고루 뾰족 원뿔형의 모습이다.

•풍양궁지(豊壤宮址), 진접읍 내각리 723-25

풍양궁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환궁하면서 잠시 머물기 위해 지은 이궁이다. 풍양궁터는 내각리의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온 주택가에 남아 있는데 하마비(높이 98cm, 폭54cm)와 비각(팔각지붕에 정면2칸, 측면1칸 규모)이 그곳을 알려준다. 비각은 6.25 때 파괴되어, 그 후 천주이씨 종중에서 양주교육감 이승용씨 주선으로 재건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비각은 당시 태조가 기거하던 곳으로서 후대에 이르러 대소 유지비를 세우고 그 터를 표시한 것이다.

•태극정지(太極亭址), 진접읍 내각리 473-26

태극정터는 내각리를 지나는 47번 도로상에 인접하여 밤심유원지 안에 있다. 태극정은 조선 현종대의 문신인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이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 연구에 힘쓰던 곳이다. 원래의 태극정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1972년에 원 위치에서 4m 아래에 복원되었으나 다시 없어져 현재 유원지 안에는 다른 위락시설이 들어선 상태이다.

•현창지(縣倉址, 선창), 진접읍 내각리 481-3

현창지는 내각리 현창마을 밤심유원지 인의 태극정과 인접한 도로

46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변에 있다. 현상은 조선시대에 양주의 환곡을 보관하던 창고인데, 수 년 전까지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되고 민가가 들어서 있다. 이 현상의 위치에 대해 『여지도서』의 기록에는 이 현상이 접동면에 있었고, 좌기창이 4칸, 창고가 20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3) 내곡리(內谷里) [안골, 내곡]

이 지역 명칭은 통일신라시대에는 황양현,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는 중앙현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후 양주목 별마면 지역으로 1914년 1월 내곡리·영지동·동촌리·서촌리 그리고 진도리 일부를 병합하여 내곡리라 해서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원래 중앙현(襄陽縣)이 있던 곳으로서 그 안쪽이 되므로 안골 또는 내곡이라 하였다.

•동촌 [東村]

영서 북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명서(서촌)와 대송하이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린다.

•영서(靈西) [서촌(西村)]

안내곡 남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북동쪽에 있는 동촌에 대송하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서촌으로 불렸으나 이후에는 명서동과 서촌을 합하게 되어 '영서'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원내곡(元內谷) [안골, 역말, 역촌]

동촌과 영서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내곡의 원래 마을 또는 원래의 개척지라 하여 이렇게 불린다. 원내곡은 '안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내곡리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전한다. 이 안골이라는 이름을 한자어화한 것이 내곡(內谷)이며, 이것이 리 원래의 이름이 되었다. 또한 이 마을은 '역말', '역촌(驛村)'이라고도 불

리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역(驛)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을 이름의 유래에 따라 '굴안-고을안-내곡교' 등의 지명이 아직 전한다.

•림송(林松) [임송골]

전도시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소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임송'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임송골이라고도 부른다.

•전도치(全道峙) [전도리(全道里), 전도티, 전두터]

영서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 서쪽에 전도치고개가 있다.

•쌍수역지(雙樹驛址), 진접읍 내곡리 473-32

쌍수역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는 풍양현의 남쪽2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으며, 『양주군읍지』에는 "주 동쪽 별비곡면에 있으며 40리 거리이다. 관북봉로이다. 말 8필이 있다. 평구역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지도서』에는 "별비곡면에 있으며 동으로 40리 거리이다. 관북곡안로이며 평구역에 속하였다."고 하였다.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현재 쌍수역의 위치는 내곡리 현향지 내, 역말 근처로 추정된다.

•홍주국요및요길(洪柱國墓및墓路), 진접읍 내곡리 산71-1

홍주국(1623~1680)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국경(國卿), 호는 범옹(泛翁)·죽리(竹里), 본관은 풍산이다.

이 묘는 내곡리 현창마을 뒷산 풍산홍씨 묘역의 제일 위에 동향하며 숙부인 덕수이씨와 합장묘이다.

•홍만적요및요길(洪萬迪墓및墓路), 진접읍 내곡리 산71-1

홍만적(생몰년 미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길(士吉), 호는 임호(臨湖), 본관은 풍산이다. 아버지는 홍주국이며, 실학자로 유명한 홍만선이 그의 아우이다.

이 묘는 내곡리 현창마을 뒷산 풍산홍씨 묘역 내의 홍주국 묘역 아래에 동향하며 정부인 경주이씨와의 합장묘인데 근래에 새로 조성

한 것이다. 표갈은 표의 좌측(북쪽)에 위치하여 동향하고 있으며, 근래에 새로 비파와 옥계석을 만들어 올렸다.

- 전접여경구가옥(轉接區柳九家屋), 전접읍 내곡리 286 중요민속자료제 129호

여경구가옥은 이 집의 소유자인 여경구의 장인 이덕승의 8대조가 약 250년 전에 지었다고 전한다. 대략 18세기의 기법과 형상인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 집의 평면은 '日'자형으로 서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동남쪽에 인세를 놓고, 그 옆 서북쪽에 사랑채를 두었으며, 다시 서북쪽에 중간채를 두어 가옥의 측면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건물이 연결되지 않고 각각 떨어져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 영지동비(靈芝洞碑), 전접읍 내곡리 308

이 비석은 내곡리 영서마을 소로변에 있었다고 전한다. 길이 230cm, 두께 150cm 가량의 화강암 바위 위에 가로 38cm, 세로 18cm의 직방형 홈을 파고 북향하여 "영지동"이라는 세서체의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꽂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비석은 없어지고 남서터 건너편으로 소로변에서 10m 가량 떨어진 좌측 밭에 화강암반 남아 있다.

- 남양주내곡리(南陽州內各里)스티나무1, 전접읍 내곡리 137-9, 경기남양주 15

내곡리의 영서마을을 입구 회관 앞에 두 그루의 스티나무가 있다. 우측의 나무는 굵게 새 갈래로 갈라져 사팔으로 모두 퍼진 원질형의 모습이다. 좌측의 나무는 중심 줄기 높이 1.5m부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수형이 형성되어 있다. 두 나무가 함께 이루는 모습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수관이 형성되어 상층된 내부가지는 발달이 거의 없으나 반대방향으로의 가지와 잎의 발달이 많아 전체모습은 풍성하고 넉넉하다. 수령은 모두 320년에 달한다.

- 이민보묘묘묘길(李敏輔墓冥墓路), 전접읍 내곡리 산49-3

이민보(1720~1799)는 조선중기의 문관으로 자는 백환(伯煥), 호는 풍서(豐璽) 또는 상위(常窩),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무제하 단양의 증손이며, 이조참판 최조의 손자이다. 묘역은 전접읍 내곡리 영

서마을 뒷편의 나지막한 구릉으로 가파른 경사면 위에 동향하며 성경부인 달성서씨와 합장묘이다. 묘갈은 봉분 우측(남쪽)에 위치하여 북향하고 있다. 민무늬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판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의 건립연대는 양원5년 계해 4월로 되어 있다.

- 남양주내곡리(南楊州內谷里)느티나무2, 진접읍 내곡리 363-24, 경기남양주 16

내곡리 마을 입구 언덕 위에 서있는 이 느티나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작지만 수관이 잘 발달된 또 한 그루의 느티나무와 함께 터널을 이루고 있다. 회이저 올라간 구간은 높이 2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이 중 도로쪽으로의 줄기는 끝부분이 마르고 내부가치가 적으나 전체적으로 일과 가지가 고주 발달된 풍성한 원경형의 모습이다. 수일 220년, 높이 11m, 흉고둘레 4.0m에 이른다.

4) 언평리(蓮坪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접동면 지역으로 1914년 비라리·내동리·불현리의 각 일부와 건원면의 양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언평리라 해서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언평리에 있는 큰 들을 풍양(豊壤)들 또는 요언평이라 한다.

•갯골

궁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궁동은 각각 독립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주막', '우구태' 등 여러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골만 [고을안]

궁동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군계들

언평리에 있는 들개의 이름이다. 원어루들 북서쪽에 있다. '군계들'이라는 이름은 '갯벌 깊다고 해서' 혹은 '쓸데없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궁동(宮洞) [궁골]**

연평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질계가 대관을 치으려 했던 마
독이라서 이렇게 불린다고 전한다. 약 400여년전 왕자 복성군의 보
가 셀린 이후부터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목화배기 [목화배미]**

오연평 북쪽에는 있는 논외 이름이다. 예전에 이곳에서 목화를 재
배했던 연유로 '목화배기' 또는 '목화배미'라고 불린다. 이곳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전해지는데, 옛날 어떤 농부가 이곳에 600여 평의 논
을 가지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 논 600여
평을 팔고 세 그릇과 바꿔버렸다고 한다.

•**와촌(瓦村) [와말, 오얏마을]**

연평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궁동 남쪽에 관건면 신월리와 경
계에 있다. 옛날에 기와 공장이 있었던 연유로 기와마을이라는 의미
의 '와말'이라고 부르다가 '와촌'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오얏마을'이라
고도 부르는데, 이는 '와말'이 왜곡된 것이라 한다.

•**오연평(蓼蓮坪) [연평들, 풍양들, 풍양들]**

궁동 서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들밭의 이름이다. 왕숙천을 끼고 드
넓게 펼쳐져 있는 들밭으로 현재의 경야도 개간되기 전에는 토질이
습하고 군데군데 연못이 있다고 하여 오연평이라 부른다. 연평들, 풍
양들, 풍양들 등의 여러 이름으로도 불린다.

•**웃농안 [궁농안]**

궁동의 궁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복성군 능 위쪽에 있다
고 해서 '웃농안'이라고 부른다. '궁농안'이라고도 하며 그 남쪽에 아
랫농안이라는 마을이 있다.

•**중포(中浦) [중포개, 원머루]**

광동 북쪽 연평(連平)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개천을 막은 보의 수로
가 가운데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포개'라고 불리다가 한자식으로 '중
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원머루'는 권(院)이 있었기 때문에 불

은 이빨이다.

- 남양주연평리유물산포지(南楊州蓮坪里遺物散布地)1, 진접읍 연평리 산35, 754, 757

이 유물산포지는 국지도 86호선을 따라 연평주유소를 지나 육각정 삼거리에 권에 있는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이곳의 산에는 길이2~3m 크기의 바위들이 있고 경사면이 비교적 완만한 편이어서 고분과 같은 매장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밭에서는 회청색 경질 토기편과 기와 백자편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 남양주연평리유물산포지(南楊州蓮坪里遺物散布地)2, 진접읍 연평리 346-4, 347, 326-10, 326-12, 산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연평교차로의 동측지역에 해당한다. 현재는 배나무를 심어 놓은 과수원이 있고, 포장도로를 경계로 하여 산의 경사면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정작하고 있다. 회색과 회청색을 띠는 경질과 경질토기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남양주연평리유물산포지(南楊州蓮坪里遺物散布地)3, 진접읍 연평리 산44, 산45-2, 396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화촌마을 외촌교회의 뒷길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목장에서 서쪽으로 100m 지점의 연평리 은행나무 1을 포함한 밭 일대에 해당한다. 목장과 밭 일대에 능선사면을 삭토하여 조성된 평탄면이 있는데 이곳에 다량의 와편이 산재해있다. 마을이름이 외촌인 것을 생각해보면 때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남양주연평리유물산포지(南楊州蓮坪里遺物散布地)4, 진접읍 연평리 산 32-23, 32-13, 359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진접가압장의 서쪽 산경사면에 해당한다. 이곳은 남-북으로 발달한 산능선에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1차선 도로가 있고,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진접가압장이 북쪽 능선 위에는 진접배수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경질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대이산봉수(大伊山烽燧), 진접읍 연평리 신31-1, 신32-1, 신29-18, 신57

이 봉수는 연평리와 양자리 경계상의 해발 173.5m인 산능선에 있다. 서쪽으로는 일직산상에 외외산(363.7m)·국사봉(331m)·수락산(637.7m) 등이 시야를 가로막고 나란히 마주 대하고 있으나, 남북으로는 옛비추라개 흐르는 철곡천을 따라 비옥한 중적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이 봉수는 북쪽의 포위 임읍성봉수로부터 신호를 받아 남서쪽의 가구산(아차산)봉수로 신호를 보내는데 있어 서쪽보다는 남쪽이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남쪽의 가구산봉수와는 13km, 북쪽의 임읍성봉수와는 13.5km의 거리에 있다.

•남양주연평리상수리나무(南楊州蓮坪里), 진접읍 연평리 147-8, 경기남양주 14

이 나무는 연평3리 증포마을 화관 입 도로 교차지점에 서있다. 겉가지가 고사되었지만 수재는 양호하다. 전체 모습은 중심 줄기 1.5m 부위에서부터 두 잔재로 나뉘어 뾰족 줄기의 일과 가지가 사방으로 고부 발달한 타원형이다. 수령 200년, 높이 20m, 흉고둘레는 3.5m이다.

•남양주연평리(南楊州蓮坪里)은행나무 1, 진접읍 연평리 신44, 경기남양주9

이 나무는 기와집이 많아 이름 붙여졌다는 연평 2리의 와촌(瓦村) 마을에 있다. 와촌교회에서 북쪽 동사면으로 흐르는 길을 따라 올라 가면 마을 위편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다.

암나무로서 근원부 30cm에서부터 크게 세 줄기로 나뉘어 곧게 뻗은 모습인데, 한 해 평균 3~4말 성도를 수확한다. 수령 850년, 높이 22m, 흉고둘레 8.0m에 이른다.

•남양주연평리(南楊州蓮坪里)은행나무 2, 진접읍 연평리 403-6, 경기남양주13

이 나무는 연평3리 와촌마을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데 와촌마을 와촌교회 앞길로 따라 들어가면 볼 수 있다. 현소유자인 현주이씨 선조가 심었다는 마을의 정자목이다. 중심 줄기 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발생한 관가지들이 사방으로 고부 발달한 세뿔하고 장전형 기

삼으로 전체 모습은 활짝 퍼진 부채모양이다. 암나무로 생산성이 높은 나무이다. 수령 250년, 높이 20m, 흉고둘레 4.5m에 이른다.

•복성군 이미 묘(福城君 李暉 墓)

복성군 이미(미상-1533년(중종 28))는 조선 중기의 왕자로 이름은 미(彌)이다. 중종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빈박씨(敬嬪朴氏)이다. 윤비가 세자(世子 仁宗)를 낳고 죽자 경빈박씨는 자신의 아들인 복성군을 세자로 책봉시키려는 야망을 가졌다. 마침 1527년(중종 22) 세자의 생일에 귀를 잡아 사지와 꼬리를 자르고 입·귀·눈을 불로 지져서 동궁(東宮)의 북정(北庭) 은행나무에 걸어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경빈박씨가 혐의를 받아 각호(爵號)를 빼앗기고 서인(庶人)으로 되어 귀양갔다가 1533년 모자가 함께 사사(賜死)되었다. 1541년(중종 36)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희(禧)가 사건을 조작한 진범으로 밝혀져 신원(伸寃)되었다. 묘는 궁동 동쪽에 있는데 위쪽에 어머니 경빈 박씨의 묘가 있다. 묘의 뒷쪽이 못농안이며 아래 쪽이 마켓농안이다. 궁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이 묘로 인해 붙어졌다는 설이 전한다.

5) 부평리 (富坪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신별면과 김동면 지역으로 1914년 부동리의 '부(富)'자와 후평리의 '평(坪)'자를 따서 부평리라 하여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능내(陵內) [능내동, 능안]

조선 제7대 세조의 능인 광릉에 있는 마을이라서 능내 혹은 능내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능안 쪽에 있다고 해서 능안이라고도 부른다.

•뒷밭 [후평(後坪)]

5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뒷들 앞에 펼쳐져 있는 들판의 이름이다. 이를 한자화한 것이 후평이다.

•분토골 [부동(富洞)]

접골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광릉에 세조의 '님'을 모신 후부터 농지거나 한지기에게 나라에서 토지를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분토골 또는 부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편 이곳에서 분토가 났었기 때문에 분토골로 불렸다는 설도 있다. 전옥천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동서로 나뉘었는데, 동쪽에 있는 마을을 따로 '바람잡골'이라고 부른다.

•살내벌

광릉 앞에 있는 벌판의 이름이다. 옛날 차수복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능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부채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갔다. 이에 임금에 대한 불경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차수복을 동구 밖에서 참수하려 하였다. 그런데 차수복은 동구 밖까지 춤을 추면서 끌려갔다. 이 때 마침 임금이 능에 참배를 하고 내려오다가 이를 보게 되었다. 임금은 곧 참수를 당해 죽을 사람이 희한하게 춤을 춘다고 해서 차수복을 살려 주라고 명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부채도 하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복이 춤을 추었던 장소를 임금이 '살려줘라'고 한 연유에서 '살내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안집골

접골 안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남동쪽에 있는 바깥집골에 대응하여 부르게 된 것이다.

•태학산

접골 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예전에 이 산에 학이 잤았기 때문에 태학산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평촌 [별말]

바깥집골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별말은 평촌의 준우리말이다.

•광릉(光陵) 진접읍 부평리 246-1, 사적제197호

광릉은 조선 제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세조는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1417년(태종 17)에 출생하여 진평대군으로 봉하여졌고 이후 咸平·靑陽·靑陽大君 등으로 改封되었다. 본종 승하 후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그 보좌세력인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왕위 경쟁자가 될 듯한 안평대군을 강파로 유배시켰다. 이후 영의정부사경연시운관사 겸 병조판서로 궁국의 대권을 장악한 뒤 1455년 마침내 유약한 단종을 꺾어버리고 禪位의 敎書를 내리게 하여 왕위에 올랐다.

•정희왕후능(貞熹王后陵), 진접읍 부평리 산100-1, 사적제197호

평비 정희왕후 파평윤씨는 파평부원군 윤번의 딸로 1418년(태종 18) 충현에서 출생하였다. 세종 6년 가례하여 낙남부대부인에 봉하였다가 세조의 즉위와 더불어 황비에 책봉(1455)되어 1467년에 존호를 자칭이라 하였다. 예종이 14세의 어린나이에 즉위하자 조선왕조에서는 처음으로 수렴정황을 하였으며, 예종이 즉위한지 1년 2개월 만에 죽자 세조의 맏아들 익종의 차남 자유산군 심종을 그날로 즉위시키고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7년 동안 섭정을 하였다. 1483년(성종 14) 은양행궁에서 존추 66세로 승하하였다.

•광릉크나새서식지, 진접읍 부평리 246-1, 천연기념물제11호

남양주시 진접읍과 별내면, 포천군 소동면, 의정부시 등 5개 행정구역에 걸친 75만여 평이 크나새서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원래 세조의 능인 광릉과 그 원찰 봉선사가 자리한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잡초의 채취까지도 금지될 정도로 농림으로 잘 보존되어 오면서 크나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더욱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다.

•휘경원(徽慶園), 진접읍 부평리 267, 사적제360호

조선 제22대 정조(1777-1820)의 후궁이며,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묘이다. 수빈 박씨(1770-1822년)는 1770(영조 46) 관동녕부사 박준원의 셋째 딸로 정조 11년 후궁 간택에 수위로 뽑혀 그해 8월 입궁하였다. 박씨는 순조와 숙헌옹주를 낳고 수빈에 봉해졌으며,

56 남양주시의 경리지명

가운중에 거처하였다. 행실이 좋고 예절에 밝아 칭송을 받았다. 후인은 1822년(순조 22) 12월 창덕궁 보정당에서 별세하였으며, 시호는 현목이다.

•이단상묘(李端相墓), 진접읍 부평리 신2

이단상(1628~1669)은 조선후기의 학자이자 문관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유능(幼能), 호는 정관재(靜觀齋) 혹은 서호(西湖)라고 했다. 1648년(인조 26) 기사사에 장원, 다음해 향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새카시정원 설치, 예문관 대교·봉교, 홍문관 부수한교리 등의 중요직을 역임하였다. 1664년(현종 5) 사헌부 집의가 되어 입시와 권학에 관한 다섯 가지 조목을 상소하고 스스로 관직을 떠났다.

이단상의 묘는 모란군과 남양주시의 경계지점인 진접읍 부평리 마영마을 뒷산 골프장내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정부인 권의씨와 합장묘이다.

•이단상신도비(李端相神道碑), 진접읍 부평리 신1-1

연안에서 묘역의 가장 아래에 있으며 이단상의 묘와 함께 옮겨온 것이다. 비문은 대왕보국승화대부 의정부 좌의정 종시열이 관하고 문인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김항협이 글을, 권북대부 광원군 겸 의도공부총관 이현이 전(篆)을 하였다.

•이하조묘(李晸朝墓), 진접읍 부평리 신2

이하조(1655~1724)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동보(同甫), 호는 지촌(芝村)·양암(良菴), 본관은 연안이다. 부제학 단암의 아들이다. 묘는 진접읍 부평리 마영마을 매암산의 동영 이하조 묘 아래에 남서향하여 부인 안동김씨와 합장묘이다.

•이시원묘및묘갈(李始源墓및墓碣), 진접읍 부평리 신1-15

이시원(1753~1800)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경심(景深), 서울 출신이며 형조판서 민보(敏輔)의 아들이다. 1777년(정조 1) 사마시에 합격하고 유사로서 호조참판이 되었다가 1759년 식년문과에 올라고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형조판서를 세직 중 죽었다.

- 남양주부평리와오지(南楊州富坪里瓦窯址), 진접읍 부평리 산67-1일대
 이자와기아터는 부평리 동쪽 92m 고지 남서쪽 구릉지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봉선사 등의 사찰이 많아 이곳들에 기와를 공급하면서 와오지가 형성되었을 것을 판단된다.
- 남양주부평리유물산포지(南楊州富坪里遺物散布地), 진접읍 부평리 560-1, 568, 569, 571일대
 이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넓은 구역으로 지표상에서 조선후기 백자면과 기와편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채집되는 유물과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 규모의 건축물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양주부평리고가(南楊州富坪里古家), 진접읍 부평리 889-10
 부평리 노인정 남쪽에 있는 이 고가는 최권구씨 소유의 가옥이다. 전체적으로 'ㄷ'자 형태를 이루고 안채를 중심으로 서쪽 바깥으로 사랑채가 있다. 서쪽으로 대문간이 있고 그 옆으로 광과 뒷간, 외양간 등이 딸려 있다. 상당만에 의하면 1915년에 준공된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 봉선사(奉先寺), 진접읍 부평리 225
 광릉 맞은편, 광릉수목원 옆에 위치한 절이다. 능인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의 운악산 기슭에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의 본사이다. 김수온이 지은 <봉선사기(奉先寺記)>에 의하면 정희왕후의 명에 의하여 세조의 부마였던 하성부원군(河城府院君) 강현조(剛顯祖)와 개유정란(癸酉靖亂)의 공신이었던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희(韓明熙), 능성부원군(陵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 등이 영건 제조(營建提調)가 되어, 아늑하고 물맛 좋은 곳에 터를 잡아 절을 짓는데, 6월에 시작하여 7월 27일에 낙성하고 9월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봉선사라는 절의 이름은 예종이 사역(賜額)한 것으로 전황의 농침을 수호하는 원찰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봉선사의 여러 전각은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중수·중건되어 오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들은 모두 그 이후에 복원

된 것이다.

- 남양주봉선사괘불(南楊州奉先寺掛佛), 진접읍 부평리 255, 경기도유형문화재제165호

봉선사괘불은 1735년(영조 11) 상궁 이실애가 영빈김씨를 위해 제작하였다. 괘불은 위쪽에 비로자다삼신불을 모셨고, 중간 아래에는 8대보살이 있는데 아난과 가섭을 비롯해 10명의 열자와 천군·천녀가 두광 주위에 차례로 배치되었다. 아난과 가섭 사이에는 천녀와 동자가 묘사되었으며 그 아래 끝으로는 천녀와 권투중이 묘사되어 있다. 특별한 때에 큰 법당 좌측에 봉안하고 있다.

- 봉선사보운당부도(奉先寺報雲堂浮屠), 진접읍 부평리 225

봉선사 보운당 부도는 사찰의 경내 입구 진입로에 있는 큰 주차장의 길 건너편 약 5m 자점의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방형의 지대석위에 기단부를 두고 위에 탑신을 올리고 그 위에 옥개석을 덮었으며, 최상부에 삼문을 얹었다. 지대석은 직사각형의 평평한 장대석 3대를 가지런히 놓았고 그 위에 기단을 올렸다.

- 봉선사당간지주(奉先寺幢竿支柱), 진접읍 부평리 225

이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있는데,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당간지주는 지주 2개가 독립된 돌로 이루어지고 모두 기단에 올려져있어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지만, 이 당간지주는 크기도 작고 1개의 대석을 이용하여 한쪽을 잡아 내어 양쪽 기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의 당간지주는 두 기둥사이가 완전히 틀려 있는 것에 반하여 한쪽 면만을 잡아 냄으로써 Ⅱ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봉선사하마비(奉先寺下馬碑), 진접읍 부평리 225

이 하마비는 봉선사 입구 우측 비석군 내에 함께 있다. 원래 사찰 경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하마비는 2단으로 깨어진 채 출토되었는데 비산에 '大小人馬下馬'의 비문 및 하던 '馬'자 부분이 3등분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봉선사대종(奉先寺大鐘), 진접읍 부평리 255, 보물제397호

이 종은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 대표적인 동종(銅鐘)의 하나이다. 1469년(예종 1)에 왕실의 명령에 따라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봉선사의 창건시 주조되었다. 이 종은 종구가 넓어지고 종신의 황대, 조각 수법 등에서 고려양식을 탈피하고 조선시대 범종 양식의 선례가 되는 작품으로 주목되어 왔다. 조선 전기 동종 연구와 양식의 형식 규명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남양주부평리(南楊州富坪里)느티나무, 진접읍 부평리 255, 경기남양주11

이 나무는 봉선사의 청풍루 전면, 경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중심 줄기의 높이 4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나뉜 줄기는 잔파 휘어진 채 올라가고 있다. 전체 모습은 마름모 형태에 가까우며 꺾임이 심하게 벗겨진 중심 줄기에는 이끼가 끼어있고 돌기가 발생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의 발달이 직교 수관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춘원이광수기념비(春園李光朱紀念碑)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요한이 비문을 짓고 김기승이 글씨를 썼으며, 1975년 5월29일에 제막되었다.

6) 팔아리(八夜里) [어덥밤이, 팔야]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진법면 지역으로 1914년 4월1일 진접면 팔아리와 검단리 일부를 병합하여 팔아리라고 하고 진접면에 소속되었다. 1989년 4월1일 진접면이 dgm으로 승격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검단(黔丹) [검단이, 검다니]

학림마을 북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 동쪽 산에서 해가 뜰 때는 검게 보이고 해가 질 때에는 붉게 보인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수풀이 짙어서 어두웠던 마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60 남양주사의 권리지명

설도 전한다.

•광능내 [새말, 신촌]

광야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신접을 북부시의 삼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꽃재말 [하촌(下村)]

죽림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광야리의 재 아래에 있어서 하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산(丹山) [멧검단]

검단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지금은 세대수가 적어서 학림과 단산을 합쳐 하나의 직언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도곡(陶谷) [독점마을]

검단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북쪽으로 포천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고려시대에 이곳에서 독을 구웠던 독점이 있었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아작고개 [아재고개]

학림과 중원 사이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 흉년이 들었던 시기에 어떤 농부가 너무 배가 고파 이 고개에서 자기 사식을 잡아 먹고 말았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전해진다. 혹은 '아저작고개'라고도 불리는데, 호랑이가 이 고개에서 사람을 '아작'하고 잡아먹었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전한다.

•양짓말

학림과 검단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의 위치가 해가 잘 드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왕숙천(王窟川) [왕산천(王山川)]

남양주사 서쪽을 관통하여 흐르는 대의 이름이다. 왕窟(王窟)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태종이 형제들을 중이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는 함흥으로 가버렸고 이에 태종은 사차왕 보내 부친이 돌아오도록 백발 노려했으나, 태조는 일체 거절을 하고

사자들마저 모두 죽어버렸다. 태종은 궁리를 거듭한 끝에 태조의 사부라 할 수 있는 부학대사를 보내어 겨우 태조를 환궁시킬 수 있었다. 이때 태조가 현상으로 돌아오는 도중, 지금의 남양주시 진접면 팔아리에서 여덟 밤을 자고 갔으므로 이 마을 이름이 여덟배미 또는 팔아리(八夜里)라 부르게 되었고 이 마을 앞을 흐르는 내를 '왕이 자고 갔다'는 의미로 왕숙천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태조의 건원몽을 비롯한 동구몽과 세조의 광통 등 여러 임금들의 능이 있는 하천이라는 뜻에서 연유했다는 주장이다. 세조가 광복에 안장(安葬)된 후, '왕이 길이 잠든다(永寤)'는 뜻에서 '왕숙천'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왕산내 혹은 왕산천(王山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역시 '왕의 산(陵)'과 관련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1861년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여지도』에도 왕산천(王山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 팔아리(八夜里) [원팔야, 여덟밤이, 여덟배미]

팔아리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 태조가 함흥에 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곳에 이르러 여덟 밤이 되었으므로 태조가 '아, 여덟 밤이로구나.' 하여 여덟밤이 또는 팔아라 하였다고 한다.

• 학림 [학림, 황림동(黃林洞), 아랫검단]

검단 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황림동이란 옛날에 황씨와 임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라 한다. 검단 마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랫검단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마을까지 '검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 유순묘및묘갈(柳海墓및墓碣), 진접읍 팔아리 산110

유순(1441~1517)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희명(希明), 호는 노포당(老圃堂). 세자익위사 세마(洗馬)를 지낸 사공(思恭)의 아들이다. 묘는 진접읍 팔아리 독결밭에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한 정경부인 장씨와의 합장묘이다.

• 임중선묘및묘갈(任中善墓및墓碣), 진접읍 팔아리 산88

임중선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홍산(洪山)이다. 묘는 팔아

62 남양주사의 장래지말

리 끝갯말 토선재 뒷산에 서향하여 있다. 봉분 위에 활개를 갖추고 있고, 그 앞에 사각형의 봉분을 만들었다. 요길은 향로석 우측(북쪽)에 남향하여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관각기둥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건립연대는 1860년(철종 11)이다.

- 남양주팔아리(南楊州八夜里)느티나무, 진접읍 팔아리 170, 경기남양주10
팔아리 경단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 350년, 높이 23m, 둘레가 4.7m에 달한다. 송풍불뚝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역동감 있는 중심 줄기에는 직경 95cm 길이 1m 정도의 커다란 동공이 생겨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7) 진벌리(楸伐里) [경벌, 진벌]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진벌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진벌리와 중리, 그리고 경단리 일부를 병합하여 진벌리라 하여 한말면에 편제되었다.

•덤바개 [덤불바개]

진벌 남쪽에 있는 논밭의 이름이다. 덩굴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상남배이 [상남배들, 상나무배기]

진벌리 중리마을 동남쪽에 있는 들밭의 이름이다. '상나무배기'라는 이름은 이 들밭에 향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밭

진벌마을 남서쪽 지역으로 진벌마을을 이루는 하나의 마을이다. 마을에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콩달말

진벌마을 동남쪽 지역으로 진벌마을을 이루는 하나의 마을이다. 우

물이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중립(中立) [중립, 중마을, 중말]

진별마을과 부평리의 장릉내마을 중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진별[가얌벌, 가얌벌리, 갠벌]

진별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가얌나무(개얌나무)가 많아서 '가얌벌', '갠벌' 등으로 불리다가 '진별'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름 유래에 따른다면, 이 마을은 '가얌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이곳은 가얌나무가 많았는데 가얌나무를 베어버리고 형성된 마을이어서, '가얌벌리'로 불리다가, 이의 한자어인 '진별(兼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이름 유래에 따른다면, 이 마을은 '가얌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복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8) 금곡리(金谷里) [쇠파니, 쇠꾸니, 금곡]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진별면 지역으로 1914년 금곡리의 '금'자와 주곡리의 '곡'자를 따서 금곡리라 하여 진접면에 편제되었다.

•가마솔골

웃말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숲을 만드는 가마솔이 있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한편 마을의 지형이 마치 가마솔을 길어놓은 형상이어서 가마솔골로 부른다는 설도 전한다.

•간촌(間村) [셋말]

주곡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아랫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곡(金谷) (원금곡, 쇠푸나, 쇠파나)

주곡의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 쇠가 많이 나서 '쇠푸나', '쇠파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금곡(金谷)'이 라고도 불리는데, 이 역시 쇠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금곡마을이 점차 커지고 리 이름으로도 쓰이게 됨에 따라, 구별을 위하여 원래의 금곡마을이라는 의미의 '원금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억고개

금곡리에서 건널라도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용역을 하다가 의식을 잃으면 이 고개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를 '억낸다'라고 불렀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고개 나무비에 서낭당이 있어서, 건널라와 금곡리 사이를 왕래하던 사람들이 예를 표하고 지나다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벼락소

웃말의 서북쪽 금곡교 근처에 있는 언뚝의 이름이다. 하늘로 올라가던 용이 벼락을 맞고 이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혹은 벼락이 쳐서 바위가 쪼개져서 이 소(안곳)의 깊은 물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벼락소라 부른다고 한다. 이 이야기들과는 달리 나뭇잎의 재게를 갖춘 상자못 전설 유형의 이야기도 전한다.

옛날 선감역이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굉장히 인색했다고 한다. 하루는 동냥하러 온 중에게 쇠똥을 퍼서 주었는데, 이를 본 그 중이 머리가 민타까운 마음에 바가지를 찢고 쌀을 한 바가지 베풀었다. 이에 중이 "들어보지 말고 나를 따라 오라"하여 뒷산으로 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졌다. 머느리가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집은 벼락에 맞아 불이 붙었다가, 쏟아져 내린 폭우에 깊은 못이 되어버렸다. 선감역의 가족들은 이 때 내려온 벼락에 맞아 모두 죽었고, 그 머느리 역시 뒤를 돌아본 까닭으로 선감터에서 그만 바위(혹은 돌부처)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선감역의 집터는 쏟아져 내린 폭우에 못이 되었는데 이것이 벼락소라고 한다.

•주곡(周谷) [주리골, 주유골]

간촌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삼면이 두루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있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두릅이 많기 때문에 주곡이라 부른다고도 한다. 또한 '주리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이곳이 주리를 틀었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밖에도 '주유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유씨(柳氏)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철마산(鐵馬山)

진접읍의 금곡리 진벌리와 수동면 수산리 경계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높이 720m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나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는 '검단산(黔丹山)'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 마을 사람들은 '철마산'이라고만 부르며, 철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름 유래를 말한다. 북쪽 봉우리인 '검단산'은 '검은 산' 또는 '수풀이 우거진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남쪽 봉우리인 '철마산'은 쇠푸니의 이름 유래와 관련이 되어서 '쇠를 캐는 광산'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철마산'은 남북 봉우리가 달리 불리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10년대에 지형도를 만들 때, '철마산'만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검단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두 봉우리를 모두 '철마산'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봉산(花峰山)

가마솔골마을 남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글자 그대로 이 산의 봉우리에 꽃이 많아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남양주금곡리유적(南楊州金谷里遺蹟). 진접읍 금곡리 581일대

이 유적에서는 3곳에서 석기가 수습되었으며, 지석묘 2기, 방추차 등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다.(1999년 한림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 또한 조선 후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토광묘 6기, 소성유구 1기, 축대와 성격미상의 석축유구 1기 등 총 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청동술가락과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2005년 상명대학교 발굴조사)

•한혜묘(韓惠墓), 진접읍 금곡리 산125

한혜(1403 - 1431)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호는 송재(松齋)이고 본관은 청주이다. 개국공신 시원부원군 영의정 한상경의 아들이며 이조판서 한계희의 아버지이다. 묘는 금곡리 버스터미널 뒤편 가마솥골의 청주한씨 묘역이 있는 나지막한 구릉 중턱에 남서향하고 있는데 정경부인 성주이씨와의 합장묘이다. 전체적으로 고려식 묘역제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혜 묘의 바로 밑에는 정경부인 창녕성씨의 묘가 있다. 한혜 묘와 부인 창녕성씨 묘역 사이의 좌측에 있는 묘표는 상부 연봉을 갖춘 고알형의 고려식 형태이다.

•한상경묘(韓尙敬墓), 진접읍 금곡리 산125

한상경(1350~1423)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관으로 개국공신의 한 사람이다. 자는 숙경(叔敬)·경중(敬仲), 호는 선재(信齋)로 본관은 청주이다. 고려 호부상서 공의의 손자로 관후덕부사 수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길상군 권척의 딸이다. 그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의에 가담하고 옥새를 받들어 이성계에게 바쳤다. 그 공으로 개국공신 8등에 녹훈되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다.

묘는 진접읍 금곡리 3리 별밭골과 가마솥골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구릉에 부인 오씨의 묘와 남서향하여 앞뒤로 나란히 있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밑받대에 비신 연화형인데 글씨가 마모가 되어 판독하기 힘들다. 사당 앞에 새로 묘정비와 선도비를 세웠다.

•한계순묘(韓繼純墓), 진접읍 금곡리 산125, 경기도문화재자료제102호

한계순(1431~1486)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수옹(粹翁), 시호는 양평(襄平), 본관은 청주이다. 개국공신 상경의 손자이며, 한길도관찰출역사 혜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성담생(成坦生)의 딸이다. 예종 대에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수충보사명가정난익대공신 1등에 책록되고, 청평군에 봉하여졌다. 묘는 한상경 묘에서 동쪽으로 100여m의 거리에 있는데 정경부인 안동권씨와의 합장으로 남서향하여 앞뒤로 나란히 있다. 봉분 앞에는 고려시대 양식의 묘표가 있는데 1486년(성종 17)에 세운 것이다.

한계순 묘에서 2단의 계체석간 550cm의 거리를 두고 부인 안동권씨 묘가 있다. 안동권씨 묘의 묘표는 1485년에 세워졌으며, 크기는 계순의 것과 동일하다.

•한계순묘갈(韓繼純墓碁), 진접읍 금곡리 산125

이 묘갈은 묘역 아래 입구에 서북향하여 있는데 비신은 화강암제로 상부연화문형의 화관석형으로, 상부의 연봉장식이 수려하다. 비문의 건립연대는 성화(成化, 1465~1487)의 연호로 보아 한계순의 사후 바로 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참판 김유가 지었다.

•한상경사당(韓尙敬祠堂), 진접읍 금곡리 787 경기도유형문화재제166호

이 사당은 조선초의 개국공신인 한상경을 모신 것으로 금곡3리 마을 내에 있다. 사당은 정면3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형태로 사당 안에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6호인 신제 한상경 영정의 모사품이 걸려 있다. 한상경 영정은 1998년에 지정된 것으로 현재 진품은 국립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사당 앞에는 새로 묘정비와 신도비가 있다.

3. 화도읍 (和道邑)

화도읍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上道面, 21개동)과 하도면(下道面, 18개동) 지역이었다. 상도면과 하도면은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큰 길의 위쪽과 아래쪽 길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4월1일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상도면과 하도면을 통합하여 화도면이라 하였고, 묵현리 녹촌리 등 13개의 리로 개편되었다. 1963년 1월1일 법률 제1175에 의하여 운수 송천 지둔의 3개 리는 수동면으로 이관되었고, 1991년 12월1일 군조례 제810에 의해 화도면을 화도읍으로 승격하였다.



1) 마석우리(磨石隅里) [멧돌모루, 멧돌머루, 마석우]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화도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4월1일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신성리 일부와 세전리를 병합하여 마석우리라 하여 화도면에 편입하였다. 1991년 12월1일 화도읍으로 승격하여 여기에 소속되었다.

•멧돌머루 [마석우]

심석중합고등학교 남쪽 지역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서 멧들이 많이 생산되었고, 마을의 길이 들어서 생겼다고 해서 '멧돌머루'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자로 마석우(磨石隅)라고도 부른다.

•바구내

아래담계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의 남서쪽에 바구내들이 있다.

•산성(山城) [매재, 머재]

마석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 중앙이 깊숙하고 주위가 산처럼 둘러싸여 마치 성과 같이 생겼으며 사방에 성문과 같은 고개가 있어 산성, 또는 매재, 머재 등으로 부른다.

•아래담계 [계전]

마석우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즉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지형이라 하여, 아래담계 또는 계전으로 부른다고 한다.

•순국선열추념비(殉國先烈追念碑), 화도읍 마석우리 292-4

마석우리 읍사무소입구 옆에 있는 기념비이다. 이 비는 1919년 3월 16일과 3월 18일 및 3월 19일에 펼쳐진 지역 인사들의 독립만세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5일 당시 남양주군수 이성환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면장최형식거사비(面長崔暎植去惡碑), 화도읍 마석우리 202-4

이 비는 마석우리 화도읍사무소 옆에 있는데 본래 화도읍 북촌리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소화(昭和) 19년(1944)에 일주군 화도면민 일동이 면장이었던 최형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목사조석우애민선정비(牧使曹錫雨愛民善政碑), 화도읍 마석우리 202-4

이 비는 화도읍 사무소 옆에 있는데 비의 전면에 “行牧使曹公錫雨愛民善政碑”라 기록되어 있다. 비의 앞뒷면에 글씨가 있지만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2) 북현리(墨峴里) [먹고개, 먹갓, 묵동]

•먹고개 [먹갓, 묵동]

북현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천마산과 마치고개 아래 지역으로 옛날에 검은 갯을 만들어 팔았던 동네라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묵동 [먹갓 묵현]

북현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 검은 갯을 만들어 팔았던 동네라 하여 묵동이라 부르고, 먹갓, 묵현 등으로도 부른다.

•사당터

묵동 서북쪽에 있었던 장소의 이름이다. 현재 천마산 스키장 주차장 자리에 해당한다. 의안대군의 사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아김바위

윗담계 동쪽, 송라산 북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모양이 아가리를 벌리고 세러다보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양현(兩峴) [민터]

묵동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의 앞뒤로 고개가 있어서 현자이로 양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한 ‘안터’라고도 한다.

•원지(院址) [원터]

목현리 367-6번지로 옛 원터가 있었던 곳이라고 전한다. 이곳은 강원도 춘천 방면으로부터 한양으로 가는 무인지경(無人之境)의 대로변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원(院)을 두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약 100여 년 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지명만으로 전하여 온다.

•웃담계

목현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아래담계의 위쪽(북쪽)에 있다.

•직골 [직동(直洞)]

목현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이 골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3) 가곡리(嘉谷里) [가오실, 가곡]

가곡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 지역이었다. 1914년 4월1일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화도면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12월1일에 다시 화도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여기에 편제되었다.

•가오실 [가곡]

가곡1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지형이 카오리처럼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가곡대산이 자신이 살던 집을 부르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설도 전한다.

•산신터 [산신당]

가오실 서쪽에 있는 계당이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1년에 한번씩 산신제를 지냈는데, 요즘에는 3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소경우물 [쇄경우물]

가오실 서쪽에 있는 우물 이름이다. 이 우물에는, 옛날 장님이 이곳의 물을 먹고 눈을 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따라서 '소경우물'은

73 남양주시의 선례지명

소성이 마시고 물을 뜬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우물은 '해령우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소정우물'이 변해서 된 것으로 보인다.

•양짓말 [양달말]

가모실의 남동쪽 평촌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의 동쪽으로는 음달말이 있다.

•음달말

가모실의 남동쪽 평촌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의 서쪽으로는 양짓말이 있다.

•보광사(寶光寺), 화도읍 가곡리 산64-1, 420-2, 419

1851년(철종 2)에 갑신 이윤환(1814~1888)이 증건하고 화남천사를 초빙했다는 기록이 『조선사본말사지(奉先寺本末寺誌)』에 있으나 1848년 화남선사가 입적하여 1851년 이전의 장건실도 세기되고 있다. 1894년(고종 31) 통설화상이 증수했으나 1959년의 한국전쟁으로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고 이후 학산 영순스님이 중창하고 1982년 이후 화담스님이 호지 대입 후 사세를 확장하여 봉괴지천의 대웅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의 대웅전을 그 앞에 지었다. 가천 천우스님이 98년 이후 사찰 경내를 정비하고 2000년에는 남양주시의 보조로 기존에 붕괴상태에 있던 대웅전을 대신해서 삼성각을 지었다. 대웅전 안에는 최근에 조성된 석가모니불과 박감용이 그린 석가모니후불탱과 신중탱이 있고 삼성각에는 목조탱인 처성왕어래상이 있으며, 동심탱과 산신도가 각각 해당 상 뒤에 걸려있다.

•남양주가곡리반송(南楊州嘉谷里盤松), 화도읍 가곡리 산67-1, 경기남양주52

보광사 안에 있는 반송으로 2005년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주변이 공원화되어 있어 보호가 잘되어 있으며 주변에서 떨어진 가지들을 기둥을 새워 반히고 있다. 수령 300년, 높이 5m, 흉고둘레는 1.2m이다.

•남양주가곡리(南楊州嘉谷里)은행나무, 화도읍 가곡리 257-4, 경기남양주21

이 나무는 가곡초등학교에 이르기 전, 좌측에 있는 가오실마을 안에 있다. 이 은행나무에는 조선조 성종의 손자인 여성군이 별내면 중리에서 이 곳으로 이사해서 영겨있던 다래와 취녕쿨을 제거하던 중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토담집이 허물어진 흔적을 발견했는데 여성군이 크게 자랄 나무라 하여 소중히 여겼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높이 3.5m 부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사방으로 잎과 가지가 고무 발달하여 전체 모습은 펼치진 부채모양이다. 수령 550년, 높이 20m, 흉고둘레는 7.0m이다.

4) 구암리(九岩里)

구암리는 조선시대부터 현말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양주군 상도면에 속했었다. 1914년 구곡리의 '구(九)'자와 웅암리의 '암(巖)'자를 따서 구암리라 하여 화도면에 소속되었다.

•두바위 [감투바위]

진별마을 동북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한 바위 위에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또 다른 바위가 올려져 있다. 아마 바위가 두 개가 있어서 '두바위'라고 불리게 된 듯하며, 한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마치 감투를 쓴 것처럼 보여서 '감투바위'라고도 불리게 된 듯하다.

•매바위 [응암(鷹岩)]

바깥구운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 모퉁이에 매처럼 생긴 매바위가 있다고 해서, 매바위라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바깥구운 [외구운]

구암천이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서남쪽 유역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부터 명당자리로 소문이 난 곳이라고 한다.

7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셋터 [신대(新垔)]

전날 남동쪽 북한강가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파평윤씨가 새롭게 터를 잡아 이룩한 마을이라 해서 셋터 또는 이의 한자식 이름인 신대라고 부른다.

•진벌(槓伐)

용암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가암나무가 아주 많은 곳 이어서 가암벌이라 부르던 것이 겹벌로 변하고, 다시 진벌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진(槓)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전한다.

•사기막나무터(沙器幕), 화도읍 구암리 585

이 나무터는 화도읍 구암리 북한강변에 있다. 마석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대성리 방향으로 진행하면 45번 국도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70km 진행하면 우측으로 봉사원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과거 가평군 외서면의 사기막마을과 활래하던 수살교통로로서 현재는 구암수상스키장이 있다.

•남양주구암리유물산포지(南楊州九峯里遺物散布地), 화도읍 구암리 6-28, 179-1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구암리 비슬길로 진입하여 나타나는 좌측 말장석지 일대에 해당한다. 북쪽으로는 가평군과의 경계가 되는 구운천이, 동편으로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강안 충적지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이며 서편으로 인접하여 바로 정사가 급한 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조선시대 도기편, 와편 등이 발견된다.

•인촌김성수묘(仁村金性洙墓), 화도읍 구암리 산102-3

김성수(1891~1955)는 교육가·언론인·정치가로 호는 인촌(仁村)이며 본관은 울산으로 전라북도 고창출신이다. 묘는 금남리의 금남저수지를 바라보는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있다. 묘역 입구에는 기념비가 있는데, 전면에는 "仁村金性洙先生之墓"라 써 있고, 인촌김성수

선생기념회에서 만든 비문이 있다. 이 비는 1965년 2월에 세워진 것이다. 신도비는 묘역 바로 좌측에 있는데 전면에는 “仁村金性洙先生之墓”라 써 있다. 이 비는 고려대학교 안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이 비는 1965년 2월에 세워진 것이다.

5) 금남리(琴南里)

금남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양주군 하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금대마을의 금(琴)자와 남중리의 남(南)자를 따서 금남리라 하여 화도면에 소속되었다.

•금대(琴臺)

남일원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약 400년 전 전씨 일족이 만든 마을이다. 이 전씨 일족 중에는 음율을 좋아하던 이가 있었는데, 매일 거문고를 타고 놀았다고 해서 검타라고 부르다가, 한자화되어 금대(琴臺)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남일원 [아래남일원]

금산마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청평담에서 물을 내밀었다고 해서 내밀원이라고 불리다가 남일원으로 변화했다고 전한다. 한편 약 300여년전 진주유씨 조상이 이곳에 남일원이라는 서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금대마을 북동쪽에 있는 '윗남일원'에 대응해서 '아래남일원'이라고도 부른다.

•닥박골

신당재마을 북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닳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닳박골이라 부르던 것이 점차 닳박골로 변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마을 북쪽에 같은 이름의 골짜기가 있다.

•백월

금남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약 300여년전 이곳에 한평이씨의

76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조상들이 강변에 백월정(白月亭)을 지은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신당재

한다리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남일원

금대마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남서쪽에 아랫남일원과 대응되는 이름이다.

•한다리 [백월리]

금남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길이 좁아서 양쪽 다리로는 못 들어가고 한쪽 다리만으로 드려갈 수 있는 마을이라서 한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한편, 한국전쟁 때 마을 사람 중에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백월리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남양주금남리유물산포지(南楊州琴男里遺物散布地)1, 화도읍 금남리 136-17, 197-1, 196, 155-15일대

이 유적지는 금남리 지석묘에서부터 남서쪽 강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유적지이다. 유적지 대부분이 이미 민가 군부대 및 위락 시설이 들어서 있어 유물은 민가와 민가사이의 협소한 경작지에서 발견된다.

•남양주금남리유물산포지(南楊州琴男里遺物散布地)2, 화도읍 금남리 207-1, 202일대

금남3리 강변에 위치한 밭경작지 일원이 유물산포지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팔당댐 수몰지구에 대한 구체개발 당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5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이다. 약간의 부분토기편과 초기철기시대 토기편 그리고 소량의 석기류가 발견되었다.

•남양주금남리유물산포지(南楊州琴南里遺物散布地)3, 화도읍 금남리 209, 18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금남리 유물산포지1의 길 건너편 마을 남쪽의 넓은 충적대지에 해당한다. 유적의 대부분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선사시대의 정철 부분토기가 확인되었다.

- 남양주금남리유물산포지(南楊州琴南里遺物散布地)4, 화도읍 금남리 209-5, 417-41, 542일대

조안면 필산리의 동편 퇴적지 일대가 이 유물산포지이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정철토기편 3점이 발견되었다.

- 남양주금남리유물산포지(南楊州琴南里遺物散布地)5, 화도읍 금남리 107-4, 128, 106-4일대

이 유적은 금남리 지식묘군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m떨어진 45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밭에 있다. 유물산포지 주변으로 전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국시대 대규모 취락지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 남양주금남리느티나무(南楊州琴南里), 화도읍 금남리 511-7, 경기남양주 22

이 보호수는 조안면의 금남교를 지나서 프린스호텔 앞쪽에 있다. 이 나무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화도읍 금남2리의 당산목이다. 전체 모습은 높이 1.5m 부위에서 다섯 갈래로 펼쳐진 부채모양이며 내부에 설치된 당감줄이 나무의 모습을 고정하고 있다. 수령 600년, 수고 14m, 흉고둘레 7.7m에 이른다.

- 남양주금남리느티나무(南楊州琴南里)2, 화도읍 금남리 196, 경기남양주 23

이 나무는 금남3리 금대마을의 음식점 앞에 북한강을 향해 서있다. 이 나무에 인접해서 인근 가옥의 담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 전면으로 장벽으로 연결되는 차도가 지나고 있어 불리한 생육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세가 강건하다. 수령 400년, 수고 20m, 흉고둘레 6.8m이다.

- 남양주금남리나무터(南楊州琴南里), 화도읍 금남리 137-4

금남3리 하머골입 파리'랫알이 보이는 도포번의 강변에 나무터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도 화도읍 금남리와 양평을 연결하는 나무로 이

78 남양주시의 권리지명

용되고 있으며 5개소의 수상스키 및 모터보트 선착장이 있다. '쌍수호' 동력선 1대가 운항하고 있다.

•남양주금남리지석묘(南楊州琴南里支石墓), 화도읍 금남리 155-26

이 지석묘는 온혜의 집 뒤편 밭에 있다. 금남리 유물신평지1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인근 주민의 밭에 의하면 옛 지명이 범바위, 양바위로 불릴 정도로 많은 지석묘들이 있었으나 민간들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남양주금남리내미연나무터(南楊州琴南里), 화도읍 금남리 814

금남리 도로변의 뉴월드호텔과 이가개산장 맞은편의 금남교회와 인접한 장면에 내미연 나무터가 있다. 화도읍 금남리와 양천 서종면 문호리를 연결하던 나무로 60년대 중반까지 배가 다녔으나 현재는 밧길만 남은 상태이다. 나무가 난 지마다 금남리를 휩쓸 듯이 내미연 '내미연'이란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촌원묘(李壽元墓), 화도읍 금남리 산56-9, 남양주 향토유적 제6호

이촌원(1571~163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초명은 신헌(信元), 자는 원길(元吉), 호는 구원(九峯)으로 본관은 함평(咸平)이다.

금남리에 진입하여 백월교를 지나면 좌측의 석양이 있으며, 석양 북편에 초로를 따라 진입하면 신평비가 나온다. 묘역은 신평비에서 서편 구릉으로 약 70m 지나 함평이씨 묘의 대일 위에 동향하여 청우인 해평윤씨와 합장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묘소에는 묘표, 혼유석, 상석, 세세석, 망주석, 운인석의 석물이 있다. 미는 1634년(인조 12) 건립되었다. 2008년 8월 13일에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이촌원신평비(李壽元神道碑), 화도읍 금남리 708-1

이 신평비는 함평이씨 묘역 입구에 동남향하고 있다. 비문은 송정대부행 이조판서 김상헌이 짓고, 사위인 풍촌대부행 문조정랑 윤순자가 글씨를 썼다.

6) 장현리(倉峴里)

장현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화도면 지역이었다. 1914년 4월1일에 장현리 월길리 우수동 신성리 궁촌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현리라고 하고 화도읍에 편입되었다. 1991년 12월1일 화도면이 화도읍으로 승격되자 이에 소속되었다.

•달길리 [달기산, 월산리]

장현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현 [말미]

장현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약 400여년전 나라의 양곡창고에 곡식을 보관하고 말질(斗量)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무시울 [무시동]

달길리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조선시대 고관이 이 지역으로 낙향하여 정자를 세웠는데, 그 정자 이름을 '무수정(無愁亭)'이라 칭한 데서 '무수'로 풀리다가 김자로 '무시울' 또는 '무시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산마을

안산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달길리의 서남쪽에 해당한다.

•장현 [노루너머, 노루머리]

황새머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 이 지역에 노루가 많아서 사냥꾼들이 많이 잤다고 해서 '노루머리', '노루네' 또는 한자로 '장현(鐘峴)'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창현리(倉峴里)

석방 창고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마석초등학교 자리에 해당한다.

•황새머리 [학수(鶴首)]

창현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소나무가 두꺼워 왕새가 많이 날아오는 마을이므로 황새어리라고 부른다 한다.

• 영선군이준용묘(永宣君李埈鎭墓), 화도읍 창현리 산15-1

이준용(1870~1917)은 조선의 왕족으로 자는 정극(秉極), 호는 석정(石庭)·송정(松亭)이다. 흥선대원군의 적손으로 완흥군 이계연의 아들이며, 고종의 조카이다. 마석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창현리 입구가 있고 흥선대원군묘역으로 진입하는 입간판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진입하면 흥선대원군 묘역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남사편 구룡의 소로를 따라 100m 진행하면 구룡 살단에 묘역이 있다.

• 영선군이준동신도비(永宣君李埈鎭神道碑), 화도읍 창현리 산23-2

이 신도비는 묘역에서 약 30m아래에 남향하여 있다. 장방형 미려와 오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 흥원(興園), 화도읍 창현리 산22-2, 경기도기념물제48호

흥원은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하술(1820~1898)의 묘이다. 이하술의 자는 시백(時伯), 호는 석파(石坡)이며 시호는 원의(獻懿)이다. 철종(조선 25대)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신정왕후 조씨에 의해 흥선군의 둘째 아들(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대원군에 진봉되면서 국정을 관여하였다. 법전을 완미하여 중앙집권적 정치기강을 확립하였다. 비변사를 폐기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한편 삼군부를 두어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다. 새해를 개역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였고, 백성의 생활을 민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한편으로는 원주교를 탄압하였고, 서양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서양의 풍습 요청과 일본의 국교교섭 요구도 거부하는 강직한 대외정책을 폈다. 그러나 집권 10년 만에 경성왕후와의 안락으로 1873년에 은퇴하였다가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다시 집권하였으나 침에 납치되어 집권에 4년간 관여 일기도 하였다. 마석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창현리 입구가 있고, 흥선대원군묘역으로 진입하는 입간판을 따라 500m 진입하면 묘역에 다다른다.

•이우묘(李鏞墓), 화도읍 창천리 산22-2

이우(1912~1945)는 의친왕의 둘째아들로 이재면의 아들인 이준용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고종에 의해 그의 양자가 되었다. 묘는 흥선대원군 묘역 우측에 있다. 국장을 두르고 호석과 중간에 망석이 있다. 또한 그 앞에 삼대석을 놓았고, 삼석 앞에는 사자 향로석과 육각 향로석이 있다.

•이재면묘(李載堯墓), 화도읍 창천리 산22-2

이재면(1845~1912)은 조선의 왕족으로 자는 무경(武卿), 호는 우석(又石)이고 뒤에 희(熹)로 개명하였다. 흥선대원군과 여흥인씨 사이의 장남으로 고종의 형이며, 영산군 준용의 아버지가 된다. 묘는 흥선대원군 묘역과 인접하여 있다. 묘소에는 석호, 양석, 삼석, 장대석, 망주석, 문인석, 강명등, 말석 등의 석물이 있다.

•이재면신도비(李載堯神道碑), 화도읍 창천리 산22-2

신도비는 묘에서 약 25m 전방에 있다. 비문은 김윤석이 짓고 윤용구가 썼으며, 김성근(金聲根)이 현역을 하였다. 아울러 경학원 대제학 정만조(鄭萬朝)가 추기를 씌는데 건립연대는 1932년이다. 신도비 앞에는 비각으로 보이는 흔적만 남은 곳이 있는데 뒷면에는 돌을 쌓았으며, 그 앞에 가로 11m 세로 10m로 키포 보이는 곳이 있다.

•남양주창천리유물산포지(南楊州倉峴里遺物散布地)1, 화도읍 창천리 산27-1, 454~14일대

마석사거리에서 흥선대원군묘역의 간판을 지나면 창천리 황새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유물산포지는 황새마을 남쪽 구릉의 비탈면이다. 서편으로는 하천인 창천천이 흐르고 있으며, 구릉과 하천 사이는 낮은 논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유물들은 고려시대의 도기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도기편들도 발견된다.

•남양주창천리유물산포지(南楊州倉峴里遺物散布地)2, 화도읍 창천리 652, 654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경작지 가운데로 난 소로와 그 주변의 일부 경작

82 남양주시의 권리지명

지에 해당한다. 유물은 조선시대 백자편과 토기, 모기 편이 소량 발견된다.

7) 답내리(答內里)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한양까지 양주군 상도면의 지역이었다. 1014년 답동(答洞)의 답(答)자와 내동(內洞)의 내(內)자를 따서 답내리라 하여 회도면에 소속되었다. 1991년 12월 1일 화도면이 화도읍으로 승격하자 이에 소속되었다.

•내동(內洞)

답동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안으로 쪽 들어가서 형성된 마을이어서 내동이라고 부른다.

•답동(答洞) [논골]

신포마을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논이 마을 앞으로 펼쳐져 있어서 논 마을이라는 의미의 답동(答洞)이라 불린다. 논 우리말 어원인 '논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신포(新浦) [새개]

답동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서쪽의 못밭과 동쪽의 아랫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200여년전 수해로 이 마을 인근에 새로운 개울이 생겨서 새개 또는 이의 한자어인 신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원천

답동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원두리의 옛이름이라고 전한다.

•남양주답내리느티나무(南楊州答內里), 화도읍 답내리 431-2, 경기남양주24 이 나무는 답내2리의 답내초등학교를 지나 논골이라 이름 붙여진

담동마을 한가운데 서 있다. 길이 부성하며 전체 모습은 눈으로 처진 가지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다. 6.2m에 달하는 가슴높이 부분의 줄기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수령 500년, 높이 15m, 흉고둘레 6.2m에 이른다.

8) 월산리(月山里) [달미, 당미, 망미, 월산]

월산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1일 새월산리 검약리를 병합하여 월산리라고 하고 화도면에 소속되었다. 1991년 화도읍으로 승격되자 이에 소속되었다.

•도현 (도수래, 도시래)

김촌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등경골

도현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어떤 풍수가가 남평문씨의 묘터를 잡으면서, 이 지역의 모양이 등간처럼 생겨서 또는 등간을 길어 놓은 모양이어서 '등경골'이라 불렀다고 전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미려한 유래와는 달리 가뭄이 들어 물이 귀한 때에도 물이 등간힐의 기류와 같이 잘 나오는 마을이라고 해서 '등경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새월산(新月山) [가래담미]

김촌 서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파평윤씨들이 모여사는 지역이다. 이 마을에서 달이 뜨는 것을 보면 능이 가늘게 보인다고 해서 '가래담미'라고 하고 이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 새월산이라고 한다.

•월산 [달봉, 월봉(月峰), 월길산, 달거리산]

새월산 동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달봉, 월봉, 월길산 또는 달

84 남양주시의 천리지명

기리산 등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다양한 산 이름들은 모두 달이 뜨는 산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점촌 [점막]

새월산마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순천과 흥천을 자르던 곳에 추락거리가 형성되었던 마을이라고 한다.

•지현(智峴) [지르네미]

점촌 북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한산이씨가 모여 사는 마을이다. 약 150여년 전까지만 해도 문현마을에서 지동길로 가보려면 날나들던 지역이어서 지르네마라고 부르다가, 이를 한자화하여 지현으로 부른다고 한다.

•남양주월산리느티나무(南楊州月山里), 화도읍 월산리 509-4, 경기남양주26

이 느티나무는 경춘선 마석역을 지나 월산리와 담내리의 경계에 있는 동정골 마을의 가옥 뒤편, 낮은 구릉이 시작되는 비탈면에 있다. 월산리 동정골에 12대에 살고 있는 남정문씨의 집터 자리에 서 있다. 줄기가 곧게 올라가다 높이 3m 부위에서부터 갈라져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뻗은 모습이다. 수령 450년, 높이 20m, 흉고둘레 5.5m이다.

•남양주신월리느티나무(南楊州新月里), 진건읍 신월리 485-7, 경기남양주46

이 느티나무는 신월리 달음마을 가운데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인다. 커다란 비섯 모양으로 뿌리가 마을을 향해 고루 뻗어있다. 높이 2.5m 부위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줄기는 잎과 가지가 무성하게 발달하여 넓고 풍성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고 먹동갈 있는 수간의 수피는 거칠게 벗겨지고 있다. 수령 380년, 높이 15m, 흉고둘레 4.5m이다.

•남양주월산리3·1운동기념비(南楊州月山里3·1運動紀念碑), 화도읍 월산리 555-7

3·1운동기념비는 화도읍 월산리 월산교회 안에 있으며 기단 높이 60cm, 바실 폭이 230cm의 크기로 되어 있다. 1919년 3월 16일 이

지역 주민 이달용 외 10인이 모의 봉기모사 중 적발되어 검거되자, 같은 해 3월 18일 밤 담내리, 월산리 주민이 쫓기하여 피검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복산, 이달용, 신용희 등 5명이 순국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월 19일에는 김필규, 이승보, 강선원 등 8인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5일 당시 남양주군수 이성환이 비석을 건립하였다.

9) 녹촌리(鹿村里)

녹촌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하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녹동(鹿洞)의 '녹(鹿)'자와 궁촌(宮村)의 '촌(村)'자를 따서 녹촌리라 해서 화도면에 편제되었다.

•간촌 [갯말]

상초노기 궁촌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궁촌 [궁말, 아랫말]

상촌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한말에 곤궁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궁촌 또는 궁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랫말이라고도 부른다.

•녹촌

옛날부터 마을 앞산인 잣봉산에 수목이 울창하여 사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슴 녹(鹿)'자를 써서 '녹촌(鹿村)'이라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곳에 있던 청동기 시대의 토성 모습이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녹촌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보해(步鶴)골

성생농장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 앞산이 화이 날개를 펴고 걸어가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한자로 보학(步鶴)이라는 이름을

불이게 되었다고 한다.

•상촌(上村) [웃말]

토박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웃말이라고 하고 그 한자식 표현인 상촌이라고도 부른다.

•큰골 [대곡반]

상촌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옛날에는 큰마기였으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되었다.

•의안군이성묘(義安君李城墓), 화도읍 녹촌리 산14-3

의안군 이성(1577~1588)은 선조의 제3남으로 요절했다. 중학하여 시호를 의희(懿禧)라 하였다. 묘는 행구아파트를 지나 녹촌리 방향으로 1.3km 진행하면 우측 도로변에 능원대군 묘역이 나타난다. 유적은 능원대군 묘역에서 서편의 소로를 따라 산을 오르면 능원대군에 위치하며, 능원대군 사당에서 500m 뒤에 있다. 원래는 진감읍에 있었으나 1997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계제석,상석,관각형의 향로석,문인석이 있다. 봉분 좌측에 있는 묘표는 월두형이다.

•능원대군이보묘(陵原大君李備墓), 화도읍 녹촌리 산14-3, 경기도문화재자료 115호

능원대군(1592년(성조 25)~1656년(효종 7))은 조영 중가의 왕족으로 자는 겸숙(兼叔), 호는 담은당(湛恩堂)이다. 부친은 원종(元宗)이며, 모친은 인현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이다. 묘역은 행구아파트를 지나 주회전한 후 녹촌리 방향으로 1km 진행하면 마을 입구 도로변에 능원대군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200m 진행하면 우측 도로변으로 묘역이 있다. 녹촌리 궁말의 능원대군 사당 좌측 능원에 있는데 문화부부인 유비와 합장묘이며 그 아래 김씨의 묘가 있다. 봉분 앞에 묘표가 있으며 묘비 앞에는 장대석, 상석,향로석,동자석,문인석, 장명등 등의 석물이 있다.

•능원대군이보신도비(陵原大君李備神道碑), 화도읍 녹촌리 192

선도미는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데, 넓고 커다란 귀부와 비신 및 조각이 매우 정교하며 화려하게 조각된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은 최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이조원서 조상우(趙相惠)가 글씨를 썼으며, 이함(李涵)이 전액문, 최석정(崔錫鼎)이 발문(跋文)을 맡았다. 1647년(인조 25)에 건립되었다.

•남양주녹촌리느티나무(南楊州麓村里), 화도읍 녹촌리 326, 경기남양주27

녹촌리로 들어와 상촌마을 회관 맞은 편 공터에 이르면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볼 수 있다. 우측의 나무는 옆으로 길게 누운 모습으로 줄이 2.3m 부위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으며 날가지 일부가 고사된 채 태달려 있다. 좌측의 느티나무는 높이 2.5m 부위에서 세 갈래로 나뉘어 편었으며 개울 쪽으로 기운 모습이나 수세가 양호하고 잎과 가지가 사방으로 발달한 원정형의 모습이다. 수령 350년, 줄이 15m, 흉고둘레(右) 3.8m, (左) 2.9m에 이른다.

•남양주녹촌리향나무(南楊州麓村里), 화도읍 녹촌리 334, 경기남양주28

녹촌리 상촌마을 회관 맞은편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200m 진행하면 우측에 향나무가 있다. 네그루의 향나무는 녹촌리 상촌마을의 보호수로 원래 이 직리는 넓은 기와집 사랑채 바깥이랑이었는데 6.25 사변때 폭격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다. 도로쪽의 가장 큰 향나무는 하부에서부터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뻗어 천 체적으로 정연한 추상형이다. 수령 100년, 수고 12~13m, 흉고둘레 0.7~1.0m이다.

10) 차산리(車山里) [수리너미, 수리너미, 수레너미, 차산]

차산리는 조선시대와 한말까지 양주군 하도면에 속했었다. 1914년 공암리, 맹곡리, 맹기리, 차산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차산리라 하고 화도면에 편입하였다. 1991년 12월 1일 화도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이에 편제 되었다.

•너른바위 [광암리(廣巖里)]

산터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에 넓은 바위가 있던 데에서 유래한다. 영조 때 박성원(朴聲源)이라는 사람의 호가 광암이었는데, 그의 관찰과 딱말이 널리 미쳐 고향 각지에서 유생과 관리가 광암의 집을 찾는 일이 빈번하여 사람마다 광암 집을 물이본 것이 점차 마을 이름까지 광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맹골 [맹동]

차산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차산리 정 동대라는 의미에서 맹골 또는 맹동이라고 한다.

•배기(盃基)

셋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 동북쪽에 있는 잔티미 숲도 역시 배기라고 부른다. 배기는 잔티의 한자식 표기이다. 원래 우시장이었던 것이 변하여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약 50여년 전까지 이 지역이 숲을 밀던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배틀바위 (배틀바위, 비틀)

맹골 남서쪽 고대산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호일이 배틀처럼 생겨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며, 노인들이 이 바위 근처에서 배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원차산

너른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원래의 차산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차산이라는 이름은 약 300여년전에 기계유씨 중증의 비석 건립을 위해 우야작가 석조물을 삼고 이 지역을 지나갔다고 해서 '수대님'이라고 불리던 것이 한자화된 것이라 전한다.

•일산(日新)

차산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본래 바울과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새밭'이라 불리다가 '새밭'이 뒤엎고 이것이 다시 한자

로 표기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셋말 독은 새말과 입신과의 연관성은 분명히 없어 보인다.

•진터

셋말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 동남쪽에 있는 '배기'와 같은 이름이다.

•차유명 [수레너머]

1570년(선조 3) 4월 10일 권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 숙빈공(肅愍公) 유강이 사망하자 묘소를 이 고개 근처에다 짓고 장사를 지냈다. 이후 1639년 증손 유설증(兪省曾)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에 유강의 산소에 석물 및 신도비를 세우는데, 와부읍 덕소로부터 푸마차로 운반하여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이후부터 '차유명(車兪嶺)' 또는 '수레너머고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름이 곧 행정구역 '차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양주차산리느티나무(南楊州車山里), 화도읍 차산리 76-3, 경기도남양주25

차산리 광암마을 한가운데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도로 쪽의 큰 느티나무는 누운 듯 뒤로 갸우뚱 높이 2m 부위에서 굽게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도로 쪽으로는 가지의 발달이 거의 없어 전체 모습은 불균형적이다. 작은 좌측의 나무는 높이 2.5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사방으로 잎과 가지가 고루 퍼진 걸쭉한 원정형의 모습이다. 수령 450년, 높이 (大) 8m, 흉고둘레 5.5m, 높이 (小) 12m, 흉고둘레 2.2m이다.

•남양주차산리유물산포지(南楊州車山里遺物散布地), 화도읍 차산리 167-3, 신67-31, 153, 188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민가와 함께 소규모의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다. 민가와 도랑이 있는 곳에서 화형색도기편, 백자편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순지묘(李純之墓), 화도읍 차산리 산5,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4호

이순지(1406~1465)는 조선 초기의 천문학자로 자는 성보(誠甫)

이며 시호는 정평(靖平)이다. 본관은 양성(陽城)으로 병조판서 이맹상(李孟常)의 아들이다. 묘는 마이우리와 차산리간 362번 도로변의 나지막한 구릉(노루모재) 우측에 남향하여 있다. 묘역 앞에는 광암시 수지가 있다. 유향 봉분은 부인과의 합장묘이다. 봉분 밑에 묘비와 상석이 각 2기씩 세워져 있는데, 비는 상부 현상이 정석된 화관형이다.

- 이순지신도비(李純之神道碑), 화도읍 차산리 산5-1, 경기도문화재자료 제54호

묘역의 입구에는 백석화강암의 귀부좌 오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근래에 건립한 신도비가 남향하고 있다. 기복모양의 돌비석 받침돌을 갖춘 전형적인 형태로 비신의 뒷면에는 이순지의 업적을 기리는 글이 쓰여져 있다.

- 유수묘(柳洙墓), 화도읍 차산리 산2-1

유수(1415년(태종 15)~1481년(성종 12))는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자는 노백(魯澤), 시호는 안양(安襄)으로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기증후부사 은사(殷佐)의 아들이다. 묘는 화도읍 차산리 이순지 묘역 길 건너편 산에 있으며 부인과의 합장묘이다. 묘역 앞에는 고려식 안화형의 묘표가 있는데, 비가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다. 묘표 앞에는 새로 만든 혼유석·상석·향토석·명주석과 원래의 문연석이 있는데, 조선 초기의 양식으로 마모가 심하다.

- 유수신도비(柳洙神道碑), 화도읍 차산리 산2-1

신도비는 묘역 입구 우측에 있다. 사각형의 비라는 특연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비신은 새로 만든 것이며, 옥계좌는 변화형으로 용이 양자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의 비문은 1487년(성종 18)에 세워진 것으로 도승지 임사출이 지은 것을 1985년에 유광업이 썼다.

- 유광기묘및묘표(俞廣基墓및墓表), 화도읍 차산리 산67-1

유광기(1674년(현종 15)~1757년(영조 33))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인백(仁伯), 호는 괴헌(槐軒)이며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묘는 유성중 묘역 오른쪽 능선 제일 위쪽에 부인 합장묘와 합장묘

로 되어 있다. 상단에는 사청과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과 혼유석, 묘표가 있으며, 하단에는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 무인석 1쌍이 있다.

•유언전묘(俞彦鎭墓), 화도읍 차산리 산67-1

유언전(경진(庚辰) 1700년~?) 자는 경담(景澹)으로 성균관 진사이다. 묘는 유광기의 묘 아래에 있다. 상단에는 사청과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과 혼유석, 상석과 묘표가 있으며,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1쌍이 있다. 묘표는 1714년에 건립되었다.

•유강묘(俞綱墓), 화도읍 차산리 산67-1

유강(1510년(중종 5)~1570년(선조 3))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강지(綱之) 시호는 숙민(肅敏)이며 본관은 기세(紀溪)이다. 예조판서를 지낸 이밖(汝霖)의 아들로 도승지, 한성부판관, 공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정부인전주이씨 및 정부인 의령남씨와 합장묘로 혼유석·상석·향로석·망주석·무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봉분 중앙에 있는 묘표의 비문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모 되어 있으며, 건립연대는 1572년(선조 5)이다.

•유갈신도비(俞絳紳道碑), 화도읍 차산리 산67-1

신도비는 묘 아래 길옆에 남향하여 비각 앞에 보존되어 있다. 총높이 260cm로 비좌와 비신 및 용문양의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은 이경구(李廷龜)가 짓고, 유창(俞樾)이 쓰고, 김광현(金光炫)이 전액을 한 것을 중은 유성중(俞省曾)이 1639년(인조 17)에 새웠다.

•박호현묘(朴好賢墓), 화도읍 차산리 산67-1

박호현(1550~1581)은 유학으로 자는 계용(季容), 호는 화죽(華麓)으로 밀양박씨의 화도읍 차산리 입향조이다. 중원의 아들이며 이조판서 밀원군(密原君)으로 명종·선조 때 문형(文衡)을 지냈다. 묘는 기계유씨 묘역에 부인 기계유씨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상단에는 원형의 봉분과 상석, 우측에 구묘표 좌측에는 최근에 새운 신묘표가 세워져 있다.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1쌍, 무인석 1쌍이 있다.

•악호현처기계유씨정문(악好賢妻紀柔俞氏旌門), 화도읍 차산리 산27-1

이 정문은 원차산마을 기계유씨 묘역 아래 도로변에 남향하여 있다. 정려각은 정면1칸, 측면1칸의 팔각지붕 형태로 단층하게 되어 있다. 정문안에는 가운데 붉은 현판에 정려문이 있는데 1759년(英祖 35. 崇禎後 3 己卯 11日)에 정려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유희증묘(俞希曾墓), 화도읍 차산리 산67-1

유희증(생몰년미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선부왕 유대의(俞大儀)의 아들이며 장원도관찰사인 정종의 아우이다. 묘역은 차산리 유광기 묘역의 좌측 능선에 있다. 묘는 부인 능성부씨와의 합장묘로 상단에 원형의 봉분과 혼유석, 상석, 좌측에 유희증의 묘표와 우측에는 능성부씨의 묘표가 있다.

•유삼증묘(俞省曾墓), 화도읍 차산리 산67-1

유삼증(1576년(선조 10)~1649년(인조 27))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수(子綬), 호는 우곡(愚谷), 오곡(拙谷)이며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선부왕 대의(大儀)의 아들이다. 묘는 86번 지방도를 따라 마석방향에서 월곡리 방향으로 2km 정도 진행하면 우측의 기계유씨 묘역에 있다. 정면에 윤길선이 보이는 원형적인 배산영수의 봉수지로 원차산리 왼쪽 장동십이로부터 4개의 능선에 묘가 배치되어 있다. 3개의 묘 중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경부인 능성부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일석·석사각형의 향로석·계책석과 동자화·일주석·권인석을 다 한 쌍씩 배치하였다. 봉분 우측에 묘산이 있는데 건립연대는 1707년이다.

•유성증선도비(俞省曾諱道碑), 화도읍 차산리 산67-1

이 선도비는 원차산마을 도로변에 남향하여 있는 4기의 비중 좌측에 있는 비로 규모가 가장 작다. 비좌와 비신 및 평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는데 백색대리석의 비신에는 좌·우 2면에 비문이 있다. 건립연대는 1652년(효종 3)이다.

•유형묘(俞淸墓), 화도읍 차산리 산67-1

유황(1599~165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숙전(叔典), 호는 봉주(鳳洲)이며 본관은 기계다. 관찰사 성증(省曾)의 아들로 이정구(李廷龜)의 문인이다. 묘는 유성중 묘 바로 아래에 남향하여 정경부인 송씨와의 합장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근래에 마련한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장대석과 동자석·망주석·문인석을 각각 한 쌍씩 배치하였다. 특이하게도 묘갈이 상석 좌우에 각각 1기씩 있는데, 좌측의 묘갈은 건립연대가 1709년(숙종 35)이다.

•유황신도비(俞攄神道碑), 회도읍 차산리 산67-1

신도비는 원차산마을 도로변에 남향하여 있는 4기의 비중 유성중 신도비 옆에 있는 비로 규모가 가장 크다.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팔각자봉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의 건립연대는 1672년이다.

•유철묘(俞徹墓), 회도읍 차산리 산67-1

유철(1606~167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방숙(方叔)이며 본관은 기계이다. 자산군수 유영(俞泳)의 증손으로 관찰사 성증(省曾)의 아들이다. 유철 묘는 유황 묘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유철의 묘 약간 아래 좌측에 정부인 청주한씨의 묘가 있고 우측 아래에 정부인 풍천임씨의 묘가 있다. 봉분 앞에는 묘갈·상석·6각형의 향로석·장대석·동자석·망주석·문인석 등 다수의 석물과, 동자석 앞 좌우에는 시비가 각각 1기씩 있다. 봉분 앞에 있는 묘갈은 1700년(숙종 26)에 건립한 것이다.

•유철신도비(俞徹神道碑), 회도읍 차산리 산67-1

이 신도비는 원차산마을 도로변에 남향하여 있는 4기의 비중 유황의 신도비 옆에 위치하고 있다. 비좌와 비신 및 한 쌍의 이무기를 조각한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수준이 글씨를 썼으며, 김수항이 전액을 하였는데, 건립연대는 1712년(숙종 38)이다.

•기계유씨사당(紀溪俞氏祠堂), 회도읍 차산리 775-4

원차산리 일대에는 지금도 많은 기계 유씨들이 살고 있다. 이 사당에는 선조인 유강을 비롯한 기계유씨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최근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유성중, 유황, 유철, 유희중 등 벼슬을

9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했던 네 사람의 묘를 시작으로 하여 네 줄기로 묘들이 뻗어 있는데, 각각의 묘 아래 이후 조상들의 묘를 차례로 모신 전형적인 사패지이다. 이 산의 정면으로는 운길산이 보인다.

4. 진건읍 (眞乾邑)

진건읍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건천면(乾川面)과 진관면(眞官面)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14년 4월1일에 위의 건천면과 진관면 지역에 접동면(接洞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팔현 오남 송동봉 용성 사봉 양지 신월 진관 배양의 9개 리로 재편되었다. 이때 진관의 '진'자와 건천의 '건'자를 따서 진건면이라 하였다. 1980년 4월1일 남양



주군에 편입되고, 1983년 2월15일 양자 오남 관현리를 전첩면에 넘겨주었다.

1) 사릉리(思陵里)

단종비 정순왕후의 능의 이름을 따서 사릉리라 한다. 특히 사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비전굴 또는 비전굴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짜기에 비(碑)가 서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따른다면 '비가 서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가 된다.

•새술막

사릉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예전에 주막이 있었던 마을이다.

•새말

사릉 남쪽 개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역촌(驛村) [역전마을, 역전(驛前)]

경춘선 사릉역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사릉역이 생기면서 역 근처의 마을 역촌, 역전마을, 역전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이

사릉 아랫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향늪개들 [상늪개들, 상늪개들, 뽕나무들]

사릉리에 있는 들밭의 이름이다. 옛날 숙종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말발굽이 붙어서 꼼짝할 수 없게 되자, 안터 효자궁 산소에서 향을 피웠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 지역을 향늪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상늪개들 혹은 상늪개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늪이 있어서 이렇게 붙었다고 한다. 뽕나무밭이 많아서 뽕나무들이라고도 한다.

•조정구묘(趙鼎九墓), 진건을 사릉리 269-15

조정구(1862-1926)는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기의 문신으로 초명은 석구(哲九), 자는 미정(米卿), 호는 월파거사(月坡居士)로 본관은

봉양이다. 관서 봉하의 손자로 전사 동석의 아들이며, 흥선대원군의 둘째 사위이다. 묘는 사릉리 석화촌이라는 읍식길 안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경경부인 완산이씨와 합장하였다. 묘비는 봉분 좌측에 위치하여 만부녀 비파에 대리석의 비신 및 괘각기봉형태의 옥개석형으로 되어 있다. 이 비는 1984년 5월 세워진 것으로 외손인 국회의원 이종환이 짓고, 조수호가 썼다.

- 남양주사릉리느티나무(南楊州思陵里), 진건읍 사릉리 256-6, 경기남양주47
이 묘수는 사능마을 해원시 앞 도로변에 있다.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나무의 줄기가 잘려나가 한방향의 줄기만 남아 있어 전체 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다. 높이 6m 부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잎과 가지가 발달하였다. 수령 300년, 높이 12m, 굵고둘레 4.3m에 달한다.

- 이광수은거지(李光濬隱居址), 진건읍 사릉리 154

이광수 은거지는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어 그 터를 찾기 어렵다. 은원 이광수는 1944년부터 잠시 이곳에 머물면서 『돌배개』라는 책을 출판하고 봉선사 조실로 있던 괘촌 형 이운희의 도움으로 봉선사에 머물기도 하였으며, 광동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 해평사(海平祠), 진건읍 사릉리 149

해평사는 정미수와 정효준을 모신 사당이다. 이 사당은 진건읍 사릉리 해주정씨 영양위파 대종가에 있는데 매년 음력 4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정미수(鄭眉壽, 1456-1512)는 조선 중종 때의 공신으로 자는 기수(耆叟), 호는 우계(愚齋)이며, 시호는 소평(昭平)으로 본관은 해주이다. 형조판서 중(楮)의 아들이다. 정효준(1577-16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수(孝手), 호는 낙만(樂蟻)이며 본관은 해주이고 돈녕부판관 흠의 아들이다. 사당은 중가 바로 옆에 남향하여 정면3칸, 측면1칸반의 팔각지붕인데 녹유기와를 올렸다.

- 정미수묘(鄭眉壽墓), 진건읍 사릉리 산65-1

이 묘는 사능의 약간 아래 좌측에 위치하여 서향하고 있으며, 경경

98 남양주시의 경계지물

부인 권의이씨의 합장란 묘이다. 1980년 3월에 다시 정비했다. 문분 하단에는 호석을 원형으로 들었으며, 묘소에는 혼유석·장대석·상석·속각형의 향로석이 있고, 향로석 좌우에 방주석과 문인석, 경명돌이 있다.

•정미수신도비(鄭眉壽神道碑), 진건읍 사릉리 산65-10

정미수 묘비는 총 높이 233cm로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춘 중비형제이다. 경문이 있고, 김희수가 글을 썼다. 내용은 공의 친안내려와 귀직 관계, 법 조문 해석시의 공경성 등을 담고 있다. 건립연대는 1513년(중종 8)이다.

•사릉(思陵), 진건읍 사릉리 107, 사적제209호

사릉은 조선광조 제6대 단종비인 정순왕후 승씨의 능이며, 왕후는 단종 2후 정월 15세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단종도 노산군으로 강봉되면서 열월로 유배될 때, 왕후도 부인으로 강봉되었다. 왕후는 후사가 없어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배려로 길비 집안의 보덕에 붙었다가, 1698년(숙종 24) 단종의 복위의 한세 정씨가에서 위패도 모사케 하였다. 1521년(중종 16) 왕후가 82세의 일기로 승하하자 증종이 대군부인의 예로 장례케 하였고 이후 숙종 24년 단종복위와 더불어 정순왕후로 추상하여 종묘에 모셔졌고 묘를 높여 사릉이라 하였다. 사릉은 능 안의 나지막한 구릉에 곡장을 갖추어 남서향하여 있고 우측 구릉에는 배주정씨의 묘역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 후에 능으로 추봉되었기에 사적인 것을 피한다는 뜻의 석양과 돌문의 왕인 석호가 각 한 쌍씩만 동분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정효준묘(鄭孝儉墓), 진건읍 사릉리 산65-1

정효준(1577-160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우(孝友), 호는 탁암(樂晩), 시호는 계순(齊順)이고 본관은 해주이다. 묘는 사릉 안의 해평부원군 정미수 묘 좌측 약간 뒷쪽에 서향하고 있으며, 철부인 권의이씨와의 합장묘이다. 1980년 3월 개사하여 새로 정비하였고 묘 앞에는 묘비와 혼유석·장대석·상석·향로석과 문인석이 있다.

•정효준신도비(鄭孝儉神道碑), 진건읍 사릉리 산65-10

김효준 신도비는 사봉 안의 표의과는 동일어진 곳에 남서향하여 해평부원군 정미수의 신도비 바로 옆에 있다. 비문은 중록대부 관중 주부사 겸예문관세학 강백년이 짓고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 오실이 썼으며, 보국승록대부행 휘돈녕부사 이정영이 전액을 하였다. 건립연대는 1678년(숙종 4)년이다.

2) 배양리(培養里) [배암굴, 뱀굴, 배양동]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 양주군 진관현 지역으로 1914년 4월1일 고현리 일부와 배양동 일부, 그리고 미음면의 도봉리 일부를 병합하여 배양리로 하고 진건면에 소속하였다.

•가운데말 [웃말]

고재마을 서쪽, 뱀굴 위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가운데말 또는 웃말이라 부른다.

•고재 [고현(高峴)]

배양리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 뒤에 높은 고개가 있으며, 높은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하여 고재 혹은 고현이라 부른다.

•꽃내미 [안도리(安道里)]

이랫고재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꽃나무가 많아서 꽃내미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한 안도리라 부르기도 한다.

•배양 [뱀굴]

배양리의 마을 이름이다. 원래 마을 근처 골짜기마다 뱀이 많아서, 마을 이름을 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즉 뱀-배양-배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성황당

100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배양리주지 북쪽에 있는 저수지의 이름이다. 이곳에는 약 100년 가량 된 향나무가 있으며, 때마다 마을의 평안을 위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아랫고재

고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밭

땀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골 [내곡(內谷)]

땀골 왼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안골 또는 이의 한자식 이름인 내곡이라고 부른다.

•안두리

배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어은동(魚隱洞)

배양리에 있는 마을이다. 물고기나 짐아먹으면서 평온하게 지내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어은동'이라 불린다고 한다.

•웃고재

고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배양(元培養)

배양리에 있는 마을이다. 처음에는 이곳을 배양이라 불렀는데, 고재, 안도, 어은동 등을 합하여 배양리라 부르게 되면서 원배양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의 배양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철사궁터 [철신궁]

배양리에 있는 절소의 이름이다. 철사궁터 또는 철신궁이라 부른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축보를 길어지고 다니다가 이곳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홍문골 [홍문거리]

땀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홍문(紅門)이 있었던 곳이라 홍문골 또는 홍문거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문령산(文嶺山, 155.2m)

남양주 진건읍의 진관리, 사릉리, 배양리와의 경계를 이루는 낮은 산이다. 배양리 쪽에는 '고개'라는 마을이 있다. 고개가 급세로 솟아 되면서 이 산을 문재(文才 산현)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표기할 때 문령산(文嶺山)으로 되었다가 현재는 문재산으로 부르고 있다.

•남양주배양리유물산포지(南楊州培養里遺物散布地)1, 진건읍 배양리 산58-3, 451-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철근야적장이 있는 동북쪽 산사닥부터 고개 사천 밭이라는 석당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문령산의 서쪽 아래 산자락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다. 도로 양 옆의 흩날이 무성한 지형에서 회색과 회청색의 색조를 띠는 토기편을 발견하였다.

•남양주배양리유물산포지(南楊州培養里遺物散布地)2, 진건읍 배양리 310, 356, 35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관주이씨 묘역을 지나 화재농원과 배양 1리 마을 회관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지형을 따라 세단으로 구분되며 화재농원쪽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자락의 밑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회색과 회청색을 띠는 경질 토기와 모래 받침을 사용한 백자조각이다.

•남양주배양리문령산유물산포지(南楊州培養里文嶺山遺物散布地)3, 진건읍 배양리 신일대

배양리 배양저수리를 지나 공동묘지를 거쳐 해발 156m의 문령산 정상부에 유물산포지가 있다. 문령산 정상부의 편평한 대지 전체에 유적이 부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진관리(眞官里)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진관면에 속했었다. 1914년 4월1일 법동리와 본진관리, 율음리 신촌리의 각 일부를 병합

102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하여 전관리라고 하고 전관면에 소속되었다.

•능너머

셋말 동남쪽으로 나있는 길의 이름이다. 구림고개 북쪽이다. 능너머란 이름은 능을 만들려던 곳이어서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와 능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막은고개

양짓말 북동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황새고개 위(북쪽)에 있다. 막은고개라는 이름은 나라에서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고종 황제가 자신의 조부 묘소로 가지 못하도록 이 고개를 막았기 때문에 막은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매바위

매봉재에 있는 바위이다. 모양이 매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문화촌(文化村)

밤나무골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1964년 9월 수재민들을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처음에는 난민촌이라 불렀으나,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문화촌으로 바꾸어 불렀다.

•목골 [목동(木洞), 먹골]

킷골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목골 또는 목동, 먹골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 마을에 힘이 센 억사(力士)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침만 해봐도 말 4-5마리가 깔려지고 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나무를 깔이 해오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목골, 나무마을 또는 이의 한자식 이름인 목동이래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밤나무골 [울목동(栗木洞)]

전관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서쪽에 왕숙천이 흐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역에 나무가 많아서 땅 나무를 축은 이의 한자화된 이름인 숲목동이라 부른다.

•별말

진관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냇말 서쪽 들관에 있다. 별말이라는 이름은 들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법골 [법동(法洞)]

진관리에 있는 마을이다. 진관리 지역으로 똑골 동쪽에 있다. 물이 좋다고 한다. 성천부사(成川府使) 이씨의 묘가 있었는데, 이 묘의 위치와 방향이 묘하고 깎대로 없었다고 하여 법골 혹은 법동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본진관

진관2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진관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본래의 진관이라는 의미의 본진관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셋말

진관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양젓말 남동쪽에 있다. 셋말이라는 이름은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수실마기

양젓말 서북쪽에 있는 논밭 지역의 이름이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주술원이 곧장 이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와는 달리, 풍수적으로 수살(水殺)이 있어 마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느티나무를 세워 살막이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실마기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양젓말 [양지마을]

진관리에 있는 마을이다. 양젓말 또는 양지마을이라 부른다.

•우전다리

별말 서쪽에 있는 장소의 이름이다. 이 근처에 우씨들이 살던 것이어서 우전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예전에 이곳에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

다.

•**다재이밭**

아랫말 남 서쪽에 있는 논밭의 이름이다. 통틀어 동북쪽에 있다. 다재이밭이란 이름은 작같이 없어서 불리게 된 것이라 한다.

•**제각동산**

옛말 서쪽에 있는 장소의 이름이다. 세사할 지내는 제다(祭闕)이 있었던 곳이어서 제각동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1, 진건을 진관리 산115, 산21일대**

도농심거리에서 회계원방향으로 391번 지방도를 따라 2.5km를 진행하면 좌측으로 진관주유소가 있는데, 이 유물산포지는 동편의 해발 50m가량 되는 구룡의 남쪽 비탈면 일대에 해당한다. 유적의 북동편은 파수원이 있으며, 남편은 경사가 급한 급경사지이다. 구룡의 남쪽 편에는 아랫말이라 불리는 마을이 들어서 있다. 이 유물산포지에서 부문도기편과 흙돌로 수정되는 시기1점을 발견하였고 다수의 도기편과 외편을 확인하였다.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2, 진건을 진관리 산 118-1, 474**

진관리 유물산포지1과 동일한 능선 상에 위치하는데 지금은 도로로 인해 분리되어 있으나 원래는 동일 류적형성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도 한과상태의 가제석화1점이 추출되었고 다수의 도기편과 자기편 외편을 발견하였다.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3, 진건을 진관리 산49-1, 475**

이 유물산포지는 진관리 마을회관과 광사라는 편이 있는 곳을 포함한 산능선과 말갈차지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능선 위에는 침탑이 세워져 있는데, 능선의 정상부와 동쪽 경사면 아래쪽의 밭경작지에서 희형세 정설도기편이 출토된다. 그리고 광사가 있는 아래쪽 활곡지의

을 평탄한 대지가 있고 지표면에 돌이 곳곳에 있어서 오래전에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4. 진건읍 진관리 산40, 산227, 산36일대

이곳은 진관리 법골마을의 동쪽 산에 해당하는데, 진관리 유물산포지2의 건너편이다. 능선의 끝자락부터 위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김해김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최근까지도 매장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묘역의 서쪽 아래에서 백자편 및 토기편이 출토된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5. 진건읍 진관리 455-1, 산5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퇴계원에서 진건읍 방면으로 가다가 나오는 가구동단 뒤편에 해당한다. 이곳은 배밭이 산경사면에 있고 주변에 돌을 쌓고자 신축되고 있다. 배밭 일대에서 허골문이 찍힌 기와편, 회청색 경질토기편등을 발견하였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6. 진건읍 진관리 256, 257, 산64-3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뒷양바위 묘역의 남쪽과 남동쪽 지역에 해당한다. 남동쪽 지역은 능선을 따라 앞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유물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 산포되어 있다.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유물은 토기와 기와조각인데, 최근 미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수습한 유물은 토기편과 백자 파편 등으로 토기조각의 절면에는 격자문과 타날문이 있으며 회청색을 띠는 것이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7. 진건읍 진관리 산81-3, 산80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국도 47호선과 지방도 391호선이 교차되는 동쪽 지역으로 진관리유물산포지8 지역과 인접한 곳이다. 최근에 지방도 391호선 마포 옆의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지표에 드러나게 되었다. 유물산포지는 제주고비 묘가 있는 곳과 과수원 및 밭경작지

를 포함한다. 이곳에서는 와편이 주로 수습되었는데, 조선시대 유물로 판단된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8, 진건읍 진관리 447-8, 산77-6, 448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지방도 391호선의 동쪽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원근 돌이던 창고 주변과 산의 경사면 주위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되었다. 기와는 회청색을 띠며 경질인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9, 진건읍 진관리 산85, 712, 785일대

이 지역은 해발 50m 정도가 되는 야산의 서쪽 경사면으로 현재의 도로가 건설되면서 산의 절반이 절개되었다. 기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경사면도 완만한 편이다. 산의 경사면에는 매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주변은 앞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도기편 등을 수습하였다고 전한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10, 진건읍 진관리 산1, 425일대

이곳은 진관리유물산포지9의 남쪽지역이다. 진관리 유물산포지9와 같은 산의 등산이었으나, 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절개되어 분리되었다. 경사면과 절상부까지 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북쪽 경사면에는 잡풀이 무거져 있다. 수습된 유물은 도기와 자기, 기와편 등이며 고려시대 이후의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11, 진건읍 진관리 755-6, 785 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왕숙리의 동쪽에 해당하며 서쪽으로 SK주유소와 인접한 밭 일대이다. 원래는 논경작지였으나 근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밭이 된 곳이다. 비닐하우스 주변지역에는 매주와 시금치 등의 작물을 재배중이고, 물유청고도 있다. 유물은 도기서부편과 토기

편이 확인된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12, 진건읍 진관리 산152, 산118-2일대

도농삼거리에서 퇴계원방향으로 391번 지방도를 따라 2.5km를 진행하면 좌측으로 진관주유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서편의 구봉정상부는 진관리유물산포지 1이 위치하고 있다. 유물산포지 12는 이 능선에서 서편으로 이어지는 능선 정상부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근대에 조성된 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묘 주변에서 유물이 채집되고 있다. 정상부는 수기의 묘들이 있으며, 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곳에서 고려시대 도기편과 기와편들이 채집되고 있다.

- 남양주진관리유물산포지(南楊州眞官里遺物散布地)13, 진건읍 진관리 34, 35 일대

먹골주유소를 지나 남동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 도로 옆 동쪽에 교화농원이 있는데, 유적은 그 맞은편 밭장작지에 해당한다. 작지 옆에는 주택이 있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경작지는 산자락의 경사면을 따라 개간되어 있는데, 지표면에 회청색과 회색색을 띠는 도·토기 편이 널리 퍼져 있다.

- 남양주진관리고묘군(南楊州眞官里古墓群), 진건읍 진관리 산81-3, 산84-3, 431-1일대

이 고묘군은 국도 47호선과 지방도 391호선이 교차되는 곳의 서쪽 산경사면에 있다. 이곳은 최근에 재주고씨의 남골담이 새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남골담 주변에는 일반 민묘가 능선을 따라 입지해 있다. 고묘 3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북동향을 하고 있다. 불문 위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주변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 충목사(忠穆祠), 진건읍 진관리 산51-1

충목사는 진관리에 위치하여 남서향하고 있다. 세조 때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兪應孚, ?~1456)의 시당이다. 유응부는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자는 신지(信之), 호는 변

량(塋梁)이며 본관은 한녕(川寧)이다. 이 사당은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방풍판을 갖추고 있으며, 1998년 5월 건립되었다.

•효간사(孝簡祠), 전건읍 전관리 414-14, 414-2

효간사는 정세호(1486-1563)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전건을 전 관리에 넘겨향하고 있다. 정세호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인(子仁), 호는 서재(西臺)로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경인지(鄭麟趾)의 손자로 호군인 상조(尙祖)의 아들이자 선조의 외할아버지이다. 1519년(중종 14) 역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지냈으며, 1559년 지중추부사에 오르고 수릉의 공로가 있다 하여 숭정대구에 올랐다. 사당은 정면1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방풍판을 갖추고 있다. 주위에는 솟을대문에 시멘트철축의 담장을 두르고 있다.

•남양주전관리느티나무(南楊州前官里) 전건읍 전관리 408, 경기남양주48

이 느티나무 두 그루는 하동 정씨의 김성준이 전관2리 전관마을의 장차목이다. 흉고둘레 5.6m의 큰 나무는 높이 1m 부위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주는 상단에서 잎과 가지가 발달하여 수관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도로쪽의 나무는 흉고둘레 2.7m에 이르며 높이 2m 부위에 이 두 갈래로 나뉘어 뻗었는데 두 나무 사이의 내부쪽은 가지의 발달이 거의 없고 주로 도로쪽으로의 가지가 발달되어 있다. 큰 나무는 수령 410년, 높이 15m, 흉고둘레 5.6m이며, 작은 나무는 수령 400년, 높이 14m, 흉고둘레 2.7m에 이른다.

4) 신월리(新月里)

조선시대부터 전할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신월면 지역으로 1914년 김촌리의 신(新) 자와 월음리의 월(月) 자를 따서 신월리라 하여 정건하게 소속되었다.

•곰실 [웅곡(熊谷)]

신월리에 있는 자연마을 이름이다. 대래미마을 동쪽에 있다. 마을 뒤의 산 모양이 곰의 모습과 같아서 '곰 골짜기 마을'이라는 의미의 웅곡이라 하다가, 웅실 혹은 곰실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비석거리 [빗돌배기]

신월리에 있는 마을이다. 풍경내 남쪽, 포천이나 철원 쪽으로 가는 큰 길가에 있다. 선정비 등 5-6개의 비석이 마을 앞에 세워져 있어 비석거리 혹은 빗돌배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새말 [상리(上里) 신촌(新村)]

신월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대래미 북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어서 상리 또는 신촌이라고 부른다. 마을 동남쪽에 새말저수지가 있다. 신월리라는 리 이름을 '월음'과 이 마을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지은 것이다.

•숫골 [술골]

신월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지둔지 마을 동쪽, 새말 북쪽에 있다. 마을 앞에 소(沼)가 있어서 '소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숫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마을 모양이 술 모양으로 된 둥근 산골이고, 또 술 모양으로 된 바위가 있어서 술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숫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숫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연안이씨 팔홍문(延安李氏八紅門)

숫골에 있었던 여덟 개의 정문(旌門)이다. 충신 이돈오(李惇五), 열녀 광주이씨, 효자 이기직(李基稷), 이기설(李基高), 이지남(李道男), 절부(節婦) 동래정씨와 광풍안씨, 효녀 처자 연안이씨 등의 여덟 정문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헐리고 없다.

•지둔지

신월지에 있는 마을이다. 숫골저수지 서쪽에 있다. 옛날에 군대가 추둔했던 곳이라 진둔지(陣屯地)라고 하던 것이 변하여 지둔지라 부

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는 달리, 땅이 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동경내

신월리에 있는 마을이다. 지동지 남서쪽 한복판에 있다. 마을 남동쪽으로 밭택이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 마을 위로 왕승천이 흐르고 있고 앞과 옆에 기름진 농토가 있어 옛날부터 농사짓기가 좋은 마을이라 하여 풍경(豊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마을사람들은 말한다.

•해내지

대래미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양주신월리느티나무(南楊州新月里), 진건읍 신월리 485-7, 경기남양주46

진건천을 지나 신월리 달음마을 한가운데의 높은 언덕 위에 느티나무가 있다. 이 보호수는 커다란 버섯 모양으로 뿌리가 마을을 향해 고부 뻗어있다. 높이 2.5m 부위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줄기는 밑과 가지가 무성하게 발달하여 넓고 풍성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수령 380년, 높이 15m, 흉고둘레 4.5m이다.

5) 용정리(龍井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전천면 지역으로 1914년 오룡리의 용(龍) 자와 독정리의 정(井) 자를 따서 용정리라 하여 전천읍에 편입되었다.

•감바위(감바우 반바위, 반바우)

이 바위에 는 고려 태조 때의 이야기가 전한다. 인근에 대적굴이라는 도둑의 소굴이 있었는데, 이곳의 도둑들이 어느 날 이 바위 앞을 지나는데 뽕 싹을 잡아다가 도적 두목의 부인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신부가 외를 내어 말하기를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먼저 내가 가서 그들을 죽인 후 다시 오겠으니 잠시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도둑들이 허락을 하니, 그 신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부를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부정 한 행실을 하고 왔다고 하여 쫓아냈다. 쫓겨난 신부는 이 바위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고 비너를 뿌려 바위를 내려치자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이 바위를 감바위 혹은 반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리개 [오리동(五里洞)]

용정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용정3리 지역으로 오룡골 서쪽에 있다. 옛날 이곳이 나루터였을 때, 그 주변에 죽은 미루나무가 많았다 하여 고류포(枯柳溝)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고리개가 되었다고 한다. 오리동이라고도 부른다.

•별해

현재 진건면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별판이었다.

•별말 [성촌(星村)]

용정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지세 동쪽에 있으며, 마을 안에 용정4리 마을회관이 있다. 원래 이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걸림이 너무 어려워서 도둑이 무엇 하나 가져갈 것이 없으므로, 빈마을, 빈말, 빈촌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이름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어서, 별마을 혹은 별말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고, 이의 한자식 이름인 성촌으로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랫독정 [아랫독재이, 아랫독정이, 하독정(下獨井)]

용정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아랫독정, 아랫독재이, 아랫독쟁이, 아랫독정이, 하독정 등으로 부른다. 예전에는 송봉리의 윗독정마을과 한 마을로 독정이라 불렀는데, 이 지역이 용정리로 분리되면서 구분하여 아랫독정이 되었다고 한다.

•지세 [지사(芝沙)]

별말 사족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용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나자 지사가 조사하러 이곳에 와서 머물다 갔다고 해서 지사 측은 지새라고 부른다고 한다.

•독정(獨井) [독재이, 독정이, 독정이]

북쪽의 아랫독성과 남동쪽의 윗독성으로 나누어진다. 독정이란 이름은 공양조씨(董壤趙氏) 시조인 조맹(趙孟)이 홀로 버던 우물이 있던 데서 유래한다고 전한다.

•오룡굴 [오룡굴, 오룡동]

옛날에 용 다섯 마리가 이곳으로 내려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는 달리 다섯 개의 능선으로 뻗어내린 마을 뒷산 줄기가, 등수거리길에서 발하는 용이 뻗은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최정묘(崔淸墓), 진건읍 용정리 산49

최정(1351~1414)은 고려 말의 문신이자 충신으로 자는 직재(直載), 호는 관가정(觀稼亭)·송음거사(松陰居士)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말 관봉상사사 자운의 아들이다. 묘역은 진건읍 용정리 웃독정에 위치하여 최근에 3단으로 새로 조성하였다. 봉분에는 호석을 두르고, 봉분 앞에는 상석·묘표·향로석·문인석·망주석 등의 석물을 새로 갖추었다.

•최정신도비(崔淸神道碑), 진건읍 용정리 산49

이 신도비는 묘역의 입구 소포면에 최정의 사당인 모충재와 인접하여 남향하고 있다. 비문은 가신대부형 갑원도판찰사 권익장이 짓고 후손인 변희가 쓰고 권역을 했다.

•모충재(慕松臺), 진건읍 용정리 549-5, 550

모충재는 고려 말의 충신 최정(1351~1414)을 모신 사당이다. 용정리 독정요곡 최정 묘역 입구에 남향하고 있으며 바로 좌측에는 신도비가 있다. 모충재 입구는 솟을대문을 3단으로 하여 가운데 '節義門'이라는 현판이 있다. 제실은 정면4칸, 측면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지붕에는 녹유기외를 얹었으며 가운데 '基松齋'라는 현판이 있다.

•이화영묘(李和英墓), 진건읍 용정리 산16

이화영(?~1424)은 고려 말~조선초기의 여진족 출신의 무인이다. 본관은 청해(靑海)이며 여진족 금패원호 아라불화의 손자이고, 조선 개국일등공신 청해군 양렬공 지란의 아들이다. 묘는 용정리 하독정 청해재(靑海齋) 재설 뒤의 청해이씨 선산에 서향하여 정숙부인 동성동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고려양식의 묘표석 2기가 있는데, 우측의 비는 받침대가 하나인 상부 화관형으로 연봉이 파손되어 없으며, 비문은 뚜렷하지 않다. 좌측의 비 역시 화관형으로 비문은 뚜렷하지 않다.

•청해재(靑海齋), 진건읍 용정리 130-8, 130-1

청해재는 용정리 아랫독정 북쪽에 있으며 조선 개국공신 이지란의 영정을 봉안한 재실이다. 이지란(1331~1402)은 원래 여진족으로 만주에 거주하다가 고려에 귀화하여 이성계를 도와 의형제를 맺고 조선 개국을 도와 일등공신이 되었다. 청해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오래전부터 북청의 청해사와 이곳 용정리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 1976년 11월 1일 마모되고 황폐한 것을 2층 적벽돌 양옥집으로 개축하였는데, 현재는 옆으로 솟을3문에 팔각지붕 건물의 모습으로 다시 지었다.

•능성구씨묘(綾城具氏墓), 진건읍 용정리 산112-24

이 묘는 진건읍 용정리와 송봉리를 지나는 국도에서 용정리 하독정 마을로 들어오는 소로변 우측 북장 입구에 북향하여 있다. 능성구씨는 정에 대항한 삼학사 중의 한 사람인 홍익한의 부인이며, 호조정랑을 지낸 끈원의 딸이다. 능성구씨 묘는 관리가 되지 않지만 석물은 단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봉분 앞에 있는 순백색 화강암으로 된 필두형이다.

•익현군이연묘(翼峴君李璉墓), 진건읍 용정리 201-7

익현군(1431~1463)은 조선 초기의 황족. 자는 광지(光之), 이름은 연(璉), 세종의 일곱째 아들로, 어머니는 신빈김씨이다. 1437년

익현군에 봉해졌다. 묘는 지세마을 양계산 부근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변이 묘와 동서로 100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봉분 앞의 묘표는 비좌와 비신을 갖추고 있으며, 비문은 전후2면에 있으나 까모가 심하여 일부밖에 관독이 되지 않는다.

•이계린묘(李季麟墓), 진건읍 용정리 산209-2

이계린(1401-1455)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작경(子耕)이며, 본관은 한산이다. 목은 이색의 손자로, 지중추원사 송선의 아들이며 영종추부사 계현의 형이다. 묘는 용정리 이덕강 묘 바로 아래에 동향하고 있으며, 정경부인 청주 이씨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비는 우측 문인석 옆에 동향하고 있다. 비문의 건립연대는 1976년이다.

•이백강과정순공주묘(李伯剛과貞順公主墓), 진건읍 용정리 산209-4

이백강과 정순공주의 묘역은 진건읍 용정리 지세마을 좌측 언덕 위에 동향하여 합장되어 있다. 바로 아래에 이계린의 묘가 있고 그 우측 언덕에 이숙의 묘가 있다. 봉분 앞의 묘표와 삼석 좌측의 묘갈은 전형적인 고려양식이다.

•변이묘(邊頤墓), 진건읍 용정리 산200

변이(1360-1439)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이지(漸之), 본관은 원주이며, 원위부원군 안일의 둘째 아들이다. 묘는 용정리 지세마을 새송의 아들 익현군 묘 우측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여 정부인 경주이씨 딸 동녕이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하단부에 호석을 들었으며 봉분 우측에 비좌 없이 받침대에 비신 필두형의 묘비가 있다.

•변상복묘(邊尙福墓), 진건읍 용정리 산198

변상복(? ~ 1455)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는 송헌(松軒), 본관은 원주이다. 원위부원군 안일의 손자이며, 세종 때의 도총제 이희아들로 근의 동생이다. 묘는 원주면까지 개설 좌측의 나지막한 언덕에 남서향하여 덕원옹주와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역은 고려식의 방형분으로 봉분의 구측에 있는 고려식 묘표는 비신과 봉머리태로 화관석 상부의 연꽃 같이 수려하다. 오른쪽의 묘비와 삼석 향로석 장대석

그리고 망주석 등은 최근에 만든 것이다.

•변안렬묘(邊安烈墓), 진건읍 용정리 산196-2, 경기도문화재자료116호

변안렬(1334~1390)은 고려 말의 무신으로 자는 충가(忠可), 호는 대은(大隱). 본관은 원주이며, 아버지는 증판삼사사 양이다. 묘는 용정리 지새마을 입구의 소로변 나지막한 구릉에 서향하여 전한부인 원주원씨 묘와의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 좌측으로 산구 묘비가 2기 있는데, 원래의 묘비는 민무늬 비좌와 화강암제의 비신 월두형으로 마모가 심하다. 새로 묘역을 조성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문인석 등 석물을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한다.

•변안렬묘표(邊安烈墓表), 진건읍 용정리 산196-2, 경기도문화재자료116호

이 묘표는 묘에서 약 50m 아래에 서북향하여 있다. 최근에 맞배지붕 비각을 세워 그 안에 보존하고 있다. 원 묘표의 비좌에는 문양을 새긴 듯하나 보이지 않으며 비신과 관석을 갖추고 있다.

•변현묘(邊顯墓), 진건읍 용정리 197

변현(생몰년 미상)은 고려 우왕(禑王) 8년(1382) 무과에 합격하여 활동한 조선초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며, 원천부원군 안렬의 장남이다. 묘는 변안렬 묘역 좌측의 소로변에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서향하고 있는데, 정선전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봉분 우측에는 1978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추원재(追遠齋), 진건읍 용정리 700, 701-1

추원재는 원주변씨의 재실로 용정리 지새마을 안에 남향하고 있다. 재실 동남쪽의 나지막한 구릉에는 원주변씨 선조들의 묘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정면5칸, 측면2칸의 8작지붕 겹처마 건물로 한옥기와를 얹었으며, 솟을3문과 화강암에 한옥기좌를 얹은 담장을 갖추고 있다.

•김종묘(金綜墓), 진건읍 용정리 산47

김종 묘는 용정리 곰실마을 내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여 증정부인 전주이씨 및 경주이씨의 묘와 3기가 나란히 있다. 가운데에

있는 김중의 묘는 중앙에 비신 궤두형의 묘표와 상석·개석석·4각 향로석·망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6) 송릉리(松陵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알주군 전천면 지역으로 1914년 송정리의 '송(松)'자와 상릉리의 '릉(陵)'자를 따서 '송릉'이라 하고 진천읍에 편입되었다.

•떡배바위 [떡바위]

송릉리 마을 서북쪽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떡배바위란 이름은 형상이 떡시루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또한 떡바위라고도 불리는데, 그 연유는 커다란 바위의 형상이 바위에 떡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병령소

적성관 남쪽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송아리가 이 소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물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백고개 [서남행이, 성릉고개, 송국]

웃송관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북쪽에 있는 고개라 해서 북고개라 부르기도 하고, 성릉에서 웃독정으로 넘어갈 때 이용하는 고개라서 성릉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서남행이, 송국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송릉(松陵)

왕릉이나 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많고 능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송릉리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웃독정 [상독정(上獨井)]

송릉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전성암의 우물이 유명하여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우물이라 하여 독정리라 하였다. 이와는 달

리, 고려 개국공신이자 풍양조씨의 시조인 조맹이 수양궁에서 은거할 때 혼자 물을 마셨던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도 전한다. 현재 옥정리는 분리되어 위에 있는 상독정 혹은 윗독정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동네는 아랫독정 혹은 하독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윗독정은 송릉리에 속하고 아랫독정은 용정리에 속한다.

•적성골

송릉2리에 있는 마을이다. 윗송릉 남쪽에 있다.

•합성(合城)

송릉리에 있는 마을이다. 적성골과 합다리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조상우묘(趙相愚墓), 진건읍 송릉리 산1

조상우(1640-1718)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직(子直), 호는 동강(東岡)이며 본관은 풍양이다. 예조판서 조형의 아들이다. 이 묘는 송릉리 견성암 아래 산중턱에 남서향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높이 180cm로 2단의 활개 안에 있으며, 하단에는 높이 54cm의 호석을 새로 두르고 각 면에는 무궁화·난초 등을 조각하였다. 봉분의 좌측에는 근래에 세운 묘비가 비좌와 오석의 비신 이수를 갖춘 채 서북향하고 있다.

•조상우신도비(趙相愚神道碑), 진건읍 송릉리 산1

이 신도비는 묘 아래에 숲속에 있는데 민무늬 장방형 비좌와 백색 대리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자헌대부 이조판서 이덕수가 짓고, 계남 통정대부행 광주목사 조두수가 썼으며, 후손인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조현명이 전액을 하였는데, 건립연대는 1740년(영조 16)이다.

•견성암(見聖庵), 진건읍 송릉리 3

견성암은 송릉리 천마산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금곡동 시가지에서 사릉 빙면으로 좌회전한 후 진건읍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면 된다. 견성암은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풍양조씨의 시

조인 조맹이 은거하여 수양하였던 바위굴이었다고 한다. 『견성암우화루기(見聖庵雨花樓記)』에 의하면 “고려 초에 시종이었던 조맹이 동궁에 은거하면서 동방지세불인 약사여래의 광명을 진히 부아 높이 뿜물로 삼고 일어나 신성황을 보좌하여 개국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니, 이 때문에 대인의 덕이 세상에 드러나 훌륭한 임금의 만나 보좌하게 된 근원지가 되었다. 성인을 만났다는 의미의 견성이라는 명칭은 이에서 나왔으며, 후손이 추모하여 세위 원당을 삼고 약사여래를 공양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굴법당의 연혁을 밝히고 있다.

견성암은 조맹의 후손인 보월해소에 이르러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견성암수양굴(見聖庵修養窟), 진건을 송흥리 3

견성암의 내동원 오른쪽 뒤에 굴법당이 있는데 일명 수양굴이라고 전한다. 고려 초 조맹이 수양하던 암혈이라 한다.

하지만 견성암의 창건사정을 전하고 있는 기록이 없고 또한 절에 창건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도 남아있지 않다. 수양굴 안에는 1975년에 만들어진 필동생 조맹 동상(혹 안산상이라고도 함)이 안치되어 있다.

•견성암대웅전(見聖庵大雄殿), 진건을 송흥리 3

이 대웅전은 사찰 절내의 중앙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인 맞배지붕의 목조건물이다. 대웅전의 내부에는 최근에 조성한 삼세불좌상과 함께 아미타부처행화(1882), 칠성행화(1882), 영산행화(1882), 신증행화(1882), 독성행화(1882), 지장시왕도(1882), 현왕행화(1882), 현왕행화(1882), 약사행화(1900) 등이 있다.

•견성암석조약사여래좌상(見聖庵石造藥師如來坐像), 진건을 송흥리 3

이 불상은 현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다. 오른쪽 무릎의 깨어진 곳을 석고로 보수하고 불상 전체에 락질을 두텁게 입혔으며 존용과 약함에 채색을 하였다. 두 손은 신체에 비해 큰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따하면서 인형감이 있다.

•민해군이진묘(臨海君李璉墓), 진건을 송흥리 산52-2

임해군 이진(1574~1609)은 조명은 진국(鎭國)으로 어머니는 사도시첨절 김희철(金希哲)의 딸이다. 조선 제14대 선조 임금의 서자이지만 큰아들이다. 묘는 송릉리 적성골 시냇가 사슴농장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고 있다. 원형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갈대석·6각 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다.

•봉인사(奉印寺), 진건읍 송릉리 307

봉인사의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619년(광해군 12)에 부처의 사리가 중국에서 들어오자 1620년 5월14일에 왕명으로 봉인사로 보내 사리탑을 세워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후 여러 차례 중수하였는데 1907년(광무11)에 사리탑과 사리장엄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87년 반환되고 보물 제928호로 지정되어 사리탑 중수비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1979년에 발굴된 풍양취우대사비는 경내 입구에 세워져있고, 그 위로 신축전불과 큰 법당이 있다. 봉인사 아래에는 광해군의 묘와 생모 공빈김씨, 임해군의 묘가 있다.

•봉인사풍암취우대사비(奉印寺楓巖取愚大師碑) 진건읍 송릉리 307

취우대사는 1695년(숙종 21)에 출생하여 1766년(영조 42) 6월 27일에 입적하였다. 그는 15세에 출가하여 회암정혜(1685~1741)의 법을 이었다. 1757년에 훼손된 사리탑과 전각을 중수하고 중수비를 세웠다. 대사가 1766년에 입적하자 다비에 부처 사리 2과를 얻었는데 이로써 부도를 세워 봉안하고 이듬해인 1767년 7월에 이 탑비를 세웠다. 20세기 초에 화재로 인해 봉인사 전체가 불에 뒀을 때 이 탑비도 땅 속에 묻혔는데, 1979년 9월 법당을 짓기 위하여 터를 다지던 중 발굴되어 오늘날의 위치에 세우게 되었다.

•성묘(成墓), 진건읍 송릉리 산53-4, 사적제365호

원래 송릉리에 있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김씨(恭嬪金氏, ?~1577)의 묘이다. 공빈김씨는 본관이 김해로, 참정(金正) 벼슬을 지낸 김희철의 딸이다. 선조의 후궁으로서 임해군 이진과 조선 15대 임금인 광해군 이혼을 낳았다. 성종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성묘(成墓)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광해군의 묘가 이곳에 생기자

능이 땀진 바우이라 하여 '상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땀송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묘역은 송릉리 조맹 묘 바로 위에 위치하여 서향하고 있다. 묘역은 단출하지만 화려하게 석물을 장식하고 있다.

•조맹묘(趙孟墓), 진건읍 송릉리 산55

조맹(생몰년 미상)은 고려초기의 문관이며 풍양조씨의 시조로서 조맹은 임이다. 신라말기에 비슬을 단념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으나, 왕권이 고려를 건국하자 관직에 나아가 맹이던 이름을 하사받았다. 묘역은 진건읍 송릉리의 성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서향하고 있다. 광분을 둘러싼 호석의 각 면에는 경주 신라 황릉에서나 볼 수 있는 12지신 상 조각이 양각되어 있다.

•조맹신도비(趙孟神道碑), 진건읍 송릉리 산55

이 신도비는 조맹 묘역 아래에 있으며 근래에 새로 세운 '풍양조씨 시조시증공묘의개수기적비'와 동서로 나란히 남서향하고 있다. 만무늬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본래 1632년에 상유기 짓고 어현이 썼으며, 박씨가 한역한 것이다. 1905년에 다시 세운 신도비는 조병필이 짓고, 조정구가 글씨를 쓴 것이다.

•광해군묘(光海君墓), 진건읍 송릉리 산59, 사적제363호

이 묘는 조선 제15대 임금인 광해군(1608~1623 재위)과 왕비 유씨의 묘이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후궁 공빈김씨의 소생인데 판윤 유자선의 딸과 결혼했다. 광해군은 1608년 34세로 왕위에 올라 재위 중에 명·후금의 건국과 일본의 개항의욕 등 동북아의 국제 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실리적 외교를 폈다.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태포를 주조하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고,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책을 때 당쟁을 종식시키려 했으며 둔화면에서도 훌륭한 지적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광해군은 재위 15년(1623)에 왕권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동북형인 임해군과 이복동생인 영창대군 등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서모인 인복대비를 서궁에 유배시키는 등 폐한행위를 일삼아 서

인세력들에 의한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묘역은 송릉리의 뽕밭사슴농장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문성군부인 유씨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비의 전면에는 “光海君之墓”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행적을 적어 놓았다.

•안빈묘(安嬪墓), 진건읍 송릉리 산66, 사적제366호

안빈이씨(1623~1693)는 효종의 후궁으로, 숙녕옹주의 생모이다. 병자호란 후 1637년(인조 15)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瀋陽)에 인질로 갈 때 같이 갔다가 1645년(인조 23)에 귀국하였다. 묘역은 송릉리 적성골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있다.

•남양주송릉리느티나무(南楊州松陵里), 진건읍 송릉리 565, 경기남양주49

이 보호수는 송릉리 합다리(합성) 마을 길가에 서있다. 중심 줄기 높이가 1.3m 부위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가는데 도로 쪽으로의 가지가 많이 쳐져 전체 모습은 한쪽으로 기운 넓은 원정형이다. 수령 210년, 높이 13m, 흉고둘레 6.5m이다.

5. 오남읍 (梧南邑)

오남면은 1914년 4월1일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어남상리(於南上里), 어남하리(於南下里), 오산리(梧山里), 단곡리(丹谷里) 일부가 통



합 진건면에 소속되었다. 1980년 4월 1일에는 양주군이 분리되어 남양주군 진건면으로 변경되었고 1983년 2월 11일에 진건면 양지리, 팔현리, 오남리가 진접면으로 편입되었다. 1989년 4월 1일에는 진접면이 진접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92년 4월 1일에 진접읍 오남출장소(양지, 팔현, 오남리)가 개설되었다. 1995년 5월 6일에 오남면으로 승격되었다가 2001년 9월 12일에 오남읍으로 승격되었다.

1) 양지리(陽地里)

양지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 양주군 진건면 지역에 속했다. 1914년 4월 1일 양지리 일부와 단곡리, 철동면의 중포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양지리라고 하고 진접면에 편입되었다. 중심마을을 양지말 양지편 양지리 등으로 부르는데, 양지 바른 곳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1983년 진접면에 소속되었다가 1995년 오남면이 신설되어 이에 속했다가 2001년 9월 12일에 오남읍으로 승격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다.

•별말 [평촌(坪村)]

양지리에 있는 자연 마을의 이름이다. 별판에 마을이 있다 하여 별말이라 하고 한자식 명칭인 평촌이라고도 한다.

•삭다니 [삭다리, 골말]

별말 남서쪽에 있는 자연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마을 대부분이 타 버려서 '모드 타버린 마을'이란 의미의 싹탄리로 불리다가 삭다리 혹은 삭다니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삭다니란 이름은 사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말한다. 이는 옛날 벼슬아치가 이곳에 사당을 지었던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새능골 [신능골 봉릉촌(鳳陵村)]

새말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농지리로 정했던 곳이라 하여 신릉골 혹은 새농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에 세조가 농지리를 잡았다가 너무 좁아서 광릉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불릉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새말 [신촌(新村)]

양지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별말 북동쪽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새농골과 별말 사이에 새로 생겼다 하여 새말, 혹은 이의 한자식 이름인 신촌이라 부른다.

•양지말 [양지편]

양지리에 있는 자연 마을의 이름이다. 양지가 바르다 하여 양지말, 양지편이라 한다.

•여의촌 [여의천(如惠川)]

양지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여의원이라는 개울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 여의촌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개울 이름 그대로 여의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차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갑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망세정지(망世亭址), 오남읍 양지리 산2

망세정은 오남읍 양지리 양지마을에 있었던 정자로 조선조의 문신 심선이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는 것을 보고 물러나 세운 것이다. 정자의 위치나 흔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지리 326번지에 심선의 옛 집터와 사용하던 우물이 있는데 그 근처로 추정된다.

•심선묘(沈瑒墓), 오남읍 양지리 산2

심선(?~1467)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윤부(潤夫), 호는 망세정(望世亭)이다. 본관은 청송(靑松)으로 고려 말 여러 차례 해구의 침입을 방어한 공으로 황성부원군이 된 덕부의 증손이다.

묘는 양지리의 심선이 세웠던 망세정 바로 우측 위의 청송심씨 별

도 묘역에 동향하여 정부인 오계정씨와 앞뒤로 역장하여 있다. 풍수학상으로 '귀혈(龜穴)'이라 하여 거북이가 앞을 낚은 건너편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묘표는 부인과 심선 묘의 중간에 있는데, 장방형의 비좌는 마모가 심하며, 비신 월두형이다.

•심안인묘(沈安仁墓), 오남읍 양지리 산2

심안인(1441~1488)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성도(聖道)이고 본관은 청송이다. 묘는 양지리 양지편 마을 청송심씨묘역 개일 위에 동향하여 정부인 파평윤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우측에는 묘표가 2개 나란히 있는데, 좌측의 것은 부인 파평윤씨 것으로 고려식 화관석형이고, 우측의 심안인 묘표는 고려식 연화형이다.

•심빈묘(沈濱墓), 오남읍 양지리 산2

심빈(1455~1502)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기수(幾叟)이고 본관은 청송이다. 경상우도병마절도사를 지낸 안인과 파평윤씨의 둘째아들로 안성군수를 지냈다.

묘는 양지리 청송심씨 묘역 2단 중간에 위치하여 증정부인 이현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우측의 묘표는 고려식 화관석형으로 중간부분에 깨어져 다시 붙여놓은 흔적이 있다. 좌측비의 건립연대는 1587년이다.

•심빈족장비(沈濱族葬碑), 오남읍 양지리 산2

이 족장비는 묘역 입구 심광언의 신도비 우측에 나란히 있다. 장방형의 비좌에 비신은 월두형으로 되어 있다. 비문은 1550년(명종 5)에 아들 심광언이 짓고 썼다.

•심광문묘(沈光門墓), 오남읍 양지리 산2

심광문(1476~1529)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청성백 덕부의 6세 손이고 심빈과 성균관대사성을 지낸 서강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묘역은 양지리 청송심씨묘역 3번째 단 우측에서 두 번째에 동향하여, 숙인 완산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묘표가 두 개 있는데, 좌측의 것은 구름문양에 앞뒤로 용문양이 새겨져 있고, 우측의 것은 구름문양에 일월도가 새겨져 있다.

•심광언묘(沈光彦墓), 오남읍 양지리 산2

심광언(1490-1568)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언지(彦之)이고 호는 둔암(鈍菴)이며 본관은 청송이다. 의정부 좌우참찬과 판서를 역임하였다. 묘는 양지리 청송심씨묘역의 심광정 묘 좌측에 위치하여 정부인 한양조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우측에는 새로 만든 묘표가 있다.

•심광언신도비(沈光彦神道碑), 오남읍 양지리 산2

이 신도비는 묘의 입구에 남향하고 있는데, 받침대 형태의 비좌에 비신은 팔두형이다. 비문은 김귀영이 짓고 종인이 썼다. 건립연대는 1574년(선조 7)이다.

•심금묘(沈鎭墓), 오남읍 양지리 산2

심금(1531-1565)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미중(美仲)이고 본관은 청송이다. 청송백 심덕부의 후손으로, 광언의 아들이다. 묘는 청송심씨 묘역의 제4단 세일 좌측에 정부인 한양조씨와 여흥민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좌측에 있는 비문은 심정진(沈定鎭) 지은 것이다. 봉분 우측에는 새로 세운 비가 있는데, 비문의 내용은 좌측 비의 내용과 같다.

•남양주양지리향나무(南楊州陽地里향나무, 오남읍 양지리 530, 천연기념물 제232호

이 나무는 오남천을 가로지르는 석다니교를 건너 약 1.3km정도 걷어 입하면 나오는 석다니마을에 있다. 천연기념물 제232호인 이 향나무는 조선시대 중종반란이 일어나 폐위된 연산군의 부인 신씨의 조부인 거창부원군 신현이 화를 피하기 위해 심심산골인 양지바른 미곡에 피신하여 살았는데, 그의 사후에 신조의 묘소 위치를 알리기 위해 표시목으로 식재한 나무라 전해오고 있다. 중심 줄기의 높이 2m 부위에서 줄기가 다섯 갈래로 갈라지면서 잔가지가 밑으로 많이 늘어 전체 형태가 버섯모양으로 되어 있다. 수령 500년, 높이 11m, 둘레 3.6m에 이른다.

2) 팔현리(八賢里) [팔안, 배라니, 배레니]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건천면 지역으로 1914년 4월1일 건천면에 편입되었다. 1995년 오남면이 신설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고, 2001년 9월12일에 오남읍으로 승격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다.

•건너말

원팔현 동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과라리(掛蘿里, 과라리, 괴라리)

팔현리에 있는 자연 마을의 이름이다. 아주 험한 마을로 다래덩굴(藜)에 걸린다(掛)하여 페라리라 한다. 『새종실록』 세종2년 9월8일 기사에 보면 "상왕이 풍양 북촌 과라리의 산골에서 놀이를 하고 작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있어, 마을 이름의 연원이 깊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는 북창(北窓) 정림(鄭石+廉)과 고옥(高玉) 정석(鄭石+昔) 형제가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한편, 한국 전쟁때 중공군이 괴멸된 곳이라고 하며, 호전(혹은 솟을 굽던)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길을 넘으면 수동과 현리가 나온다.

•시굴 [서곡]

과라리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억바위 [낙암동]

과라리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억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 바위가 하도 많다 하여 억바위라 하고 낙암동이라고도 부른다.

•용마바위

원팔현 동쪽 하늘거리 봉우리 아래 약 300m 지점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용마가 바위를 밟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도 이 바위에는 그 용마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한다.

•원팔현 [팔현, 팔안, 배라니, 배레니]

위래의 팔현마을로 팔현1리 지역이다. 별판 안쪽이 되므로 팔안, 배라니, 배레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조선조 유명한 유학자인 정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과 망세정(忘世亭) 심선(沈瑢) 등 여덟 명의 선비가 이곳에서 향시 만나 강론을 하였다 하여, 여덟 현인(賢人)이 온거했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미와는 달리, 여덟 선녀가 이 마을에 내리다 욕욕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팔현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래서 이들 팔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운 사당으로 팔현제가 있다.

•천마산(天摩山, 天磨山, 天麻山, 天馬山, 812m)

전검읍과 화도읍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경기지』, 『대동여지도』,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천마산(天磨山), 천마산(天麻山), 천마산(天馬山) 등으로 각각 표기되었으나 『조선지리지』에서 천마산(天摩山)이라고 기록되어 현재에 이른다. 천마산 기슭에는 '맷돌모루'(磨石隅里) 마을과 '말티고개'(마치고개)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형제바위

원팔현 북쪽 팔현유원지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옛날 남양홍씨(南陽洪氏) 가문에서 사효성문(四孝成門)을 받은 홍사구(洪瑞龜)를 비롯하여 그의 아우 주구(喆龜), 우구(禹龜), 용구(龍龜) 등 4형제가 이곳에서 사이좋게 놀던 자리라 해서 형제바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미와는 달리 이 바위에 돌을 던지고 기원을 하면, 아들 형제를 낳는다고 하여 형제바위라 부른다는 유래도 함께 전한다.

•말현재(發賢齋), 오남읍 팔현리 297-1

말현재는 팔현리 도로변에 동향하여 있다. 하자종을 모신 사당으로 근래에 새로 조성되었다. 하자종(?~1433)은 조선초기 문신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고려조 병부상서를 지냈고, 조선 태종 때에는 공조참의와 홍주목사가 되었고 세종 때에는 공안부윤과 관청주목사를 지냈다. 재실은 정면4칸, 측면2칸으로 그 중간에 말현재라는 현판이 있다.

•하지종묘및묘갈(河自宗墓및墓碣), 오남읍 팔현리 산97-2

능안이라고도 부르는 이 묘는 팔현리 도로변의 재실 뒤편 나지막한 구릉에 북동향한 정경부인 진주정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 같은 봉분 앞에 있는데 민무늬 비좌와 비신 및 맞배지붕형태의 납작한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는 1702년(숙종 28)에 세워진 것으로 하시도가 짓고, 하섭이 썼다.

3) 오남리(梧南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건천면 지역으로 1914년 오산리의 오(梧) 자와 어남리의 남(南) 자를 따서 오남리라 하여 진 접면에 편입되었다. 1995년 오남면이 신설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고, 2001년 9월12일에 오남읍으로 승격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다.

•굴바위

어냄이마을 남동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견성암과 통하는 굴이 달려 있는 바위라고 한다. 충공군의 Q가 이 바위 주변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뿔간바위 [장사바위]

어냄이마을 남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바위 모양이 재래식 호장식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번 옛날에 어떤 장사가 이곳에서 대면을 보았다고 해서 장사바위라고 부른다고 한다.

•뽕나무굴

어냄이마을 동쪽에 있는 굴짜기의 이름이다. 뽕나무가 많아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절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중에 중들이 피난을 가면서 모셔두었던 금부처를 이곳 어디에다 묻어 놓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소파배기

장자말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수사골

숫돌모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며, 숫돌모루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숫돌모루 골짜기에서는 어린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먹이는 임사라는 약초가 이 골짜기에서 자란다고 한다. 한편 수사골마을은 조선 초기 수사를 지낸 사람의 묘를 미장해 온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사당도 있다.

•숫돌모루 [숫돌머리, 오산(梧山), 오산동(梧山洞)]

수사골 아래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낮을 가는데 사름되는 숫돌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는 달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돌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오산 또는 오산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오남(梧南) [어남(於南), 어남이, 어남이]

이태조가 진접면 내자리에서 이 마을을 바라보았다 하여 어람(佛覽)이라 하다가 어남으로 변화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세조가 광릉 묘지터를 찾으러 광릉 방면으로 가는 길에 건너다 본 곳이라 하여 어람리(御覽里)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의남리, 어남이, 어남(於南) 등으로 불리오다가 오남으로 되었다고 한다. 고종황제 때의 내시가 이곳에 와서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장재말(장자말)

오남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의 산세가 부자의 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남양주오남리(南楊州梧南里)항나무, 오남읍 오남리 661, 경기남양주38

이 나무는 오남2리 장자말의 뒷동산이 시작되는 경사진 곳에 있는데, 우리교회 뒤편에 해당한다. 나무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접

근이 용이하지 않고 사방이 건물과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한하는 이 나무는 근원부에서 부터 굵게 세 갈래로 나뉘어 자라며 가지가 처진 채 전체적으로 동북방향으로 50° 정도 기울어져 있다. 수령은 500년, 높이 15m, 흉고둘레 5.0m에 이른다.

•남양주오남리(南楊州橋南里)느티나무, 오남읍 오남리 665-1, 경기남양주39

이 나무는 오남리 진주아파트 뒤편의 정자말에 있다. 높이 3.5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잎과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달하여 수관이 넓게 퍼진 원정형의 모습이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에 이 나무에 마을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수령 350년, 높이 13m, 흉고둘레 5.7m에 이른다.

6. 별내면 (別內面)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별비면(別非面)과 내동면(內洞面)지역이었다. 1914년 4월1일에 별비면의 '별'자와 내동면의 '내'자를 합쳐서 별내면이 되었다. 1980년 4월1일 남양주군에 소속되었으며, 1989년 4월1일에는 퇴계원리가 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창학읍암 광천 덕송 화갑리를 관할하고 있다.

1) 창학리(靑鶴里) [동학골, 동학동, 청학동]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별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4월 1일 읍면 통폐합에 따라 별비면 동학(同鶴)동 권부와 송달리, 옥석리, 덕동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창학리라 하였다.

•국사봉(國事峰)

태조의 개국공신인 증경공의 사패지(賜牌地)여서 나라에서 사(賜)하였다는 뜻으로 국사봉이라 칭하게 되었다.

•동학골(東鶴窟) [동학골, 동학동(東鶴洞)]

청학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이 둘이 같이 생겼다 하여 동이골이라 칭하였으며 동이골이 차차 와전되어 동학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학이 이 마을 동쪽편 은행나무에 차주 날아온 데서 민유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마을의 앞산에 갈래한 봉우리가 세 개 있는데, 밑에서 보면 마치 학이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날아가는 것 같은 형상이어서, 이렇게 부른다는 설도 있다.

•탁수고개

옛날에 변씨라는 사람이 산이 무너져서 돌을 받아 깔았다는 얘기

가 있어 박석고개라 칭하였으며 박석고개가 와전되어 박수고개가 되었다고 전한다.

•사기막(砂器幕) [마당바위, 장암(場巖)]

옛날에 사기그릇을 만들었던 곳이라서 사기막이라 칭하였으며 마을어귀에 마당같이 넓은 바위가 있어 마당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사기막고개

사기막 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고개라 사기막고개라 불린다.

•수락산

별내면 서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높이는 638m인데 도봉산과 마주보고 불암산 북방에 있다. 산이 전부 석각으로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지 않고 전부 흐른다 하여 수락산으로 부른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는 수락산의 모든 봉우리가 서울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의 수호산이라고 했다는 말이 전한다.

•순화궁고개(순화군고개)

순화궁에 있는 고개라 하여 순화궁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일설에는, 선조의 서자인 순화군이 묻힌 고개라고도 한다.

•숫돌고개

신촌 서북쪽 의정부시와의 경계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에 이 고개에서 숫돌이 난다고 하여 숫돌고개라 불리게 되었다

•신촌(新村) [새말]

청학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촌 또는 새말이라 부른다.

•아래응달말 [아랫말]

응달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의 동쪽에 높은 산이 있으며 마을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늘 그늘이 드리워져있다 해서 아래응달말이라 부른다.

•안말

모랭이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134 남양주시의 천래지명

안마리라 부른다.

•옛성산 [예성산, 고성산(古城山), 퇴매산]

별내면 청학리 강전리와 진립읍 내각리의 경계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높이는 371.8m이다. 을지문덕 장군이 쌓았다는 옛 성터 혹은 옛 봉화대가 있어서 옛성산으로 부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고성산으로 부르는 것은 한자식 표기이나, 한편, 임진왜란 당시 설을 쌓았기 때문에 옛성산이라 불렸으며 옛성산을 부르기 쉬운 예성산으로 차차 와전되었다는 설도 있다.

•월촌(越村) [월촌(月村), 별말]

별판 위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연사무소 소재지인 동학마을에서 볼때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월촌(越村)이라고도 한다. 한편 월촌(月村)이라는 기록도 있다.

•응달말 [응달촌]

청학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의 동쪽에 옛성산이 있다. 아침에는 해가 늦게 뜨고 저녁에는 일찍 지게 되므로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한다. 북쪽의 '윗응달말'과 남쪽의 '아랫응달말'로 나누어 지는데, 흔히 윗응달말을 일컬어 응달말이라 부른다.

•갓고개

고개가 깊어서 갓을 한 말 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면 다 까먹어야 넘어간다 하여 갓고개라 한다.

•정촌말

전녓말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예전에는 정씨가 이곳에 많이 거주하여 정촌말이라 한다.

•청학리

원래 청학동(靑鶴洞)이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청학동이라는 이름은 푸른 학이 이 마을 동쪽편 은행나무에 자주 날아온 데서 얻어진 것이다.

•남용익묘(南龍翼墓), 별내면 정학리 산27-1

남용익(1628~?)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곡(壺谷)이다. 부사 득명(得名)의 아들이다. 청학리 주공아파트 308동 및 신설학교 맞은편의 나지막한 구릉에 있는 의령남씨 묘역의 제일 위에 위치하여 남서향하고 있다.

•남용익신도비(南龍翼神道碑), 별내면 청학리 410

이 신도비는 청학리 주공아파트 옆에 남병철신도비·남공묘갈 등 3기의 비가 서향하여 나란히 있는 것 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좌측의 남병철 신도비와 형태가 같으나 규모가 약간 작다. 총 높이 271cm로 민무늬로 된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이재가 짓고, 현손 가의대부 예조참판 공철이 쓰고, 외5대손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이병모가 썼으며, 건립연대는 1804년(순조 4)이다.

•남상길묘(南相吉墓), 별내면 청학리 산27-2

남상길(1820~1869)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천문학자,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초명은 병길(秉吉), 자는 자상(子襄), 호는 육일재(六一齋)·만향재(晩香齋)이다. 관관 구순(久淳)의 아들로 대제학 명철의 아우이다. 묘는 청학리 주공아파트 308동 및 신설학교 맞은편의 나지막한 구릉에 있는 의령남씨 묘역의 남병철 묘역 우측 위에 남서향하고 있다.

•남병철묘(南秉哲墓), 별내면 청학리 산27-10

남병철(1817~1863)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천문학자·수학자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자는 우명(宇明)·원명(元明), 호는 규재(圭齋)·강설(絳雪),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묘는 청학리 주공아파트 308동 및 신설학교 맞은편의 나지막한 구릉에 있는 의령남씨 묘역의 제일 아래에 서향하여 있다. 비문은 김병기(金炳箕)가 찬하고, 신석희(申錫禧)가 썼으며, 건립연대는 1864년(고종 1)이다.

•남병철신도비(南秉哲神道碑), 별내면 청학리 410

청학리 주공아파트에서 청학리은행나무 옆에 남용익신도비·남공묘갈 등 3기의 비 중에서 좌편에 위치한 가장 큰 비석이다.

- 남양주청학리(南楊州靑鶴里)은행나무, 별내면 청학리 411 경기남양주31
 이 나무는 청학리 주공아파트 401동 402동 앞 북서방향 150m 지점에 있으며 청학지구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1999년 나무 주위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수령 480년, 수고 25m, 흉고둘레 6.0m, 수관폭 16m
- 남선묘(南獻墓), 별내면 청학리 산77, 향토유적제7호
 남선(1582-1654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자는 백지(擇地), 호는 회곡(晦谷)·대몽(大夢), 시호는 정인(貞獻)이다. 묘는 별내면 청학리 43번 도로변에 나지막한 구릉위로 80m 위치에 있는데 정부인 도씨와의 합장묘이다. 바로 위에는 남효의 묘가 있고 아래에는 남일의 묘가 있다.
- 남선신도비(南獻神道碑), 별내면 청학리 산77-3, 향토유적제7호
 이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이Tsmsep, 근래 세운 신도비 좌측에 비신과 8각지붕 옥개석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신의 크기는 너비89cm·두께30cm이며, 비의 미륵은 김육이 지었다고 한다.
- 내원암(內院庵), 별내면 청학리 578
 이 절은 남양주시 수락산의 산기슭에 위치한 비구니 도량이다.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1794년(정조 18)에 조강에서 내원암에 절성각을 짓게 했다는 내용이 「내원암절성각신건기(內院庵七層閣新健記)」에 전한다.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내원암이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두 소실되었다가 1955년 이후에 대웅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복원한 것이다.
- 내원암석불입상(內院庵石佛立像), 별내면 청학리 산103-1
 이 석불입상은 내원암 뒤편 400m에 있는데, 대웅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 위치의 윗벽 아래에 축대와 단을 조성하여 석불입상을 봉안하였다. 전체 높이가 280cm나 되는 석재를 다듬

어 댕 위쪽은 뾰족하게 해서 앞쪽으로 구부러진 형상으로 경배를 다 들고 두팔과 신발을 들은새김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불상 자체가 비례를 어긋나고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아주 간단한 도상을 이루고 있다.

- 남양주내원암괘불(南楊州內院庵掛佛), 별내면 청학리 578, 경기도유형문화재제197호

이 괘불은 1885년에 조성된 것으로 구도는 대담하고 간략하며 크게 마음모퉁을 이루는 특이한 인물 배치를 보이고 있다. 즉, 전법륜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상단에 원형 두팔과 키형 신발을 지고, 가슴 아래 부분에는 백의관음이 묘사되어 있다. 내원암에 봉안한 불화들은 대개 해방 이후에 제작, 봉안된 것이다. 하지만 괘불은 19세기 경기-경상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화사들의 작품으로 19세기 불화의 양식적인 면을 살필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이다. 2004년 유형문화재 197호로 지정되었다.

- 내원암석조(內院庵石槽), 별내면 청학리 578

이 석조는 내원암의 마지막 돌계단을 올라서서 경내에 들어서면 바로 왼편 사찰 마당 한 모퉁이에 석탑부재와 함께 놓여 있다. 석조의 규모는 넓이가 186cm나 되는 비교적 큰 편이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석재의 질은 오래된 탓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며 치석상태 또한 정교하지 않다.

- 내원암석탑재(內院庵石塔材), 별내면 청학리 578

석조와 나란히 있는 석탑재는 현재 육개석 3개와 상륜부만이 남아 있다. 상륜부만의 높이는 57cm이고, 현재 쌓여 있는 석탑재의 높이는 193cm이다. 화강암 재질로 마멸정도가 심하다.

- 이홍술신도비(李弘述神道碑), 별내면 청학리 산571-1

이홍술(647~17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사선(士善), 시호는 충정(忠定), 본관은 전주이다. 묘역은 신도비에서 위로 약 20m 위에 있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신도비는 수락산 마당바위유원지 대하휴게소 앞 포장도로변에 남향하여 있다. 전체

높이 349cm로 백색화강암의 비파 사면에는 각 1열씩의 크고 화려한 안상문을 조각하였고, 상부에는 전·후5열, 좌·우1열씩의 복관복연을 조각하였다. 미선은 백색대리석이며, 전·후·우3면에 비문이 있다.

2) 용암리(龍岩里)

용암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는 양주군 별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4월1일 도감말과 거북동을 병합하여 용암리가 되었다.

•거북골(巨龜窟) [거북굴]

언덕말과 도감말 중간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 근처에 숲이 우거져서 마을이 거므스름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 전한다. 이와는 달리 옛날에 큰 먹이 나와서 이렇게 불린다고도 한다.

•광릉골 [광능굴]

거북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광능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이 깊숙히 들어가 있다고 하여 광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깃대봉

새부족양 당시 기준을 세우는 깃대봉 못있던 봉우리라 하여 깃대봉이라 부른다.

•도감말

용암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도감포수(都監地手) 혹은 도감(都監)이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이 이 마을에 낙향(落鄕)하여 살았다고 하여 도감말 또는 도감마을이라고 부른다.

•비루개 [벼루개, 별고개, 성현(星峴)]

제청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 위쪽으로 벼루고개가 있어 그게 이름을 그대로 마을 이름으로 부르는 듯하다. 별고개 또는

성현이라는 마을 이름은 '별을 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고개 넘어 별이 보인다 하여 별고개라 하며 별고개가 와전되어 비루개라고 한다는 설도 있다.

•새말

최근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말이라 함.

•수리봉

산의 형태가 독수리 같다 하여 수리봉으로 널리 불리며 일명 소리봉, 서리봉이라고도 한다.

•언덕말

거목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자리한 곳이 가파른 언덕이라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용암산

용암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다. 거목굴 서쪽에 있다.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며, 높이는 359m이다.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용암산이라 부른다. 용암리라는 리 이름은 이 지역이 용암산 밑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붙게 된 것이다.

•웃말

제청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인근에 다밭이 있다.

•제청말

마을 앞에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 있어 제청마을이라 부른다.

•송은정충환묘(松隱鄭忠煥墓), 별내면 용암리 신26-26

정충환(1888~1962)은 한말의 의병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송은(松隱)이다. 묘는 별내면 용암리 도감촌의 보현사 뒷편에 새로 조성하였다. 1988년에 세워진 것으로 서경보가 글을 짓고, 이동규가 썼다.

•이만묘(李蟠墓), 별내면 용암리 신26-12

이만(생몰년 미상)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

계)이다. 묘는 이종인 묘역 바로 위에 동향하고 있는데 근래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이종인묘(李種仁墓), 별내면 용암리 산26-12

이종인(생몰년 미상)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이반(李蕃)이다. 묘는 이곤 묘 위에 동향하여 청정부인 교하노씨와의 쌍분이다.

•이곤묘(李寬墓), 별내면 용암리 산26-2

이곤 묘는 용암리 도감마을 보덕사 좌측 경주이씨 묘역의 가장 아래에 동향하여 있다. 봉분 좌측에는 1932년에 새운 묘비가 있다. 문은 심주택(沈周澤) 짓고,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3) 광전리(廣田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별미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광암(廣岩)리의 광(廣)자와 마전(麻田)리의 전(田)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광암(廣巖) [넙바위, 넓은바위]

광전리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마을 뒷산에 넓적하고 큰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서, 넙바위라고 하고 한자식으로 광암으로도 부른다.

•국사봉(國師峰)

덕송리와 광전리 그리고 청학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358m이다. 원종공신(元宗功臣) 남복흥(南復興)의 사패지(賜牌之地)였다고 한다.

•미아리

이 마을 모퉁이에 미아바위가 있어 미아리라고 하였으며 산 밑에 있다 하여 산하마을이라 칭하기도 한다.

•삼밭골 [삼밭골, 삼밭골, 마전(麻田)]

광천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삼밭이 많아서, 이렇게 부르고 한다. 한자로 마전(麻田)이라 한다. 현재 광천리의 전은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임촌(任村)

광천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임씨가 이곳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임촌이라 칭한다.

•천두치고개

진접읍 천두치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천두치고개라 한다.

•중말

옛날에 이 마을에서 말에 죽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죽말이라 칭하던 것이 차차 퇴권되어 중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태봉(胎峰) [퇴매, 퇴마, 퇴외]

태봉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봉우리인 옛성산까지 포함하여 함께 퇴외산으로 부른다. 태봉이라는 이름은 왕자의 태(胎)를 문었기 때문에, '태가 문힌 산'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혹은 어떤 함뎀 찰사가 흙을 날아다 쌓은 산, 곧 '퇴마 [퇴산(堆山) 혹은 퇴봉(堆峯)]'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원학적으로 접근하면 '퇴마'는 '갈라져 나온 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퇴외산'이라는 이름은 '퇴외'라는 말에 '산'이 덧붙은 것이다. 그리고 이 '퇴외'의 '퇴'는 '외세, 행방(痲)'을 뜻하는 우리말로써, '몸재 곁에 있는 딴 집재 또는 대문 앞쪽에 벌여 있는 방'을 뜻하는 말이다. 결국 '퇴외'란 '높은 산에서 갈라져 나오거나 독립적인 봉우리를 이룬 산'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뜻은 산이 자리하고 있는 행세화도 걸맞다. 용암산, 소리봉, 전리산(天吼山) 등으로 이어지는 선조기에서 앞으로 뻗어나갈 줄기인 선리 바위 퇴외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외산이라는 이름은 갈라져 나온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사봉보루(國史峰堡壘), 별내면 광전리 산81, 신95일대

국사봉은 수라산의 동쪽 기봉으로서 북쪽으로 해발 331m 봉을 주봉으로 하여 남쪽으로 310m 봉과, 311.8m 봉, 195m 봉의 4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부는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 보루는 장타워형으로 상측향은 각 40°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긴 방향의 길이는 40m, 짧은 방향의 길이는 17m인데, 전체 둘레는 103m 정도이다. 동벽은 높이 10m 정도로 노출된 암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쪽부분과 남동쪽에 직축성벽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현재 정상부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식모층에서 신라계의 토기화가 간혹 발견된다.

•남양주광전리유물산포지(南楊州廣田里遺物散布地) 1, 별내면 광전리 산82, 산-1

3천년 국도의 청학터널을 못미처 좌회전하면 광전리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을 안쪽에서 산길을 따라 진입할 수 있는데, 국사봉보루의 남쪽 능선 상에 해당한다. 이곳은 해발 약 250m에 이르는 곳으로 동면은 경사가 급하여, 남서면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채집되는 유물은 삼국~고려시대 토기편으로 지형 심 북쪽의 국사봉보루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주광전리유물산포지(南楊州廣田里遺物散布地)2, 별내면 광전리 산 152-10일대

이곳은 광전리 중산 북쪽에 위치한 능선의 남쪽 및 동쪽 비탈면에 해당한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능선의 남쪽 및 동쪽 사면은 개수원으로 개간되어 이용되어 있으며 사면 말단부에는 민가 및 옥장 등이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이미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산포지가 있는 구릉 남동사면에는 견성군 이둔 묘와 전성군 이둔 묘가 있다. 개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능선에서는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등 비교적 소량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동쪽 사면 말단부에 조성된 경작지에서는 다량의 기와 및 백자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타일분토기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보성군이용묘(寶城君李容墓), 별내면 광전리 산100-1

보성군 이용은 조선 태종의 손자이며, 효령대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499년(연산군 5)에 세상을 떠나 금천군 박달산에 장사를 지냈다가, 뒤에 부인과 합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는 광전리 주유곡 43번 국도변의 보청재 및 신도비에서 북동쪽으로 200m 위에 있다. 묘는 부인인 함천이씨의와 쌍분이다. 봉분 좌우에 묘표가 있는데, 우측 것은 본래 보성군 묘표로 민무늬 비좌에 비신 월두형이다. 건립연대는 1712년(숙종 38)이다. 좌측에 묘표는 보성군 부인 함천이씨의 것으로 민무늬 비좌에 비신 월두형이다.

•퇴외산성(山城), 별내면 광전리 산28-1

이 산성은 의정부에서 퇴계원으로 연결되는 국도 43호선과 퇴계원에서 광릉방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37호선 양쪽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산성은 해발 70.2m인 퇴외산의 정상부와 남쪽의 363.6m 골을 연결하며 서쪽으로 산북을 감싸안으며 구축한 사모봉형의 석축산성이다. 산성 내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는데 토기편은 대체로 장경호와 단경호 등이 있고 기와는 선조문이 약 90%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청재(寶淸齋), 별내면 광전리 232-9

보청재는 보성군 이용의 사당으로 43번 국도변 좌측에 북동향하고 있다. 이 재실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문은 소슬대문에 백색벽돌로 담장을 둘렀고, 연관에 "주유문(注玉門)"이라 하였다. 담장 앞에는 정면5칸, 측면2칸 팔각지붕형의 보청재가 있다. 현판 글씨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인 김홍원이 썼다.

•보성군이용신도비(寶城君李容神道碑), 별내면 광전리 산102-1

이 신도비는 43번 국도변에 인접한 보청재 건물 우측에 북동향하여 있다. 총 높이 339cm로서, 민무늬 비좌에 백색대리석 비신 및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건철학원부재학 안인식이 짓고, 건창덕궁봉상사전사관 이병희가 글씨를 쓰고 친필을 했으며, 건립연대는 1963년이다.

*번사검묘(邊士諫墓), 별내면 광전리 산H42

번사검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호는 무송당(撫松堂), 아버지는 중호조참판 변환이고 어머니는 장선현씨로 한강 유씨의 딸이다.

묘역은 광전리 광암 마을 뒷산 원주 면에 묘역 제일 왼쪽에 등방하여 정부인 연안이씨와의 생분묘로 되어 있다. 묘갈은 묘의 우측 앞에 복향하고 있는데 만부석의 비좌와 비신 및 일부 방형형태의 화권석을 갖추고 있다.

*견성군이돈묘(顯城君李惇墓), 별내면 광전리 산H53-16

견성군(1482-1507)은 성종의 제7남으로 자는 근지(謹之), 시호는 경민(景愍)이다. 묘는 광전리 구리·퇴계원과 서울·태릉으로 나뉘는 43번국도 중별3거리 우측의 추을곡 중은 과수원 안에 동남향하여 있다. 봉분 앞에는 비신이 없이 표표의 비좌만 있으며, 그 앞에 흑석색으로 탈색된 삼석 계제석·사자 향로석·동자석,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선성군이흥묘및묘갈(宣威君李致禧 및 墓), 별내면 광전리 산H53-16

선성군 이흥(1522-1562)은 자는 중경(仲敬)이며 본관은 권주이다. 아버지는 완산군 수성이다. 태어나면서 부정을 재수 받고 이후 절의대부를 받았다. 묘는 견성군 이돈 묘 아래에 동남향하여 부인 완산현부인 김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갈은 봉분 앞 중앙에 위치하여 복연과 한성문을 조각한 강방형의 비좌에 백색대리석 계제의 비신은 월두형이다. 비문은 차헌대부 병조판서를 지낸 김귀영이 짓고 병길교위 민기성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1581년(선조 14)이다.

4) 덕송리(德松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별내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덕동(德洞)리의 덕(德)자와 덕송(德松)리의 송(松)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남아리골 [남아릿골, 남아리골]

시흥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시대 이곳에 좋은 산소 자리가 있는 것을 알고 타인이 알지 못하게 속했다고 남았지 못하게 속였다는 뜻으로 이렇게 부른다.

•덕릉고개 [당고개]

덕릉마을에 있는 고개라 하여 덕능고개라 한다. 별내면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서울로 나무를 팔러다녔다고 한다.

•덕동(德洞)

덕흥대원군의 묘소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 이름이다. 덕흥대원군의 묘소를 줄여서 덕흥이라고도 하는데, 이 덕흥이 있는 마을 혹은 동네라 하여 덕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불암산

지금으로 부터 약 1100년전 차중대사가 개산하고 불암산이라 칭하여 현재까지 불암산이라 한다.

•식송리(植松里) [식근솔]

유골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 마을동구 선부에 소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하였다 하여 식근솔이리 불었으며 이를 한자와 하여 식송(植松)이라 부르기도 한다.

•유골 [요골, 묘골, 묘동(墓洞)]

조선시대 초기 이곳에 권씨의 효열문(孝烈門)이 있어 묘동(墓洞)이라 불렸으며 묘골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부르기 쉬운 유골로 외전되었다고 한다.

•장지밭

예부터 이곳에 장지밭 터가 있다고 하여 장지밭이라 부른다.

•순빈묘(順嬪墓), 별내면 덕송리 산기

순빈김씨는 천조의 후궁으로 묘는 덕송리 순화궁고개 군부대 안의 순화궁 묘역 위에 남향하여 있다. 상분에는 높이 40cm의 호석을 둘

있으며, 그 앞에 복연과 안상문을 사방에 조각한 묘표의 비좌가 있다.

•순화궁이보묘(順和宮이보묘), 별내면 덕송리 산기1

순화궁 이보(?~1607)는 선조와 순빈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광해의 딸에게 양가들었다. 요는 덕송리 순화궁고개 군부대 안에 남서향하여 순빈김씨 묘의 아래에 있다. 원질의 풍분은 향분으로 아래에 민부의 비좌에 미친 월두형의 묘표가 있다. 묘표 앞에는 상사할로석과 신상분과 양화를 조각한 망주석 및 금권조복형의 뒷부분에 구름분양이 있는 문인이기 있다.

•흥국사(興國寺), 별내면 덕송리 331

흥국사는 599년(신라 진평왕 21년) 원광국사에 의해 수력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1568년(선조1)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병복을 빌기 위하여 나라에서 원찰을 짓고 흥덕사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1620년(인조 4)에 다시 조정에서 흥국사로 개칭하였고 1793년(정조17)에 기허선사에게 대방전을 내리 모든 건물들을 끝수개 하였다. 1818년(순조 18)에 큰 화재를 당하여 만월전과 양노실 등 배외란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3년후 다시 왕실 자금을 내리 대웅전, 석왕전, 대방등의 건물들을 중건하게 되었다. 그 후 1850년(철종 6)에 은봉선사가 만월전을, 1879년(고종 7)에 시왕전 등, 1917년에는 구지멸화화상이 모든 전각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흥국사서왕전(興國寺十王殿), 별내면 덕송리 331

이 건물은 흥국사 대웅전의 오른쪽에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배계층 건물이다. 공포는 추실포계 익공집이고 겹처마를 하고 있다. 내부에는 아상삼존을 비롯해 시왕상,인왕상,관관,녹사 등의 불상과 직살행화,시살도 등의 불화도가 있다. 그 밖에 기마와 위패,입경대 연(簾)등도 있다. 1821년 중건 때의 건물로 추정된다.

•흥국사성임당부도(興國寺聖任堂浮屠), 별내면 덕송리 331

이 부도는 길 정내로 오르는 길 오른쪽에 사각으로 구획된 곳에

있다. 부도의 탑신에 “聖任堂佛尊之塔”이라는 명문이 있으나 성임당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어 부도의 주인과 제작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부도는 4각의 지대석 위에 8각형의 기단으로부터 기단 부합신부·육개석·상합부로 이루어져 있다.

•흥국사만월보전뒷편부도(興國寺滿月寶殿 뒷편 부도), 별내면 덕송리 331

이 부도는 만월보전의 뒤쪽 석축 위에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작고 형식도 매우 특이한 편이다. 기단은 8각형으로 육개석처럼 8모퉁의 형태이며, 그 위에 높이가 28cm 정도도 아주 작은 원구형의 탑신을 두었고 육개석은 기단의 8각형과는 다르게 4각형을 이룬다.

•흥국사만월보전(興國寺滿月寶殿), 별내면 덕송리 331

만월보전은 사왕전 뒤쪽의 석축 위에 있는 건물로 육각형의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내부의 불단에는 1861년(철종 12)에 해당되는 연호와 시주 명단이 실린 글씨로 쓰여 있다. 그리고 불단위에 석조 약사불좌상을 봉안하고 있으며, 약사후불탱화와 괘상도 8폭이 있다. 그 밖의 왕실 시주자 명단이 커힌 <위축현판문(爲祝懸板文)>과 일반 시주자 이름이 건물 외부에 돌아가며 걸려 있다. 1818년의 큰 화재 때 알보실과 함께 화재를 면했으므로 늦어도 1793년(정조 17) 또는 그 이전의 건물로 볼 수 있다.

•흥국사대웅보전(興國寺大雄寶殿), 별내면 덕송리 331, 경기도문화재자료제 56호

흥국사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건물로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이 대웅전의 정확한 팔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93년(정조 17)에 중수가 있었고, 1818년(순조 18) 큰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가 그 3년 뒤인 1821년에 증건되었고, 1917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대웅보전의 내부에는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및 감로왕도·지장탱화·철성탱화·현왕탱화·선증탱화와 괘불이 보관되어 있다. 또 대웅보전 뒤편에는 <흥국사법당단청기문(興國寺法堂丹青記文, 1824)>, <대웅전중수급채화기(大雄殿重修及彩畫記, 1888)>, <대웅전단청기(1976)>, <개금불사기(1977)> 등이 있다.

•흥국사영산전(興國寺靈山殿), 별내면 덕송리 331

흥국사 영산전은 대웅보전의 왼쪽에 있다. 대웅보전보다는 작은 건물이지만 광목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비교적 짜임새 있는 건물이다. 내부에는 석가삼존불좌상과 16나한상 및 영산화살도·선증행화나한도 4폭이 있다. 내부의 천장은 '井'자형이 반복된 우물천장이며, 주익비천도가 그려져 있다. 또 종신대원군의 필치로 된 주련이 걸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흥국사범종각내법고목어(興國寺梵鐘閣內法鼓木魚), 별내면 덕송리 331

범종각에는 범종과 운판, 법고 그리고 목어 등 사물이 있는데, 범종과 운판은 최근의 것이고, 목어와 법고만이 이곳의 불상·불화의 같은 시대인 1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법고는 흔히 종각에 매어 달고 조석 예불시에 범종과 같이 사용하는데, 이 법고는 지름이 110cm로 제법 큰 편이며, 가운데에 태극문을 시문하였다. 법고 아래의 옛날에 사용되었던 법고받침 또한 꽤 오래되 보일 정도로 고장스럽다. 목어는 통나무의 외형을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하여 아래의 꼭부를 파서 공간을 내어 그곳을 채를 가지고 쳐도둑 되어 있다.

•흥국사석종형부도(興國寺石鐘形浮屠), 별내면 덕송리 산5-1

이 부도는 흥국사의 일주문을 들어가서 정내로 돌아 들어가는 길앞에 근래에 만들어진 산도공미비와 함께 있다. 직면석의 지대석 위에 8각의 쉼면적 기단을 놓고 형아리를 뒤집어 놓은 듯한 석종형의 탑신을 두었다. 그 위의 옥개석은 8각형이며 상원부는 옥개석과 같은 돌로 되었으며 북방과 원주형의 보주만이 표현되었다.

•흥국사영산전안석조(興國寺靈山殿安石槽), 별내면 덕송리 331

이 석조는 영산전을 받치는 석축의 왼쪽 앞에 있다. 석조의 왼쪽에 있던 우물이 원래의 수원(水源)으로 추정된다. 석조는 화강암으로 비교적 적게 만들어졌는데, 석질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전반적인 형상이 간략화 축소화되어 단출하고 소박한 형태이다.

•흥국사목조석가삼존불좌상(興國寺木造釋迦三尊佛坐像), 별내면 덕송리 331

이 불상은 대웅전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다. 석가여래와 불수보현 보살을 나무로 다듬고 도금한 것이다. 석가불은 상호가 단정하고 수인은 항마촉지인과 실미인을 겸하고 있으며, 주존불과 협시불이 다같이 단정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같은 알식은 조선 후기의 단아한 조각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작품이다. 또 앞 열의 협시보살 역시 전체적으로 석가불과 비슷한 양식을 하고 있다.

•흥국사석조막사여래좌상(興國寺石造藥師如來坐像), 별내면 덕송리 331

이 불상은 만월보전내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표면은 하얗게 분칠이 되어 있어 얼굴 표정을 분명히 살펴보는 어렵다. 두 손은 약항 아래를 잡고 있어서 약사여래임을 표현하고 있다. 몸 전체 크기에 비해 상호(相好)가 크며, 무릎은 다소 약해 보인다. 조선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흥국사소조심육니한상(興國寺塑造十六羅漢像), 별내면 덕송리 331

이 니한상은 영선전에 16나한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다. 나한상은 결핵을 보거나, 호방이를 희롱하거나, 합장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얼굴의 주름진 모습, 앙상한 가슴의 표현, 그리고 옷주름의 굵직한 모습 등 표현이 다양하고 입체감이 풍부하여 각각의 조형상이 매우 뛰어나다. 높이가 약 40cm 내외로 나한상으로서의 작은 편에 속하지만 형태가 완전하고 기법도 뛰어난 조선 말기의 나한상으로서의 우수한 예라 할 수 있다.

•흥국사목조시왕상(興國寺木造十王像), 별내면 덕송리 331

이 유물은 시왕전에 목조지장보살상 등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 시왕상은 ① 주광대왕(壽廣大王) ② 초강대왕(初江大王) ③ 송계대왕(宋帝大王) ④ 오관대왕(五官大王) ⑤ 엄바대왕(嚴魔大王) ⑥ 번성대왕(變成大王) ⑦ 태산부군(泰山府君) ⑧ 평등대왕(平等大王) ⑨ 도시대왕(都市大王) ⑩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등이다. 모두 의자에 앉아있는 좌상이고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다. 시왕 뒤에 봉안된 시왕도(十王圖, 1744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로 추정된다.

- 덕송리(德松里)상수리나무**, 별내면 덕송리 산5-1, 경기남양주30
 이 나무는 풍곡사 절내의 산책로에 있다. 산책로 쪽으로 남 앞과
 가지는 무성한 데 비해 인접한 나무들과 상응되는 부분에는 죽은 가
 지가 많고 잎과 가지의 발달이 약하다. 수령 400년, 높이 28m, 흉고
 둘레 3.6m에 이른다.
- 남양주덕송마을산신각(南楊州德松마을山神閣)**, 별내면 덕송리 산5-88 경기
 도민속자료제9호
 이 산신각은 덕송마을 덕송사 우측의 너지막한 구릉에 서향하여
 있다. 정면1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에 빙풍관을 갖추고 있다. 약 300
 여 쉼 대지에 3.1m×4.1m 크기의 기단 위에 1칸 크기의 기와집 형
 태인데 앞부분은 비워두고 뒷부분에 방을 꾸민 전당후경형이다.
- 덕흥사(德興祠)**, 별내면 덕송리 339
 덕흥사는 덕송리 덕송마을에 위치하여 덕흥대원군의 위패와 모신
 인 창빈안씨, 그리고 하원군 등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덕흥대원군
 이초(李朝, 1530년(성종 25)~1559년(명종 14)는 중종의 제7남으로
 자는 경래(景來), 아버지는 중종이며, 어머니는 창빈안씨(昌嬪安氏)
 이다. 이 사당은 남향하여 솟을대문에 단장을 두르고 정면5칸, 측면3
 칸의 팔작지붕의 'ㄱ'자 집으로 "덕흥사(德興祠)"라는 현판이 있다.
 선조임금은 왕위에 오르자 생부인 덕흥군을 대원군으로 추존하였다.
 그리고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군에 있던 수락사에 원당을 짓고
 풍곡사(현 풍곡사의 옛이름)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 남양주덕송리(南楊州德松里)느티나무**, 별내면 덕송리 339, 경기남양주29
 이 나무는 덕흥대원군 사당이 있는 덕송리 덕송 마을의 재목을
 키고 서있다. 종신 굵기 높이 1m 부위에서 네 갈래로 작은 줄기가
 갈라져 편이 잎과 가지의 발달이 적고 죽은 가지가 많다. 수령 300
 년, 높이 18m, 흉고둘레가 3.6m에 달한다.
- 덕흥대원군이초묘(德興大院君李朝墓)**, 별내면 덕송리 산5-13, 경기도기념물

책55호

이 묘는 덕송리의 통곡사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돌남향하여 있는데 하동부대부인 정씨의 묘분이다. 봉분의 중앙에 있는 묘표는 구름무늬와 폭면을 조각한 비좌와 미신을 갖추고 있다.

•덕흥대원군이초신도비(德興大院君李愷神道碑), 별내면 덕송리 산5-13

이 신도비는 묘소 앞다 30m 지점에 북향하여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기부와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판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대광보국승목대부 의정부 좌의정 홍심이 짓고 풀한대부 어성위 송언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1573년(선조 7)이다.

•하원군이정묘(河原君李經墓), 별내면 덕송리 산6-13

하원군 이정(1545-1597)은 중종의 아들인 덕흥대원군과 정세호의 딸인 하원부대부인 정씨 사이에서 큰아들로 태어났으며, 1558년(명종 13)에 하원정세 계수되었다가, 1561년(명종 16) 하원군에 봉해졌다. 이 묘는 남양군부인 홍씨와 병분으로 아버지인 덕흥대원군 묘의 바로 아래에 동향하여 있다. 봉분 앞의 묘표는 장방형 비좌와 미신 월두형으로 비신의 비문은 전·후2면에 있다.

•하원군이정신도비(河原君李經神道碑), 별내면 덕송리 산5-13

이 신도비는 묘역 우측 아래에 남서향하여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민무늬 비좌에 황색을 띠는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판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홍문관 대제학 이호민이 짓고, 자헌대부 병조판서 노직(盧稷)이 쓰고, 승문원 정자 오점이 전액을 하였으며, 건립연대는 1604년(선조 37)이다.

•안홍량묘(安弘亮墓), 별내면 덕송리 산49

안홍량(1590-161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봉부(奉孚), 호는 취봉(醉峰)이며 본관은 죽산(竹山)이다. 부사를 지낸 석원(石畵)의 아들이다. 묘는 별내면 덕송리 과수원 안에 있는데 동향하여 숙부인 전주이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있는데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오석의 비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 남양주덕송리유물산포지(南楊州德松里遺物散布地)1, 별내면 덕송리 산49, 산54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덕송리 상지밭의 북쪽에 위치한 동-서 방향 능선의 남쪽 비탈에 해당한다. 능선은 불암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끝자리인데, 해발 50m 미만으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경질토기편과 백사면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유물산포지 전체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남양주덕송리유물산포지(南楊州德松里遺物散布地)2, 별내면 덕송리 산12-1, 179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덕송리 유골에 있다. 이 지역은 해발 100m 가량의 구릉 남서쪽 사면 칼단부에 해당한다. 유골 중앙부에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민가 등이 소수 위치해 있으며, 그 주변으로 희소한 경사지가 조성되어 있다. 유물로는 회청색경질토기편과 백사면, 화편 등 고리시대 이후로 판단되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5) 화접리(花蝶里) [꽃나리, 화접]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 양주군 별비면에 속했으나 1914년 4월 1일 별비면 삼안리, 화접동, 간촌리와 노관면 불암리를 통합하여 화접리라 하고 별내면에 소속되었다. 지형이 꽃으로 되었으므로 꽃나리라고 불렀는데 이를 한자음으로 화접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 굴밭

옛날에 왕이 이곳에 흙을 지으러다가 터가 좋지 않다고 하여 양주 구읍으로 가서 흙터를 잡았다 하여 굴밭이라 한다.

- 동산말 [동산너머]

화접리에 있는 마을이다. 안불암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동산말 또는 동산너머 라고 부른다.

•동지불

화집리에 있는 마을이다. 고개골 동쪽에 인접해 있다.

•바깥불암 [해방촌]

화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불암동을 이루는 두 마을 중에 하나로 바깥쪽(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바깥불암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한 해방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불암동

골말 서쪽, 불암산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불암굴 혹은 불암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삼안(三安) [삼안이, 삼안리]

화집리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골말 동쪽에 있다. 옛날 본관이 다른 안씨(安氏) 세 집안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삼안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삼안이, 삼안리라고 부른다.

•새말 [신촌(新村)]

장자말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새말'이라 부른다고 한다. 한자식 이름인 신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셋말 [간촌(間村)]

화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골말 남쪽에 있다. 이 마을 주변에 물이 많이 나와서 '샘이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외는 달리, 불암마을과 골말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서,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한다. 한자어로 간촌으로도 부른다.

•안불암

화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불암동을 이루는 두 마을 중의 하나로 안쪽(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이리한 이름이 붙었다.

•오형제연못 [셋말연못]

셋말 북쪽에 있는 연못이다. 옛날 이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어서,

다섯 형제가 연못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렇게 오형제가 만들어 놓은 못이라 해서 오형제연못이라 불렀다. 셋밖에 있다고 해서 셋밭연못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없어졌다.

•갓나무골

화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주율내 북동쪽에 있다. 갓나무골이란 이름은 이 마을에 갓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주율내 [주율동]

화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면서, 용암리 화접리 퇴계원을 흐르는 개천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마을은 북쪽의 안주율마을과 남쪽의 마갈주율마을로 다시 나뉜다. 마을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음처럼 권한다. 태조의 능지(陵地)를 화접리에 선장하고는 그 장소가 적합한 곳인가를 중국에 문의한 결과, 적당한 땅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현재의 동구릉(東九陵)을 능지로 개설했었다. 이때 마갈 개국공신이며 당시 명의왕이었던 남제가 죽게 되어 동시에 하관(下官)기로 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통신망이 발달하지 못하여 줄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줄이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줄이 지나간 마을'이라 하여 줄율내, 줄율내, 주율내, 주율동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어원학적으로 접근한 전해는, 주율내 혹은 주율동에서 주율(注乙)은 注(브슬주)에서 뜻을 따고, 乙(을)에서 음을 딴 표기로 보아서, 불-불-빌(빌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율농이란, '밭판에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가 된다.

•평양골 [평양동, 양지편]

화접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평양골이라는 이름은 '양지 바르고 경운한 마을'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평양동, 양지편 등으로 부른다. 마을 한가운데에 사자 모양을 닮은 자자바위가 있다.

•평양굴

평양골 북쪽에 있는 산이다. 평양굴 마을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한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불암산성(佛岩山城), 별내면 화집리 신97

불암산성은 테외식의 석축산성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과 남양주시 화집면의 경계지점에 있는 불암산의 남쪽 제2봉인 해발 420.3m 봉의 정상부에 있다. 이곳은 중랑구 일대가 잘 조망되는 곳으로 평탄한 정상부의 자연지형을 따라 석축을 쌓았는데 평면 형태는 부등변의 5각형이나 4각형에 가깝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221m이다.

• 불암사(佛岩寺), 별내면 화집리 797

불암사는 『천보산불암사사적비(天寶山佛岩寺事蹟碑)』의 내용에 의하면 824년(헌강왕 16)에 지증국사(智證國師)가 창건하고 도선국사와 무학대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1782년(정조 6)이후에 여러 차례 중건되었으며 1989년에는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반이온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 경기도유형문화재제53호(1974.9.26)로 지정된 불암사 경관은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다.

• 불암사사적비(佛岩寺事蹟碑), 별내면 화집리 797

이 사적비는 최근에 건립된 세월루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 연대는 1731년(영조 7년)이며 비신은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이다. 비문은 이덕수(1673-1744)가 지었고, 전액은 조명교(1687-1753)가 썼다.

• 남양주화집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集里遺物散布地)1, 별내면 화집리 348, 347, 산64-30, 산72-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화집리 새말 동쪽의 해발 509m 불암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쪽 비탈면에 해당한다.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산지의 대부분은 잡목 등으로 피복되어 있어 원지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전존하고 있다. 반면 완경사면을 이루는 지점은 능선 정상부와 남쪽사면을 중심으로 다수의 민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사면 말단부를 중심으로 화집리 새말 등 자연마을이 조성되면서 원지형의 상당부분이 이미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된다.

- 남양주화접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蝶里遺物散布地)2, 별내면 화접리 산70-6, 400, 370-1, 370-11말대

이 유물산포지는 화접리 새말 남동쪽에 위치한 구릉으로 화접리 유물산포지1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해당한다.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대부분의 원지형이 훼손되어 현재는 남서쪽에 해당하는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유물은 능선 말단부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조선시대 이후의 건물지 등 생활유적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남양주화접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蝶里遺物散布地)3, 별내면 화접리 산56-1, 388-8말대

이 유물 산포지는 화접초등학교 남쪽에 위치한 해발 60m 가량의 능선에 해당한다.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사면은 파수원이, 북쪽에는 화접초등학교가 있어 이미 형질변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능선의 남쪽사면은 잡목 등으로 피복되어 있어 비교적 원지형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유물은 능선 정상부에 조성된 파수원과 민묘 주변 및 남사면 말단부에 조성된 초토 주변에서 백자편과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 남양주화접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蝶里遺物散布地)4, 별내면 화접리 284-1, 408, 산30-3말대

이 유물산포지는 화접리 삼안마을 북서쪽에 위치한 능선으로 해발 60m 내외의 구릉이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능선을 평상하고 있는 곳이다. 경사가 완만한 정상부 주변을 중심으로 파수원이 있으며, 남쪽 비탈을 중심으로 남치옥 묘와 남연순 묘 등 다수의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능선 정상부에 조성된 파수원과 민묘 주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형성된 절개면 주변 등에서 확인된다. 대부분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 고려시대 이후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 남양주화접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蝶里遺物散布地)5, 별내면 화접리 산

35-19, 451일대

이곳은 화첩리 냇말 남서쪽에 위치한 구릉으로 해발 60m 내외의 구릉이 북서-남동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경사가 완만한 정상부 주변을 중심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고, 동쪽 비탈면과 남서쪽 비탈면의 말단부에는 다수의 민가와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유물은 남서쪽 비탈면 말단부에 조성된 경작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능선 정상부 주변의 과수원에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등으로 고려시대 이후에 해당 하는 유물이다.

•남양주화첩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蝶里遺物散布地)6, 별내면 화첩리 216, 217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화첩리유물산포지4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으로 비탈면에 형성된 소로를 경계로 구분된다. 능선의 대부분은 경작지로 개간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직립한 원지형이 남아 있다. 유물은 정상부와 경작지 주변에서 확인되는데 대부분 회청색경질토기편, 기와편 등과 함께 양질의 백자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유물들은 고려시대 이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양주화첩리유물산포지(南楊州花蝶里遺物散布地)7, 별내면 화첩리 산24-4, 205-9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화첩리 유물산포지6의 남동쪽에 위치한 능선의 남동쪽 사면에 해당한다. 유물산포지가 위치한 능선은 완만한 편으로 서쪽 비탈면이 비교적 넓게 발달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골짜기 심하지 않은 정상부와 동쪽 비탈면에는 집호와 교동로 등 군사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대부분 유실되었다. 민가 주변에 위치한 경작지와 민묘 주변에서 소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전한다.

•윤천회묘(尹天養墓), 별내면 화첩리 산58-1, 향보유적제5호

윤천회(1617-1695)는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대이(代餘)로 본관은 파평(坡坪)이다. 무윤인 진경의 아들이다. 1643년(인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묘는 별내면 화집리 개평촌서 산장에서 좌측 인쪽으로 약간 들어간 구릉 인쪽에 동향하고 있다. 정부인 초개점씨와 합정한 묘이다.

•윤천희신도비(尹天貴神道碑), 별내면 화집리 377-5, 향토유적제5호

이 신도비는 화집초교 북쪽으로 약 200m 거리의 도로변에 인접하여 동남향하여 있다. 비문은 내관보국승록대부 영종주부사 남구만이 짓고 가의대부 경기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 조상우가 썼으며 통정대부 승정원주승지 공수주거 권역을 썼다.

•윤지창묘및묘갈(尹之淸墓및墓闕), 별내면 화집리 산58-1

윤지창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묘는 별내면 화집리 파평윤씨 산장에 있으며 동남향하고 있다. 화집초등학교 북쪽으로 약 200m 거리의 도로변에 인접하여 있어 멀리서도 쉽게 확인된다. 죽인 안동권씨와 향분으로 봉분 좌측에는 새로 세운 묘갈이 있고 우측에 원래의 묘갈이 있다.

•김혼묘(金渾墓), 별내면 화집리 산56-1

김혼(149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혼지(渾之), 호는 고천(苧川)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묘는 화집2리 화집초등학교 뒷편의 김유마 묘 우측에 북동향하고 있는데 이장 후 새정비한 것이다. 봉분 앞에는 북면을 조각하고 안상문을 새긴 비좌와 미산 및 화관석형의 고려식 중비형 묘표가 있다.

•김기명묘(金基命墓), 별내면 화집리 산58-1

김기명(1561~1620)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개수(季壽)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묘는 화집2리 화집초등학교 김광서 묘역 우측편에 동향하여 정경부인 옥림유씨와의 합장되어 있다. 봉분은 높이 54cm의 호석 8개를 원형으로 돌렸고, 봉분 앞에는 새로 세운 묘비가 있다.

•남을빈묘(南乙魯墓), 별내면 화집리 282-7

남을빈(1320~1395)은 조선개국 공신으로 자호는 경엄(敬嚴)이며

본관은 의령이다. 영방군사를 지낸 남천로와 함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개국 공신 남재의 아버지이다. 이 묘는 화집리 마을내의 나지막한 구릉 상부에 동남향하여 있는데, 여기에는 아들인 남재 등 3기의 묘가 있다. 남을번의 묘는 무인 제형 코끼리 합장묘이다. 봉분과 묘역은 1997년에 새로 조성된 것이다.

•남재묘(南在墓), 별내면 화집리 282-7, 경기도문화재자료제114호

남재(1351~1419)는 조선 개국 공신으로 조명은 겸(謙), 직은 경지(敬之), 호는 구침(龜亭)이며, 시호는 충정(忠景)으로 본관은 의령이다. 검교시중 남을번의 아들이며 남은의 형이다. 그는 이성계의 세력에 가담하여 고려 조정의 신전사유로서 구세벽과 대립하였다.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벼슬은 경기도판찰사, 대사헌,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분장이 뛰어나고 산술에 능통하여 당시 사람들이 "남산"이라 불렀다. 태조의 문묘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구침유고(龜亭遺稿)』가 있다. 묘는 화집리 주유곡 의령남씨 묘역의 아버지인 남을번 묘 아래에 동남향하여 있다. 1997년에 새로 봉분을 개장하면서 직사각으로 봉분을 만들고 호석을 한 좌우 3면에 갖추었다.

•남재신도비(南在神道碑), 별내면 화집리 283-1일대 경기도문화재자료제114호

남재신도비는 남재 묘 입구에 있는 사당인 충정사(忠景祠) 앞에 동남향하여 맞배지붕의 비각 내에 안치되어 있다. 본래 묘소 입구의 사당 좌측 뒷편에 있던 것을 1997년에 묘를 정비하면서 비각을 만들고 그곳으로 옮긴 것이다. 그 옆에는 새로 만든 신도비가 있다.

•김유악묘(金由岳墓), 별내면 화집리 산56-1

김유악(? ~ ?)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안인(安仁)이며 본관은 장물이다. 묘는 화집2리 화집초등학교 뒷편 김기명 묘의 바로 뒤에 동향하여 정부인 순흥안씨 및 하동정씨의 묘와 나란히 있다. 가운데 있는 김유악의 봉분 앞에는 동서 행태의 고려식 표표가 있는데 받침대에 비석 및 화관석을 갖추고 있다. 우측의 정부인 순흥 안씨

봉분 앞에 유아 묘와 비슷한 형태의 비좌와 비신 및 화관석을 갖춘 고려식 봉비형 묘표가 있다. 좌측의 장부인 하동정씨 봉분 앞에도 비좌와 비신 및 화관석을 갖춘 고려 양식의 봉비형 묘표가 있다.

• **충경사(忠景祠)**, 별내면 화접리 283

이 사당은 화접리 주문국의 남재 묘소 입구에 있다. 조선 개국공신 남재를 모신 사당으로 신도비와 더불어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 **김광서묘(金光瑞墓)**, 별내면 화접리 산56-1

김광서(1519-1590)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상백(祥白)이고 본관은 강릉이다. 묘는 화접리 화접초등학교 뒤편 김연 묘의 우측에 돌출하여 정경부인 안동 권씨와 합장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고려식 묘표가 있는데 받침대는 흙에 묻혀 있고, 비신과 화관석을 갖추고 있다.

• **남치옥묘(南致勳墓)**, 별내면 화접리 산30-1

남치옥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옥지(玉之)이며 본관은 의령이다. 남치옥 묘는 동남향하고 있으며, 정부인 전주 유씨와의 합장묘이다. 묘 앞 아래에는 남언순의 묘가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있는데 백석대리석재의 비신은 원두형이다. 비문은 의정부 영의정 남구만이 쓴 것으로 좌측 측면에 표기되어 있다.

• **남언순묘(南彦純墓)**, 별내면 화접리 산30-1

남언순(1522-1578)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성서(誠甫)이고 본관은 의령이다. 아버지는 무사를 지낸 남치옥이다. 묘역은 치옥 묘 바로 아래에 동남향하여, 정부인 죽삼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우측에 위치하는데 백석대리석재의 비신은 원두형이다. 비문은 의정부 영의정 남구만이 쓴 것으로 좌측 측면에 표기되어 있다.

• **한효원묘(韓效元墓)**, 별내면 화접리 산

한효원(1468-1534)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지(元之), 호

는 오계(梧溪)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이 묘는 43번 국도변에 인접한 화접1리 평양골 마을 안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여 정경부인 삼주김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는 태릉에 인장되어 있다가 이장하여 왔으므로 할아버지인 장손의 묘위에 역장을 하였다. 봉분 앞에 있는 묘비는 1977년에 세운 것이다.

•한효원신도비(韓效元神道碑), 별내면 화접리 37-1

이 신도비는 43번 국도변에 인접한 마을입구에 있는데 활착지붕의 비각 안에 석향하고 있다. 비문은 예조판서 홍섬이 짓고, 송인이 썼으며, 건립연대는 1564년(현종 5)이다.

•연주현씨묘역(延州玄氏墓域), 별내면 화접리 산34-1, 산35-50, 산35-28일대

연주현씨 묘역은 별내면 화접3리 셋말마을회관 우측의 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있다. 연주현씨 가문은 조선 중후기에 있어 중인 역관으로 활동한 사람이 많아 중인 집안의 연구에 중요하다. 아울러 묘역의 석물은 19세기 중후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건립된 듯 양식이 같다. 특히 봉분 앞의 묘표는 모두 비신 좌두형이며, 문인석이 소형인 공통점이 있다. 묘역에는 현수겸(玄壽謙, 1518-1581), 현무(玄武, 1538-1617), 현인상(玄仁祥, 1563-1628), 현옥(玄珞, 1597-1658), 현덕우(玄德宇, 1617-1680), 현각(玄珪, 1640-1687), 현상하(玄尙夏, 1667-1718) 등을 포함해 약 20여기 이상의 묘가 밀집되어 있다.

•김효원묘및묘갈(金孝元墓및墓碣), 별내면 화접리 산24-4

김효원(1532-1590)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인백(仁伯), 호는 성암(省庵)이며, 본관은 산천(善川)이다. 현감을 지낸 김홍우의 아들이다. 묘는 화접리 선산김씨 묘역의 제일 차례에 북동향하여, 정경부인 조계령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봉분앞에는 민무늬 장방형 비좌와 비신 좌두형의 묘표가 있다. 묘갈은 선산김씨 묘역의 김효원 묘 아래 길가에 동북향하여 있다. 민무늬 백색화강암 비좌와 백색 대리석 비신 및 팔각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석천암(石泉庵), 별내면 화접리 신97

신라 눌럭왕대에 시종국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봉선사본말사지(奉先寺本末寺誌)』에 의하면 1882년(고종 19)에 오위장(五衛將) 이상군(李將軍)이 입산하여 암자를 지어 수도하였고 1922년 김활구가 건물을 수리했으며, 1966년 주지 장년이 묘사를 중수하고 1960년에 법당을 세웠다고 한다. 법당에 있는 아미타삼존불, 마애미륵불 위의 약사여래불, 월성라의 산신탱화, 칠성탱화, 독성탱화 등은 모두 근래에 조성된 것이다.

•석천암마애미륵입상(石泉庵彌勒彌勒立像), 별내면 화접리 신97

석천암 안에 있는 절벽면을 파서 새긴 마애미륵입상은 육체가 뚜렷하고 큰 귀에 길지만 작게 뜬 눈과 삼각형의 코가 특징적이다. 마애불의 오른쪽에는 彌勒尊像(미륵존상)이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그보다 우측에는 '施主(시주) 朴光文(박광문) 2993년 2월17일 住持(주지) 홍후(홍후)'이라고 새겨져 있다.

7. 퇴계원면(退溪院面)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별비면과 진관면 지역에 속해 있었다. 1914년 4월1일 별비면 퇴계원리와 진도리 일부 그리고 진관면 본진관리 일부를 통합하여 퇴계원이라고 하고 별내면에 소속되었다. 1989년 4월1일 면으로 승격되어 퇴계원리를 관할하고 있다.

1) 퇴계원리(退溪院里)

•간뫼말

퇴계원초등학교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간뫼말이라고 부른다.

•말티고개 [마치고개, 마치현(磨峙峴), 마치(馬峙), 마치(摩峙), 뒷고개, 공동묘지고개, 인산터고개]

바우배기 위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 문헌에 보면, 마치현(磨峙峴, 『어지도서』, 『중보문헌비고』), 마치(馬峙, 『대동여씨도』), 마치(摩峙, 『대동지지』, 『조선지지자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와 말티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데, 이 이름에서 '말'과 '마'는 모두 '산' 혹은 '산정(山頂)' 이라는 의미의 '마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티고개 혹은 마치고개는 '산에 있는 고개' 혹은 '산정에 있는 고개'란 의미가 된다. 또한 이 고개는 뒷고개 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퇴계원 뒤에서 화검정거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 밖에도 인산터고개, 공동묘지고개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이 고개를 넘어서 인산터와 공동묘지로 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맹이

퇴계원의 원(院)이 있었던 곳이다. 서울에서 백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백리라고 하다가 발음이 변해 맹이가 된 것이라고 전한다.

•새술막

현재 퇴계원사거리 근처로 퇴계원5리 지역이다. 퇴계원1리 지역에 주막거리가 생긴 이후에, 지금의 퇴계원사거리 주변에 다시 주막거리가 새로이 생겨 '새술막'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술막 [주막(酒幕)]

퇴계원역 앞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퇴계원1리 지역이나, '술막' 또는 '주막'이라고 불린다. 조선시대 퇴계원은 각처에서 한양으로 가는 행인들이 거처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주막거리가 행상이 되어 주막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신하촌(新河村)

퇴계원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현재 퇴계원9리 지역이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이 마을이 없었으나 군부대가 들어온 이후 하천 옆에 마을이 생기면서 다리촌이라 불렀다. 그런데 1964년 9월 큰 홍수로 마을 집들이 떠내려가, 다시 마을을 만들면서 신하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따라서 신하촌이라는 이름은 '하천 주변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아랫말

퇴계원을 뿔로 나누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아랫말이라 했다. 퇴계원1-3-13리 지역이다.

•안말 [내촌(內村)]

퇴계원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퇴계원2리 지역이다. 47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쪽이 '술막'이고 서쪽이 '안말'이다.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형성된 마을이라 해서 안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마을이 사리한 곳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쪽에 형성된 마을이어서 안말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내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는 안말은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퇴계원(退溪院) [도제원(道濟院), 토원(兔院), 퇴조원(退朝院)]

원래 마을이름이었는데, 변의 이름으로 확장되었다. 퇴계원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제보자에 따라 약간씩 다른 세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첫 번째 유래는, 본래 양주군 별비면 지역으로 도제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제원 또는 토원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퇴조원 또는 퇴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환궁하던 중, 이 곳 냇가에 이르러 삼각산의 새 봉우리를 보자 분이 북바쳐서 다시 풍양궁으로 물러가 있었으므로 퇴조원이라 하다가 퇴계원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예종(睿宗)이 선왕인 세조(世祖)의 능인 광릉(光陵)에 참배차 행차하는 데 교통이 불편하여 길을 새로 만드는데, 냇가를 길로 닦기 위하여 밖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퇴계원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남양주퇴계원리느티나무(南楊州退溪院里), 퇴계원면 퇴계원리 -1, 경기남양주41

이 느티나무는 땡이마을의 정자목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땡이삼거리 땡이휴게소 앞에 서있다. 높이 2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간 줄기가 다시 3m 부위에서 서로 만나 붙은 형상이다. 도로 쪽으로의 줄기 하나는 썩어서 배어내 썩새 모습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상단이 꺾진 원정형의 모습이다.

수령은 400년, 높이 9m, 흉고둘레가 2.4m이다.

8. 수동면 (水洞面)

수동면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 전법면과 가평군의 일부 지역에 속한 곳이었다. 1914년 4월1일 양주군이 화도면으로 통합되면서 상도면의 석수대 당두령 운아 상천 일부는 운수리(雲水里)로 상도면의 송라 장천 등경동의 일부는 송천리로, 상도면의 전의 송암 구곡 일동과 화도면의 남상리 일부는 구암리로 편입되어 화도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전법면 수피동과 대마산리는 수산리가 되어 전법면에 속하였다. 1963년에 양주군 화도면 운수리 송천리 구암리의 3개 리와 전법면 수산리, 가평군 입석리 외방리 내방리의 3개 리를 통합하여 양주군 수동면을 신설하였다. 1980년 4월1일 법률제 8169호로 양주군에서 분리 남양주군에 편제되었으며, 1995년 1월1일 법률제 4773호로 이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신설되자 이에 소속되었다.

1) 운수리(雲水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상도면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운하(雲霞)리의 운(雲)자와 석수대(石水臺)리의 수(水)자를 따서 운수리라 하였다. 이때 화도면에 소속되었다가 1963년 1월1일 수동면이 신설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군안(群雁)

옛날에 아흥면의 난을 피해 피난을 했다하여 구난이로 불리다가 군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유래가 관한다. 마을 앞에 망군석이 있고 기리기까지 많다 하여 망군석의 군(群)자와 기리기의 안(雁)자를 써서

군안이라 한다고도 한다.

•당두령

운수리에 있는 마을이다. 석수대 북쪽 운수3리 지역에 있다.

•별군안

운수리에 있는 마을이다. 잣나무고개 동쪽에 있다. '변창한 군안마을'이라 해서 별군안이라 부른다고 한다.

•석수대

운수리에 있는 장소의 이름이다. 물 틈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수동유원지의 첫째 가는 경승지라고 한다. 이 지역 암석에는 약 300년 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石泉俄取居偏愛青山青不老(석천아복거편애청산정불로)"라는 글귀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옛 선현들도 이곳의 산수를 즐겼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안군안

운수리에 있는 마을이다. 박달구지 서쪽에 있다.

•탕귀 (탕귀고개, 구누고개)

운수리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고개의 이름이기도 하다. 탕귀마을 북쪽, 잣나무고개 남쪽에 있다. 탕귀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탕귀고개라 불린다고 한다. 또한 구누고개라고도 부른다.

•석수대

옛날에 수동에 채일가는 길경으로 석천아목 기편에 청산탈도라는 새끼가 암반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의 산수를 즐기면서 음풍농월의 시상을 가다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섬말

수동천과 철마산에서 흐르는 냇가의 중심지역에 이 마을이 섬과 같이 생겼다 하여 섬말이라 한다. 한자화 해서 도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양주운수리느티나무(南楊州雲水里), 수동면 운수리 368-2, 경기남양주44

이 나무가 있는 곳은 원래 부자의 99칸 한옥이 있었던 곳으로 말

러져 있는데, 지금은 감리교 교육원의 운동장 앞에 해당된다. 나무는 곧게 올라가다 중심 줄기 5m 부위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로 갈라져 잎과 가지가 발달하였다. 수령 300년, 높이는 18m, 흉고둘레 4.2m에 이른다.

2) 지둔리(芝屯里) [지둔자, 지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곳을 양주군 상도면 지둔리였는데 1914년 4월 1일 화도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수동면이 신설될 때 이에 소속되었다.

•광대울

지둔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약 200년 전 이 마을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집에서 경연이 벌어졌는데, 이때 한 광대가 줄을 다다가 떨어져 울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광대울고개

광대가 울면서 넘어진 고개라 하여 광대울고개라 한다.

•돌모루 [석우동(石鷗洞)]

지둔리에 있는 마을로 마을 모퉁이에 돌이 많아 하여 돌모루라고 부르고, 이의 한자어 표현인 석우동으로도 부른다.

•삼각골 [삼가골]

지둔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지둔리 지역에 있다. 마을 지형이 삼각형의 골짜기 형태를 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회는 달리, 천마산의 수려함으로 드러나는 산가(山佳), 풍부한 개러물로 나타나는 수가(水佳), 그리고 인심 좋은 마을사람들로 표현되는 인가(人佳) 등 삼가(三佳)로 이루어진 마을이라 해서 삼가골로 부르던 것이 삼각골로 변하게 된 것이라 한다.

•새참밭

옛날에 군대가 이곳에 창고를 짓고 군량미를 쌓던 터로 새로 창고를 지었던 벌판이라 하여 새참밭이라 한다.

•원지둔

지둔리의 원마을이라 해서 원지둔이라 한다.

•저고리골 (조고리골)

삼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모양이 저고리와 같은 형태라서 저고리골이라 부른다. 이 골짜기는 조고리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저고리골이 왜칭되면서 변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지둔리소나무(南楊州芝屯里), 수동면 지둔리 536-1, 경기남양주45

돌보루 마을의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천마산 쪽으로 500여 m 올라가면 개울가 산비탈에 열 한그루의 소나무가 무리지어 있는 군락이 있다. 열한 그루 중 다섯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15~16m, 흉고둘레는 1.8~2.0m에 이른다.

•남양주지둔리시무나무(南楊州芝屯里), 수동면 지둔리 420-1, 경기남양주42

이 나무는 362번 지방도를 따라 화도에서 수동 방면으로 가다가 나오는 삼각골에 있다. 시무나무는 느티나무와 같은 과에 속하며 번종 없이 단 한종만 존재하는 희귀한 수종이다. 스무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이곳 사람들도 이 나무를 귀하게 여겨왔다. 수령은 500년, 높이 15m, 흉고둘레는 5.4m에 이른다.

•남양주지둔리지석묘군(南楊州芝屯里支石墓群), 수동면 지둔리 295-1일대

이 지석묘군은 원지둔 마을 뒷편 야산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원지둔 마을에서 새참밭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변에 있는 작은 저수지의 서편에 해당한다. 이 일대에서 확인된 3기의 지석묘는 2기가 남방식, 1가는 북방식이다.

3) 송천리(松川里)

조선시대부터 한 팔까자 이 지역은 양주군 강도현의 치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송라동의 '송(松)'자와 장천(長川)리 의 '천(川)'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63년 수동면이 신설될 때, 이에 소속되었다.

•구채비굴 (부자터)

소시땅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산농장 근처이다. '구채비굴' 또는 부자터라고 불린다. 구채비(산채비)가 이 골짜기 근처에서 새끼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구채비굴이라 부른다고 한다. 한편, 부자터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이곳에 큰 부자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는데, 큰 지내가 나타나 마을사람을 모두 잡아먹었다. 하지만 남은 한 처녀만은 잡아먹으려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 빛깔이 무너지고 지내가 깔려 죽었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을 부자들이 살던 곳이라 해서 부자터라고 불렀다고 한다.

•덕고개

송라마들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옛날 이 고개에서 마마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모아서 태웠다고 한다.

•두리봉

산봉우리가 둘같다 하여 두라봉이라 부름.

•머느리바위

장자터 서북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옛날 강자터에 소문난 큰 부자집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은 인심이 야박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동남 오는 처자들은 물론 시주를 부탁하는 스님도 문전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던 어느 흥년이 든 해에 이 집에서는 머느리까지 쫓아내었다. 그녀가 마는 뱀이 아까워 쫓아낸 것이다. 쫓겨난 머느리는 산을 넘어가면 길에 스님을 만났고 산은 넘어가는 도중 길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머느리는 길을 가는 도중 그

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녀의 눈에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마을과 자신의 집이 보였다. 그 순간 벼락이 내리쳤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위가 되었는데, 이 바위가 바로 며느리바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며느리바위 이야기는 금곡리의 벼락소의 유래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산신당

송리마을 동쪽에 있는 자옥의 이름이다. 쌍강사 근처에 있다. 이 산신당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머리를 세수로 드리고 마을의 안정을 위해 산신제를 올린다.

•석산 [돌산, 재상봉(在相峰)]

송원리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송라산 남서쪽 화도읍과의 경계지역에 있다. 돌이 많은 산이어서 석산 또는 돌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산은 재상봉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한 재상이 이 산 봉우리에서 근처 마을의 수확고를 조사한 이후로 '재상이 올라갔던 봉우리'라는 의미의 '재상봉'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도로가 나 있다.

•소래비 [솔봉, 송리(松蘿)]

송리마을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와 마을의 이름이다. 소나무가 많은 산의 봉우리라서 솔봉이라고도 부른다. 송라산이 마을 뒤쪽에 있어서 송라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소래비라고 불리는 이 이름은 옛날 선선이 놓인 곳이라고 한다.

•소래비고개

소래비와 여재 사이에 있는 고개 이름이다. 소래내와 가까워 소래비고개라 한다.

•송라산(松蘿山, 493.5m)

남양주 수동면 송원리와 화도면 마석우리, 가곡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송원리(松川里)는 조선시대부터 한 말까지 양주군 상도면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에 송라동(松蘿洞)의 송(松) 자와 장천리(長川)의 원(川)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신발리(新發里)

송천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신림이 우거지고 인가가 없었던 곳으로 조선 중기 마을이 형성되고부터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발리라 한다.

•장개울 [장채울, 장천(長川)]

송천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 앞에 큰 개울이 있어서, 장개울, 강채울 또는 이의 한자식 표현인 장천이라 부른다.

•장자터

송천3리에 있는 장소의 이름이다. 예전 이곳에 장자가 있던 곳이라 하여 장자터라 했다.

•치마바위

장채울 용어일 동쪽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바위의 모양이 여자의 치마폭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락고개 [하고개]

송라 용어일 동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마을의 형상이 락과 같아 하여 락고개라 한다.

•혈제바위

장자터 서북쪽에 있는 두 개의 바위이다. 두 바위의 형상이 마치 형제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형제바위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유원묘(李裕元墓), 수동면 송천리 산96-3

이유원(1814-188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춘(京春)이고 호는 유산(楡山), 옥충(黟衷)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미령북의 9세 손이며 미조완서 세조의 아들이다. 이 묘는 무인인 동래정씨의 함장묘로 되어 있다. 원형 봉분 앞에는 작은 대리석으로 만든 표석이 있는데, 일반적인 묘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상비는 봉분 우측에 있는데, 높이가 188cm로 민부석의 상방형 미려에 대리석의 바신 및 경옥색석을 갖추고 있다.

4) 수산리(水山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양주군 전별면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수막(水幕)동의 수(水)자와 내마산(內馬山)리의 산(山)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때 진접면에 소속되었다가, 1963년 수동면에 소속되었다.

•개갯말 [가개말]

수산리에 있는 마을이다. 물막골 서남쪽에 있다.

•괘라리고개 [과라릭개, 팔현리고개]

개갯말 남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큰삼각골 남쪽에 있다. 옛날에 홍씨 선조가 이사할 때 침덤불에 걸려서 갓을 벗고 들어갔다 하여 관(冠)나라라 하였으며 고개이름도 관나라라 부르다가 괘라리로 변했다.

•꽃재 [화현(花峴)]

수산리에 있는 마을이다. 꽃이 많은 동네라서 꽃재 또는 이의 한자어인 화현으로 불린다.

•꽃재고개

화현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고개에 꽃동산이 있어서 꽃재고개라고 부른다고 한다. 꽃재고개에서 '재'는 단어 속에 이미 고개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꽃재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화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꽃재 또는 꽃고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덕말

수산리에 있는 마을이다. 물막골 서쪽에 있다.

•물막골 [수막]

수산1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물안골의 마지막 지역이며 물줄기의 원천(水源)이라고 해서 물막골 또는 이의 한자식 표현인 수막이라고 부른다. 중간밭과 아랫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안골

수산3리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용바위 남쪽에 있다.

•바위소 [비하소]

화현마을 동쪽에 있는 소이다. '바위소' 또는 '비하소' 등으로 불린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아낙네가 이곳에서 키질들 하면 3일 안에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안마산 [안마산(安馬山), 내마산(內馬山)]

세보들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 안짜 성을 가진 사람들과 마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안마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칠마산 줄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기 때문에 안마산 또는 내마산(內馬山)으로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유가모이골 [유개미골, 유래미골, 유가묘골]

물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 골짜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유가모이골, 유개미골, 유래미골 등으로 부른다고 하지만, 자세한 이름 유래는 전해지지 않는다.

•장가죽은골 [장개중골]

개갯밭 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이 골짜기에서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이 굶리멸어져 죽었다고 해서 장가죽은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장개중골이라고도 부른다.

•중소 [무당소]

수산3리에 있는 소이다. 구재바위 동쪽에 있다. 옛날에 중이 이곳에 순가락을 전지러 갔다가 빠져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칠마산(鐵馬山, 쇠말산, 靑丹山, 711m)

수동면 수산리와 진립읍 금곡리, 진별리 일대에 걸쳐있는 산의 이름이다. 옛날에 어느 지사가 이 산에서 칠(鐵)이 나올 것으로 예언하

있고 산정에 있는 바위가 말형상처럼 생겼다 하여 철마산이라 전한다. 산 서쪽 골짜기에는 '쇠를 푸는 광산'이라는 의미의 쇠푸니(金谷里, 금곡리)마을이 있고, 남쪽에는 철마산이 있다. 『대동여지도』나 『대동지지』 등에서 철마산은 검단산(黔丹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쇠푸니의 남쪽 봉우리를 쇠말산(鐵馬山), 북쪽 봉우리는 검단외(黔丹山)



로 각각 불렀는데, 1910년대 일본인들이 우리 시도를 만들 때 쇠말 산단을 기록으로 남기고 검단되는 기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두 봉우리 모두 철마산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현재 하남시에 검단산이라 불른 산 이름이 따로 있다.

5) 내방리(內坊里) [안방굴, 내방동]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가평군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내방동과 비금리를 합해 내방리라 하여 외시면에 소속되었다. 산골짜기 안이 되므로 안방골 또는 내방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1963년 양주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주소

내방2리에 있는 소이다. 김미봉 동북쪽에 있다. 이 소가 있는 동네에서 장사를 죽었는데, 장사를 주인으로 여겼던 날개 달린 말이 철마산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한다. 전형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내용을 가진 이 이야기와 매주소와의 관련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 소에서 날개 달린 말이 솟아나와 철마산으로 날아갔다는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방굴(방동(方洞))

내방1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산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모양이 방형(方形)이라고 해서 방굴 또는 방동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비금리(秘金里)

내방2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 이 비늘에 숨겨진 금이 많았다고 해서 비금리(秘金里)라고 불렀는데, 실제 찾아보니 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을 이름을 변경해서 비금동(秘金洞)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편, 조선시대 비금리라 칭하던 것이 일제시

대에 비금리로 칭한 바 그 후부터는 비금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청룡말 [가평안마산]

앞들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의 뒷산이 청룡과 같이 생겼다 하여 청룡말이라 부른다. 한편 가평안마산이라고도 부른다.

•안공희생자합동위령비(反共犧牲者合同慰靈碑), 수동면 내방리 51-3

이 위령비는 6·25전쟁시 연합군의 인신상륙작전으로 지리멸렬한 북한군의 급습으로 희생된 이 지역 주민 최선화, 이강호, 이대현 등 다수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1983년 11월 18일 남양주군 자유총연맹에서 건립했다.

II) 외방리(外坊里) [마갈밭골, 외방동]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가평군 지역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상입식 일부와 외방동을 병합해 외방리라 하였다. 내방리와 연관된 이름으로, 밭골 마갈밭이 되므로 마갈밭골 또는 외방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1963년 양주군 수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남이바위

외방리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전지라골 동쪽에 있다. 조선조 명장 남이장군이 유미부원의 정신으로 국난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방조망이 좋은 이곳 죽령산에 자주 올라 지형을 익혔다는 자리로 모양이 마치 깔럼이의자와 흡사하다.

•불당골

외방3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제지돛구르미 동쪽에 있다. 이 마을에 불당을 토신 암자가 있어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서리산

산 북서쪽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항상 온달이 저 처리가 내려도 쉽게 녹지 않게 되어 서리가 늘 있는 것 같아 보이 서리산이라 칭함.

•석고개

마을에 돌이 깔은 고개가 있다 하여 석고개라 한다.

•독수리바위

외방2리 큰물안골 북쪽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예로부터 이곳과 다른 산보다 독수리가 유난히 많이 서식하였으므로 바위모양이 독수리 같다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천지라골 [천지라하골, 천지라하굴, 천지동]

예부터 이 마을에는 천세, 지세, 라세, 하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 하여 천지라하골로 불리다가 그 중 대표적인 성씨를 따라 옛말자를 정자로 시작하여 현재는 천지라골 또는 천지동이라 부른다.

•죽령산 (祝靈山, 비령산(非靈山), 밀령산, 886.2m)

수동면 외방리와 가평 삼면 행현리의 경계에 솟은 산의 이름이다. 산기슭에 비령이 마을이 남아 있어 이 산의 옛이름이 '비령산(飛靈山)'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에는 비말산(非那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민들은 신령에게 빈다는 뜻에서 비령산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 산의 유래에는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이곳으로 이성계가 사냥을 왔는데,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녀도 짐승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허탈을 치고 돌아가는새, 물이끓으로 참어했던 사람들이 이 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다음날 산 정상에 올라 고사를 지냈고, 고사를 지낸 후 다시 사냥을 하여 몇 마리를 다섯 마리나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몇배씩 다섯 마리를 잡은 산은 오죽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고사를 드렸던 산은 밀령산 또는 죽령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홍구세굴

조선조 홍씨 성을 가진 판서가 늦도록 후세를 잊지 못해 애틀 태우던 중 임산인 이곳 축령산에 올라 세단을 받고 지상으로 발원기도 한 길과 후세를 잊고 자손 대대로 가문이 번창하였다는 전설이 담겨 있는 글이다.

•남양주외방리(南楊州外坊里)소나무, 수동면 외방리 산48, 경기남양주43

이 소나무는 축령산 아래 외방리 입구 서남당터에 있는데 특유의 굵은 줄기가 특징이며 높은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수령 400년, 높이 14m, 흉고둘레 2.8m이다.

•남양주외방리(南楊州外坊里)은행나무, 수동면 외방리 260-5, 경기남양주50

이 나무는 권지라공의 외방현 계곡에 서있는데 사방으로 밑과 가지가 고루 발달한 활짝 퍼진 부채모양이다. 이 나무는 숫나무로 수령 200년, 높이 18m, 둘레 2.5m이다. 이 나무 근처에는 다른 은행나무들이 많은데, 바로 옆에 흉고둘레 2.1m의 은행나무가 있다. 들어선 상태이다.

7) 입석리(立石里) [선돌, 입석]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대부분 가평군 지역이었는데 1914년 4월1일 신촌과 하입석, 상입석, 양주군 상도면 장천리르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입석리라 하고 가평군 외서면에 소속되었다. 1963년에 양주군 수동면에 소속되었고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궐돌

산막골 서남쪽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까귀할머니가 큰 돌을 저 마에 싸가지고 와서 바위 위에 놓았다고 해서 궐돌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만취대

축령산 서쪽 암석3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 이곳이 경치

180 남양주시의 관내지명

가 좋기로 유명하여 장군들이 놀다가 술에 만취되었던 곳이라 하여 만취대라 한다.

•상무개 [활터개]

선돌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예전에 활터가 있어서 활터개라고 불리다가 화살이 불려 있는 곳이라고 해서 상무개로 바뀌어 불린다고 전한다.

•새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말이라 부른다.

•선돌 [입석(立石)]

입석4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을 앞산에 약 1평 정도되는 큰 돌이 서 있다고 하여 선돌이라 부른다. 입석이라는 이름은 이를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라 한다.

•오독산(五得山)

치마바위 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이 산의 이름 유래는 죽령산과 함께 조선외조의 사조인 태조 이성계의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태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이 근처로 사냥을 왔는데,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녀도 꿩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 허탈을 지고 돌아오는 길에, 풀이끼로 참어있던 사람들이 이 산을 신령스러운 산이라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다음날 산 정상에 올라 고사를 지냈고 고사를 지낸 후 다시 사냥을 하여 멧돼지를 다섯 마리와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던 후에 멧돼지 다섯 마리를 잡은 산을 오독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점둔지

립들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이곳에서 부처로 숭배 각종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터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점둔지라 부르게 됐다.

•박거리

선돌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파위

구사골고개 서쪽 입석2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산이 반월형으로 돌아서 생긴 마을이라 하여 파호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파위라 부르게 되었다.

•황소터

가마소 동쪽에 있는 내의 이름이다. 황소가 빠져죽었다고 해서 황소터라고 부른다고 하고, 이와는 달리 이 내에 사는 메기가 황소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고도 한다.

9. 조안면(鳥安面)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지역이었다. 1906년 양주군 초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외공면·초부면 일부를 병합하여 와부면을 설치하였다. 1940년 2월14일 조안출장소를 설치하여 6개리를 관할하였고, 1986년 4월1일 대통령령(11874호)으로 조안면으로 승격(4개리)하였다. 1989년 1월1일 조동리(鳥洞里)의 조자와 쌍안리(奉安里)의 안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1) 능내리(陵內里) [능안, 능내(陵內)]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광주군 지역이었고 1906년 양주군 초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양주군 초부면 봉안리와 마현리 각 일부, 그리고 능내리를 병합하여 능내리라 하고 와부면에 소속되었다.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의 묘가 있으므로 능안 또는 능내라 하였다고 한다. 1986년 4월1일 와부면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능안 [원릉, 원동]

능내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처음에는 능안으로 부르다가 중간에 원릉으로 바뀌었으며, 지금은 능안으로 부른다. 또한 원동으로도 부른다. 서원부원군 한확의 묘가 있어서 원릉으로 부른다고 한다.

•두물소

이현마을 북동쪽 한강기에 있는 소(沼)의 이름이다. 물이 흐르지 않고 간혀 있는 곳인데 옛날 이곳에다 자야를 뿌렸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마현(馬峴)

능내리에서 광주분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말을 타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고개가 있어서 '마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이 태어난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림학사 민씨도 이곳에서 살았다고 전한다.

•봉안

능내3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봉우리가 마을을 편안하게 안고 있는 형상이라해서 붙은 이름이다. 상봉(웃말)과 하봉(아랫말)으로 나누어진다.

•상봉 [윗말]

능내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봉안마을의 윗 동네로 상봉 또는 윗말이라고 부른다.

•십리백사장

능내1리에 있었던 넓은 백사장의 이름이다. 밤나무골 남쪽에 있었다. 길이가 십리나 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하봉 [아랫말, 역천]

상봉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봉안마을의 아랫 동네로 하봉 또는 아랫말이라고 부른다.

•남양주능내리유물산포지(南楊州陵內里遺物散布地)1 조안면 능내리 94-1, 7-1, 25일대

•남양주능내리유물산포지(南楊州陵內里遺物散布地)2 조안면 능내리 산68-3, 155, 157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능내리 지석묘군에서 원능마을로 들어가는 길의 우측에 있는 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좌측은 작은 산이며 거기서 약 100m정도 길건너 가면 한화 선도비와 묘역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토기, 도자기편 등을 발견하였다.

•한축묘(韓軸墓), 조안면 능내리 산69-5,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7호

한학(1403~1456)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유(子柔)이며, 호는 간이재(簡易齋), 시호는 양벌(襄節)으로 본관은 청주이다. 묘는 조안면 능내리의 능내역과 인접한 도로변에 정남향하고 있다. 동서 직경 750cm, 높이 240cm의 원형봉분은 용머리가 없는 대신 활개를 갖추고 있다. 묘 우측에 있는 2기의 묘의 중 옛 묘비는 글씨가 마모된 고려양식의 안상문을 장식하였다.

- 한학신도비(韓學神道碑), 조안면 능내리 산69-5,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7호

이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서향하여 정면3칸, 측면3칸의 비각 내에 보존되어 있다. 상방형의 화강암계 비좌 위에 대리석의 비신과 이수틀 갖추고 있다. 비신은 이수와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비문은 마모가 심하여 명확하지 않다.

- 정약용유적지(丁若鏞遺蹟地), 조안면 능내리 산75-1, 98-1, 93일대

능내리에 있는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였던 나산 정약용 선생의 유적지이다. 유적지에는 사당과 기념관, 생가 터인 여유당, 천일각과 실험정신을 불꽃으로 형상화한 조형물과 다산의 영명 및 저서 등이 원시되어있고 또 다산문화의 거리에는 목민심서의 글씨를 새겨놓은 원통형 기둥과 커중기 모형이 있다. 정약용유적지에서는 선생의 업적과 실학사상, 학문, 삶을 기념하여 개술 발전시키려는 지역 축제로 나산유적지 일대에서 1985년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순경 3일간 축제가 열린다. 정약용 선생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 정약용묘(丁若鏞墓), 조안면 능내리 산75-1, 경기도기념물 제7호

정약용(1762~1836)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자음의 자는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繡), 호는 사암(叡菴)·좌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등이며, 당호는 여유(與猶)이다. 묘는 조안면 능내리에 선생을 모신 유대인 여유당과 함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역에는 새로 담장을 만들어 세우고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6각 향보석이 있으며, 봉분 좌측에는 1974년 건립된 비가 있다.

묘 앞에는 1959년에 세운 묘비 2기와 석연석에 어유당이라 쓴 비 1기가 있다.

•어유당(異猶堂), 조안면 능내리 93

어유당은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26년 을축년 대홍수로 초실된 것을 현재 위치에 다시 복원한 것이다. 현재는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고 소박한 모습은 보이는데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집으로 보인다.

•남양주상봉마을지석묘군(南楊州上봉마을支石墓群), 조안면 능내리 산28-4, 749, 748일대

관당뎌를 지나 상봉마을 길로 수목원을 지나면 산의 동쪽 비탈면과 그 아래에 눈과 말 사이에 지석묘군이 있다. 지석묘군의 아래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의 동쪽은 눈이다. 이 지석묘군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석묘와 세석장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남양주능내리(南楊州陵內리)느티나무, 조안면 능내리 667-2, 경기남양주18

능내3리 봉만마을 안의 상봉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청자목이다. 높이가 12m 부위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3개였던 줄기중 제일 굵은 줄기가 태풍으로 부러졌다고 한다. 나무에 그대를 매어타고 고사를 지냈었으나 인근 밭에 있던 당집을 없애 후부터 고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수령 500년, 높이가 16m, 흉고둘레 5.0m이다.

•봉안역지(奉安驛址), 조안면 능내리 537-5, 522일대

봉안터널을 지나 봉안교를 건너면 고속도로 바로 아래에 좌측으로 봉안역지가 있다. 봉안역은 평구역의 속역 중 하나이며, 평구역을 거쳐 향령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동여도」를 보면 봉안역의 위치는 현재 조안면 조안리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차도에서는 봉안역 앞에 있는 나무를 고랑진(高浪津)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조안리(鳥安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황주군 지역이었는데 1914년 조동리의 조(鳥)자와 사안리의 안(安)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때 외부면이 소속되었다가 1986년 4월1일 외부면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고랭이 [고안, 시안]

북한강가에 있는 조안1리의 마을 이름이다. 참마 배 붙이 요개를 넘쳐 흥렸고 이로 인하여 고기가 요개를 넘어왔다고 해서 고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에 고안으로 바꾸어 부르다가 일제강점기에 시안으로 부르게 되었다.

•고랭이나루터

고랭이마을 동쪽 북한강가에 있었던 나무의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달집

조동에 있는 당이다. 이 당에서 1년에 한번씩 제행 지냈는데, 예전에는 광주(廣州)에서도 이것을 보러 올 정도로 크고 유명했다고 한다.

•무너미고개

고랭이 북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 갈머로 물수가 나서 운여기 넘어온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너미고개란 물이 넘쳐 흐르는 고개를 의미하는 물넘이고개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방아다리

상승배기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방아다리라는 이름은 장마 때 방아가 떠내려가서 아랫 다리에 걸렸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벼락바위

조동 서쪽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아주 커다란 바위가 벼락을 맞고 쪼개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새말

고령이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생사랴고개

새말 북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자드라고개 남서쪽에 있으며, 옛날 원님들이 다니던 고갯길이라고 한다. 이 고개에서 생사람을 벨러 죽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외촌(外村)

조인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탄밭에 물방앗간이 있어서 방아다리 아랫밭보 부르다가 한지식 외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작은사람산

조동 서쪽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이다. 높이는 454.5m이다. 이 산 서쪽에 큰사람산이 있다.

•조동(鳥洞) [새울, 새월]

방아다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새가 머물다 날아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와는 달리 딱딱 선조가 한양 가는 길에 이 지역에서 쉬게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듣기 좋고 풀이 좋아 가려 찢던 길을 밟추고 여기서 살기로 하고, 마을 이름을 '조동'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새울 또는 새월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새와 관련된 지명으로 조동 서쪽 외부음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새재, 새고개[鳥樞]가 있다.

•큰사람산 [예봉산, 양산(養山)]

조동 서쪽 있는 산의 이름이다. 높이는 587m이며 큰사람산, 예봉산 등으로 부른다. 이산은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신령을 모시는 산이라 해서 '양산(養山)'이라고도 부른다. 이산 동쪽에 '작은사

향산이 있다.

- 남양주조안리유물산포지(南楊州鳥安里遺物散布地)1, 조안면 조안리 산 164-5

신양수대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6번국도 밑으로 지나는 터널을 통과하면 민자가 몇 채 안 되는 곳이 나타나는데 이곳의 동편 구릉 정상부가 유물산포지이다. 관당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현재 강이 흐르는 동편과 남편으로 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새로 개축된 신 양수대교에 의하여 단절되었지만, 북편의 구릉과 이어지는 능선 말단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유물은 구석기시대의 석곽 1점과 다수의 고려, 조선시대의 도·자기편들이 채집된다.

- 남양주조안리유물산포지(南楊州鳥安里遺物散布地)2 조안면 조안리 1036, 228-1, 246일대

신양수대교 교차로에서 우측의 사안마을 동편의 구릉 정상부에 있는 밭 부근이 유물산포지이다.

관당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현재 강이 흐르는 동편으로 마을이 있었다. 마을이 수몰되기 이전의 지형을 고려하면, 원래 사안마을 동편의 구릉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미완성된 석착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도·자기편들이 발견된다.

- 남양주조안리(南楊州鳥安里)당집1, 조안면 조안리 산104

조안마을 뒤쪽 증갈기에 개울 지나는 당집이 있는데, 벽돌로 쌓은 원대식 당집이다. 옛날에는 지금의 위치의 초가집의 당집이 있었으나 10여년전에 새로 지었다. 당집의 형태를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1칸 벽돌집으로 지붕은 슈테이트를 올렸다.

- 남양주조안리(南楊州鳥安里)당집2, 조안면 조안리 1036

신양수대교 입구 좌측편에 신양수검문소가 있는데 그관 좌편의 나지막한 동산 위에 당집이 있다. 이곳은 애룡산 줄기 마지막 형에 해당한다. 당집은 마을이 아니라, 남동쪽인 한강을 향하고 있다.

당집은 시멘트 볼록으로 짓고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였다.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며, 문은 양쪽 여닫이 합서문으로 파란색을 칠하였다.

•남양주조안리박치흥家터줏거리, 조안면 조안리 919-1

조안 2리 조동 마을은 세봉산 남동쪽 골짜기 마태에 길게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에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산제사가 있고 가정마다 대대로 터주나 업가리 등을 모시고 있다.

•남양주조안리박광덕家터줏거리, 조안리 산24

조안리 마을 회관 옆길을 따라 올라 가면 길 오른쪽으로 박들로 쌓은 돌담집이 있다. 바로 이 집이 터주와 업가리가 있는 박광덕씨 객이다. 넓은 뒤뜰에 둥그렇게 돌담이 쳐져 있고 뒤뜰 아랫쪽에 장독대가 있다. 장독대 오른쪽에는 안채가 있으며 장독대 뒤쪽에는 업가리가 나란히 2개 있다. 그 뒤로 터줏거리 1개가 놓여 있다.

•남양주조안리(南楊州典安里)느티나무, 조안면 조안리 929, 경기남양주20

조안2리 조동마을 세마을회관의 북동편 구름에 보호수가 있다. 높이가 2.7m 부위에서 세 갈래로 갈라진 줄기는 일과 가지가 무성하게 발달하여 크고 풍성한 수관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봄에 이 나무의 잎이 한꺼번에 잘 나오면 그 해 농사가 풍년이 들고 군데 군데 나오면 흉년이 든다고 믿을 뿐이다.

수령 190년, 높이 15m, 흉고둘레 4.4m이다

3) 진중리(鎭中里)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은 광주군으로 1914년 진촌리의 '진(鎭)'자와 중리의 '중(中)'자를 따서 진중리라 하고 양주군 외부면에 편입되었다.

•고리징터

중리 북동쪽 한가울 근처에 있는 장소의 이름이다. 고리장(高麗莊)이란 고구려(高句麗) 때의 장사(葬事) 치대는 밭으로서, 늑고 병들은 사람을 묘실(墓室)에 옮겨 두었다가 죽으면 거기에 안치 하고 금은 보화를 넣은 다음 돌로 쌓아 봉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장사 풍습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병 든 노인을 깊은 산굴에 버리는 풍습으로 변해졌다고 한다. 전중리 북동쪽에 있는 '고려상터'는 바로 이러한 고려 장을 실행하던 구세적인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따르면 삼국시대의 석곽분이라고 한다.

•마들 [마이들, 마들]

마전 남쪽에 있는 들의 이름이다. 마들은 변용성 상군이 우리 지방에 병세가 강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적들이 마주보이는 언덕에 말을 매어두어 말의 수가 많아 보이게 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마재 [마현(馬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변용성이 수원부사(水原府使)로 있을 당시 이곳 마전부락에서 살아있는데 부친인 변협(邊協)께서 노환중이라 이곳 마전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말을 타고 넘어진 고개를 마재라고 한다.

•마진(馬陣) [진말]

중리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변용성 상군이 임진왜란 당시 기병(騎兵)으로서 잔을 쳐 우리 군의 병세가 강려함을 적에게 보여 주던 곳이라고 전한다.

•마진산성(馬陣山城)

마진마을 남쪽에 있는 산성의 이름이다. 지금의 양수리 지역에 약 3만의 왜병이 진을 치고 있으므로 수현의 우리 승군(僧軍)으로는 대처이 불가능하자 지금의 상봉 일 북한강을 수백으로 막아 3만의 왜병을 수장시키고자 하여 수백이 완공될 때까지 이곳 산성 정상에 오작물을 밭이고 기병(騎兵)에게 김강웃을 입혀 말 일함개로 초 적덕부터 새벽까지 돌게하니 적들이 이를 보고 우리군의 기병이 만어말

에 이를 쫓아라 생각하고 갑자기 공격해오지 못하였다한다. 또한 수백을 원공하여 칩을 길안으로 유민하여 모두 수장사였다 한다. 이곳에 청동으로 만든 밭이 있었다고 전한다.

•마탄나무

변용성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 하도 바빠서 말을 탄채로 배에오르고 말을 탄채로 강을 건너 이곳 나무를 마탄나무라고 전한다.

•조곡(造谷) [조곡(鳥谷)]

중리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임진왜란 당시 내장간을 세워 병기를 만들던 곳으로 조곡(造谷)이라 하였다. 한편, 산속에서 새가 아름다운 소리로 많이 울고 계곡이 깊숙하여 물이 깨끗하여 사람이 살기에 좋다고 해서 조곡(鳥谷)이라 불린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중리 [중말]

조곡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원래 밭의 죽을 먹었던 곳으로 처음에는 죽말이라고 부르다가 중말로 변하고 다시 중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馬)과 관련된 곳으로 마진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임진왜란 때 변용성(邊應星) 장군의 전적지이다. 마진산성이라는 이름은 말로 전을 쳤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곳에 청동으로 만든 밭이 있었다고도 전한다.

•진중리(陣中里)

임진왜란당시 변용성 장군이 전을 치고 왜적을 물리친 곳으로 마진, 죽말, 마들, 조곡을 합쳐서 진중리라 하고 있다.

•남양주진중리유물산포지(南楊州鎭中里遺物散布地), 조안면 진중리 산26-4, 산1-2일대

•남양주진중리석곽분(南楊州鎭中里石槨墳), 조안면 진중리 산1-1

•마진산성(馬鎭山城), 조안면 진중리 산6-1일대

4) 송촌리(松村里)

송촌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 지역으로 1906년 양주군 오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평촌이 일부와 송송동을 병합하여 송송의 '송(松)' 평촌의 '촌(村)' 자를 따서 송촌리라고 하고 와부면에 소속되었다. 1963년 조안출장소의 편입이 되었는데 1986년 4월 1일 와부읍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동안

두촌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두촌(豆村) [배나무용진, 연개, 평촌]

송송골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배나무가 많기로 유명하여 '배나무용진'이라 불렀는데, 그후 콩 재배로 유명하여 두촌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연개와 평촌으로도 부른다.

•수늪이

두촌의 북쪽과 동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북한강 근처에 있어 이곳이 예전에는 늪지였던 곳이라고 한다.

•송송골 [송신]

두촌 서쪽 송촌 2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중국에서 장수 이어송을 조선에 보낼 때, 송자가 많은 마을은 가지 말라고 주의할 준 것을 전해들은 한승 대감이 직접 이 마을에 송자를 붙여 지은 이름이 바로 '송송골'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미와는 달리 두촌마을에 세대수가 늘어나자 마을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소나무밭 속산에 만들어진 마을이라 해서 '송송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송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현재 송촌리는 이 '송송골' 즉 '송송동'의 '송(松)'자와 평촌리의 '촌(村)'자를 합하여 붙여진 것이다.

•문길산

송송골 서쪽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높이는 510.2m이다. 구룡이 가

다가 산에 걸려서 멈춘다고 하여 운길산으로 부른다고 한다.

•점마을

구봉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는 용기를 깬들었던 마을이라고 한다.

•탑산

송송굴 북동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아들이 없었던 노인이 아들을 기원하며 이 산에다 말을 쌓았다고 해서

•수종사(水鍾寺), 조안면 송촌리 1060

운길산 정상부 약 8부 능선에 수종사가 위치하고 있다. 수종사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57호인 수종사부도와 22호인 수종사8각5층 석탑등의 석물이 있다.

•수종사부도(水鍾寺浮屠), 조안면 송촌리 1060,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57호

이 부도는 1493년(세종 21) 태종태후의 말년에 의해 조성된 정의옹주(세종의 2녀)의 부도이다. 원래는 경내 원북 산비탈에 있던 것을 1939년 대웅전과 요사 중간의 공터로 옮기면서 세세 중수하였다. 8각원당형의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전형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 옥개석 상륜부 순서로 부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종사팔각오층석탑(水鍾寺八角五層石塔), 조안면 송촌리 1060,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2호

팔각오층석탑은 대웅전과 요사채 중간의 공터에 소탑 및 부도 등과 같이 남향하여 북한강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원래 경내에서 동쪽으로 벗어난 곳에 있었던 것이며, 지금은 '수종사 다보탑'으로 더 유명하다.

이 탑은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이중 석재를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장고형의 중대석 같은 석재를 밑석으로 하고 다시 위에 5층의 팔각 탑신을 올렸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상륜부가 있다. 마치 북조전공을 연상시키며 탑 전체의 균형미도 완벽하다.

•수중사소탑(水鐘寺小塔), 조안면 송촌리 1060

이 소탑은 현재 대웅전과 요사채 중간의 공터에 있는데 팔각오층 석탑과 부도 사이에 있다. 기단부와 탑신의 일부 등이 크게 파손되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약간의 모수를 지킨 것이다. 전체적인 모양은 모란봉의 팔각오층석탑과는 대조적으로 사각형의 삼층석탑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양주송촌리은행나무(南楊州松村里1), 조안면 송촌리 신26-22, 경기남양주17

•남양주송촌리은행나무(南楊州松村里)2, 조안면 송촌리 633, 경기남양주19

이 은행나무는 해발 400m 산중턱의 수중사에 자리 잡고 있다. 두 그루 모두 암나무로 가지가 사방으로 교주 퍼지고 잎이 무성하며 줄기의 휘어짐이 인상적이다. 큰 나무는 흉고둘레 6.2m, 수관폭이 26m에 이르고 뿌리가 넓게 노출된 채 버져있으며, 작은 나무는 흉고둘레 4.5m로 높이 5m 부위에서부터 길가지가 발생하여 수형이 형성되어 있다.

수령 500년 (大) 높이 28m, 흉고둘레 6.2m, (小) 높이 25m, 흉고둘레 4.5m에 달한다.

•이덕형별서지(李德馨別墅址), 조안면 송촌리 778, 778-1

이 유적은 송촌리 연세중학교 뒤편에 있는 주택단지 청근으로 추정된다. 이덕형은 임진왜란의 국난을 수습한 달대의 명재상으로 1611년(광해군 3) 인목세비의 폐모에 반대하다 권력이 상실되자 이곳에서 은거하였다고 전한다.

•관가정지(觀嘉亭址), 조안면 송촌리 787, 788-2

송촌리 연세중학교 뒤편으로 현재 밭으로 정작되고 있는 곳이 관가정지이다. 관가정지는 이난상이 지은 정자가 있던 자리이다.

•3.1의거애국선열추념탑(3.1義舉愛國先烈追念塔), 조안면 송촌리 산28-1

이 추념탑은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앞에 조성된 공원에 있다. 일제 치하인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기행하던 중 억울하게

옥고를 치문 송촌리 이정철 외 16인의 후세들이 애국애족의 청신을 높이 찬양하고자 광복49주년을 맞이하여 1994년 8월 15일 제막되었다.

•용진나무터(龍津), 조안면 송촌리 241, 245-1

조안면 송촌리 양평대교 좌우에 있던 용진나무터는 양주(현재 남양주시 조안면)와 양근(양평)을 연결하던 나무였다. 서울에서 경상북부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정구역을 거쳐 용진나무를 건너는 중요한 곳이었다. 조선시대에 이곳은 수군참군이 있었던 장소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내왕하는 배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변협요(邊協驛), 조안면 송촌리 산26-4

변협(1528~1590)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화중(和中), 호는 남호(南湖), 본관은 원주이며, 아버지는 중추부경역인 계유(季胤)이다. 수종사입구 옛밭에서 우측으로 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우측의 구릉에 변협의 묘가 있다. 이 묘는 변응성 묘 아래에 동남향하여 정면에 북한강을 굽어보고 있다. 묘는 정결부인 화순 최씨와 합장묘로 봉분 앞에는 복련문의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묘표가 있다.

•변응성묘(邊應星墓), 조안면 송촌리 산26-4

변응성(1522~?)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아버지는 공조판서 겸 도총관인 변협이다. 송촌리 운길산 변협의 묘위에 동남향하여 정면에 북한강을 굽어보고 있다. 정부인 여산송씨와 쌍봉으로 묘역의 세일 살부에는 정송십씨의 묘와 함께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향군의 묘는 묘역 좌측의 호석을 두른 묘인데 봉분 앞에 복련문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묘표가 있다.

5) 삼봉리(三峰里)

삼봉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광주군에 속하던 지역이다. 1906

196 남양주시의 권역지명

년 양주군 초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에 삼봉리와 명촌리 그리고 하도면 백림리 각 일부를 통합하여 삼봉리라고 하고 와부면에 소속되었다. 1963년 조안읍장소의 편입이 되었다가 1986년 4월1일 과부읍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세 봉우리가 있으므로 삼봉 또는 삼봉을 세합하여 구봉이라고도 불렀다.

•고누골

조선시대 관주군 관원에서 차기용으로 백토를 채취하였던 바 채취 인원들이 휴식 중 오락으로 고누라는 작기로 소일한 유래가 있어 고누골이라 한다.

•구봉(九峰)

이양마을 남쪽 삼봉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산 위에서 보면 봉우리 아홉 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어 구봉으로 부른다고 한다.

•벌마을

이양 남쪽에 있으며 이양에 포함되는 마을 이름이다.

•소동골

이양 남쪽에 있으며 이양에 포함되는 마을 이름이다.

•이양

구봉마을의 북쪽, 개계마을 동쪽 삼봉리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북쪽의 양지마을, 서쪽의 음달마을, 남쪽의 소동골, 남동쪽의 벌마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 중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목장 형식으로 양을 길렀던 곳이라고 전한다.

•양지마을

이양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이양에 포함된다.

•음달마을

이양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이양에 포함된다.

•새재기

이양 서쪽, 구봉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이양에 포함된다.

다.

- 남양주삼봉리유물산포지(南楊州三峯里遺物散布地), 조안면 삼봉리 산10-1, 173일대

남양주종합촬영소 우측으로 아양마을로 진입하면 북편의 산능선에 유물산포지가 있다. 이곳은 무안산 서남쪽인데 아래쪽으로 아양마을 지석묘가 있다. 유물로는 조선시대 도·자기편들과 기와편들이 채집된다.

- 남양주아양마을지석묘(南楊州我洋마을支石墓), 조안면 삼봉리 239

남양주종합촬영소 들어가기 전에 아양마을의 좌측에 구릉에 지석묘군이 있다. 구릉의 동쪽 비탈면에는 지석묘 개석이 놓여 있다. 그 주위에 작은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 남양주부영배마을지석묘군(南楊州부영배마을支石墓群), 조안면 삼봉리 산 21-130일대

삼봉리 아양마을 지석묘에서 서을 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부영배 마을로 들어가면 구봉목장 우측 산의 서쪽 비탈면에 구름이 있는데 이곳이 지석묘군이 있는 곳이다. 현재는 개인주거가옥이 들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 남양주고노골지석묘군, 조안면 삼봉리 78-1, 12-4, 69

아양마을 좌측으로 노도골로 들어가서 세외아국계전통원 삼봉리 연수원 전에 고노골마을의 좌측 구릉에 음석침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부근의 할애 지석묘 개석이 놓여 있다. 이곳에 있는 지석묘는 모두 규암으로 주위에 작은 화강암들이 흩어져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6) 시우리(時雨里)

시우리는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하도면 지역에 속했던 지역이다. 1914년 외부면에 소속되었다가 1986년 4월1일 외부읍에서

조안면으로 분리되었다.

•광명

동간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동간

광명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신라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쉬어갈 곳이라 해서 사우리라 불리다가 **

•비석거리

동간마을 서쪽에 있는 길의 이름이다. 병조원지의 비석을 무덤 앞에 세우려고 했으나, 너무 커서 옮기지 못하고 그 입구 길에다가 세웠다고 해서 비석거리로 부른다고 전한다.

•시우(時雨)

때에 맞춰 비가 온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의 이름이다. 원래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비가 갑자기 오면 시위(큰물)가 잘 나쁘로 '시우'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10. 호평동 (好評洞)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상도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2년 5월23일에 양주군 금촌면이 되었고, 1914년에 호만(好滿)리의 '호(好)'자와 평동(坪洞)리의 '평(坪)'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때 미금면에 소속되었다가 1980년 4월1일 양주군에서 남양주군 미금읍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1989년 1월1일 미금시 승격에 따라 호평동 4개리를 통합하여 호평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1995년 5월1일 도농복합형 남양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남양주시에 편제되었다.

•가마솥동지

한글 계곡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라우보 갈라진 바위 사이가 큰 가마솥을 엮을 법하다 해서, '가마솥동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이 지역은 가뭄이 들 때면 귀뚜라미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온 동네 부녀자들이 키를 들고 이곳으로 와서 키보 물을 퍼서 바위에 끼얹으며 비가 오기를 빌었다고 한다. 가뭄이 심한 때에는 몇 번씩 키질을 하기도 했으며, 키질을 마치고 내려오면 췌은기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비가 오곤 했다고 한다.

•갈매자리들 [갈보자리들]

법발과 구룡터 사이에 있는 들판의 이름이다. 용터굴 앞 석계들로 이어지며, 호평동에서 가장 넓은 논 지역이다. 가뭄에 물이 파른 수로라는 의미로 가뭄이 들면 모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구룡터 [구명터, 구멍터, 구녕터]

호평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지역의 우물에서 아홉 바리의 용이 승천해서 구룡터라 부른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구서와 명씨가 살던 곳이라 해서 구녕터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구명터라 부르는 것

은 구멍터가 변해서 된 것이라 한다. 한편 처음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약간씩 달리 전하기 때문에 마을 이름도 약간씩 다르다. 즉, 친구용이라는 사람이 처음 살았기 때문에 구봉터, 친구명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구명터, 친구영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구녕터 등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현재 경춘간 고속도로가 마을 가운데로 지나게 되어 마을이 형편되었다.

•구슬막 [아랫지새울, 아랫지사]

평내역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구슬을 만드는 막이 있었던 마을이라서 구슬막이라고 부른다. 또한 아랫지새울, 아랫지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티울 [노태울]

조반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평내역 바로 뒤에서 호만 쪽으로 펼쳐지는 논과 그 일대의 마을을 말한다. 노티울 또는 노태울이라는 지명은 노티나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자세한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떡고개

평내역 서쪽 철로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에 이마와 같은 천 염색으로 죽은 아이를 바로 묻지 않고 냇에다 놓아 두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비를 세던 고개라 해서 떡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도장골

상명대학교 생활관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간 갈짜기의 이름이다. 도장골이라는 이름은 이 갈짜기 산에 길마 있어서 도를 닦으러 들어가는 갈짜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도당골이 변한 것으로, 이곳이 도당제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당골이라 불리던 것이 변하여 도장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땃밭

별말에 속한 마을 중의 하나이다. 별말 북쪽 지역, 뒤쪽이라는 뜻에서 뒷말이라 부른다고 한다. 호반으로 가는 기차 철교 밑 하천이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밤나무가 많았던 곳이었다.

•마치고개

궁평에서 화도읍 묵현리 먹길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 문헌에 이 고개는 마치현(摩峙峴,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또는 마치(馬峙, 『대동지지』, 『조선지지자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와 말티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과 '마'는 모두 '산' 또는 '산정'이라는 의미의 '마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말티고개 혹은 마치고개는 산에 있는 고개 혹은 산정래 있는 고개란 의미가 된다.

•모태안

호평동 호만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바랑골

평내역 북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옛날 동생이질이라 부르던 견선암의 스님이 바랑을 지고 호평동으로 넘어가던 골짜기라고 해서 바랑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별말 [평촌(坪村)]

구룡터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벌판에 세워진 마을이라고 해서 '별말', '평촌' 등으로 부른다.

•색시골

느티울 안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옛날 양반집 새아기씨의 산소가 이곳에 쓰인 이후로 새아기씨골로 부르던 것이 변하여 색시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악바사리밭

상명학원 권이사장 배상명의 묘지가 있는 밭의 이름이다. 경사가 급하고 돌이 많아져 농사짓기 힘든 밭이기 때문에 악바사리밭으로 부른다고 한다.

•어우박골 [어우막골]

구룡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경춘간 구도로와 선도로 사이에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다. 예전에 이 골짜기에는 어우굴이 많아 밤이면 매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어우박골은 어우굴이 엮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골짜기 서쪽의 '작은모래이'와 동쪽의 '큰모래이'로 나누어진다.

•윗지새울 [윗지사]

평내역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마왕골 남쪽에 있다.

•철골 [철골어귀]

상명대학교 생활관 및 개수 위로 서울시교속철이 관리하는 천마의 길에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철이 있었던 골짜기라서 철골로 부르는데, 실제로 옛 절터가 남아있다. 천마의 길 근처를 철골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서 철골어귀라고 부른다.

•지사

호평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동네 뒤편에 지사 벼슬을 지낸 분의 한소를 쓰고 나서부터 동네 이름도 지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사의 한소가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된다.

•송흥리

반말 남동쪽 동네의 이름이다. 남양이랜드 옆의 지역이다.

•큰성능골 [작은성능골]

평내역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분터골과 쌍가마골 사이에 있다. 선건을 송흥리로 넘어가는 산골짜기와 작은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권전을 송흥리에 있는 광혜군 생모인 골민김씨의 보인 성당으로 넘어가는 큰 골짜기와 작은 골짜기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호민

호평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원래 '호안'이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무네이골 논에다 물을 대기 위해 느티움쪽으로 나무를 짚을 파서

만든 돌방울 이어 낸 농수로가 있었는데 이 돌방울로 된 농수로 안에 있는 집들을 '호만'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에 부르기 쉽게 '호만'이라고 하기 시작했으며, 한자어로는 '호만(好滿)'이라 표기했다. 이 마을은 텃밭, 간곶밭, 할나무고개, 느티돌, 호랭이안 등으로 나누어진 다.

•남양주호평동산제당(南楊州好坪洞山祭堂), 호평동 산62, 산62-2

호평동 4동에 속해 있는 지사 마을의 산제당은 마을로부터 북쪽 약 1km 떨어진 바랑골산(마을 뒷산) 중턱 '산제터'에 있다. 마을 중앙에 있는 보호수인 느티나무를 지나 마을 뒤로 나 있는 농모길을 따라 가다보면 돌 아래로 산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있고, 냇물을 따라 왼쪽로 걸어들면 등산로가 나온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여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 약 200여 미터만 올라 가면 산등성이에 산제당이 있다.

•남양주호평동산신당(南楊州好坪洞山神堂)2, 호평동 산54-9

이 산신당은 마을로부터 서북쪽 약 1km 정도 떨어진 천마산 줄기 3부 능선 '천지굴'이란 곳에 있는데 마을 끝동으로 삼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산신당 오른쪽으로 큰 바위와 함께 여러 그루의 노송이 있고, 노송 앞에는 넓은 마위가 있다. 바로 이 바위가 산계를 지내는 산제당이다. 산제당 반대편 남퍼리지 위에는 역시 노송 1그루와 바위가 있는데, 노송에는 오색현으로 현납축을 매달아 놓았다. 산신당은 1칸 짜리 시멘트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양주호평동김춘수기터쫓거리, 호평동 613

호평동의 김춘수씨의 가족 안의 뒤뜰에 실과 향아리로 관달여진 높이 85cm, 밑둘레130cm의 터쫓거리 두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호랑-황내 백지개발로 인해 당시의 마을이 사라져서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남양주호평동느티나무(南楊州好坪洞), 호평동 612 경기남양주5

이 나무는 호평동 i PARK 아파트 1105동 옆에 있는데 나무를 중심으로 담장이 철거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이 느티나무는 주위

의 작은 느티나무들과 함께 넓은 그늘을 만들고 있다. 높이가 약 1.5m 부위에서 줄기끼리 붙어 자라고 있는데 인근 가옥으로 인해서 현재 모습은 기울어진 모습이다. 수령 300년, 높이 16m, 흉고둘레 5.3m이다.

•남양주호평동(南楊州好坪洞)김전역가성주단지, 호평동 390

호평동 호반마을의 김전택씨 가옥 대청마루에서 모시던 성주단지이다. 높이가 약 25cm, 횡지름 약 10cm의 백자 단지 내에 쌀을 담아 두었음을 믿어 대청마루 서단 리에 모셔 놓았다고 전한다. 현재는 백기 개물로 옛 모습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선 상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

•남양주호평동산신당(南楊州好坪洞山神堂), 호평동 295, 295-2

평온 마을의 산신당은 마을로부터 동북쪽 약 2km 떨어진 천마산 3부 능선 '별봉재'라고 부르는 곳에 있다. 산신당 내부에는 넓적한 큰 돌이 놓여 있어 이를 쟁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신당 안에는 숫그릇으로 된 옥수 그릇, 숯, 쫄대, 접시, 수저 등과 같은 각종 제기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산신당은 1칸 짜리 슬레이트 지붕에 벽돌로 벽을 쌓아 만들었다. 산신당 뒤면 약 20여 미터 거리에는 한치성을 드리는 큰 산재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남양주호평·평내유적(南楊州好坪·坪內遺蹟), 호평동 631, 630, 627, 576, 629, 424일대

남양주 호평·평내 유적은 1994년에 호평동·평내동 일대를 백기개발 지구로 지정된 후 1998년 숭실대학교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7월~2001년 12월까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사발굴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문묘군 4세소에서 총 21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조선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는 사대부 및 학수계층의 무덤구조가 모두 확인되어 다양한 출토유물과 함께 향후 조선시대 묘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결과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 기와가마 8기를 비롯

하여 가마터와 관련 있는 적실 건물지, 짐석유구1기, 폐기장1기, 탄재구덩이 4기, 기와건조장1기, 조선시대 분묘 2기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와요지는 호평·평내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전 복원되었다.

• 남양주호평동구석기유적(南楊州好坪洞舊石器遺蹟), 호평동 산7-5, 69-5, 54, 679, 680산일대

이 유적은 1994년 호평동·평내동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998년 지표조사를 거쳐 2000년부터 추진된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기와가마터에서 구석기시대의 맨 석기들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호평동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을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몽돌, 격자, 썩개, 밀개 등 다양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의 1지역은 현재 현상보존되어 잔디밭으로 공원화 되어 있다.

11. 평내동(坪內洞)

평내동은 조선시대부터 한양까지 양주군 살도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4월1일 살도면 궁촌·창내를 합하여 미금면 평내리라 칭하였다. 1979년 5월1일에 미금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 4월1일에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었다. 1989년 1월1일에는 미금시의 승격과 동시에 5개동을 관할하는 평내동이 개칭되었다. 1995년 5월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 남양주시가 발족되었다.

◀궁덕

궁덕 길에 있는 작은 화집의 이름이다. 조선시대에 궁녀들이 살았다는 곳으로 궁을 드나들던 집이라는 의미에서 궁덕이라고 한다.

▶궁집(宮), 평내동 426-1, 중요민속자료제130호

평내동 426-1번지에 있는 18세기말에 지어진 조선시대 가옥의 이름이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의 딸 화길옹주(和吉翁主)의 시집이라고 전한다. 화길옹주가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에게 시집가지 영조가 지어준 집이라고 한다. 왕명으로 친척 목재의 복수를 보내 지어주었다고 해서 궁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궁집은 평내동을 지나서 46번 국도변에 안길하여 우측에 있다. 안채는 전형적인 'ㄷ'자형으로 당시의 전형적인 안채 평면구성을 보이고 있다. 부엌1칸, 대청4칸, 명3칸, 앞외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침 좌우의 날개는 방과 옷간이고, 남행랑에는 옷간과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집은 화길옹주가 출가하여 죽을 때까지 거처했던 곳이므로 건축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

▶궁촌(宮村) [궁말, 궁평(宮坪)]

신촌 동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평내리 151번지에 의안대군

(義安大君) 이희(李和)의 사당(祠堂)이 있어 궁촌이라 하는데, '궁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궁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로는 이성계의 아들인 의안대군(宜安大君) 이방석(李芳碩)의 사망 후 이곳에 궁을 세운 이후부터, '궁말'이라 불리게 되었다고도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궁평(宮坪)'이라고도 한다. 평내동이라는 동의음은 궁평의 '평'자를 따고 그 앞쪽에 있다는 뜻으로 '내(內)'자를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시촌

장내마을에 있는 가옥의 이름이다. 큰 느티나무 바로 뒷집으로 조선 후기 고종을 모시던 내시가 살았었다고 전한다.

•늘그리고개

궁평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젊은이들은 넘어가고 늙은이들은 넘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한편, 이 고개를 넘으려면 남너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처럼 허리가 굽어진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담안 [다만, 장내(牆內)]

평내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산이 답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담안 또는 다만이라고 부른다. 장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담안의 한자어 표기이다. 평내동의 이름 중에 '내' 자는 이 마을 이름에서 파온 것이라고 한다.

•세집애

궁평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처음에 집이 세 채가 있었다는 연유로 이렇게 붙었다고 한다.

•신촌(新村) [새터, 새터말]

남안마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새로 생긴 마을 또는 새로 생긴 터라는 의미의 새터, 새터말 등으로 부르다가 한자어인 신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랫말

궁평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궁평에서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웅터굴

궁평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웅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에 마을 사람들이 웅을 만들고 피난갔던 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장굴

궁평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갯나무가 많았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견해와 서울에 '갯굴'이라는 높은 지형의 마을이 있어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유래가 함께 진한다.

•장두개바우굴

백봉산 정상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장두개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서릴때 때 쓰는 기마를 장두개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에 이와 비슷한 바위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이 골짜기에는 병풍과 같이 넓은 바위인 병풍바위도 있다고 한다.

•절굴

백봉산 정상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던 연유로 절굴이라 부른다고 한다. 절이 없어지게 된 연유는 반대파 많아서 힘을 내워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도 그 절터는 남아 있다.

•의안대군이화묘(義安大君李和墓), 평내동 산97-1

의안대군 이화(李和) - 1408)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다. 호는 이타정(二樂亭)이다. 묘는 평내동 궁평마을 신업림동 조합 안의 뒷산 중턱에 서북향하여 있다. 봉분의 우측에는 고려식 묘표가 있는데 석양과 안상문을 조각한 비좌 및 비신과 화관석을 갖추고 있다.

•의안대군이화서당(義安大君李和祠堂), 평내동 152-11, 향토유적제4호

이 서당은 조선 개국공신이자 이성계의 아우인 의안대군 이화의 사당이다. 평내동 궁평마을 안에 있는데 말배지봉 향음3문을 갖춘 남

장내에 정면3칸, 측면1칸 반으로 맞배지붕에 목조한식 끝기와를 얹었다. 현재 이 사당에는 의안대군과 그의 아들 좌명1등공신 의경부찬성사 관천군, 손자 좌명2등공신 우찬성 하령군 등 세분의 위패를 함께 모셔 '삼대불퇴지위(三代不遷之位)'로 후손들이 세향하고 있다.

•목장효묘(睦長效墓), 평내동 산9

목장효(1572~1641)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우경(禹卿), 호는 고석(孤石)으로 본관은 사천이다. 아버지는 이조참판 침(慶)이다. 1599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호조참의를 지냈다. 묘는 정부인 의령남씨와의 합장묘로서 동향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혼유석·계제석·상석·사각할로석·양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목장효신도비(睦長效神道碑), 평내동 산12

이 신도비는 묘역 아래 길 옆에 아버지 목현(睦賢)의 신도비와 나란히 북동향하고 있다. 백석화갈암의 비파와 백석대리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건립연대는 1691년(숙종 11)이다.

•목첨묘(睦詹墓), 평내동 산9

목첨(1515~1593)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기(思可), 호는 시우당(時雨堂)·두일당(透日堂)으로 본관은 사천이다. 기묘명현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된 세칭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의금부 경벽 조격의 딸이다.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러,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묘는 정부인 동래정씨와의 합장묘로서 동향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북면에 안상문을 조각한 장방형 비파와 비신 윗두개의 묘표가 있다. 신도비는 묘역 아래 길옆에 북동향하여, 아들 장류의 신도비와 나란히 있다. 민무덕의 비파와 오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71년 다시 세웠다.

•목세칭묘(睦世稱墓), 평내동 산9

목세칭(1487~1551)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자는 공녕(公寧), 호는 현헌(顯軒)·산옹(叡翁)으로 본관은 사천이다. 아버지는 참의를 지낸 희인이다. 아들은 영의정을 증직받은 침이며, 김식 선생이 고종형

이 된다. 기묘병현으로 이곳관서에 증직되었다. 묘는 정무원 한양조 씨와의 합장묘로서 동향하고 있다. 원형의 상분 우측에는 새로 깎은 민무늬 비좌와 비신 윗두털의 표본이 있다. 혼유석·상하계제사·사각 향로석·양화를 조각한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남양주평내동느티나무(南楊州坪內洞), 평내동 570-1, 경기남양주

이 보호수는 평내동 장내중학교와 소방서 사이에 있다. 과거에 화려한 수관을 자랑하던 이 나무는 현재 수세가 매우 약한 상태로 보호수 지정 해ಗೆ예정을 앞두고 있다. 수령 500년, 높이 13m, 굵고 볼레 7.2m이다.

•능성위구민화와 화길동주요(裨城尉具敏和와和吉肅主肅), 평내동 산27

능성위 구민화(1754-1800)는 영조의 부마로 본관은 능성이다. 1766년 화길옹주와 결혼하여 능성위에 봉해졌다. 화길옹주(1754-1772)는 영조와 패출된 측의문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7세에 봉작을 받고 13세에 구민화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았다. 묘는 평내동 우림 피스트빌 아파트 1205동 뒷편 구릉의 군사지역 안에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화길옹주와 구민화의 합장묘로 되어 있는 원형의 봉분은 화장암 기단석에 한옥기왓을 둘러 시멘트 벽돌담장의 꼭장 내에 안치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중간석·상석 6각 향로석이 있고 그 우측에 혼유석이 있고 그 좌측에 묘비가 있다.

•남양주평내동김식순가터죽거리(南楊州坪內洞김식순家터죽거리), 평내동 568

평내동은 시내 중심지로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업 밀집 지역이다. 그런데 마을 뒤 동남쪽 역시암 아래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시는 산제당이 있다. 마을 한 길을 따라 약 15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넓은 공터와 함께 터숫거리골 모시고 있는 김식순(74세)의 가옥이 있다.

•남양주평내동장내마을산제당(南楊州坪內洞), 평내동 산21-2, 산21-4

평내동 3통에 속해 있는 장내 마을의 산제당은 마을로부터 동남쪽 약수암 바로 아래에 있다. 산제당이 있는 곳을 '하얏골' 또는 '산제당 골'이라 부르는데 산제당은 마을 뒷편에 있는 막수암 바로 아래 개울

앞에 있다. 산제당은 시멘트 벽돌집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였으며, 구조는 방 1칸에 부엌 1칸으로 이루어졌다.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약 수암 방향)에 방이 있고 왼쪽에는 부엌이 있다.

12. 금곡동 (金谷洞)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은 양주군 금촌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4월 1일에 금촌면 일대리와 립원면 송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금곡리라 하고 미금면에 편제되었다. '쇠골'이라고도 한다. 1989년 1월 1일 법률 4050호에 의해 미금시로 분리·승격되면서, 금곡리가 금곡동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 남양주시가 신설되어 금곡동이라 칭하게 되었다. 금곡동은 예전에 흰을 파 낸 곳이라 하여 '쇠골' 즉 '금곡'이라 불렀다.

-구수고개

부대마을 새밭에서 와부읍 용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아홉 계곡에서 물이 흐른다는 뜻으로 물이 흔하다 하여 구수라 부른다고 전한다.

-군장

금곡역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은 지세가 워낙 좋아서 왕정터로 칭해놓았으나, 주변이 모두 논이어서 왕정을 만들려면 논을 전부 매꿔야 하는 단계로 다른 곳으로 왕정을 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군장은 이름도 왕의 묘로 잡았던 비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나, 그 연관관계는 불분명하다. 한편, 조선 초기 이곳에 있던 구씨 선조의 묘가 장군행렬이라 하여 군장이라 부른다는 설도 전한다.

-돌짜고개 (돌작고개)

대동 북서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 강원도의 한양을 향해 떠난 길목으로 돌이 강형히 많아서 돌짜고개라 부르다가, 돌짜고개라는 이름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돌작고개라고도 부르는데 신 천제가

돌로 이루어져 돌을 깨면서 고개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전한다.

•동구리고개

금곡역 위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역앞에서 일패동 안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시덤불이 많고 고개가 등글게 굽어서 동구리고개라고 부른다고 한다.

•동막(東幕) [동막골]

군장마을 남쪽, 동구리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조 말 신씨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동(東)으로 간다는 것이 이곳으로 오게 되어 그대로 머물러 막(幕)을 치고 살았다 하여 동막이라 부르게 되었다.

•무대(臺臺)

금곡동에 있는 자연마을의 이름이다. 옛날에 벼슬이 높은 조선 중엽 조한천(趙韓天) 씨가 지나가다가 아래로 보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흥미 올라 춤을 주고 갔다고 해서 '무대'라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어귀에는 춤을 출 장소인 느티나무가 있으며, 남양주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일설에는 산대놀이를 하던 장소라고도 한다.

•바깥말

양골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양골마을을 안과 밖으로 나누었을 때,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바깥말로 부른다.

•새말

무대마을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이 새로 형성되었다 하여 새말이라 부른다.

•쑥고개 [쑥고개]

이릉마을 서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이릉마을 서쪽에서 칠리면 사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아르네미고개

남양주시 월문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양골 (양곡(糧谷))

남양주시청 앞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편이 잘 드는 양이 바른 골짜기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로는 양곡이라고 한다. 한편, 조선 중엽 중앙초세의 집단 마을로 중앙의 '양'자를 따서 양곡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어룡(魚龍, 어룡골)

금곡동을 이루는 4개의 큰 마을 중 하나의 이름이다. '어룡'이라는 이름은 원래 경기도 중남 지역이 예전에는 적수지였는데, 이곳에서 물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옛말

중유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예전에 이곳에 가옥이 한 두 채 밖에 없었던 이유로 외딴마을이란 뜻에서 옛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남양주금곡동느티나무(南楊州金谷洞) 금곡동 508, 경기남양주4

이 나무는 금곡2동의 부대부락 응달밭에 있다. 양주 조씨 선조가 심었다고 전하는데 부대부락 응달밭의 정자목이다. 곧게 올라간 줄기의 높이 2m 부위에서부터 겹가지가 발생하여 사방으로 고우 뻗어 바닥에 닿을 듯한 모습이다. 수령 300년, 둘이 15m, 흉고둘레 3.3m이다.

•구상정묘묘묘길(具尙稟墓冥墓路), 금곡동 군정리 산93-1

능성구씨 묘역은 금곡새마을회관 건에 좌회전하여 들어가면 왼쪽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넓게 뻗어있는 구릉에 산재해 있는데 구상정의 묘는 구릉의 묘 좌측 언덕에 있다.

구상정(1658-1685)은 조선후기의 문인으로 자는 상보(尙甫)이고, 율(鎭)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출사하여 성공감역, 군기주부, 남천과 장수의 현감을 역임하였으며,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인 연암이씨와의 합장묘인데 묘표는 팔각저장 형태의 옥개석과 비

산, 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일묘(具日墓), 금곡동 군장리 산93-1

구일(1620~1695)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중경(重卿)이며 본관은 능성이다. 증조부는 사맹(思孟)이며, 할아버지는 쑹(宗)이고 아버지는 인기(具仁堊)이다. 묘는 구상정 묘의 오른쪽 뒷편에 동남향하여 있다. 묘 왼쪽에 있는 묘비는 백색화강암의 비좌와 대리석의 비신 및 옥계석을 갖추고 있다. 비문은 1647년(인조 25)에 박세당이 짓고 아들 구지성이 썼다.

•구수영묘(具壽永墓), 금곡동 군장리 산93-1

구수영(1456~1523)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미숙(眉叔), 호는 일소당(一喟堂)이며 본관은 능성이다. 아버지는 지충이다. 묘는 군장리 능성구씨 묘역의 제일 높은 곳에 남향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정경부인 전주이씨와의 합장묘이다. 본래 양평군 시종면 외문엄리 좌곡 갑좌에 있었던 것을 1914년에 현재의 장소로 옮겨왔다. 상석 좌측 앞에는 1979년에 새로 세운 묘비가 있다.

•구희경묘(具希景墓), 금곡동 군장리 산93-1

구희경(1488~154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광평(廣平)이며 본관은 능성이다. 영유현령을 지냈으며 좌찬성 능평군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증정경부인 거창신씨와 원일정씨이다. 묘는 수영의 묘 바로 아래에 남향하고 있다. 봉분 앞에는 인주너 비좌에 비신 월두형의 묘표가 있다.

•구사맹묘(具思盟墓), 금곡동 군장리 산94-2

구사맹(1531~160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형백리이다. 자는 절시(潔時), 호는 팔곡(八谷), 시호는 문의(文懿)이며, 본관은 능성이다. 묘는 군장리 능성구씨 묘역의 구순 묘와 인접한 절길 편에 남동향하여 정주부부인한씨·평산부부인신씨의 합장되어 있다. 본래 절동면 봉우현에 있었던 것을 1939년 현재의 자리에 이장한 것이다.

•구시맹신도비(具思盟神道碑), 금곡동 군장리 산93-5

이 신도비는 묘의 하단부 철길 앞에 있는데, 대리석의 이수와 바신, 화장암 기대는 깨물린 상태로 상부만이 노출되어 있다. 이수는 구름 위에서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닦는 모습을 조각하였다. 건립연대는 중정 8년(1635)이다.

•구광묘(具宏墓), 금곡동 군장리 신94

구광(1577~1642)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인보(仁甫), 호는 군산(群山), 시호는 충목(忠穆)으로 본관은 능성이다. 라한실 사맹의 아들이다. 묘는 구사맹의 묘 아래에 동남향하고 있으며, 정경부인 순창조씨와의 합장묘로 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특이하게도 황색을 띠는 화장암제의 상석과 향로석, 명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5

•구광신도비(具宏神道碑), 금곡동 군장리 신93-6

이 신도비는 구사맹과 구인기 신도비 중간에 남향하고 있다. 동 높이가 285cm이며, 화장암의 비좌와 백색대리석의 바신 및 광학지상 형태의 화장암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구순묘(具淳墓), 금곡동 군장리 신93-3

구순(1507~1551)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호(子浩), 본관은 능성으로 이바지는 화강(希璋)이다. 묘는 금곡동 군장리 구광묘의 우측 철도 건너편에 정남향하여, 정경부인 권주이씨와 합장되어 있다. 본래 외부읍 도곡리에 있었던 것을 1914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봉분의 왼쪽에 있는 묘표는 비좌와 유년히 길쭉한 바신을 갖추고 있다. 바신은 원두형이다.

•구인기묘및신도비(具仁暨墓및神道碑), 금곡동 군장리 신94

이 신도비는 구사맹과 구광 3기의 신도비 중 제일 오른쪽에 당형하고 있다. 화장암에 복원문이 새겨진 비좌와 대리석의 바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본래 묘와 신도비는 양주군 담면 송현리에 있었으나 1924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13. 양정동(養正洞)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금촌면과 외궁면 일부 지역에 속해 있었다. 1989년 1월 1일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을 아우르는 행정동으로 만들어졌다.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남양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이에 속하게 되었다.

1) 일패동(一牌洞)

이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금촌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4월 1일 금촌면 일패리 전부와 일패리 일부를 합쳐 일패리라고 하고 미금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1월 1일 미금시가 승격되면서 일패리가 일패동으로 바뀌었고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남양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이에 속하게 되었다.

•기마골

일패동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름의 유래는 흉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옛날 청승이 가마를 타고 기다리던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전한다.

•각골고개

양정동에서 지금동 금교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에 미고개 반대쪽에 길이 있었는데 준천가도 죽도한 냇매 이 길이 아닌 반대쪽에 낸 까닭에 각구루고개라 부르면 신이 각골고개라 칭하게 됐다.

•골만

봉두메마을을 이루는 세 마을 중의 하나이다. 봉두메마을 북동쪽에 있으며 공약기 안에 있다고 해서 잘안이라 부른다.

•**눈골** (눈곡, 닭곡(鷄谷))

안곡 북쪽, 진안삼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물이 흔한 고래논이 많아 눈골이라 한다. 약 400년전 이곳에 살던 전주이씨 계 양군이 문학을 숭상하여 공자가 제자들에게 교수하는 것을 숭모하여 논어의 논지를 따서 눈곡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가운데 있는 산을 기준으로 아래쪽 지역을 큰눈골 위쪽 지역을 작은눈골이라고 부르는데, 큰눈골과 작은눈골로 부르게 된 것은 마을의 크기와 마을사람들의 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한다.

•**봉두메** (봉두머리, 봉두(鳳頭))

봉두산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 뒷산의 형태가 봉(鳳)의 머리 같이 생겼기 하여 봉두산이라 부르던 이 마을도 봉두마을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옛날 어떤 벼슬아치가 지나가다가 봉두산 꼭대기 큰 바위 위에 매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이름을 봉두메라고 정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또한, 중간말, 하랫말의 세 마을도 이루어져 있는데 옛날 왕의 상여가 이 마을 길을 지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불사골**

동일자도야학원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불사골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지 않는다. 하지만 뒷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이곳에 많은 땅을 가치고 있던 부유한 집안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기울어져 미운 땅을 거의 모두 팔게 되었고, 결국에 요쁜 쓸 땅조차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요쁜 한 곳에 모두 같이 쓰는 편법을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였다고 한다.

•**안곡** (안곡(安谷))

일제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진안리의 '안'자와 눈곡의 '눈'자를 따서 안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안말, 명갯대 작은눈골, 큰눈골, 진안,

전안삼거리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양정(養正)

봉두메삼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건너마을, 봉사골, 송계, 뒷골, 안마을, 바깥골, 가마골 등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옛날 양창암씨가 칩을 와서 살던 곳이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 이씨는 널리 조선 중엽 전주최씨의 양정재(養正齋)라는 묘막이 있어 그후부터 '양정'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진안(眞安)

일패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봉두메 북쪽에 있으며, 봉너머고개와 능안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최악부대 (새마을동네)

전안마을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가난한 서민들이 집단으로 들어와 살던 곳이다. 최악부대라는 이름은 아이 귀라부락이 완전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동네라고도 부른다.

•남양주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一牌洞遺物散布地)1, 일패동 470 일대

이유물산포지는 일패동 현무복재소의 도로 건너편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북동쪽 산에서 내려오는 산자락에 해당한다. 지형적인 조건으로 보아 생활 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로는 작게 깨어진 연질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남양주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一牌洞遺物散布地)2, 일패동 648, 641, 572 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일패동 전주이씨 묘역을 중심으로 한 아래쪽 밭경작지와 비탈면에 해당한다. 밭경작지에는 최근 작물 대신 묘목이나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표면에 토기와 자기 등의 유물이 드러나 있다. 발견된 유물은 희백과 회청색을 띠는 토기편들이다.

•이만승묘(李敏承墓), 일패동 산34-3

이만승(1781년~?)은 조선 후기 무신으로 차는 공봉(公奉)이다. 묘는 일패동을 지나는 46번 도로변에 인접하여 나지막한 구릉에 남

향하고 있다. 원형의 문은 광부인 정주한씨와 함장묘로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의 크기는 높이 160cm, 직경 540cm이다. 봉분 하단에는 높이 30cm, 길이 240cm의 호석을 둘렀다. 혼유석 앞단부터 곧 장식한 고석 4개위에 오석의 상석·계제석·배석대리석의 크고 화려한 직사각형 모양의 향로석이 있고, 향로석 좌측에 화강암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향로석이 하나 더 있다.

•계양군부인한씨묘(桂陽君夫人韓氏墓), 일패동 신37-1

이 묘는 일패동 논골 계양군 사당 아래 무척 능선에 동남향하여 있다. 계양군부인 한씨(1426~1480)는 현학(韓唯)의 딸이다. 원형의 봉분 중앙에는 비파와 비신을 갖춘 화관석형의 고려식 묘표가 있다. 묘표는 전체적으로 군대군대 마모되어 가지만 그 부분이 더욱 화려하게 보이며, 뒷면의 글씨는 이중매가 찬란 것이다.

•계양군별묘및이선영효자정문(桂陽君別廟및孝肅英孝子旌門), 일패동 658-3

계양군(미상~1464년(세조 10))은 조선 초기의 왕족으로 이름은 증(增), 자는 현지(顯之).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아버지는 세종이며, 어머니는 신빈 김씨(愼嬪金氏)이고, 부인은 좌의정 한화의 딸이다. 계양군 별묘와 이선영 효자 정문은 일패동 논골의 소로변에 남향하여 있는 사당 안에 함께 모셔 놓았다. 이코은 세종의 아들인 계양군 임파들이 합동으로 세사를 지내는 곳이다.

사당은 맞배지붕에 정문2칸, 측면1칸 밖의 구조이며 리벽들로 담장을 새로 놓았으며, 정문은 1칸으로 골기와천 안었다. 좌측에는 위패를 모셔 놓은 사당 밖의 벽에 현판을 만들어 놓았다.

•부림군이식묘(富林君李湜墓), 일패동 신37-1

부림군 이식(1458년(세조 4)~1489년(실종 20))은 세종의 아들인 계양군의 아들인데, 낭음(浪翁), 호는 사우정(四雨亭)으로 문집으로 『四雨亭集』이 있다. 묘는 일패동 논골의 사당 맞은편 능선에 동향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 중앙에 있는 고려식 묘표는 장방형 석각 비파에 비신과 상부 전파형이다.

•전심군이번묘(全城君李衍墓), 일패동 산46

전성군 이변(1471-1500)은 조선 초기의 왕족으로 자는 언부(彦甫), 전성군은 군호다. 성종의 제1남으로, 어머니는 원형 권수조의 딸인 기인 안동권씨이다. 묘는 일패동 봉사골마을로 진입하여 유치원 오른쪽의 마지막 구름에 있다. 이변 외 전성군과 3인의 묘가 정남향하여 나란히 있는데 이변 묘는 제일 위에 있다. 이변 묘는 단양군 부인(丹陽郡夫人) 권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앞에는 원래의 석물인 혼유석·상석·장대석·사각향로석·장명등과 근래에 새로 마련한 망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광천군이수기묘(廣川君李壽基墓), 일패동 산46

광천군 이수기(1510-1588)는 조선 초기의 왕족으로 자는 중식(仲瑞), 생부는 익양군(益陽君) 희(愷)이며, 전성군 이변의 양자이다.

묘는 전성군 이변의 묘 바로 아래에 정남향하고 있으며, 파평군부인 음씨 및 의성군부인 김씨와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봉분 앞에는 원래의 석물인 혼유석·상석·장대석·사각향로석·문인석 등과 최근에 새로 마련한 망주석·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5

•평산군이숙묘(平山君李倣墓), 일패동 산46

평산군 이숙(1526-1591)은 조선 후기 왕족으로 자는 경초(景初)로 광천군 이수기의 아들이다. 묘는 광천군 이수기 묘 바로 아래에 정남향하고 있으며, 함창원부인 김씨와 연일원부인 정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은 활개를 갖추고 있으며, 앞에는 원래의 석물인 혼유석·상석·직사각 향로석·동자석·문인석 등과 근래에 새로 만든 망주석·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금천(轉川)의 고사리(高寺里)에서 이곳으로 이장한 것이다.

•선성군이신묘(宣城君李愼胤墓), 일패동 산46

선성군 이신윤(1585-1644)은 조선 후기의 왕족이며, 자는 근부(謹夫)로, 평산군 이숙의 아들이다. 항해군의 때모사건 때 구천군(龜川君) 등 19 통절을 배척하는 상소의 죄를 질리던 공으로 선성군에

봉해졌다. 묘는 일패동 상사골 천성군 묘역 경에서 채일 아래에 노로와 연결한 유치린 윗 구릉에 있다. 평남향하고 있는 원형의 봉분은 파궤현부인 윤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장대석·정사각 향로석 등의 석물과, 봉분 좌측에는 새로 만든 묘비가 있다. 묘는 본래 금천 고사리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평해군이담묘(平海君李依蘭), 일패동 산46

평해군 이담(1544~1576)은 조선 중기의 왕족으로, 자는 경로(景路)이고 평천군 이수기의 아들이다. 묘는 천성군 묘역에서 오촌쪽으로 약 100m 거리의 능선에 가까이 남향하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궁부인 전주황씨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봉분 앞에 새로 만든 묘비에는 「昭德大夫平海君之墓 配全州郡夫人黃氏부초」라 새겼다. 봉분 앞에는 새로 만든 비분과 혼유석·상석·사각향로석과, 향로석이 있다.

•영산군이애은묘(寧山君李禮胤墓), 일패동 산46

영산군 이애은(1568~1625)은 조선 중기의 왕족이며, 자는 원효(源孝)로 평해군 이담의 아들이다. 임진왜란때 선조를 호성한 공으로 호성공신 정희대부 영산군에 봉해지고, 이후에 소년대부 호성원종 입등공신에 봉해졌다. 묘는 평해군 이담 묘 아래에 위치하여 파궤현부인 광주김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장대석·6각 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고, 봉분 좌측에 새로 만든 묘비가 있다.

•군수홍태윤애민선정비(郡守洪泰潤愛民善政碑), 일패동 466-10

이 비는 양정동사무소 입구에 있는데 1903년에 세워졌다. 대석은 장방형이며 안상문을 사방으로 새겼고 그 위에 석련을 장식하였고 비신은 원두형이다.

•이응기묘(李應麒墓), 일패동 산37-1

이응기(1530~1588)는 자가 경서(廷瑞)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성헌대원의 5대손이고 개양군 이증의 3대손이며, 아버지는 용강현령 이분형이다. 묘는 일패동 능골 이응술 묘의 바로 아래에 남향하여 숙인 김성나씨와의 합장묘에 있다. 봉분 앞의 묘비는 복연과 안상문을 사방에 장식한 비좌와 비신 및 관각자봉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

다. 그 앞에는 제제석·상석·장대석·사각형로석·명주석 등의 석물이 있고 문인석은 갖추고 있지 않다.

•영원군이에묘(寧源君李連墓) 일패동 산37-1

영원군 이에(1450~1513)는 본관이 전주로, 영원군에 봉해졌다.

묘는 일패동 논골에 서향하여 평창군부인 청중심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봉분 앞에 있는 묘표는 장방형의 마호가 심한 비파와 근래 새로 세운 비신을 갖추고 있다.

•백운수기념비(白雲水紀念碑), 일패동 466-10

이 기념비는 양정동사무소 앞의 군주 홍태윤 애민선정비와 나란히 있다. 화강암으로 만든 장방형의 대석에는 안상문을 사방에 조각하였는데, 1914년에 세워졌다.

•민광훈묘(閔光勳墓), 일패동 산73-17

민광훈(1595~1659)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중집(仲集)이며 본관은 여흥(驪興), 아버지는 부윤 기(機)이다. 묘는 일패동 명후마을의 6번도로와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 상에 동향하고 있는데, 정부인 연안이씨와의 합장묘로 되어있다. 봉분의 모습은 특이하게도 율령이의 꼬리가 연상되는 기다란 용비를 갖추고 있다. 묘갈은 봉분 우측에 동향하여, 민부녀 비파와 비신 및 사각형의 판각지붕에 중앙이 권룡형 모양인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신도비는 묘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다. 이중으로 된 받침대에 화려한 복연을 조각하고 사면에 안상문을 조각한 비파와 대리석의 비신 및 판각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해병대북한강지구전첩비(海兵隊北漢江地區戰捷碑), 일패동 산76-4

일패동 6번도로변에 인접하여 전첩비가 북향하고 있다. 이 비는 북한강지구 전투를 기념한 것이다. 국군 해병대는 1950년 10월 3일 전첩비가 있는 일대에서 재침공 준비 중인 북괴군 1개 연대와 치열한 격전 끝에 적 200명을 사살하고 50명을 포획하는 대전과를 올리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 38선을 돌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투이다.

•현충탑(顯忠塔), 일패동 산73-6

현충탑은 8면도로변에 패병대북한강지구선침비와 동-서로 마주보고 동향하여 있다. 백석화강암 직방형 기단 위에 관측 형태의 탑신이 세워져 있다. 이 탑은 1980년 4월 1일 분급으로 인하여 한 남양주시에 현충탑이 없어 국가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영복을 빌 수 없게 되자 군비와 각계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것이다. 탑의 기단 정면에는 참비둘기가 마주보고 있고 좌우에는 각각 제화사설이 있다.

•민치서묘(閔致叙墓), 일패동 산73-17

민치서(1786~1845)는 유학으로 자는 여정(汝精)이다. 바슬길에 진출하지는 않았으나, 사후에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묘는 일패동 명우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부인 죽신안씨와 합장묘로 상단에는 사실과 음이를 갖춘 원형의 붉은이 있으며, 우측에 묘전이 있다. 묘갈의 비문은 만두표기 기록하였고, 민영휘가 글씨를 썼다. 1902년(광무 6)에 건립하였다.

•민재인묘(閔在仁墓), 일패동 산73-17

민재인(1493~154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중(希仲), 호는 입암(立巖)이며 본관은 여흥이다. 아버지는 전직인 구는이다. 을사사화 때 유민함을 지키러야 음임 등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 위사공신 3등에 책봉되고 여원군에 봉해졌다. 민재인의 묘는 여흥민씨 묘역의 재인 위쪽에 위치하여 정경부인 고성이씨와 합장묘이다. 풍수학 상 산소자리가 소가 앉아 있는 형태라고 한다.

•민재인신도비(閔在仁神道碑), 일패동 산73-17

이 신도비는 묘에서 약 30m 아래에 남향하여 비의 주인 민재인의 묘를 바라보고 있다. 비좌 아래 이층으로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무너져 있는 백석화강암의 비좌와 백석대리석의 비신 및 광의지붕 형태의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민사옹묘(閔思容墓), 일패동 산73-17

민사옹(1515~1579)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언복(彦默).

본관은 여흥이며 문원군수(文川郡守)를 지냈다. 아버지는 의정부 좌참성 제인이다. 묘는 아버지인 제인 묘 바로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증정부인 광주김씨·광주이씨와 합장묘인 원형의 봉분은 남북서경 750cm, 높이 200cm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축색화강암 세질의 상석·4각 향로석·장대석·방주석·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민여건묘(閔汝健墓), 일제동 산73-17

민여건(1539~159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이다. 사옹의 아들이며, 여건의 동생이다.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참신교위를 지냈다. 이몽학의 난 때 말인을 토벌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한 공으로 호조정랑에 추증되었고, 뒤에 중증은 민유중의 건의에 의하여 자헌대부 의정부좌참찬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인 완산이씨와 합장묘로 원형의 봉분에 묘갈이 상단에 있다. 묘갈은 원수형의 비신과 기대로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다.

•민여준묘(閔汝俊墓), 일제동 산73-17

민여준(1539~159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영백(英伯), 본관은 여흥이다. 군수인 사옹의 아들이며, 여건의 동생이다. 묘는 여건 묘 바로 아래에 동향하고 있다. 공인 완산이씨와 합장묘인 원형의 봉분 좌측에는 묘비가 있는데 송준길이 쓴 것이다.

•민흥수묘(閔興洙墓), 일제동 산73-17

민흥수(1685~1751)는 문신으로 자는 백기(伯起)이고, 판성부판관을 역임하였다. 진노의 아들이다. 묘는 부인 연안김씨와의 합장묘로 상단에 사철과 용마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 있고, 하단에는 상석과 향로석, 묘갈, 그리고 방주석 1쌍이 있다. 묘갈의 비문은 아들 백중이 짓고 백인이 글씨를 썼으며, 승정 기원후 3 무신년(1788)년에 건립하였다.

•구성묘(具成墓), 일제동 산48-1

구성(1558~161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유(元裕), 호는 초당(草塘)이며 본관은 고성(鎭城)이다. 묘는 매양리 마을회관

북편의 호르막길로 100M정도에 위치하며 청경부인 천주이씨 및 하동정씨의 묘와 나란히 있다. 묘표는 좌측의 구형 묘와 청경부인 하동정씨 봉분 사이에 위치하여 전·후5열, 좌·우1열씩의 단판석연이 장식된 비좌에 미신 원두형이다.

2) 이제동(二牌洞)

•넘말 [너미말]

이제동 석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안말이 바로 위쪽에 있다. 이 마을을 가려면 마산에서 산을 넘어가야 한다고 해서 넘말 또는 너미말이라고 부른다.

•돌누개 [돌노개, 석포(石浦)]

마산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읍역전 동북쪽에 있는데 무명문 대장이 말을 들러 묻았던 곳이라 해서 이러한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한편, 장죽(김옥) 대감의 묘를 석실로 모시기 위해 석실고개를 넘어오는데 바람이 불어 명칭이 날아가서 그 차리에 돌아섰다고 해서, 또는 명칭이 날아와서 이곳에 모셨다고 해서 이러한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원래는 돌개라 하였는데 연세부터인가 돌누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마을 이름을 석포라고도 부르는데, 복굴, 용굴, 다굴, 비하굴, 칠주굴 등으로 구분된다. 돌이 많고 숲이 우거져 법이 많이 나타나 인명을 해했다고 한다.

•마산(馬山) [절골]

이제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 초기 홍관서라는 사람의 묘가 있었는데 그 묘가 준마(駿馬)의 형상이라 하여 마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마산은 또한 절골로도 부르는데 홍관서의 또다른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홍관서가 권력을 휘둘러 친구의 원한을 사게 되었는데, 홍관서가 죽자 그 원한을 풀었던 친구가 계기가 된 자리를 명당자리라고 죽이고 묘를 쓰게 하여 홍관서 집안은 기울게 되었다. 홍관서

집안에서는 그 이유가 산소 옆에 있는 절 때문이라고 하여 그 절을 허물어 버렸다고 한다. 이때 사라진 절은 밭을 뺏은 풀이 한강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 기와 조각이 발견되곤 한다고 전한다.

•말미

이패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산과 석포를 합하여 말이라고 부른다. 우영문 대장이 말을 끌고 다니다가 말을 쉬게 하고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화는 달리 '말을 밟고 더밧고 해서' 이런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도 한다.

•명우(鳴牛)

조선시대 한양으로 통하는 건널길로써 우마차들이 쉬어가는 곳인 내 소가 운다 하여 명우라 하였다.

•봉사골

양철 북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안말미

이패동 서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산교의 아래쪽에 있다.

•왕자궁(王子宮)

이패동에 있는 자연마을의 이름이다. 해질모루 서쪽에 있다. 조선 중엽 장헌세자의 서자인 은신군(恩信君)과 은신군의 생모인 임숙빈(林肅嬪)의 묘를 쓴 뒤부터 '왕자궁'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왕궁'과 '마랫궁'으로 나누어지며, 예전에는 집도 크게 있었다고 한다. 다른 계보자는 그 부덤의 주인이 고종황제 활손의 묘였으며, 지금은 이장했다고 한다. 또 어린 왕자를 데려다 키운 곳이 이 마을이었다는 데서 이런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도 전한다.

•해질모루 [해질머리, 일모촌(日暮村)]

왕자궁마을 동쪽 6번도로에 인접해있는 마을 이름이다. 덕소 우시장에 소를 팔러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곳 주막에서 쉬며 해 지는 줄 모르고 놀았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일모촌은 이를 하자어로 옮긴

것이다. 이 마을에는 집들이 거의 없고 숲말이 있어 도둑들이 많았다고 한다.

- 남양주이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二牌洞遺物散佈地)1, 이패동 산10-2일대
 이패동 유물산포지1은 중앙선 청량리-미소간 복선전철 제2동구 한상사루소의 동남쪽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밭에서는 조선시대 토기와 기와조각을 수습하였는데, 밭이 편평하지만 면적이 좁고 주변지역에 이미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다. 유물로는 백자구연부편 1점이 채집되었다.
- 남양주이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二牌洞遺物散佈地)2, 이패동 산40, 300일대
 이패동 유물산포지2는 남양주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 약 500m 진행하면 좌측에 나오는 구릉 비탈면의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채집되는 유물은 삼국시대 백제계 토기편들과 조선시대 도자기편들이다.
- 남양주이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二牌洞遺物散佈地)3, 이패동 산74, 486-3일대
 이패동 유물산포지3은 구릉지대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과수원 가장자리 쪽에는 민묘도 있다. 과수원에서는 고리시대 토기조각을 발견하였는데,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아 생활유적이나 고분 등의 매장유구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남양주이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二牌洞遺物散佈地)4, 이패동 480-1, 471일대
 이패동 유물산포지4는 군부대의 남쪽지역 밭에 있는 밭과 산비탈면에 해당한다. 둘이 작은 밭에서는 토기와 백자조각을 발견하였고 산비탈면에는 고리시대 토기조각이 노출되어 있다.
- 남양주이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二牌洞遺物散佈地)5, 이패동 산41, 239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평화북장 안쪽의 밭경작 지대와 산의 능선 일부에 해당한다. 밭경작 지대는 산의 능선이 인자형으로 형성된 협곡의 사이에 개간되었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다소 높아지지만 비교

적 편평한 편이다. 밭과 경계가 되는 비탈면에서 다수의 토기와 백자, 기와편 등이 산포되어 있다. 밭과 능선상에 생활유적이거나 고분 등의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양주이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二牌洞遺物散布地)6, 이패동 산47-1, 247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군사시설의 남서쪽에 위치한 밭 경작지에 해당한다. 이곳도 이패동 유물산포지 4와 같이 갈과 산 사이에 형성된 협곡을 개간한 밭으로 약간의 유물이 발견된다. 비닐하우스와 밭이 있는 구릉지대에서 토기와 백자, 기와편 등을 수습하였다.

- 변계윤묘(邊季胤墓), 이패동 산6

변계윤(?~1529)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본관은 원주이며 아버지는 변사겸(邊士謙)이다.

묘는 이패동 마산마을 말미골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서향하며 정경 무인 추암회석의 앞부분으로 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묘표 자리에 비석이 있는데 이는 이 묘 자리가 황수지리상 밭의 모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석물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묘표석 앞에는 중간석·상석·장대석·양주석 등의 석물이 있고 그 앞에 문인석이 있다. 본래 묘역에는 사가 반침대에 좌사지붕을 이층으로 한 향명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김한구묘및묘갈(金漢壽墓및墓碣), 이패동 산43

김한구(?~1769)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아버지는 참의인 선경(邊慶)이고 영조의 장인이다. 묘는 이패동 마산마을 경로달 무근 뒤에 있는 군부대 시격장과 인접한 나지막한 능선에 남서향하여 있다. 원형의 봉분은 원종부부인 원씨와의 합장묘이며, 봉분 앞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양주석·문인석·4장명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묘갈은 묘의 좌측에 서북향하여 묘를 바라보고 있다. 5

- 삼정각(三旌閣), 이패동 산30-14, 346

삼정각은 박영신(1578~1624)을 모신 정문(祔門)으로 이패동 마산마을 안에 돌출하여 있다. 박영신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차는 인보

(仁補), 본관은 밀양으로 명조참판 종남(宗南)의 아들이다. 이 향문의 '三旌閣'이라는 현관은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새로 보수한 흔적이 있다. 1803년(순조 3)에 정문이 내려진 것이다.

•남양주이래동은쟁나무(南楊州二牌洞) 이래동 375-4, 김기남양주8

이 나무는 이래동 석포부락의 갈미마을에 있다. 중심 중심의 높이 1.5m 부위에서부터 굵기가 발생하여 부채형으로 밑과 가지가 발달한 양나무이다. 약 10여미터 떨어진 곳에 서있는 비슷한 크기의 은행나무와 서로 굵기가 연결되어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 수령 210년, 높이 20m, 흉고둘레 2.2m이다.

•이의현묘묘묘길(李宜顯墓및墓竈), 이래동 산28-9

이의현(1669~174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덕재(德載), 호는 도곡(陶谷)으로 본관은 용인이다. 좌의정 세백(世白)의 아들이다. 묘는 중앙산 철도와 인접한 이래동 석포마을 입구 은행나무 석당 뒷편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향하여 있다. 봉분은 증정경부인 함중어씨와 은진홍씨와의 합장묘이다. 묘갈은 풍문 좌측에 남향한 제 묘를 바라보고 있다. 민부녀 백석화강암의 비파와 순백석의 대리석 비신 및 발각지방형제의 옥계석을 갖추고 있다.

•이정악묘묘묘길(李挺岳墓및墓竈), 이래동 산10-6

이정악(1610~1674)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수이(秀而), 호는 아은(阿隱)이며 본관은 용인이다. 명조참의인 후천(後天)의 아들이다. 효종초에 세마를 지냈고, 뒤에 서산군수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므로 파주목사로 특별히 승진되었고, 강하현첨정을 지냈다. 묘는 푸른 안동김씨와 합장묘로 남향하고 있으며, 사성과 용비를 갖춘 원형의 봉분과 묘표, 혼유석이 향단에 있다. 묘표는 김가량이 글씨를 쓰고 김가량이 전액을 하였고, 1684년에 건립하였다.

•이의진묘(李宜振墓), 이래동 산10-6

이의진(생몰년미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용인이며, 광종인 세응(世應)의 아들이다. 영조 때의 양부공신인 관동녕부사 인평군 보현의 아버지이다. 묘는 김수항 묘에서 북쪽으로 200m 거리에

있다. 정경부인 과평윤씨 및 남양홍씨의 묘와 함께 8기의 묘가 남아 향하고 있는데, 이중 가운데의 묘가 이의권의 묘이다. 원형의 봉분 앞에는 장대석을 놓고, 그 앞에 삼석이 있는데 앞쪽에는 사방에 묻고 리모양이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을 놓고 뒤에는 장대석에 걸었다.

•이래현묘및묘표(李來鉉墓및墓表), 이매동 산10-6

이래현(1767(영조 43)~1825(순조2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군복(君復)이며 승문원 정자를 역임하였다. 묘는 상산김씨와 합장묘로 남서향하고 있으며, 사성과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과 혼유석, 삼석, 묘표가 상단에 있고 하단에는 향로석과 방주석 1쌍이 있다. 묘표는 대리석개로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기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문은 이덕일이 기록하였고, 이덕규가 글씨를 썼다.

•김수항묘및묘길(金壽恒墓및墓道), 이매동 산11

김수항(1629~1689)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쿠치(久之), 호는 문곡(文谷), 본관은 안동, 할아버지는 피의질 장헌,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경환이다. 묘는 이매동 돌로제마을 논 사이의 나지막한 구릉에 남향하여 정경부인 안성나씨와 합장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 중앙에는 민부녀 백석화강암의 광발형 비좌와 황색을 띠는 백옥대리석의 비신 및 맞배지붕 형태의 단순한 형태를 한 묘표가 있다. 묘길은 묘의 좌측 앞에 서향하여 있는데 민부녀 비좌에 오석의 비신 및 팔각지붕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3) 삼패동(三牌洞)

삼패동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금촌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4월1일 금촌면 삼패리와 사패리의 일부, 외곡면의 석실리 일부를 병합하여 삼패리라 하고 이금면에 속하게 되었다. 1989년 1월1일 이금시로 승격되면서 삼패동이 되었고 행정동인 양정동에 편입되

었다.

•공안

역말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영조의 일곱째 딸인 화협옹주(和協翁主)와 부마 신광수(申光綏)의 묘를 쓰고 수적하는 궁을 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99간짜리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도 전한다.

•삼패동(三牌洞)

청풍김씨 신도비에서 연유된다. 삼패동 쌍구바움에는 김석(金錫), 김육(金瑬), 김려명(金佐明)의 신도비가 있다. 이처럼 청풍김씨의 신도비가 3기가 있기 때문에 삼패(三牌)동이라고 한다. 이 중 김석의 비석에 쓴 글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비신과 이주가 하나의 글로 되어 있다. 원래, 이패동 역시 각각 비석이 현 리, 두 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쇠꼬리 [소쿠리, 평구(平丘)]

삼패동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이나, 마을의 모양이 소의 꼬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한편 마을의 모양이 마치 삼태기 같아 휘 생겨서 소쿠리라고도 부른다. 마을 모양과 연관된 이름과 함께 옛날 금송아지가 산으로 도망쳐 들굴 속에 숨어들었는데 꼬리만 남았기 때문에 쇠꼬리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평구'는 평평한 언덕이 바람결처럼 흩어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이 마을 옆에 평구 역이 있었기 때문에 평구라고도 부른다.

•아랫말

역말 서쪽 동네의 이름이다. 역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 아래쪽에 평구역이 있었다고 한다.

•역말 [역촌(驛村)]

삼패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마을의 동쪽으로 중앙천이 지나간다. 이 마을은 한양에서 40리의 거리로 왕구역이라는 역말이 설치되

었던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이름이 붙어졌다. 삼패동에 있는 마을 중에 '역말·역촌'이라는 곳이 있다. 조선시대에 한양을 기점으로 8도로 가는 도회에 설치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혹은 역마가 휴식을 하고 공문서를 전달, 교환하던 곳을 驛院(역원)이라 했었다. 이 마을이 바로 한양 40리 지점으로 '병구역(平郵驛)'이라는 역원이 설치되었었다. 이러한 연유로 '역말' 혹은 '역촌(驛村)'이라 불린다.

•호고개 [꽃고개]

역말 남쪽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옛날 호라산에 서남당이 있었는데 이 서남당에는 舞臺를 지낼때 사용하는 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화고개로 부르다가, 발음이 변해 호고개 또는 꽃고개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정수장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남양주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三牌洞遺物散布地)1. 삼패동 305-11, 312-9 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삼패동 역촌마을 북쪽의 야트막한 구릉지 사이로 남 콘크리트포장 도로 동편 지역에 해당한다. 서편에는 풍동천이 흐르고 주변에 강변 축척지가 펼쳐져 있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다수의 고령 이후의 토기와 도자기편 등이 발견되었다.

•남양주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三牌洞遺物散布地)2. 삼패동 374-2, 375

이 유물산포지는 삼패동 강북정수장 부근 우측의 한강쪽 작은 야산의 서남단 부근에 해당한다. 이 유적에서 좌측 100m지점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 수심리토성과 선사유적이 마주 보인다. 이 유적을 중심으로 방경 3km 안에 서쪽으로는 수석리 선사유적과 동북쪽으로는 삼패동 선사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이 유적도 선사시대 유적의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남양주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三牌洞遺物散布地)3. 삼패동 210, 161 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비소연 부근의 코끼리 시멘트 공장 좌측으로 압척 카공 공장이 있는데 그 우측 말 부근에 해당한다. 이곳은 삼패리

234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평구마을의 앞산에 해당된다. 유물산포지에는 최근까지 건물기 있었던 흔적이 보이며 상포지의 위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유물로는 정갈도기편과 자기편이 다수 확인 되었다.

- 남양주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三牌洞遺物散布地)4, 삼패동 신29-60, 124-1, 124, 125, 125-1

이 유물산포지는 삼패리 평구마을 길을 따라 들어가면 김유신도비와 김유요 사이에 동북쪽으로 울퉁 파인 골짜기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해당한다. 산포지 바로 앞은 삼패리 지석묘가 있었던 자리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고려 이후 철자, 백자 등의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

- 남양주삼패동유물산포지(南楊州三牌洞遺物散布地)5 삼패동 181-1, 신29-1 181대

이 유물산포지는 장기도 기념물 제 177호로 지정된 청동김씨 묘역을 포함하는 근처의 민가와 밭 일대에 해당한다. 묘역을 흐르는 소로와 주변의 민가 일대에서 다수의 토기편과 자기편이 채집되었다.

- 평구역지(平丘驛址), 삼패동 365-5

평구역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양우리를 지나 광숙권을 건너 준전과 일평으로 가는 관림길에 해당하는 교동의 요지였다. 삼패동의 역명은 조선시대 평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게 된 이름이다. 평구역터로 추정되는 곳은 도로변에 있는 삼패동 365-5번지 강도연씨 고택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의 권언에 의하면, 한국전쟁시기까지만 하더라도 'ㄱ'자 형태의 마구간이 있었다고 한다. 마구간 옆에는 관터가 있어서 처인을 삶아다가 배를 때라곤 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 자리에는 '큰대문보신방'이 자리 잡고 있다.

- 역촌토성(驛村土城), 삼패동 374-8, 374-4, 360-2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동의 역촌마을의 한강변 구정사이에 역촌토성이 있다. 한강 본류가 덕소 부근부터 거의 직각으로 굽어지며 흐르는 강가 언덕에 형성된 토성이다. 이 토성의 정면에는 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나무터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 토성은 나무

언어의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한강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게 설치하였다. 1994년 조사에 따르면 토성이 있다고 하는 구릉 사면과 절상부에서는 고려시대의 많은 양의 유물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윤석묘(金允植墓), 삼래동 산41-1

김윤석(1835~1922)은 한말의 관료·문학가로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이며, 서울출신이다. 묘는 김좌명 묘역 뒤쪽 왼편에 서향하여 정경부인 파평윤씨의 합장묘이다. 묘는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관개로 석물은 전체적으로 단출한 면이 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향로석·계제석·말주석 등의 석물이 있다.

•김육묘(金堉墓), 삼래동 산41-26, 경기도기념물제177호

김육(1580~1658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실학자로서 제도개혁을 추진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자는 백후(伯厚)이며 호는 잠곡(潛谷), 초호(初號)는 최정당(攄靜堂)이며 본관은 청풍이다. 참봉 용우(興宇)의 아들이다. 묘는 삼래동 소구리마을의 나지막한 구릉에 동남향하여 정경부인 파평윤씨와의 합장묘이다. 원형분묘는 1988년 추위에 곡장(曲牆)을 둘렀다. 묘 앞의 묘비는 백색화강암 비좌 상부에 곡언 및 사방에 안상문을 조각하였으며, 백색 대리석 비신은 원두형으로 4면에 비문이 있다.

•김육신도비(金堉神道碑), 삼래동 산41-15, 경기도기념물제177호

이 신도비는 소구리마을 도로변에 동남향하여 아들 김좌명의 신도비와 8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다.

•김좌명묘(金佐明墓), 삼래동 산41-17, 경기도기념물제177호

김좌명(1616~1671)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일평(一平), 호는 귀계(歸溪)·귀천(歸川), 시호는 충숙(忠肅)으로 본관은 청풍이다. 묘는 삼래동 소구리마을의 나지막한 구릉 상에 남향하여 아버지인 김육의 묘와 연결되어 있다. 원형의 봉분은 부인 평산신씨와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빈부의 백색대리석의 비좌에 백색대리석의 비신 원두형인 묘비가 있다.

•김좌명신도비(金佐明神道碑), 삼패동 산41-15, 경기도기념물제177호

이 신도비는 소쿠리아울의 도호병에 동남향하여 아버지인 김육 신도비의 우측에 있다. 백석화강암의 비좌에 비신 및 미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전후2면에 냇물 1방씩을 조각하였다.

•김성응묘(金聖應墓), 삼패동 산9, 경기도기념물제177호

김성응(1699(숙종25)~1761(영조40))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군서(君瑞), 시호는 효정(孝靖)으로 본관은 평릉이다. 묘는 삼패동 소쿠리아울 왼쪽의 나지막한 산 능선에 중앙선원묘와 인접하여 동향하고 있다. 선원묘로 공사로 인해 아버지 도영의 묘와는 단절된 채 마주보고 있다. 원형의 봉분은 정경부인 남양홍씨와 안장묘이며, 최근 화강암기단과 트남에 한옥기와를 얹어 새로 만들어 정비한 주상 안에 있다.

•김성응신도비(金聖應神道碑), 삼패동 산9, 경기도기념물제177호

이 신도비는 묘역 입구 하단에 거의 중앙선원묘와 인접하여 동남향하고 있다. 화강암의 민무늬 비좌와 오석(烏石)의 비신 및 광각기 봉형태의 옥색석을 갖추고 있다.

•김안국묘갈(金安國墓碣), 삼패동 산41-15

김안국(1728~1785)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군경(君敬)이며, 청주목사를 지낸 성세(聖埈)의 아들이다. 1756년(영조32)에 등거하여 상아원주부, 호조의 좌랑과 정랑, 상수원감, 박원군수, 이동원감을 역임하였다. 묘는 청동갑석 표의가 있는 구릉의 좌측으로 파운을 사이에 두고 중앙선원묘와 인접한 구릉 상에 있다. 원형 묘역에는 봉분은 없고 최근에 세운 추모비와 상석, 향로석, 망주석 1방과 묘갈이 남아있다. 비문은 김거봉이 짓고, 전면의 글씨는 조식(戴執)의 글씨를 필자하였으며, 옮겨는 김성선이 썼다. 건립연대는 승정 기원 후 4년 명산(1836)이다.

•김시묵묘(金時默墓), 삼패동 산29-1, 경기도기념물제177호

김시묵(1723~1772)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미산(而巖) 또

는 이선(龜鎭)이며 본관은 장풍이다. 영동녕부사 우명(佑明)의 현손이자, 병조판서 성웅(聖鷹)의 아들이며, 절조의 비인 효의왕후의 아버지이다. 묘는 중의춘부부인 남씨 및 당상부부인 홍씨와의 합장묘이다. 서쪽향하고 있는 원형의 쌍분은 정면에 김육과 김좌명의 선도비를 바라보고 있다. 앞에는 혼유석·장대석·백색화강암의 상석·향로석과 8자 망주석 및 문인석 등의 석물이 있다.

•김흥우묘(金興宇墓), 삼패동 산29-1

김흥우(1564-1594)는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자는 선경(善慶)이고 아버지는 군자판관 비이며, 영의정 육(瑬)의 아버지이다. 이이(李爾)의 문인이다. 1585년(선조18)생원·전사 양시에 합격하여 선비들의 주장을 받았다. 1588년 강릉참봉에 임명되어 잠시 재직하다가 사직하였다. 묘는 김비의 묘 아래에 있으며 부인 한양조씨와 합장묘이다. 묘표의 비문은 김좌명이 글씨를 썼으며, 순정 후 46년 을묘(1675)에 건립하였다.

•김비묘(金龜鎭), 삼패동 산29-1

이 묘는 마소를 지나 중앙선 절도와 인접한 커족구름에 산재해 있는 묘역에 있다. 김비는 군자판관을 지냈으며, 영의정 육의 할아버지인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묘는 일양박씨와 강릉김씨와 쌍분이다. 상단에는 원형의 쌍분과 묘표, 혼유석이 있으며, 하단에는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이 각기 1쌍씩 있다.

•김흥록묘(金興祿墓), 삼패동 산29-1

김흥록의 자는 선웅(善鷹)으로 아버지는 김광(金果)이고 백우함의 사위이다. 26세에 사망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묘는 김석 묘정비의 좌측 구름에 있다. 부인 수원백씨와의 쌍분으로 되어 있다. 원형의 쌍분과 묘표, 혼유석, 상석이 있고,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1쌍이 있다. 묘표의 비문은 증손인 김좌명이 글씨를 썼으며, 갑진년에 세워졌다고 하니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문의공김선생묘정비(文獻公金先生廟庭碑), 삼패동 산29-1, 경기도기념물 제177호

이 비는 삼패동의 향종김씨 묘역의 김식(金諱) 묘의 우측 약 50m 지점에 세워져 있다. 김식의 학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건립한 것으로 본래 김식이 경상도 천안으로 유배 되었을 때 후학들이 파리가 학문을 추연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기표사와의 화를 당하여 방 측에 묻혔던 것을 근래에 후손들이 발굴하여 이곳에 옮겨 세웠다. 비문은 황정원(黃景源)이 짓고, 이운영(李運永)이 글씨를 썼으며, 김시복(金時然)이 전례를 하였다.

•김식묘(金諱墓), 삼패동 산29-1, 경기도기념물 제177호

김식(1482~1520)은 조선 중기 중종대의 문신으로 자는 노천(老泉), 호는 사서(沙西)·정우당(淨友堂)·동천(東泉)으로 본관은 청풍이다. 묘는 삼패동 소쿠리마을의 중앙신철도와 인접한 사지막한 절기슭에 남서향하여 한강을 굽어보는 위쪽에 있다. 정경부인 전주이씨와 원형방편이며, 봉분 중앙에는 비좌와 비신 윗두형의 묘비가 있다.

•김식신도비(金諱神道碑), 삼패동 산29-1, 경기도기념물 제177호

이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동남향하여 비좌와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총 높이 367cm의 기대한 비로 가로 214cm, 세로 154cm의 기단식에 비좌를 올려놓았다. 비좌는 전후7열, 좌우2열 총18열의 복선(伏蓮)과 각 면에 안상문 2개씩을 조각하였다.

•김덕무묘(金德無墓), 삼패동 산29-1

김덕무(1512(중종7)~?)는 중전 중기의 학자로 자는 사배(思載)이다. 1560년(명종15)에 추위에 의하여 본종의 원봉장봉(龜陸孝奉)이 되었고 다음해에 전사시험에 합격하였다. 묘는 김식 묘의 아래에 있다. 상단에는 사성과 용비를 갖춘 원형봉분과 1980년에 세운 묘갈이 있으며, 하단에는 상석과 활보석 문인석 1쌍이 있다.

•사천목씨묘(泗川睦氏墓), 삼패동 산29-1

사천목씨는 김숙필의 부인이며 김식의 어머니이다. 묘는 김식의 묘로 가는 길 우측 언덕에 있다. 상단에는 사성과 용비를 갖춘 원형의 봉분과 묘표 상석이 있다. 묘표의 음기는 후손 도연(道淵)이 글씨를 썼으며, 중경 삼천 후 45년 무진(1688)에 세웠다.

•김권묘(金權墓), 삼패동 신29-1

김권(1549~162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이중(雨中), 호는 졸탄(拙灘)으로 본관은 칠풍이다. 묘는 한강을 바라보는 중앙산 칠도면에 인접하여 아버지인 김타무 묘의 우측 능선에 경경부인 한산이씨와 합장되어 있다. 봉분 앞에는 복인을 조각하고 사방에 안상문을 조각한 비좌와 비신 밑두개의 묘비가 있다.

•김두명묘(金斗明墓), 삼패동 신29-60

김두명(1644~1706)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양(子昂), 호는 만향(晩香),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준(準)이며, 윤증(尹拯)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63년(현종4) 진사가 되었고 16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84년(숙종10) 헌납으로서 최선(崔僞)의 탄핵을 받은 스승 윤증을 변호하였다. 1685년 사간이 되었고, 1687년 기사환국으로 관직이 삭탈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 후에 승직 병조참의등을 거냈다. 묘는 김권 묘 좌측 구릉에 위치한다. 수원백씨, 전주이씨와 합장묘로 1999년에 세운 묘갈이 있으며,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문인석이 1쌍이 배치되어 있다.

14. 지금동 (芝鎭洞)

지금동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미음면에 속해 있었다. 1912년 5월23일 양주군 미금면으로 바뀌었고 1914년 4월 1일 행정구의 통폐합에 따라 미금면 지사리(芝沙里)와 금교리(鎭橋里), 진관면 배양동 각 일부를 합하여 지사리의 지와 금교리의 금 자를 따서 지금리라 하고 미금면에 속했다. 1980년 4월1일 양주군에서 남양주군 미금읍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고 1989년 1월1일 미금읍의 승격으로 지남리, 가운데리, 수석리를 지남동, 가운데동, 수석동이라 하고 이를 병합하여 지금동(행정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형 남양주시 설치에 따라 남양주시 지금동이 되었다.

1) 가운데동(加峯洞)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미음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가재동(加在洞의) 가(加) 자와 조운리(朝雲里의) 운(雲)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1980년 1월1일 미금시로 승격되면서 가운데동이 되고 행정동인 지금동의 관할이 되었다.

*가재(加在)

가운데동에 있는 마을의 이름다. '가재'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마을 주변 산의 형상이 가재와 같다고 해서 '가재마을' 또는 '가재울'이라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마을 북쪽에 있는 '안산'에 가재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들과 관련된 유래가 있다. 또 다른 유래는 임금이 지나가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곳은 지어 될 만한 곳'이라 했기 해서 '가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권돌마을

가개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권돌이란 마을에 있는 고인 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가재(新加在) [새마을, 매향]

동화중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가개마을 서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다. 새마을 또는 매향이라고도 부른다.

•조운(朝雲)

가개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옛날에는 '원터'라고 하다가, 다시 '조원'이라는 원집이 있어 '조원'이라 부르다가, '조운'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가운동의 '운'자는 이 마을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안산보루(案山堡壘), 가운동 산50-1

안산은 왕숙린 동쪽 5번국도의 남쪽에 있는 해발 128.8m의 독립된 구릉이다. 이산은 숲지는 없지만 정상부에 올라서면 남쪽으로 수석리 토성과 한강유역 그리고 서쪽으로 아차산일대, 북쪽으로는 퇴계원일대까지 조망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산의 정상부는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성벽은 정상부의 바로 외곽을 따라가며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타원형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148.2m 이고 장축은 65.4m 단축은 25.7m 이다. 정상을 돌아가며 쌓은 성들은 대체로 30-40cm 정도의 다듬지 않은 함석을 이용하여 쌓은 높이 1m 정도의 처목시설이 남아 있다. 내부는 중앙이 가장 높고 남쪽이 약간 낮다.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佈地)1, 가운동 84-1, 7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가운동에 진입하여 북편에 보이는 공상들이 있는 곳에 해당한다. 가운동 지척요 1호에서 동북쪽으로 마주보이는 야산의 동쪽사면에 밧이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토기편,

기와편 등이 발견된다.

-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布地)2, 가운동 321-1, 신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가운동으로 진입하여 500m 진행하여 나오는 삼거리의 동면에 위치한 구릉지 일대이다. 이곳을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편으로는 공작들이 들어서 있다. 유물은 고려~조선시대 도자기편과 기와편들이 다수 발견된다.

-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布地)3, 가운동 321, 산29일대
유적은 밭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동쪽방향의 구릉 정상부는 안산모루가 있으며, 남서편 경사면은 비교적 급경사면이지만, 유물의 채집 빈도가 높다. 유물은 분청사기를 비롯한 고려~조선시대 도자기편과 일부 기와편이 발견된다.

-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布地)4, 가운동 산37-2, 485일대

가운동 지석묘의 반대쪽 길로 진입하면 민가 좌측으로 오르막의 소로가 있고 이 소로 뒤편으로 경작하는 밭이 있다. 이 지역은 가래마을의 뒷산 능선의 밭 경작지 일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도자기편과 와편, 백자편 등을 확인된다.

-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布地)5, 가운동 산17-40, 77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가운동 지석묘에서 동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하이샤시 공장 뒤편 능선의 동쪽 사면부의 그 아래쪽의 밭 경작지에 해당한다. 유물은 밭경작지 전체에서 토기와 자기, 기와조각이 발견되었다.

-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布地)6, 가운동 280-1, 산21일대

유물산포지는 가운동 지석묘가 있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흐르는 능선의 서쪽과 남쪽 사면부를 따라서 형성된 밭이다. 유물은 서쪽 능선 사면부에 형성된 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토기와 자기, 기

와전 등이 발견되었다.

- 남양주가운동유물산포지(南楊州加雲洞遺物散布地) 7, 가운동 산57, 613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가운동 마을길을 진입하여 공장밀집지역을 벗어나 주택가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동북방향의 구릉형상부는 인산보루가 있으며, 이곳의 남서편 경사면은 비교적 급경사면이나, 유물의 채집 빈도가 높다. 유물은 분청사기를 비롯한 고려·조선시대 자기편이 발견된다.
- 정사룡묘(鄭士龍墓), 가운동 산36

정사룡(1491~1570)은 조선 초기의 문신·문인으로 자는 운경(雲卿)이며 호는 호음(湖陰)으로 본관은 동래이다. 동래군 난종(蘭宗)의 손자로, 부사 광보(光輔)의 아들이며, 영의정인 광렬(光烈)의 조카이다. 묘는 가운동 미술회관과 인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동남향하여 있는데 잘 정비되어 있다. 봉분 중앙에는 묘표석·혼유석·상석·4각 향로석과 그 우측에 표갈 및 좌우로 판각방주석·문인석 등 다수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묘표석은 백색화강암 제질의 인부너 비석과 백색대리석제인 일석의 비신 및 이수를 갖추고 있다. 이수는 전후2면에 걸쳐 받기락이 4개인 두 용이 몸을 'ㄷ'자로 틀고 운문 속에 마주보면서 크게 벌린 입에 서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을 우수하게 조각하였다.

- 남양주가운동음나무(南楊州加雲洞), 가운동 산37-2, 경기남양주51
이 보호수는 가운동 마을회관을 지나 가재마을의 뒷산에 있다. 민둥강에 칠성촌인 가재부락(가재울)이 형성되기 전부터 자생하던 나무로 300여년전부터 마을의 당산목으로 신성시 되어온 노거목이다. 뿌리에서부터 새 갈래로 나뉘어 길게 뻗어나가는 줄기 중 한 줄기는 심하게 휘어 지면에 닿아 뿌리가 생겨나 있다.
- 남양주가운동산제당(南楊州加雲洞山祭堂), 가운동 37-2
이 유적은 가운동 음나무 앞에 있는 산제당이다. 음나무 주변에서 곳을 하는데 필요한 계기 등을 보관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 남양주가운동지석묘군(南楊州加雲洞支石墓群), 가운동 신17-2, 경기도문화재자료제80호

수석동토성에서 북쪽으로 마주보이는 산 정상에 배나무 밑에 1호 지석묘가 있다. 2호 지석묘는 1호 지석묘에서 서남쪽으로 약2km 지점에 마주 보이는 구릉 넘어 산의 동쪽 비탈면에 있다. 2호 지석묘의 주위에 석재들이 흩어져 있어서 지석묘가 군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석동(水石洞)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미음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수면(水邊)리의 '수(水)'자와 석실(石室)리의 석(石)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수면이란 글자 그대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풀은 이름이고, 석실은 이문에 석실서원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1915년 남양주시로 승격되었을 때 수석리에서 수석동으로 바뀌었다.

- 거칠매 [거칠외, 황곡(荒谷)]

내미음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예전에 산이 떠내려와 걸쭉한 지엄이라 하여 거칠매 또는 거칠외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 황곡이다. 마을 전체를 안미음 또는 내미음으로 부른다.

- 곶밀

외미음 마을회관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곶짜기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라 이렇게 부른다.

- 나룻개

외미음 마을회관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미음나루터 주변 동네를 가리킨다.

- 내미음(內湑陰)

거칠매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미음의 안쪽 마을로 안미음으로도 부른다. 옛날부터 거칠매라고 부르다가 조선 후기 이후부터 내미음으로 부른다고 한다.

•동촌말 [동촌(東村)]

석실마을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석실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동촌말, 서쪽에 있는 마을을 동촌말 또는 동촌이라 불렀다고 한다.

•뒤틀말 [뒤틀음]

내미음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뒤틀 [뒤틀, 서촌]

석실마을 뒤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미음(溪陰)

수석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 중엽 안동김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원래 김조기 자손의 호를 따서 '미음'이라 칭하다가 구한말 때 '수변리(水邊里)로 바뀌었다. 외미음마을과 내미음마을로 나뉜다.

•석실(石室) [서원, 세원]

수석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의 이름이다. 석실서원이 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 안동 사람 김창협이 석실서원을 설치하여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라는 연유로 이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이다. 일설에는 석실서원의 위치가 시청 부근이라는 의견도 있다.

•언너머 [은너머]

거칠매 동쪽의 도로가 나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도로가 되기 전에는 언덕이 많아서 언너머라고 불렀다. 예전에 내미음에서 가운데으로 넘어갈 때 이용하던 고갯길이었다.

•외미음(外溪陰)

수석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조선 중기 안동김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안동김씨 자손의 호를 따서 미음으로 부르다가, 한말 때 수변리로 바뀌었고 다시 외미음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축동 [축동말]

외미읍 마을회관 서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퇴미재

희실에서 내미읍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고개의 형상이 흙을 모아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 퇴미재로 부른다고 한다.

•학두들기

수석동에 있는 등판의 이름이다. 학이 많이 남아온 데에서 끌어간 이름이라고 한다.

•남양주수석동유물산포지(南楊州水石洞遺物散布地)1, 수석동 271-5, 274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기존 도로의 북쪽 옆에 위치한 밭경작지대와 동-서로 뻗은 구릉지대를 포함한 지역이다. 1999년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의 광역지표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와 삼국시대 토기조각이 발견되었다. 동-서쪽으로 발달한 구릉에는 수습기의 민요가 있어 생활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남양주수석동유물산포지(南楊州水石洞遺物散布地)2, 수석동 319-1 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남양주 수석동 공동묘지 남쪽의 경작지 일대에 해당한다. 수석동 유물산포지1과 연결되며 인근에 실내 야구 연습장이 있다. 현재 과밭으로 경작중인데 유물 산포 범위가 넓고 채집되는 유물의 시대폭도 다양하여 유적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인근 밭에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남양주수석동유물산포지(南楊州水石洞遺物散布地)3, 수석동 442, 산2-18, 산2-14일대

외미읍 마을은 음식장들이 백백하게 들어서 있고 원지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다. 마을길의 끝 부분에 있는 오동나무길 우측으로부터 산의 서남쪽으로 올라가는 일대에서 조선시대 토기편들이 발견된다.

•남양주수석동유물산포지(南楊州水石洞遺物散布地)4, 수석동 산2-2, 126-1,

128, 73, 243, 신2-19, 신2-26

이 유물산포지는 석실마을 북서편의 구릉 정상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석동토성 정상부로 올라가면서 좌측의 경작지에서 유물이 채집된다.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부터 조선시대 도자기편들까지 채집되었다.

•남양주수석동유물산포지(南楊州水石洞遺物散布地)5, 수석동 신2-2, 24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수석동 석실마을 북서편의 구릉 정상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수석동토성 정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데, 능선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난 소로를 이용하면 새로 조성된 알주조씨 묘역에 다닐 수 있다. 유물로는 토기편 1점이 채집되었다.

•미음나무터, 수석동 442

미음나무터는 수석동 외미음에 있었던 나무터로 남양주시와 하남시 미사리를 건너던 한강나무 중의 하나였다. 안동김씨 후손의 호를 따서 붙여진 나무로 한강의 나무터 중 광나무(廣津)에 비금가는 곳이었다. 나무터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현재는 콘크리트로 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현재 터에는 백색화강암 기단에 자연석 화강암에 "미음나무터"라 음각된 비가 세워져 있다.

•남양주수석동당집(南楊州水石洞), 수석동 신2-1

수석동 석실마을 우측길로 진행하면 조말생 신도비가 있고 그 북동쪽 비탈면에 당집과 당나무가 있다. 당집은 붉은색 불록으로 지었으며, 지붕은 기와로 올랐다. 문은 양쪽 여닫이 알루미늄 문과 한쪽으로 여는 문이 있으며, 킴은 되어 있지 않다. 현판이 있으며, '石室精舍'이라 적혀있다. 당집 서편으로 당나무가 있다.

•조말생묘(趙末生墓), 수석동 신2-2

조말생(1370~1447)은 조선 초기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근초(謹初)·평중(平仲), 호는 화산(華山)·사곡(社谷)으로 본관은 양주이다. 묘는 수석동 서원마을의 조말생 사당인 영모재 바로 뒷산에 있는데 동남향 하여 정면에 한강을 굽어보고 있다. 양주조씨 묘 중에는

제일 상부에 안장되어 있으며 부인 평산신씨와 합장묘이다. 본래 양주군 금촌면 금곡리 묘적산(현 금곡동 충유릉)에 있었으나 1900년 9월 이곳이 고종의 능으로 봉표되자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였다.

•조말생묘비(趙末生墓碑), 수석동 66-1, 향토유적제8호

이 묘비는 조말생 묘역에서 우측의 아래에 동횡하여 있다. 백색회암암에 용머리 모양을 한 거북머리를 갖추고 있는 귀부와 백색대리석의 비신 및 화장암으로 팔각지붕에 곧기화를 정교하게 조각한 속새석을 갖추고 있다. 원래 묘비는 1707년(숙종 33) 묘소 앞에 건립되었으며, 묘 이장 시 현재의 위치로 같이 옮겨 왔다. 비문은 10대손 종정대부 이조참의 조태동이 짓고, 10대손 가선대부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조태구가 쓰고, 10대손 통훈대부 해주목사 조태기가 전액을 하였다.

•석실서원지(石室書院址), 수석동 53

이 서원은 명자호란시 정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주장한 김상용과 김상헌을 기리기 위하여 1656년(효종 7) 후학들이 세운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서원 중 하나였다. 석실서원은 안동김씨의 절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곳으로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서 완전히 폐쇄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이 서원에는 김상용, 김상헌, 김수항, 민정중, 이단상, 김창집, 김창협, 김창휴, 김현행, 김이안, 김조순 등을 배향하였다. 서원 터임을 알 수 것으로 아직 우물과 석물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특히 서원 앞에 세워진 석실서원 묘장비는 현재 외북을 덕소5리 처실마을에 있다.

•조연손묘(趙連孫墓), 수석동 신2-2

조연손(1516(중종11)~1548(명종3))은 무궁(無繼)의 양자이다. 인조의 개비인 장림왕후의 4대조이며 자식이 없어서 원감 준수의 둘째 아들들을 양자로 맞이하였다. 생존 시의 잔적은 알 수 없으며, 정2품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안동권씨의 합장묘로 원형의 봉분과 우측에 신묘표가 있으며, 최근에 조성한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 조수견묘(趙壽堅墓), 수석동 산2-2

조수견(생몰년미상)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이천도호부사를 역임한 이선(李選)의 아들이다. 문종 때에 과천현감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종2품인 가신대부에 추증되었다. 묘는 조발생 묘 아래에 있는데, 원래 급곡동에 있었으나 1968년에 이장한 것이다. 부인 전주이씨와 합장묘로 원형의 봉분은 좌측에는 구묘표 우측에는 신묘표가 있고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 조방좌묘(趙邦佐墓), 수석동 산2-2

조방좌(1474(성종5)~?)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지는 함경이며 수견의 아들이다. 함봉을 역임하였으며, 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조수견의 옆에 있다. 원형의 봉분에 상석과 향로석, 동사석 1쌍이 있다.

• 조준수묘(趙俊秀墓), 수석동 산2-2

조준수(1500(연산군 6)~1585(선조 18))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증순(仲純)이며 방좌의 아들이다. 1543년(중종 35) 김경전(集慶殿) 참봉이 되었고 태종헌감, 전생서주부, 응인현령을 역임하였다. 묘는 조방좌의 묘 옆에 있는데 부인 홍주이씨와 합장묘이며, 원형봉분에 묘표와 상석, 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다. 묘표는 대리석으로 된 원수형의 비신과 화강암의 기대로 이루어졌으며, 비문은 조종렬이 지었고 갑인년(1614)에 건립하였다.

• 조존성묘(趙存性墓), 수석동 산2-2

조존성(1554~162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수초(守初), 호는 용호(龍湖), 절곡(鼎曲), 판서로 추증된 연손의 손자이며 존수의 아들이며 조람의 호사가 되었다. 성촌박지화의 문인이다. 묘는 조람 묘의 옆에 있으며 부인 용인이씨와 합장묘이다. 원형의 봉분에 묘표와 상석 향로석만이 있다.

• 조람묘(趙攀墓), 수석동 산2-2

조람(1533(중종28)~1564(명종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대유

(夫有)이며 원형 관수(俊秀)의 아들이자 20대 초반에 요절하였다. 의정부과관청에 추증되었으며, 관서 존칭은 그의 아들이다. 묘는 조방과의 아래에 있으며, 원형의 봉분이며 좌측에는 구묘표가 있고 우측에는 신묘표가 있으며,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묘표는 대리석재질의 원수형으로, 미문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렵다.

•조태동묘(趙泰東墓), 수석동 산2-2

조태동(생몰년미상)의 자는 청등(靑登)이며, 시헌부 대사헌을 역임했다. 묘는 조준성의 옆에 있으며, 완산이씨와 함강묘로 원형의 봉분에 묘표, 상석, 향로석이 있다. 묘표는 원수형의 비신과 기대보서 모두 화강암이다. 비문은 조영국이 짓고, 조영교가 글씨를 썼으며, 중정 기원후 3 부친년(1748)에 건립하였다.

•조태동신도비(趙泰東神道碑), 수석동 산2-2

이 신도비는 석실서원지 앞에 있는데 관각지붕 형태의 옥개석과 비신, 기대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화강암이다. 비문은 조충성이 짓고, 조충현이 글씨를 썼으며, 조영국이 번역을 하였다. 중정 기원후 3 병자년(1756)에 건립하였다.

•조무강묘(趙無疆墓), 수석동 산2-2

조무강(1488-1541)은, 한천위(漢川尉) 이근(李瑾)의 증손으로, 낭중의 딸인 숙혜옹주(肅惠翁主)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었다.

묘는 조말생원에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새로 조성된 양주조씨 묘역 남쪽의 연석 중간에 있다. 묘역은 원형의 봉분과 새로 조성된 묘표, 장명등, 상석, 향로석, 양주석, 양석 등의 석물이 있는데 분인석은 예전의 것이다.

•영모재(永慕齋), 수석동 70

영모재는 수석동 서원마을 조말생의 문중묘역 입구에 있다. 조선초기의 문신이자 시예가인 조말생을 비롯하여 한양조씨 선조들의 제사관리를 하기 위한 문중의 재각이다. 과거에 영모재는 현판만 걸어 놓은 보루의 여덟길 구조였는데 1998년 사당들 다시 개축하여 묘 아래 뒷배지붕형태로 길면3칸, 측면2칸으로 개축한 것이다.

•남양주수석동느티나무(南楊州水石洞)1 수석동 442, 경기남양주3

이 보호수는 한강을 건너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 축조된 수석동 토성의 유적이 남아있는 두 그루의 오래된 느티나무 중 한 그루이다.

높이 1.3m 부위에서 굵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중 한 줄기가 다시 네 갈래로 나뉘어 편이 올라가며 가지가 사뭇으로 크루 발달한 풍성한 우산형의 모습이다. 수령 200년, 높이 23m, 흉고둘레 6.4m이다.

•남양주수석동느티나무(南楊州水石洞)2 수석동 442, 경기남양주7

이 보호수는 바로 옆의 경기-남양주-3호와 함께 한강을 향해 서 있다. 수목이 전체적으로 45도 기울어져서 수고와 흉고둘레에 비해 수관폭이 넓게 퍼져있다. 수령 190년, 높이 18m, 흉고둘레 4.2m이다.

•남양주수석동은행나무(南楊州水石洞) 수석동 선7-1, 경기남양주2

이 은행나무는 수석동의 외이름마을로 들어와 강변을 따라 가던 한강변의 높은 언덕에 한강을 바라보고 서있다. 이 마을에 살던 일양 박씨의 선조가 심었다고 전하는 외이름마을의 청자목이다. 양나무로 한 해 평균 2~3가지 정도의 은행이 열리나 많이 살아 별도로 수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근의 건축공사로 선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뿌리의 노출이 심각한 상태이다.

•수석동토성(水石洞土城), 수석동 선2-2, 경기도기념물제94호

이 토성은 '토미개'라고 부르는데 한강에 연한 해발 82.3m의 구릉 정상부에 있다. 이곳에 서면 서쪽으로 아차산, 남쪽으로 이성산과 남한산, 동쪽으로 천마산, 북쪽으로 수락산, 그리고 마을 앞의 미송나무가 한눈에 조망된다. 1942년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들레는 약 70칸이며 외측사면의 높이는 약 1칸 반이며 정상부는 대략 사자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77년에 간행된 『전국문화유적총람』에는 성 터라기보다는 봉화를 올렸던 지리로 보고 있으며 남아 있는 성지의 면적은 300평 정도이며, 높이는 4m, 둘레는 126m 정도라고 하였다.

252 남양주시의 권리지명

토성의 남쪽에는 비송나무가 있었고 남동쪽 구릉 앞단부에는 1961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수석리 선사유적이 있다.

•남양주수석동선사주거지(南楊州水石洞先史住居地), 수석동 신2-2

수석동 남한강변의 석삼마을 서편 구릉 안에 형성된 선사취락유적이 있다. 당시 사람들이 강바람을 강변으로 받지 않기 위해 계곡 안쪽의 경사면에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주거지는 총6기가 발굴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구릉 사면을 1'자 형태로 공동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권영철노동대토기유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상파수를 갖춘 석구호유도 있다. 일부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토기편도 발견되었으나 주거지의 중심유물은 청동기시대의 것이다. 강물을 कै브리 부분적인 란안 만든 석부유와 마제석착유도 있다.

3) 지금동(芝鎭洞)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미금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지사리(芝沙里)의 '지(芝)'자와 금교리(錦橋里)의 '금(鎭)'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미금면에 속했다가 1989년 미금시로 승격되면서, 지금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갈웃내

싸리나무와 남나무가 많아서 숲을 이루었던 지역이다. 옛날 이상제가 커다란 싸리나무를 베어 대들보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금교리(錦橋里)

지금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의 이름이다. 30년초 중입 '금어'라고 불리는 조그만 개울에 있던 다리할 '금교'라고 하였는데, 이 다리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정했다고 한다. 안말, 권내말, 주악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까치내

지금동에 있던 활래티의 이름이다. 따뜻한 샘물이 서서사질 솟아나서 동네 아낙들이 활래티로 이용하였다. 이 샘물 속의 비꾸라지를 잡아먹기 위해 까치들이 많이 물러들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분투골 [안말]

금교 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부토기 닳던 마을이므로 이렇게 부른다고 전한다.

•새마을

지금동에 있던 공동묘지로 잡기가 많다고 하여 짐짓기를 두려워하던 곳이었다. 자식 없는 할머니가 돌담집을 짓고 살다가 죽으면서 잡귀들을 몰아갔다고 한다. 그후에 짐들이 한두 해씩 멍기 마을이 형성되자 새마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외판집계

홍한섬유(주)가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평산선씨의 신장동이란 사람이 녹동으로 장가를 들었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난 동쪽이 아닌 곳에 새관을 나뉘어 자식을 얻을 수 없고, 동쪽으로 두면 두 남매를 낳겠다고 하여 이사한 곳이라 전한다. 이사했을 때 이곳에 길 한 개 밖에 없어 외판집계로 붙였다고 한다.

•작은막축골

지금동에 있는 자연마을의 이름이다. 큰막축골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서 자식들을 분가시킬 때 이곳에 집을 마련하여 거주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청지말 [안산(安山), 지막(芝幕)]

지사 서쪽에 있는 진건면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의 이름이다. 경자 나무 또는 청지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금곡동 홍풍의 안산이 된다고 해서 안산이라고도 부른다. 미키막 마을이라고 해서 지막으로 부르기도 한다.

•길백낭독

배양리와 지금동의 경계를 이루는 특의 이름이다. 조선 후기에 팔부지를 논으로 개간하면서 묘의 배방을 길백낭을 들어 쌓았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큰악죽골

지금동에 있는 자연마을의 이름이다. 마을의 모양이 삼태기처럼 아예러하며 수십만 평의 앞밭이 있어서 곡창지대로 풍요로움을 과시하던 마을이었다. 마을에 있는 아홉 개의 바위가 동구릉을 향해 놓여 있어 동구릉을 수호하는 마귀라고 전한다.

•남양주지금동유물산포지(南楊州芝鏡洞遺物散布地)1, 지금동 330-2

이 유물산포지는 동편으로 왕숙원변의 강변 준적평지가 펼쳐지고 주변에는 해발 100m미만의 나지막한 구릉이 이어지고 있다. 일기 상으로 이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다. 이 일대에서는 석주가 밀집되고 간간히 선사시대 유물이 채집되었다.

•남양주지금동유물산포지(南楊州芝鏡洞遺物散布地)2, 이패동 715-5, 신85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남양주종합운동장 진입 도로를 따라 약 500m 진행하면 나오는 좌측 구릉의 발경각지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삼국시대 백제계 토기편들과 조선시대 도자기편들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다수 발견된다.

•남양주지금동느티나무(南楊州芝鏡洞), 지금동 340-19

이 느티나무는 밀양 박씨 삼설촌인 지금동 지세필마을의 경자목이다. 밀양 박씨 전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며 단오할 무렵이면 그대를 매어타고 놀기도 했던 나무라고 한다. 줄기는 편가지 없이 올라와 가지갈 시뻐므로 고부 뿔은 원형의 아담한 형태이다. 수령 420년, 높이 10m, 흉고둘레 3.5m이다.

15. 도농동(陶農洞)

이 지역의 대부분은 조선시대부터 한말까지 양주군 미음면에 속해 있었는데, 1914년 4월1일 오농리의 금교리, 가재동의 각 일부와 구지면의 인창리 일부를 병합하여 도농리라 하고 미금면에 소속되었다. 1989년 1월1일 미금시로 승격되면서 도농동으로 바뀌었고 1995년 1월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병합되어 남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이에 소속되었다.

•넙밭

중말 남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도농(陶農) (도롱, 홍문인)

본래 양주군 미음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합에 따라 금교리, 가재동의 각 일부와 구지면의 인창리 일부를 병합하여 도농리라 해서 미금면에 편입되었다가, 1980년 남양주군에 편입되었다. 길그릇을 구웠던 마을이어서 '도농' 또는 '도롱'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조선 중엽 남양홍씨가 거주하였는데, 도적이 너무 많아 철(鐵)로 울타리를 만들어 새웠던 연유로 '쇠마'라고 하다가 '도농'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약 300년전 증친입씨의 증친각이 지금까지 서 있다 하여 홍문인이라고도 불린다.

•돈대마을

빙그레공장이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1925년 태홍수로 마을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새말

중말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미금중앙교회 인근의 마을로 새로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아말

새말과 중말 사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주익거리

도농역에서 도농사거리까지의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옛날 주막들이 있었던 거리에서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중말 [중촌(中村)]

미금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약 300년전 언뫼이 있어 양어를 하였다 하여 양어밭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아밭이라 칭하며 도농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하여 중밭이라 한다.

남양주시의 전래지명

초판발행 2009년 12월

재판발행 2011년 4월

발행이용복

편자 남양주문화원 향토사연구회

인쇄 다올

발행처 남양주문화원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4-5, 2층

<http://www.nyj.or.kr/>

☎ (031) 592-0667

FAX (031) 592-0668

이 책은 2011년도 남양주시 지원을 받아 재판발행하였습니다. 비매품.

본문의 내용은 저자와 남양주문화원의 공동 승낙에 의한 사전 지면 허락없이
저작권에 의한 내용의 일부 및 전체에 대한 전재(轉載)를 할 수 없음

